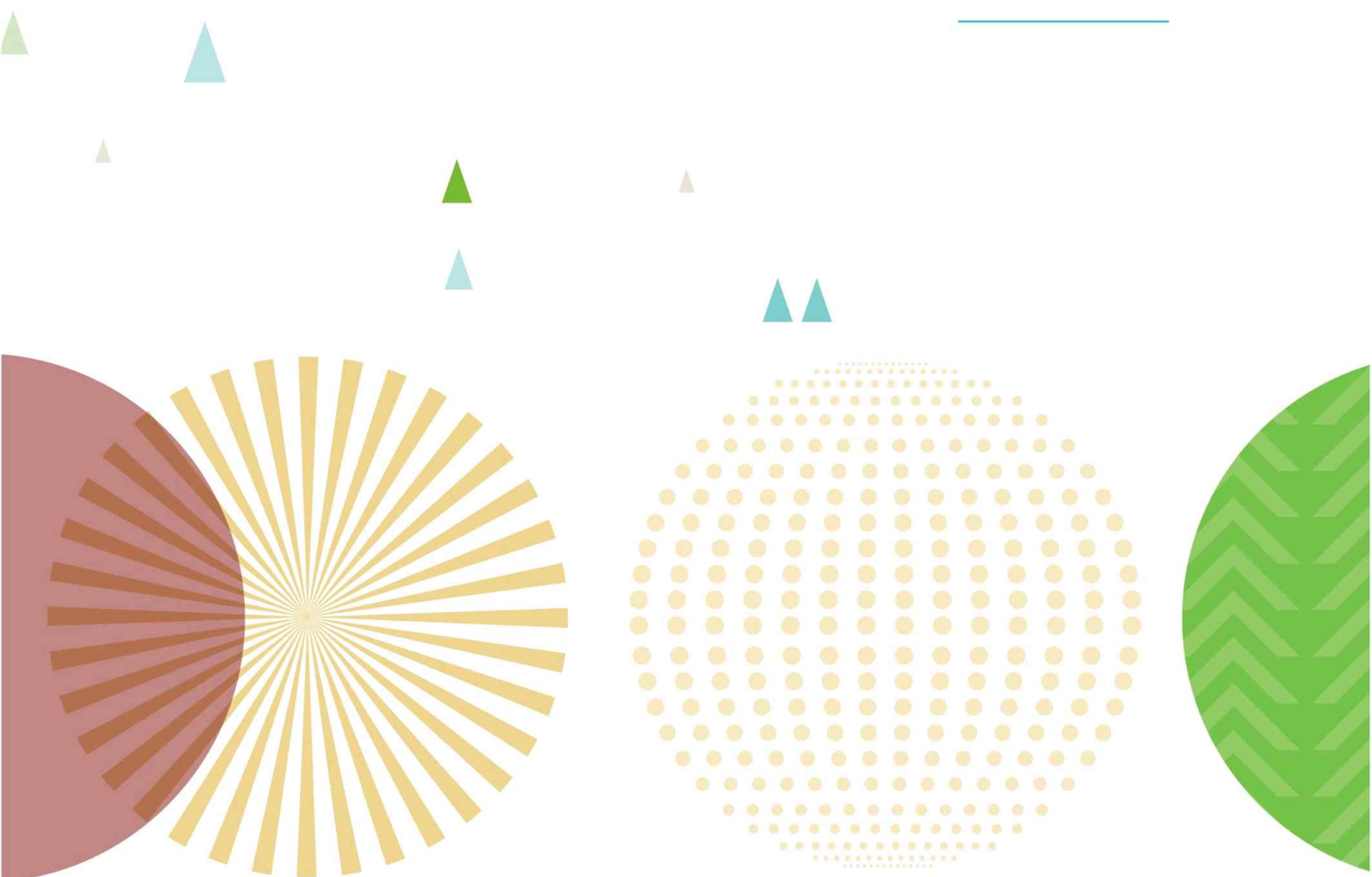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0984-01

2018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차례 | C | O | N | T | E | N | T | S |

I 2018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평가 1

- 1. 문화관광축제 현황 3
- 2. 문화관광축제 평가 7

II 지자체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종합 13

- 1. 개 요 5
 - (1) 조사개요 • 15
 - (2) 축제 설문 • 15
- 2. 분석대상 및 평가항목 81
 - (1) 종합분석 대상축제 • 18
 - (2) 대상축제 유형 구분 • 19
 - (3) 평가항목 • 21
 - (4) 분석방법 • 22
- 3. 방문객 만족도 결과 종합 32
 - (1) 연도별 만족도 변화 • 23
 - (2) 항목별 만족도 • 24
 - (3) 축제 등급별 만족도 • 25
 - (4) 축제 유형별 만족도 • 30
 - (5) 축제별 만족도 비교 • 35
- 4. 방문객 소비지출 결과 종합 44
 - (1) 전제 • 40
 - (2) 연도별 소비지출 변화 • 40
 - (3) 항목별 소비지출 • 41
 - (4)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 42
 - (5)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 45
 - (6) 축제별 소비지출 비교 • 49
- 5. 외지관광객 비율 35
- 6.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45



부산광역시

- 1. 부산광안리어방축제75
- 2. 부산동래읍성역사축제85

대구광역시

- 3.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95

인천광역시

- 4.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06

광주광역시

- 5. 광주추억의충장축제16

대전광역시

- 6. 대전효문화뿌리축제26

경기도

- 7. 이천쌀문화축제36
- 8.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46
- 9. 수원화성문화제56
- 10. 시흥갯골축제66
- 11. 여주오곡나루축제76

강원도

- 12. 화천산천어축제86
- 13. 평창효석문화제96
- 14.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07
- 15. 춘천국제마임축제17

충청북도

- 16. 괴산고추축제27
- 17. 음성품바축제37

충청남도

- 18. 강경젓갈축제47
- 19. 부여서동연꽃축제57
- 20. 서천한산모시문화제67
- 21. 서산해미읍성축제77

전라북도

- 22. 무주반딧불축제87
- 23. 순창장류축제97
- 24. 완주와일드푸드축제08
- 25. 고창모양성제18
- 26. 임실N치즈축제28

전라남도

- 27. 강진청자축제38
- 28.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48
- 29. 담양대나무축제58
- 30. 보성다향대축제68
- 31. 정남진장홍물축제78
- 32. 영암왕인문화축제88
- 33. 목포항구축제98

경상북도

- 34. 문경전통찻사발축제09
 - 35. 봉화은어축제19
 - 36. 고령대가야체험축제29
-

경상남도

37. 산청한방약초축제	39
38. 통영한산대첩축제	49
39. 밀양아리랑축제	59

제주도

40. 제주들불축제	69
------------------	----

IV 전문가현장평가 축제별 결과

101

부산광역시

1. 광안리어방축제	99
2. 동래읍성역사축제	101

대구광역시

3.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101
----------------------	-----

인천광역시

4.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111
---------------------	-----

광주광역시

5. 광주추억의충장축제	111
--------------------	-----

대전광역시

6. 대전효문화뿌리축제	111
--------------------	-----

경기도

7. 이천쌀문화축제	111
8.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111

9. 수원화성문화제	11
10. 시흥갯골축제	18
11. 여주오곡나루축제	142

강원도

12.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51
13. 평창효석문화제	19
14.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31
15. 춘천마임축제	17

충청북도

16. 괴산고추축제	11
17. 음성품바축제	15

충청남도

18. 논산강경갯길축제	169
19. 부여서동연꽃축제	173
20. 서천한산모시문화제	7
21. 서산해미읍성축제	180

전라북도

22. 무주반딧불축제	11
23. 순창장류축제	18
24. 완주와일드푸드축제	9
25. 고창모양성제	17
26. 임실N치즈축제	11

전라남도

27.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12
28. 강진청자축제	19
29. 담양대나무축제	11
30. 정남진장흥물축제	218

31. 보성다향대축제	2
32. 영암왕인문화축제	226
33. 목포항구축제	23

경상북도

34. 문경전통찻사발축제	3
35. 봉화은어축제	23
36. 고령대가야체험축제	2

경상남도

37. 산청한방약초축제	245
38. 통영한산대첩축제	249
39. 밀양아리랑대축제	253

제주도

40. 제주들불축제	25
------------------	----

2018 문화관광축제 >>>

I

2018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평가



K o r e a C u l t u r e & T o u r i s m I n s t i t u t e

1

문화관광축제 현황

(1) 연도별 축제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축제의 선정방법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축제를 추천하면 관광·축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축제 프로그램 등 콘텐츠, 축제 운영,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표 1> 연도별 문화관광축제 선정 현황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개수	21	25	30	29	30	37	45	52	52	56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수	57	44	44	45	42	40	44	43	41	40

(2) 2018년 축제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문화관광축제로 40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대표축제 2개,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1개임
- * 당초 41개를 선정하였으나, 대표축제로 선정된 가평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 내부 사정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포기하고 지원 예산 반납함
- 최근 문화관광축제의 경향은 관광객이 단순히 보는 관광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관광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지역별 축제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축제를 기획하여 축제의 본질과 지역전통문화의 주체성 유지에 바탕을 두고 관광객 참여형 축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축제의 경쟁력 및 자립성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축제의 평가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 간접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계인을 매혹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표 2> 2018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부산 (2)	유망	광안리어방축제	4.27-4.29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 어방그물끌기 한마당, 경상좌수사행렬, 어방민속마을, 진두어화, 수문장교대식 등
	유망	동래읍성역사축제	10.12-10.14	동래문화회관, 읍성광장, 온천장 일원	• 동래부사행차 길놀이, 동래성전 투실경 뮤지컬, 1952년 조선 동래를 만나다(관문체험) 등
대구 (1)	유망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5.3-5.7	대구광역시 중구 약령시(약전골목) 일원	• 근대문화 골목투어, 정성당 나누기, 집포박물관 스탬프투어, 달빛 야경투어 등
인천 (1)	유망	인천웬타포트 음악축제	8.10-8.12	송도 달빛축제공원	• 웬타포트 락 페스티벌, 웬타 슈퍼루키, 라이브 딜리버리, 라이브 클럽파티 등
광주 (1)	우수	추억의 충장축제	10.5-10.9	광주 동구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일원	• 추억의 서커스, 추억&토크 콘서트, 충장 가을 음악회, 세대공감 콘서트, 충장 퍼레이드 등
대전 (1)	유망	효문화 뿌리축제	10.5-10.7	효! 월드 뿌리공원 및 원도심 일원	• 전국 문중 '영웅'입장퍼레이드, 10주년 기념 전국 문중 화합의 비빔밥, 문중문화 체험관 등
경기 (5)	최우수	이천쌀문화축제	10.17-10.21	이천시 설봉공원	• 손모내기, 마당질(탈곡), 이천쌀밥 맛보기, 벼생육·전시, 짚공예, 농경유물전 등
	우수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10.2-10.7	안성맞춤랜드, 안성시내 일원	• 바우덕이추모제, 바우덕이 주재 공연, 남사당 공연, 전통 연희 공연, 해외민속공연단 초청공연 등
	유망	수원화성문화제	10.5-10.7	화성행궁, 행궁광장, 장안공원 연무대 등	• 화령전 고유별다례, 전야경축타종, 낙성연, 해경궁 흥씨 진찬연, 친림 과거시험 무과재현 등
	유망	시흥갯골축제	9.14-9.16	시흥갯골생태공원 일원	• 갯골패밀리런, 갯골놀이터, 소금놀이터, 갈대놀이터, 나무와 풀놀이터 등
	유망	여주오곡나루 축제	10.26-10.28	여주 신록사관광지 일원	• 가마술 여주쌀·오곡 비빔밥 먹기, 군고구마 기네스, 나루 굿 놀이(GOOD7) 등
강원 (4)	대표	화천 산천어 축제	1.6~1.28	화천군 화천천 일원	• 산천어 얼음낚시, 밤낚시, 수상 낚시, 맨손잡기, 얼음썰매 등

<표 계속>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강원 (4)	최우수	평창효석문화제	9.1-9.9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 메밀음식체험장, 지역우수농특 산물, 봉평고향사진전, 거리시화전, 예술놀이터, 소설인물체험 등
	우수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9.11-9.16	따뚜공연장 일원, 원일로, 문화의 거리, 원주시 일대	• 시민자율참가(원주시·전국 시민 동아리 및 문화예술단체) 120m 의 초대형 퍼레이드 무대, 군부 대 참여 등
	유망	춘천국제마임축제	5.20-5.27	수변공원, 중앙로 및 춘천시 일원	• 사전 거리 퍼포먼스, 컬러링로 드&비치로드, 도심 물장난, 주 제공연, 아프리카 댄스 난장 등
충북 (2)	유망	괴산고추축제	8.30-9.2	괴산군청앞 광장 및 동진천 일원	• 세계고추전시회, 괴산고추품평 회, 괴산고추홍보관, 고추속체험 개폐막식 등
	유망	음성품바축제	5.23-5.27	음성 설성공원 및 시가지, 복개천 일원	• 전국 사할린동포 한마음대회, 관광객과 함께하는 품바 공연, 품바래퍼경연대회 등
충남 (4)	우수	강경젓갈축제	10.10-10.14	강경금강둔치, 옥녀봉 일원 등	• 만선배맞이, 강경포구 전국마당 극 경연대회, 강경포구 플래시몹, 강경포구 버스킹 등
	우수	부여서동연꽃축제	7.6-7.15	부여서동공원 일원(궁남지)	• 연꽃이 국화인 7개국의 문화예 술공연, 서동요 창작 동요 부르 기 대회 등
	유망	서산해미읍성 축제	10.12-10.14	서산시 해미면 해미읍성 일원	• 태종대왕 행력 및 강무 재현, 수 문장교대식, 성벽 순라행렬, 서 산 국악제, 야간 문화공연 등
	유망	서천한산모시문화제	6.22-6.25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관 일원	• 미니베틀 한산모시짜기, 전통모 시학교, 한산모시 모시퍼레이드, 한산모시 베틀 쇼 등
전북 (5)	대표	무주반딧불축제	9.1-9.9	무주군일원	• 반딧불이 신비탐사, 반디나라관, 남대천생명, 반디별 소풍, 전국 환경예술대전 등
	유망	순창장류축제	10.19-10.21	순창전통고추장민속 마을	• 순창고추장 요리경연, 2018인분 고추장 비빔밥 만들기, 고추장 매우맛 대회
	유망	완주와일드푸드축제	10.5-10.7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 공식행사, 와일드마당(감자삼국, 계란껍질밥, 밀떡구이 등), 향수 마당(추억의 달고나) 등
	유망	고창모양성제	10.17-10.21	고창읍성(모양성) 및 읍 시가지 일원	• 개막출정식(거리퍼레이드), 축성 참여 고을기 올림, 개막퍼포먼 스, 불꽃놀이, 축하공연 등
	유망	임실N치즈축제	10.6-10.9	임철치즈테마파크· 치즈마을 일원	• 축하공연, 지역주민 참여공연, 초청공연, 단는치즈, 전국 어린 이 치즈요리 경연대회 등

<표 계속>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전남 (7)	최우수	진도신비의 바닷길축제	5.16-5.19	고군면 회동리 및 의신면 모도리 일원	• 뽕할머니 제례, 신비의 바닷길 체험 및 만남 한마당, 뽕할머니 소망띠 잇기 등
	최우수	강진청자축제	7.28-8.3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일원	• 무명도공 기원제, 개막퍼포먼스, 흙을 밟고 던지고 적시고, 청자야 반갑다! 등
	최우수	담양대나무축제	5.2-5.7	죽녹원, 관방제림 일원	• 대숲향기 힐링체험, 땃 고을 수상체험, 땃 고을 문화체험, 대숲천년 천년 담양 등
	우수	정남진장흥물축제	7.27-8.2	장흥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 지상최대의 물사움, 맨손 물고기잡기, 수중 줄다리기 등
	우수	보성다향대축제	5.18-5.22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 개막달빛차회, 월인천강차자리 오픈, 또르르광장놀이터, 보성차마당, 책과차생활 등
	유망	영암왕인문화축제	4.5-4.8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역사공원, 도기박물관 등	•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 왕인박사 추모 한시백일장, 왕인의 길 체험 등
	유망	목포항구축제	10.5-10.7	목포항 및 삼학도 일원	• 박경리 '파시'연출극, 어생 그랜드 세일, 선상 파시경매, 파시 수랏간, 어물전 난장 등
경북 (3)	최우수	문경전통찻사발 축제	4.24-5.7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문경읍 온천지구 등	• 선조사기장추모헌다레, 개막식, 시상식, 문경전통도자기 명품전,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등
	우수	봉화은어축제	7.28-8.4	봉화읍 체육공원, 내성천일원	• 전국반두잡이 어신선발대회, 전국 맨손잡이 팀대항전, 내성천 등등콘서트 등
	유망	고령대가야 체험축제	4.12-4.15	대가야박물관 등 대가야읍 일원	• 가야문화권협의회 시·군 홍보부스 및 가야 주제관 운영, '가야의 통합' 거리행진 등
경남 (3)	최우수	산청한방약초축제	9.28-10.9	산청IC입구 축제광장 및 동의보감촌	• 한방진료 무료체험, 보약 공진당 만들기 체험, 재미있는 어린이 한의학 체험 등
	우수	통영한산대첩축제	8.10-8.14	문화마당 및 강구안 일원	• 군점 및 이순신장군 행렬, 한산대첩 재현, 공중 한산대전, 고유제 등
	유망	밀양아리랑대축제*	5.17-5.20	영남루 및 밀양강변 일원	• 밀양강 오딧세이, 국민대통합아리랑, 역사맞이 거리 퍼레이드, 아리랑 주제관 등
제주 (1)	우수	제주들불축제	3.1-3.4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	• 세계문화교류 특별공연, 개·폐막식, 화심대행진, 희망달집 태우기, 주제공연 등

2

문화관광축제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1998년부터 추진 된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지원 제도는 지역축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었으며, 우수 지역축제가 세계적 축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한 바 있음
- 세계적 축제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전환기를 준비하고자 함

■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18. 1월 ~ 12월
- 평가대상 : 2018년 문화관광축제 40개 및 문화관광육성축제 40개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2개	7개	10개	21개

- 평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 평가내용 : 전문가 현장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소비자 온라인평가, 지자체 자체 성과평가, 종합평가

■ 2018년도 추진(개선) 방향

- 평가지표 합리성 제고
 -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 구성을 정리하여 체계화 하고, 일부 세부항목지표를 통합하여 심사에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상세 설명을 추가하여 평가를 용이하게 함
- 평가방법 개선
 - 기존의 현장평가를 현장모니터링 방식으로 개선하여 전문가의 현장모니터링 의견을 지자체에 전달, 축제 기획자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여 현장평가 점수화함

(2) 2018년 평가 내용

① 전문가 현장모니터링

■ 평가위원단 구성

○ 전문가 평가단

- 평가위원 소속 및 축제 활동이력 등을 고려(상피제 적용)하여 문체부 및 한국관광공사에서 평가대상 축제를 배정함(상·하반기 구분)
- 각 축제별로 민간전문가 2인, 문화체육관광부 1인 등 총 3명 배정

■ 평가 지표 및 점수부여 방법

○ 평가지표

-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45%), 축제의 운영(20%), 축제 발전역량(30%), 축제의 효과(5%)

○ 각 평가위원은 개별적으로 축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송부, 반론 의견을 회신 받아 각 평가위원은 독립적으로 최종 현장평가 점수를 부여함

- 동일 축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편차가 10점 이상일 경우, 평가 위원간 협의를 거쳐 편차를 10점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은 점수 부여 시 등급별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 권장하며 이 때 총점 기준, 감점사항은 제외함

현재 등급	상	중	하
대표/최우수축제	100 ~ 93	91 ~ 84	82 ~ 69
우수축제	96 ~ 89	87 ~ 80	78 ~ 65
유망/육성축제	91 ~ 84	82 ~ 75	73 ~ 60

■ 현장 모니터링 방식 : 2일 이상 체류 평가

○ 축제 지역에서 1박 이상, 최소 2일 이상(축제장 내 총 8시간 이상) 체류하며, 대표(주제) 프로그램 및 주간+야간 프로그램을 고루 체험 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함

- 일반 소비자 관점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기간 중 일정시간 동안은 지자체 동행 없이 축제장 암행 관람을 권장(예 : 1일차는 암행, 2일차는 지자체 협조)

○ 각 평가위원은 각자 전문지식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이후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함

- 축제 개선에 대한 제안 등 모니터링 보고서는 축제 전반에 대하여 살핀 후 정리된 의견으로 작성·제출하며, 가급적 현장에서 개인 단위의 즉흥적인 지적이나 개선 요구는 지양함

■ 평가결과

-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최종 점수에 일부 반영함

② 소비자 평가

■ 개요

- 목적
 - － 문화관광축제 대상 관람객 관점에서 축제의 효용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평가요소 필요(2016년 평가부터 신규 도입)
- 대상 및 시기
 - － 대상 : 2018년 문화관광축제 40개 및 문화관광육성축제 40개
 - － 시기 : 연중(축제기간 중 또는 축제기간 이후)

■ 측정방법

- 방법
 - － 축제 참가 소비자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인지 조사 : 전국 만 20세 이상 1개 이상 축제 참가자
 - 만족도 조사 : 만 20세 이상 각 축제 참가자
- 유효표본수
 - － 전국 지역별 비례할당 (등급별 차등 할당)
- 조사내용
 - － 축제별 인지도(브랜드파워) 및 축제 만족도(축제 사전 및 현장안내, 프로그램 운영, 음식 및 기념품, 편의시설, 연계 관광지 등)

③ 지자체 자체성과평가

■ 방문객 만족도 조사 및 경제효과(직접효과) 분석

- 방문객 만족도 조사
 - 축제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 축제별 설문조사 시 공통적으로 조사할 만족도 평가항목(10개 항목)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결과도 별도 분리하여 산출함
- 경제 직접효과 분석
 - 지역주민과 지역외 주민의 총 지출액을 구분하여 직접 경제효과를 분석함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미인정)

■ 방문객 수 집계

- 방문객 집계 지침에 따라 최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출함
 - 자체 성과지표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지자체 자체 성과지표 설정

- 각 축제별 특산물 판매실적, 브랜드 인지도, 관광객 수, 경제효과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함(2개 내외)
 -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 달성도로 평가하며, 성과지표 및 지표 측정계획, 목표치 설정 근거 등 적정성 검토 후 최종 확정함

④ 종합평가

■ 종합평가

- '18년도 성과보고서 및 '19년도 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하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시함

■ 자체성과지표 측정 결과 반영

- 각 축제별 기획 목적 및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한 자체 성과지표 결과(특산물 판매실적, 브랜드 인지도, 관광객 수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한 결과치)를 최종 선정 시 반영함

(3) 2018년 문화관광축제 평가대상

등급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부산(2)				광안리어방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대구(1)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인천(1)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광주(1)			추억의충장축제	
대전(1)				대전효문화뿌리축제
경기(5)		이천쌀문화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수원화성문화축제 시흥갯골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강원(4)	화천산천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춘천국제마임축제
충북(2)				괴산고추축제 음성품바축제
충남(4)			강경젓갈축제 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축제
전북(5)	무주반딧불축제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고창모양성제 임실N치즈축제
전남(7)		강진청자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목포항구축제
경북(3)		문경전통찐사발축제	봉화은어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경남(3)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밀양아리랑축제
제주(1)			제주들불축제	
계(40)	2개	7개	10개	21개

2018 문화관광축제 >>>

II

지자체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종합



K o r e a C u l t u r e & T o u r i s m I n s t i t u t e

1

개요

(1) 조사목적

- 과학적인 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2018년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와 소비지출 규모를 조사하여 해당 축제를 진단한 후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 발전을 도모함
- 축제별로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및 분석 실시

(2) 조사방법

■ 조사기관

- 축제 주관기관이 선정한 전문기관 위촉 수행

■ 조사시기

- 축제 전체기간(토·일요일 포함)

■ 조사대상자

- 지역주민과 외래 관광객(타 지역거주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 공통조사항목

- 총 22개 항목(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
 - 방문객 만족도(10개) : 축제의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살거리, 사전홍보 등
 - 방문객의 소비지출(6개) :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등
 - 방문객의 인구통계적 사항(6개) : 방문목적, 체류기간, 숙박여부, 재방문 등

■ 유효표본 : 200명 이상

- 축제 순수방문 목적객만 표본 대상에 포함
- 축제 전체기간 일자별 균일하게 무작위적으로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응답방법

- 7단계 측정(매우 그렇다 ~ 전혀 아니다)

■ 세부 설문내용

구분	항목 수	주요 내용
방문객 만족도	10개	• 축제의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살거리, 사전홍보 등
방문객 비용지출	6개	•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기타 일반사항	7개	• 성별, 연령, 방문목적, 체류기간, 숙박여부, 재방문, 거주지

(3) 조사 및 분석 시 주의사항

- 설문기간은 축제 전체기간에 걸쳐 같은 비율로 설문지를 받아야 하고 무작위적이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함
- 설문에 응한 방문객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게 된 주된 동기가 축제를 보러온 경우가 아니면 설문조사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공통조사항목 이외 자체적으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 경우, 공통조사항목(10개)에 대한 결과 값 구분하여 분석함

(4) 축제 설문



문화체육관광부

안녕하세요? 당 축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변 및 정보는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쓰입니다.

I.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축제가 재미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축제 관련 프로그램이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축제 관련 먹거리가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축제 관련 살거리가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5. 축제 관련 사전 홍보가 잘 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6. 축제장 내 안내·해설이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7.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게 됐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8. 축제장 시설이 안전해 보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9. 축제장의 접근성 및 주차장이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10. 재방문하거나 타인에게 방문을 유도하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II. 소비지출	아래 금액은 본인 포함하여 (명)이 지출한 총액입니다.	
교 통 비	_____원	축제 개최지역에서 지출한 주유비, 주차료,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등
숙 박 비	_____원	민박, 호텔, 모텔, 펜션, 콘도 등
식음료비	_____원	축제 개최지역에서 지출한 음식값, 음료비
유 흥 비	_____원	축제장 밖에서 지출한 관람료, 노래방, 술값 등
쇼 핑 비	_____원	축제 기념품, 농특산물 구입비 등
기 타	_____원	체험비, 입장료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비용

III. 일반사항			
성 별	남 <input type="checkbox"/> 녀 <input type="checkbox"/>	연 령	_____세
방문목적	축제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왔다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체류기간	지금까지 축제장에 머문 시간 (머물 시간 포함하여 _____시간)		
숙박여부	당일 <input type="checkbox"/> 1박 2일 <input type="checkbox"/> 2박 3일 <input type="checkbox"/> 3박 4일 <input type="checkbox"/>		
재 방 문	올해 첫 방문 <input type="checkbox"/> 이전에도 방문했음 (총 _____회)		
거 주 지	지역주민 <input type="checkbox"/> 외지인일 경우 (_____시·도 _____시·군)		

2

분석대상 및 평가항목

(1) 종합분석 대상축제

- 종합분석은 크게 방문객 만족도와 방문객 소비지출로 구분되며, 2018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모든 축제(40개)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함

■ 방문객 만족도 분석 대상 : 40개

- 2018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40개 축제 모두 분석에 반영함

■ 방문객 소비지출 분석 대상 : 40개

- 2018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40개 축제 모두 분석에 반영함

[종합분석 대상축제 (가나다 순)]

만족도 (40개)	소비지출 (40개)
강경젓갈축제, 강진청자축제, 고령대가야축제, 고창모양성제, 광안리어방축제, 괴산고추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목포항구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밀양아리랑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봉화은어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서동연꽃축제, 수원화성문화축제, 순창장류축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음성품바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임실N치즈축제, 정남진장홍물축제, 제주들불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추억의충장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축제, 화천산천어축제	강경젓갈축제, 강진청자축제, 고령대가야축제, 고창모양성제, 광안리어방축제, 괴산고추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목포항구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밀양아리랑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봉화은어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서동연꽃축제, 수원화성문화축제, 순창장류축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음성품바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임실N치즈축제, 정남진장홍물축제, 제주들불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추억의충장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축제, 화천산천어축제

(2) 대상축제 유형 구분

- 2018년 문화관광축제는 전통역사형, 문화예술형, 지역특산물형, 자연생태형, 주민화합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7년에 비해 전통역사형, 문화예술형 축제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지역특산물형, 자연생태형, 주민참여형 축제의 비율은 증가함

■ 전통역사 유형 : 10개

- 강진청자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고창모양성제, 광안리어방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문경전통찾사발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해미읍성축제

■ 문화예술 유형 : 10개

- 밀양아리랑대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 음성품바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광주추억의충장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평창효석문화제

■ 지역특산물 유형 : 11개

- 강경젓갈축제, 괴산고추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순창장류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임실N치즈축제, 서천한산모시문화제

■ 자연생태 유형 : 6개

- 봉화은어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시흥갯골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화천산천어축제

■ 주민화합 유형 : 3개

- 목포항구축제, 정남진장홍물축제, 제주들불축제

<유형별 축제 현황>

구분	전통역사형	문화예술형	지역특산물형	자연생태형	주민화합형	계
2018년	10개 (25.0%)	10개 (25.0%)	11개 (27.5%)	6개 (15.0%)	3개 (7.5%)	40개 (100.0%)
2017년	12개 (29.3%)	11개 (26.8%)	9개 (22.0%)	6개 (14.6%)	3개 (7.3%)	41개 (100.0%)

[2018 문화관광축제 유형별 현황]

축제명칭	유효표본(매)	유형	축제명칭	유효표본(매)	유형
강경젓갈축제	231	지역특산물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축제	308	문화예술
강진청자축제	391	전통역사	여주오곡나루축제*	273	지역특산물
고령대가야축제	332	전통역사	영암왕인문화축제	513	문화예술
고창모양성제	207	전통역사	완주와일드푸드축제	210	지역특산물
광안리어방축제	243	전통역사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381	문화예술
괴산고추축제	354	지역특산물	음성품바축제*	276	문화예술
담양대나무축제	512	지역특산물	이천쌀문화축제	330	지역특산물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264	전통역사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329	문화예술
대전효문화뿌리축제	228	전통역사	임실N치즈축제	210	지역특산물
동래읍성역사축제*	336	전통역사	정남진장흥물축제	555	주민화합
목포항구축제*	284	주민화합	제주들불축제	410	주민화합
무주반딧불축제	208	자연생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467	자연생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376	전통역사	추억의충장축제	404	문화예술
밀양아리랑대축제	—	문화예술	춘천국제마임축제	490	문화예술
보성다향대축제	512	지역특산물	통영한산대첩축제	594	전통역사
봉화은어축제	—	자연생태	평창효석문화제	412	문화예술
산청한방약초축제	320	지역특산물	한산모시문화제	250	지역특산물
서동연꽃축제	—	자연생태	해미읍성축제	378	전통역사
수원화성문화축제	337	문화예술	화천산천어축제	—	자연생태
순창장류축제	210	지역특산물			
시흥갯골축제	347	자연생태	40개		

* : 신규축제

(3) 평가항목

- 축제방문객들의 만족도와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전체 평균값과 대비시켜 각 축제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함
- 2018년에는 만족도 평가항목 10개, 소비지출 평가항목 6개의 2017년에 사용한 측정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만족도의 경우 7단계 측정(매우 그렇다 ~ 전혀 아니다)을 적용하여 분석함

[2018 문화관광축제 만족도 및 소비지출 평가항목]

구 분	설 문 내 용
만족도	1 이 축제가 재미있다
	2 축제 관련 프로그램이 좋다
	3 축제 관련 먹거리가 좋다
	4 축제 관련 살거리가 좋다
	5 축제 관련 사전 홍보가 잘 되었다
	6 축제장 내 안내·해설이 좋다
	7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게 됐다
	8 축제장 시설이 안전해 보였다
	9 축제장의 접근성 및 주차장이 좋다
	10 재방문하거나 타인에게 방문을 유도하겠다
소비지출	교통비(주유비, 주차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등)
	숙박비(민박, 호텔, 모텔, 펜션, 콘도 등)
	식음료비(축제 개최지역에서 지출한 음식값, 음료비)
	유흥비(축제장 밖에서 지출한 관람료, 노래방, 술값 등)
	쇼핑비(축제 기념품, 농특산물 구입비 등)
	기타(체험비, 입장료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비용)

(4) 분석방법

■ 축제 방문객 만족도

- 방문객 만족도는 연도별 · 항목별 · 등급별 · 유형별 · 축제별 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을 추진함
- 연도별 만족도의 경우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관광축제 전체에 대한 평균만족도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10개의 만족도 측정항목이 동일하게 측정된 2017년도와 2018년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함
- 축제 등급별 만족도는 문화관광축제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2017년도와 2018년도 등급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였으며, 각 세부항목 만족도에 대해 등급 간 비교를 실시함
- 축제 유형별 만족도는 지역축제 총괄표의 축제종류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및 세부항목 만족도에 대해 축제 유형별 비교분석을 실시함
- 축제별 만족도는 2018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40개 축제 각각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세부항목 만족도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함

■ 축제 방문객 소비지출

- 방문객 소비지출은 연도별 · 항목별 · 등급별 · 유형별 · 축제별 소비지출로 구분하여 분석을 추진함
 - 연도별 소비지출의 경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으며, 항목별 소비지출은 6개의 소비지출 항목 중 교통비를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해 최근 3년 평균 소비지출과 2018년 소비지출 수준을 비교함
 -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은 문화관광축제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소비지출 수준을 비교하였으며,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은 지역축제 총괄표의 축제종류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축제유형에 따른 항목별 소비지출을 비교함
 - 축제별 소비지출은 2018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40개의 축제 전체를 대상으로 항목별 소비지출과 전체 소비지출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함
- ※ 2017년과 비교하지 아니하는 등급별 · 유형별 · 축제별 소비지출 분석은 기존 지자체에서 조사한 교통비를 포함하여 6개 항목으로 분석함

3

방문객 만족도 결과 종합

(1) 연도별 만족도 변화

■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증가

○ 2018년 만족도 평가는 5.43점으로 전년대비 3.2% (0.19점) 증가하였으며 항목별로는 10개 모든 항목에서 전년대비 증가함

－ 항목 : 축제재미, 프로그램, 축제 살거리, 축제 먹거리, 사전홍보, 안내해설, 접근성 및 주차장, 문화이해, 시설안전, 재방문 및 추천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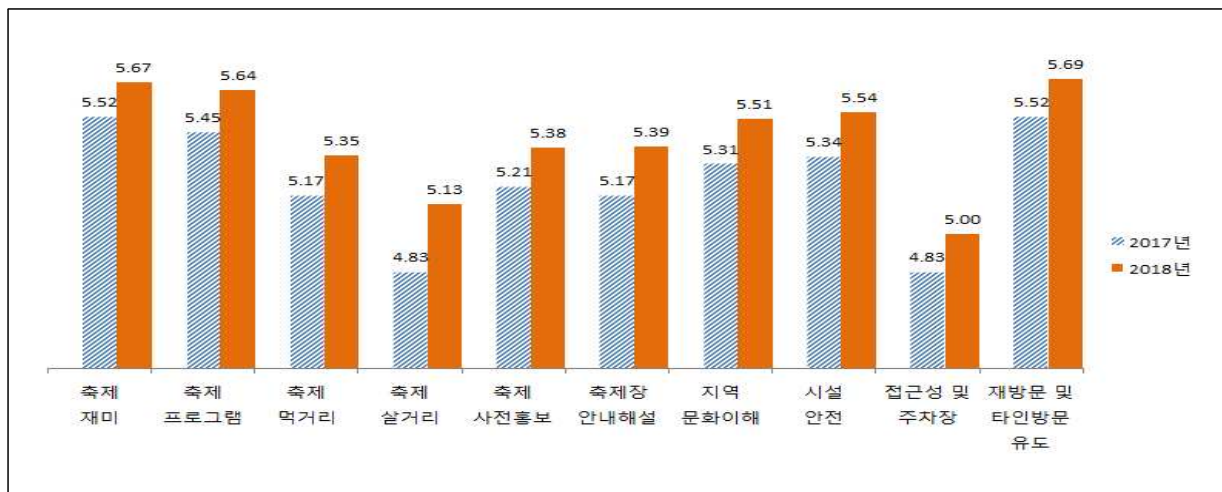
항목 \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연도 \ 항목
전체만족도 평 균 값	4.67	4.70	4.71	4.69	4.68	4.70	4.71	4.78	4.69	4.76	4.84	4.87	5.16	5.23	5.24	5.43	전체만족도 평 균 값
행사다양	5.00	4.98	5.01	4.96	4.96	4.99	4.97	5.07	4.97	5.03	5.15	5.08	5.38	5.45	5.52	5.67	축제재미
행사재미	5.04	5.00	4.99	4.95	4.98	4.98	4.92	5.07	4.97	5.04	5.15	5.09					
체험프로	4.85	4.83	4.94	4.87	4.87	4.89	4.92	4.95	4.83	4.93	5.02	4.96					
상품다양	4.37	4.41	4.38	4.37	4.34	4.42	4.46	4.50	4.48	4.54	4.58	4.73	4.86	4.95	4.83	5.13	축제 살거리
상품품질	4.43	4.50	4.50	4.47	4.46	4.50	4.53	4.54	4.52	4.59	4.61	4.75					
상품가격	4.24	4.31	4.30	4.27	4.25	4.31	4.37	4.36	4.35	4.41	4.45	4.60					
음식다양	4.38	4.51	4.41	4.41	4.34	4.39	4.44	4.45	4.42	4.46	4.57	4.69	5.03	5.15	5.17	5.35	축제 먹거리
음식가격	4.16	4.22	4.26	4.28	4.19	4.24	4.32	4.33	4.30	4.35	4.45	4.57					
사전홍보	4.62	4.68	4.75	4.76	4.84	4.81	4.77	4.87	4.73	4.84	4.92	4.74	5.09	5.20	5.21	5.38	사전홍보
안내시설	4.72	4.77	4.84	4.85	4.86	4.85	4.89	4.95	4.87	4.93	5.03	4.90	5.11	5.17	5.17	5.39	안내해설
안내책자	4.88	4.93	4.95	4.93	4.95	5.00	4.98	5.07	4.99	5.00	5.11	5.01					
요원친절	4.91	4.95	4.98	4.98	5.00	5.02	5.02	5.05	4.98	5.01	5.12	5.26	—	—			—
신속대응	—	—	—	—	—	—	—	—	—	—	—	5.11	—	—			—
접근용이	5.51	5.44	5.44	5.32	5.36	5.35	5.25	5.42	5.26	5.26	5.35	5.35	4.82	4.87	4.83	5.00	접근성 및 주차장
주차편리	4.23	4.21	4.31	4.33	4.30	4.28	4.30	4.40	4.25	4.42	4.43	4.62					
휴식공간	4.45	4.40	4.41	4.46	4.44	4.35	4.51	4.55	4.48	4.59	4.65	4.71	—	—			—
화 장 실	4.59	4.70	4.64	4.66	4.62	4.64	4.67	4.73	4.57	4.66	4.71	4.79	—	—			—
공간배치	—	—	—	—	—	—	—	—	—	—	—	4.95	—	—			—
문화이해	4.93	5.04	4.94	4.88	4.85	4.85	4.81	4.92	4.82	4.89	4.98	4.99	5.19	5.32	5.31	5.51	문화이해
시설안전	—	—	—	—	—	—	—	—	—	—	—	5.06	5.25	5.31	5.34	5.54	시설안전
절대만족	—	—	—	—	—	—	—	—	—	—	—	5.00	—	—			—
상대만족	—	—	—	—	—	—	—	—	—	—	—	5.01	—	—			—
감정만족	—	—	—	—	—	—	—	—	—	—	—	5.07	—	—			—
계속참여	—	—	—	—	—	—	—	—	—	—	—	5.27	5.39	5.47	5.52	5.69	재방문 및 추천의사
추천의향	—	—	—	—	—	—	—	—	—	—	—	5.34					

(2) 항목별 만족도

- 2018년 만족도 중 가장 높은 항목은 「축제재미」로 5.67점(7.0만점)을 기록함
 - － 그 다음으로 「축제프로그램」 5.64점, 「축제시설안전」 5.54점, 「지역문화 이해」 5.5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가장 낮은 항목은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이 5.00점을 기록함
 - － 그 다음으로 「축제살거리」 5.13점, 「축제먹거리」 5.35점, 「축제사전홍보」 5.38점, 「축제장 안내해설」 5.39점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가 5.43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인 축제 방문 및 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분석됨
- 축제 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제 재미」와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가 각각 5.67점, 5.64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문화관광축제가 방문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으로 판단됨
- 또한 방문객 만족도에 대한 전체항목 10개 모두 2017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어 문화관광축제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냄

[2018 문화관광축제 항목별 만족도]

항목 연도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 먹거리	축제 살거리	축제 사전홍보	축제장 안내해설	지역 문화이해	시설 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2017년	5.52	5.45	5.17	4.83	5.21	5.17	5.31	5.34	4.83	5.52
2018년	5.67	5.64	5.35	5.13	5.38	5.39	5.51	5.54	5.00	5.43



[문화관광축제 항목별 만족도 비교(2017, 2018년)]

(3) 축제 등급별 만족도

-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는 대표축제 2개,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1개를 선정하여 지원·추진함
-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부합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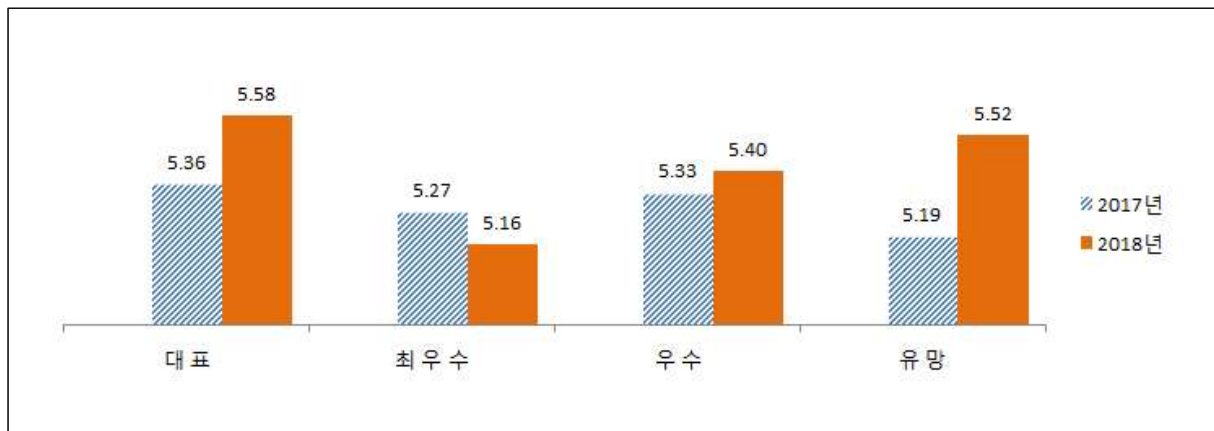
■ 대표축제가 가장 높은 만족도 보임

- 등급별 만족도 평균에서는 대표축제 5.58점, 최우수축제 5.16점, 우수축제 5.40점, 유망축제 5.52점 순으로 나타나 대표축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2017년에는 대표축제가 가장 높았고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유망 축제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18년에는 대표축제,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순으로 높게 분석됨
- 이는 우수축제, 유망축제가 최우수축제, 우수축제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 유추해 볼 수 있음

■ 전년대비 등급별 만족도

- 2018년 대표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의 만족도는 전년대비 향상되었으나 최우수축제의 만족도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 \ 등급	대 표	최 우 수	우 수	유 망
2017년	5.36	5.27	5.33	5.19
2018년	5.58	5.16	5.40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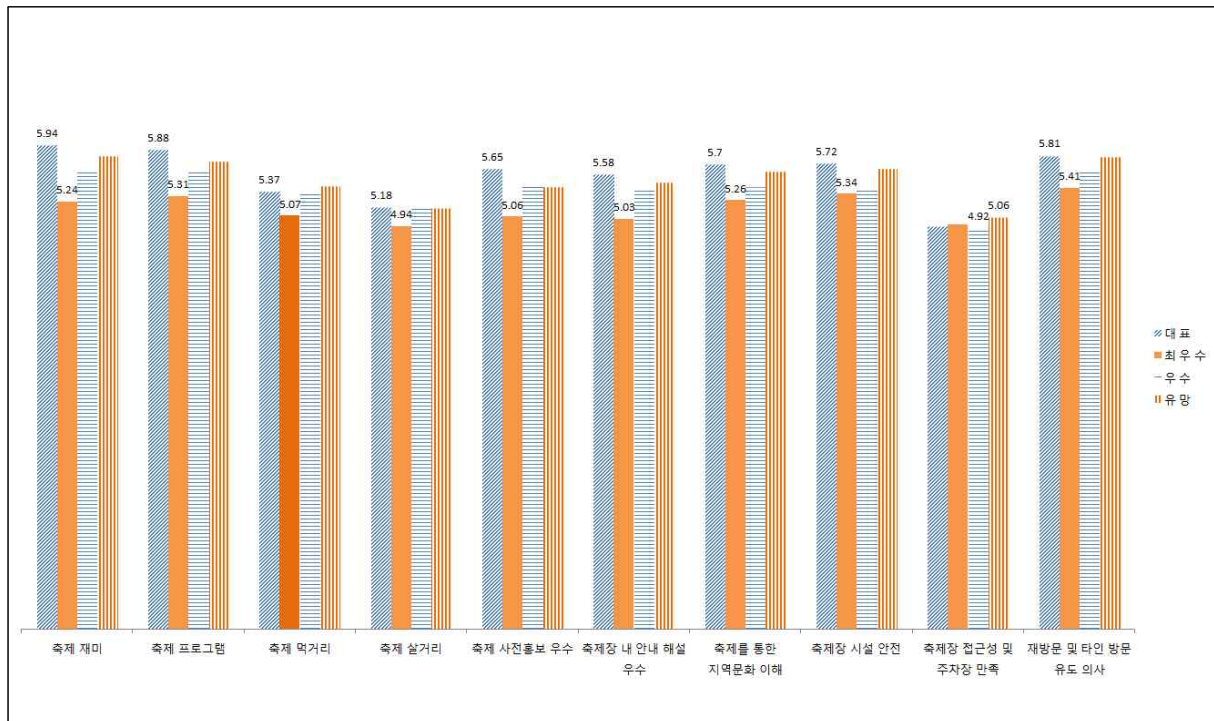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만족도 비교(2017,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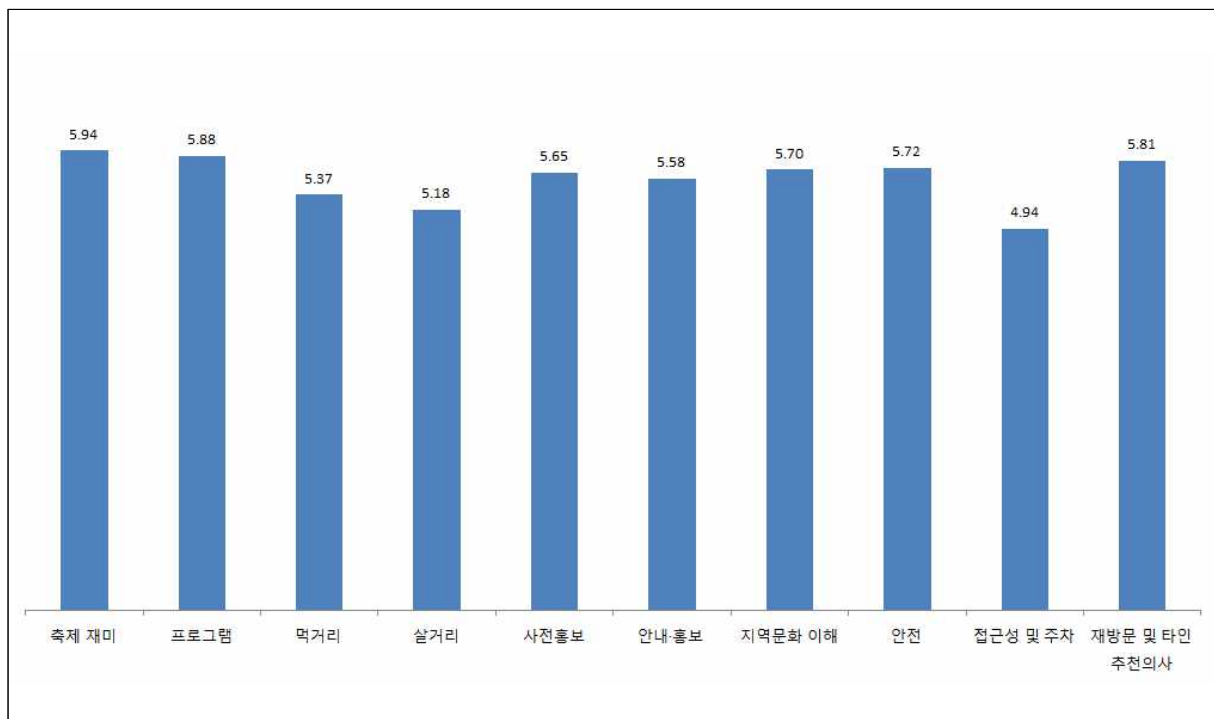
■ 등급별 상위항목 및 하위항목

- 대표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경우에는 「축제 재미」가 가장 높았던 반면, 최우수축제는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가 가장 높게 분석됨
- 모든 등급에서 「축제 재미」는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 「축제 재미」 만족도 : 대표축제 5.94점, 최우수축제 5.24점, 우수축제 5.64점, 유망축제 5.81점
 - － 축제 재미 항목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그 동안 문화관광축제가 방문객의 축제 방문 욕구에 부합하는 컨셉 및 프로그램 발굴 등에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대표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에서는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최우수축제는 「축제살거리」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분석됨. 하지만 최우수축제의 경우에도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항목이 「축제살거리」와 유사하게 매우 낮게 나타남
 -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 : 대표축제 4.94점, 최우수축제 4.96점, 우수축제 4.92점, 유망축제 5.06점
 -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항목의 경우 모든 등급에서 낮은 수준의 만족도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선정 및 셔틀버스 등의 운영시스템 개선과 주차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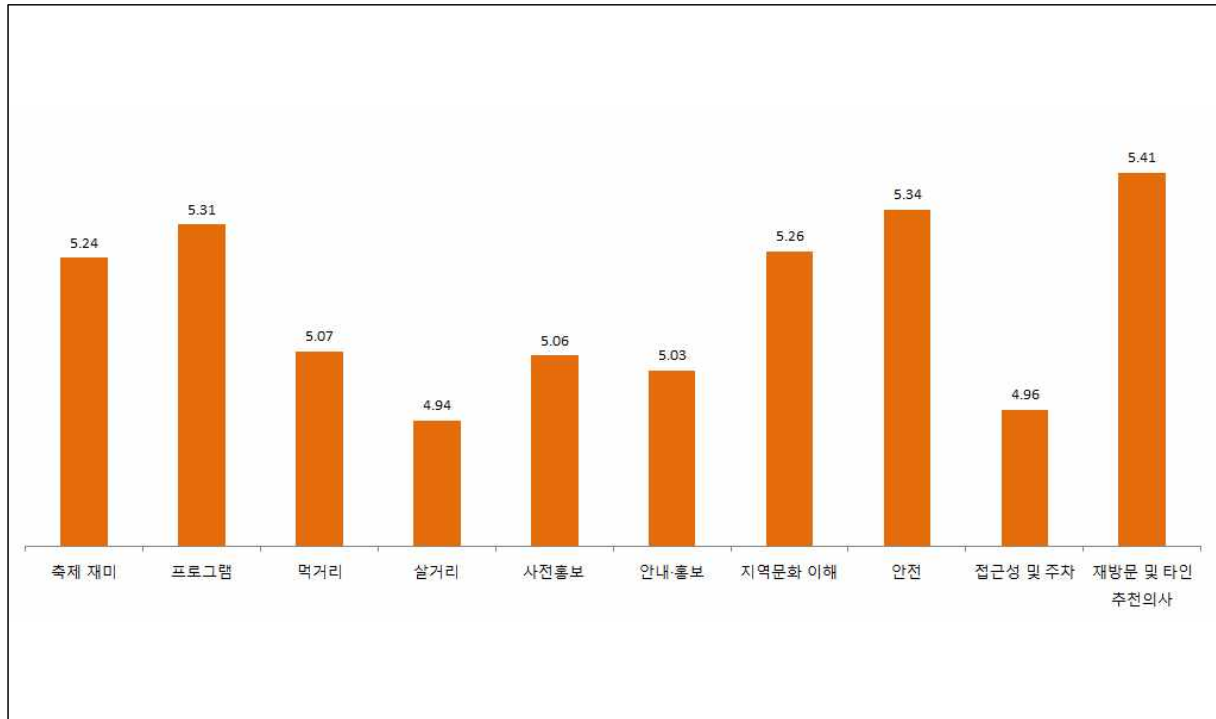
항목 \ 등급	대 표	최 우 수	우 수	유 망
평 균 값	5.58	5.16	5.40	5.52
축제 재미	5.94	5.24	5.64	5.81
축제 프로그램 좋음	5.88	5.31	5.62	5.74
축제 먹거리 좋음	5.37	5.07	5.35	5.44
축제 살거리 좋음	5.18	4.94	5.17	5.17
축제 사전홍보 우수	5.65	5.06	5.45	5.43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5.58	5.03	5.39	5.48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5.70	5.26	5.42	5.62
축제장 시설 안전	5.72	5.34	5.41	5.65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4.94	4.96	4.92	5.06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5.81	5.41	5.63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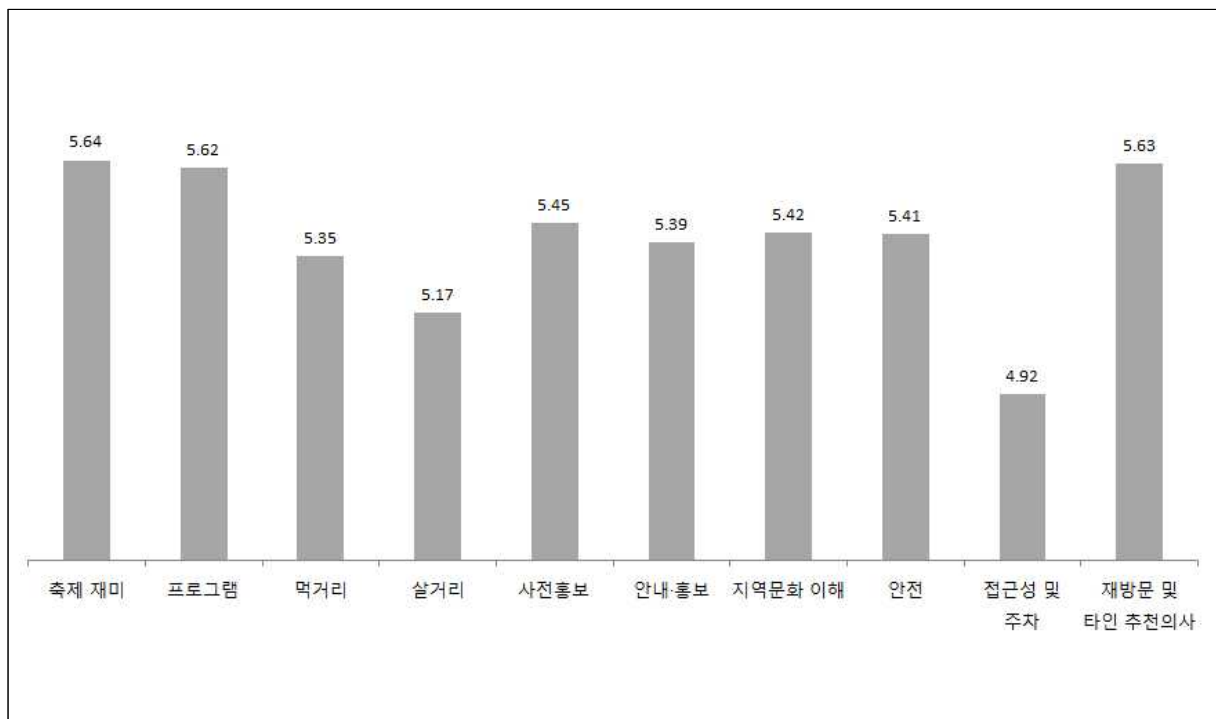
[2018년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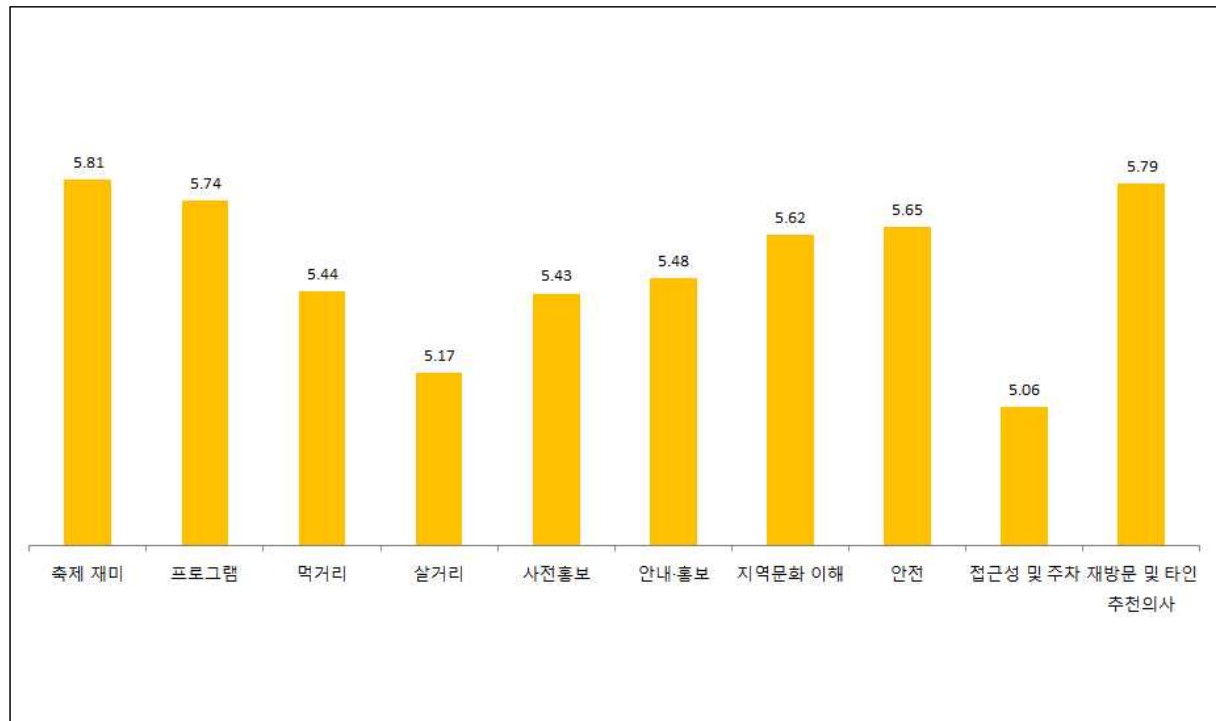
[2018년 대표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2018년 최우수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2018년 우수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2018년 유망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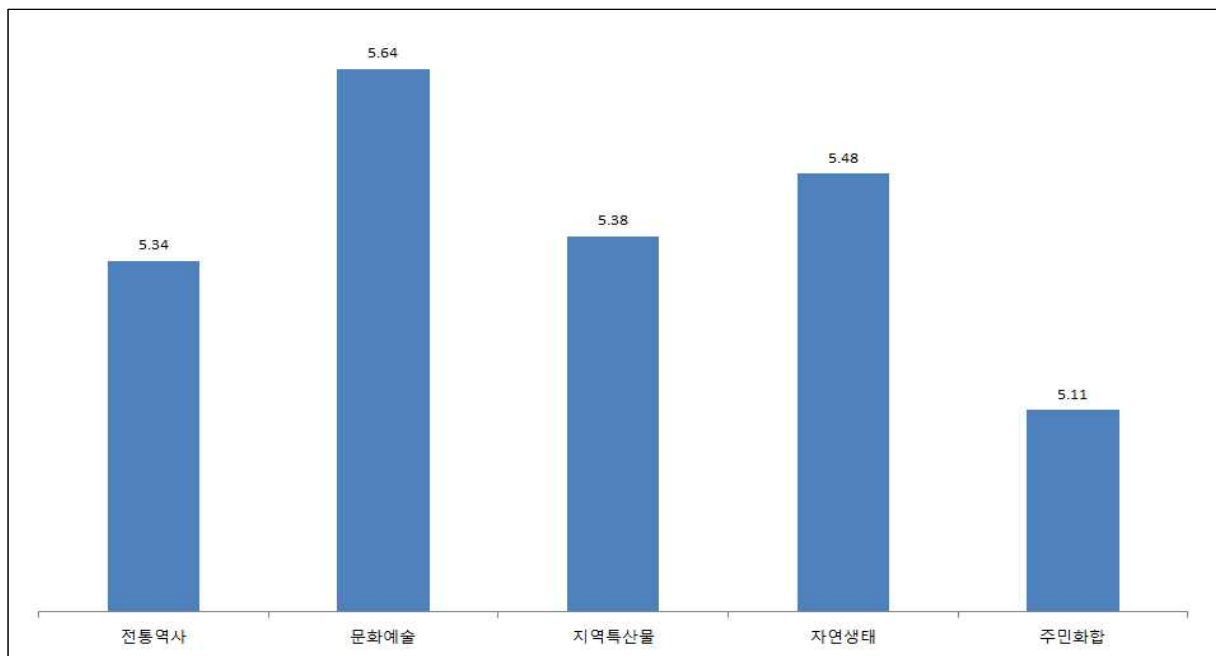
(4) 축제 유형별 만족도

■ 축제 유형별 현황

- 2018년 문화관광축제의 유형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전통역사형, 문화예술형, 지역특산물형, 생태자연형, 주민화합형 축제로 구분함
 - － 전통역사형 : 10개
 - － 문화예술형 : 10개
 - － 지역특산물형 : 11개
 - － 자연생태형 : 6개
 - － 주민화합형 : 3개

■ 문화예술형 축제가 높은 만족도 보임

- 축제 유형별로 전반적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문화예술형이 5.6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연생태형 5.48점, 지역특산물형 5.38점, 전통역사형 5.34점, 주민화합형 5.11점 순으로 나타남
 - － 2017년 : 자연생태형 5.34점, 문화예술형 5.26점, 지역특산물형 5.25점, 전통역사형 5.21점, 주민화합형 5.16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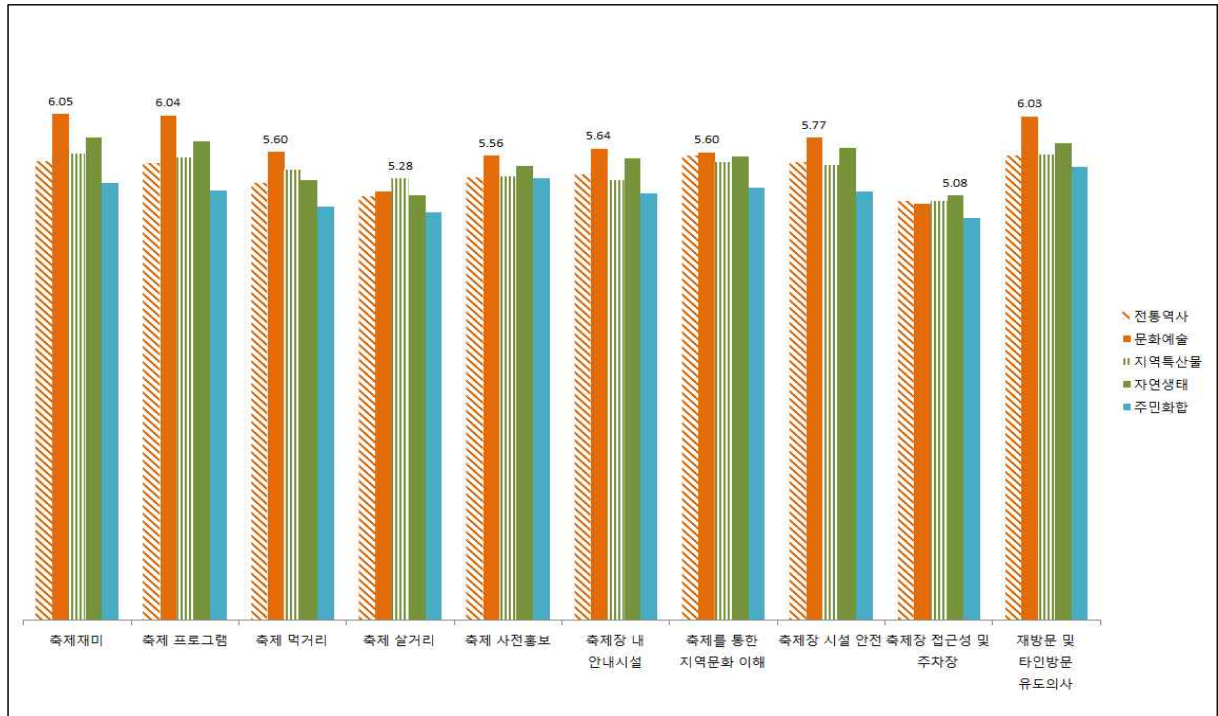
[2018년 문화관광축제 축제 유형별 전반적 만족도 비교]

■ 항목별로 축제유형에 따라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들이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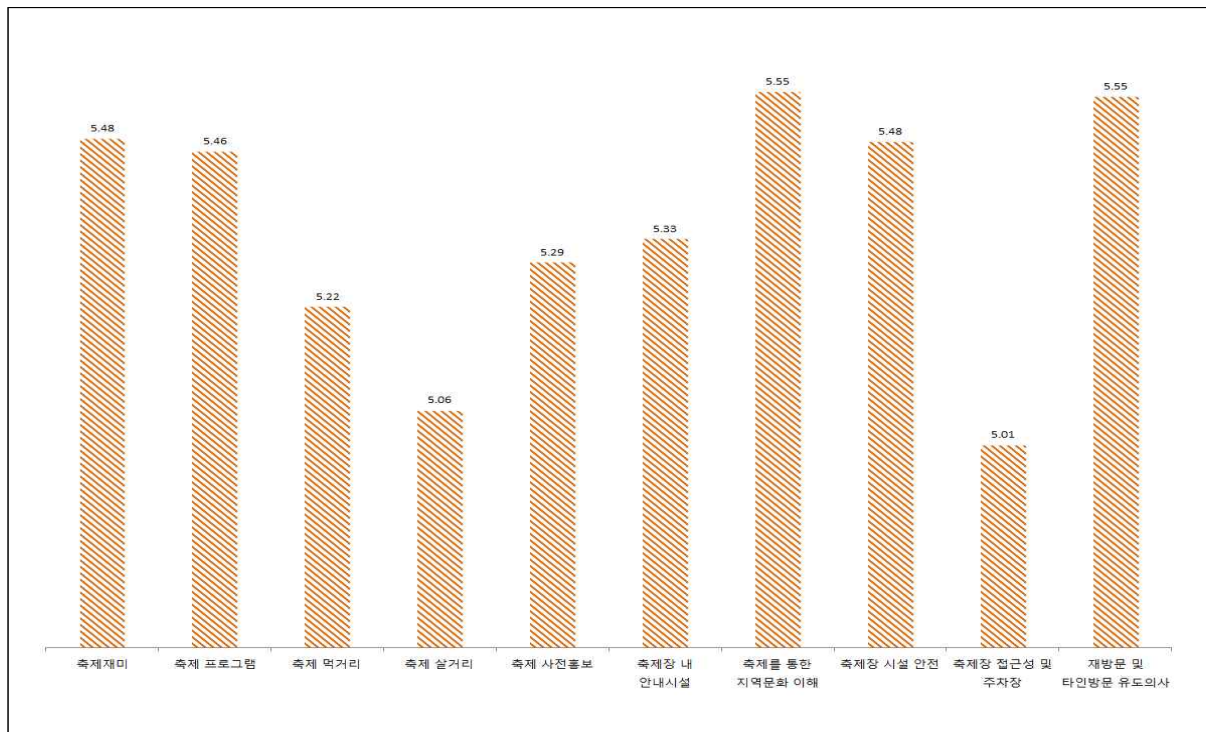
- 유형별로 만족도가 5.40점 이상이 되는 항목
 - 전통역사형 :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지역문화의 이해», 「축제시설안전»,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 항목
 - 문화예술형 :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 먹거리», 「축제 사전홍보 우수», 「축제장 내 안내해설», 「지역문화이해», 「축제 시설안전»,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 항목
 - 지역특산물형 :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지역문화이해», 「축제 시설안전»,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 항목
 - 자연생태형 :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 사전홍보 우수», 「축제장 내 안내해설», 「지역문화이해», 「시설 안전»,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 항목
 - 주민화합형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 항목
- 세부항목별 축제유형에 따른 만족도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각의 축제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5.40점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축제유형구분이 적절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냄
 - 5.40점 기준은 2017년 문화관광축제 유형별 만족도 기준과 동일

[2018 문화관광축제 유형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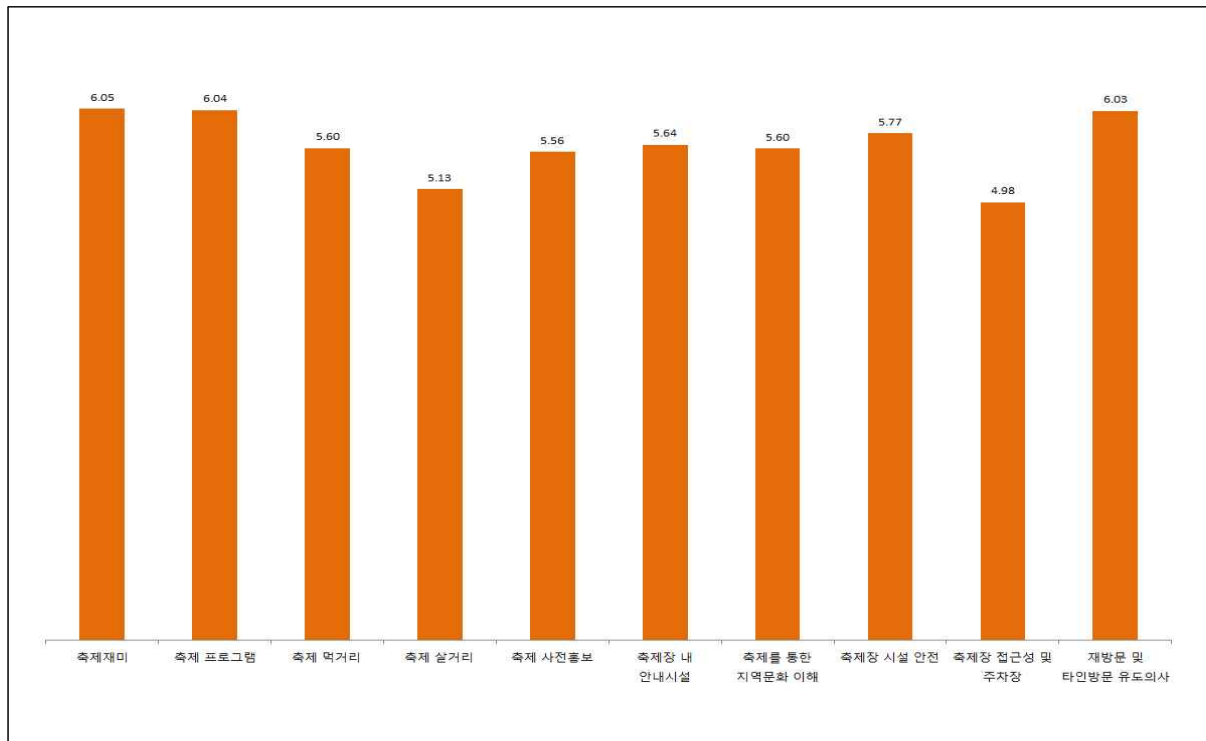
구 분	전통역사형	문화예술형	지역특산물형	자연생태형	주민화합형
평 균 값	5.34	5.64	5.38	5.48	5.11
축제 재미	5.48	6.05	5.58	5.77	5.23
축제 프로그램 좋음	5.46	6.04	5.53	5.73	5.14
축제 먹거리 좋음	5.22	5.60	5.38	5.27	4.94
축제 살거리 좋음	5.06	5.13	5.28	5.08	4.88
축제 사전홍보 우수	5.29	5.56	5.30	5.44	5.29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5.33	5.64	5.26	5.52	5.10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5.55	5.60	5.47	5.55	5.18
축제장 시설 안전	5.48	5.77	5.44	5.65	5.12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5.01	4.98	5.01	5.08	4.81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5.55	6.03	5.56	5.70	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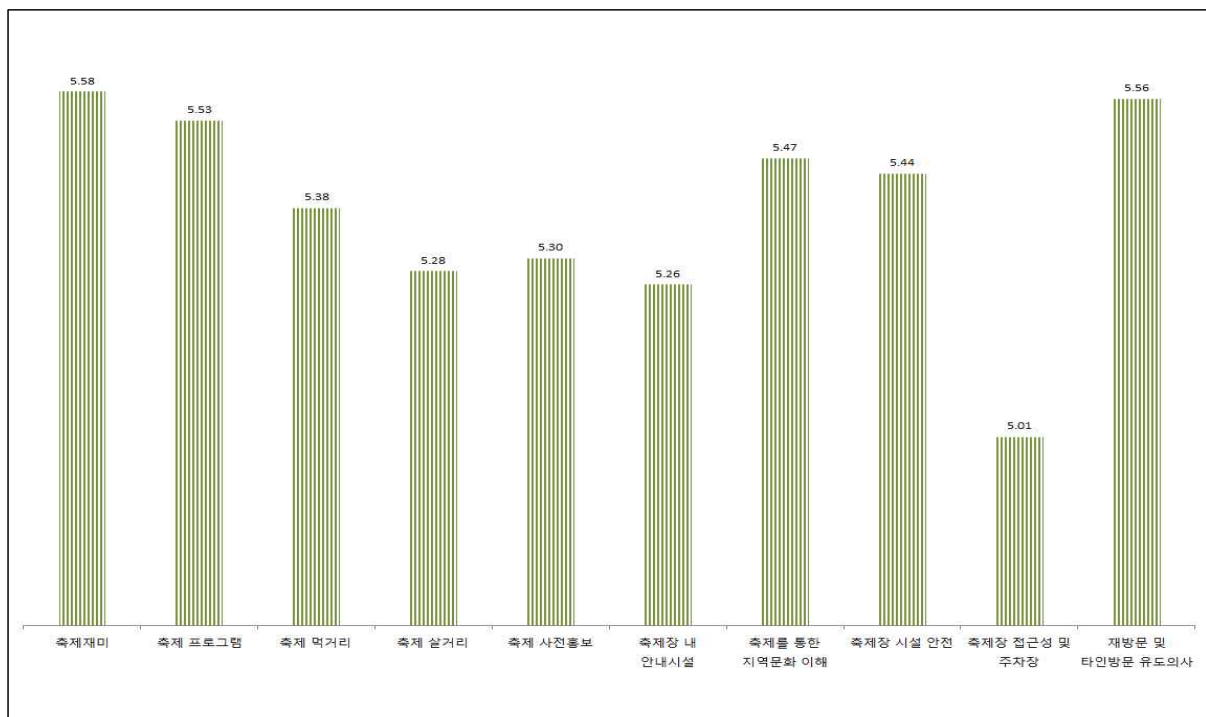
[2018년 문화관광축제 축제유형별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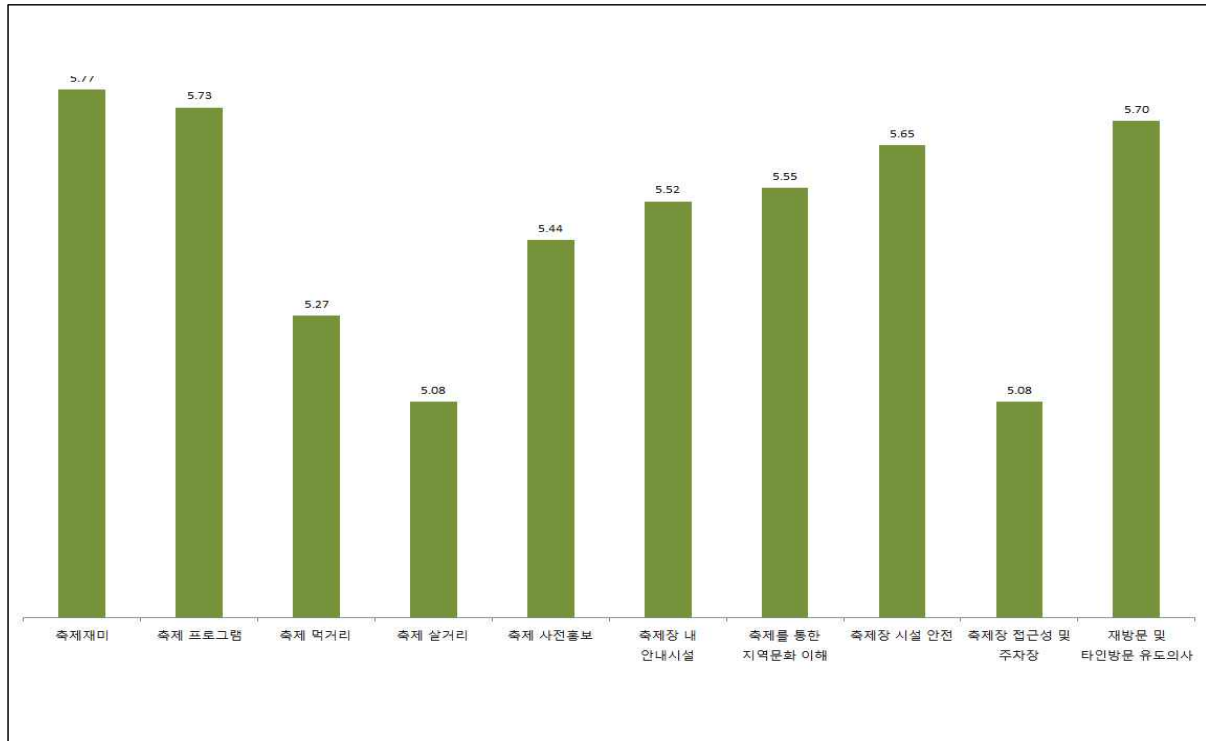
[전통역사형 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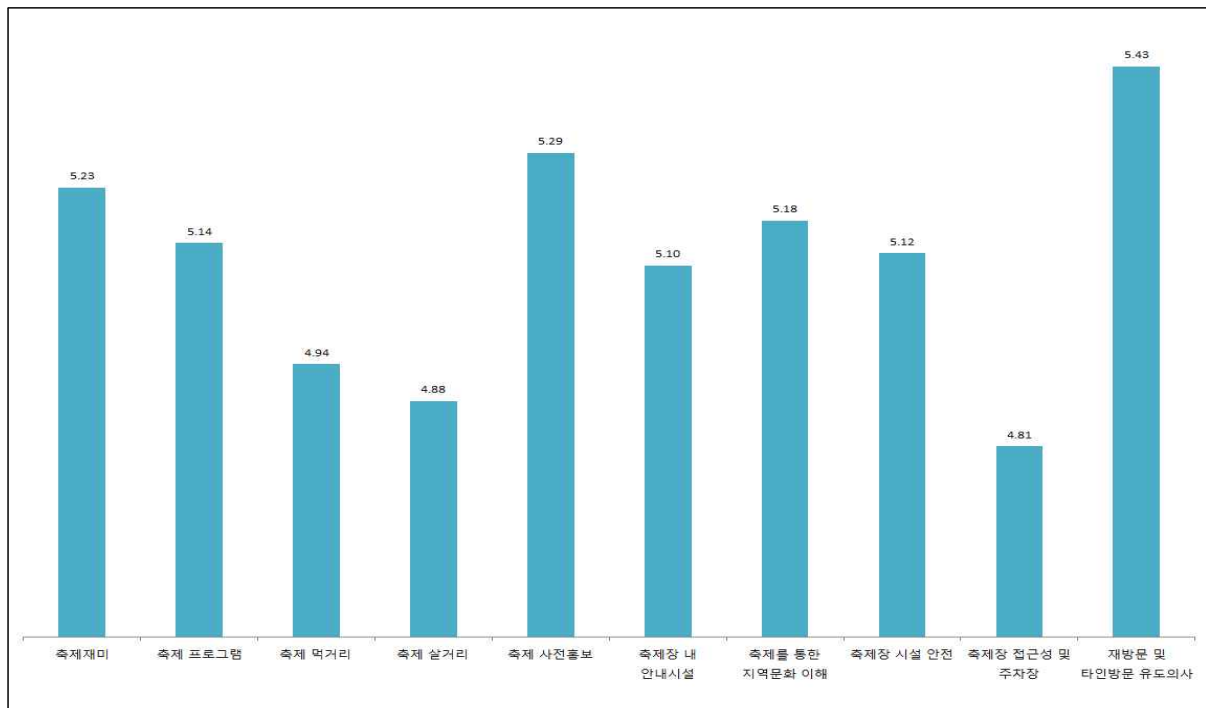
[문화예술형 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지역특산물형 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자연생태형 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주민화합형 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5) 축제별 만족도 비교

- 본 보고서의 축제별 방문객 만족도는 각 축제별 주최 측이 제출한 자체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써, 축제마다 서로 다른 평가기관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축제 간 우열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각 축제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관광축제의 전체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 축제별 만족도 비교 대상 : 40개 축제
 - 대표축제 : 2개 축제
 - 최우수축제 : 7개 축제
 - 우수축제 : 10개 축제
 - 유망축제 : 21개 축제

■ 대표축제 만족도 비교

축제 등급		대표축제		
항목	전체평균	화천 산천어	무주 반딧불	평균
전체만족도	5.43	5.77	5.38	5.58
축제재미	5.67	6.18	5.70	5.94
프로그램	5.64	6.05	5.70	5.88
먹거리	5.13	5.54	5.20	5.37
살거리	5.35	5.35	5.00	5.18
사전홍보	5.38	5.90	5.40	5.65
안내해설	5.38	5.76	5.40	5.58
지역문화	5.00	5.69	5.70	5.70
시설안전	5.51	5.83	5.60	5.72
접근성/주차장	5.54	5.37	4.50	4.94
재방문/추천의사	5.69	6.02	5.60	5.81

■ 최우수축제 만족도 비교

축제 등급		최우수축제							
항목	전체 평균	이천 쌀문화	평창 효석	강진 청자	진도 바닷길	담양 대나무	문경 찾사발	산청 한방약초	평균
전체만족도	5.43	5.23	5.27	5.15	5.08	4.79	5.24	5.37	5.16
축제재미	5.67	5.36	5.27	5.16	5.24	4.74	5.48	5.46	5.24
프로그램	5.64	5.31	5.71	5.24	5.15	4.79	5.43	5.52	5.31
먹거리	5.13	5.24	5.55	4.91	4.81	4.81	5.01	5.15	5.07
살거리	5.35	5.16	4.92	4.94	4.73	4.56	5.00	5.25	4.94
사전홍보	5.38	5.34	5.17	5.09	4.85	4.59	5.04	5.34	5.06
안내해설	5.38	5.15	5.19	5.18	4.93	4.65	5.09	5.19	5.03
지역문화	5.00	5.39	5.27	5.31	5.15	4.89	5.36	5.43	5.26
시설안전	5.51	5.34	5.35	5.45	5.24	5.04	5.49	5.44	5.34
접근성/주차장	5.54	4.47	4.68	4.99	5.31	4.79	5.01	5.45	4.96
재방문/추천의사	5.69	5.49	5.65	5.26	5.36	5.04	5.53	5.51	5.41

■ 우수축제 만족도 비교

축제 등급		우수축제					
항목	전체평균	추억의 충장	안성맞춤 남사당	다이내믹 댄싱	강경젓갈	서동연꽃	계
전체만족도	5.43	5.47	5.52	5.47	5.67	5.95	5.40
축제재미	5.67	5.68	5.75	6.04	6.01	6.02	5.64
프로그램	5.64	5.71	5.83	5.94	5.97	6.14	5.62
먹거리	5.13	5.32	5.56	5.83	5.84	5.83	5.35
살거리	5.35	5.23	5.48	5.05	5.79	5.83	5.17
사전홍보	5.38	5.57	5.33	5.56	5.72	5.96	5.45
안내해설	5.38	5.57	5.37	5.38	5.69	6.07	5.39
지역문화	5.00	5.51	5.59	5.25	5.53	5.87	5.42
시설안전	5.51	5.32	5.55	5.46	5.52	5.99	5.41
접근성/주차장	5.54	4.95	4.73	4.33	5.40	5.82	4.92
재방문/추천의사	5.69	5.92	5.97	5.90	5.19	5.95	5.63

<표 계속>

축제 등급		우수축제					
항목	전체평균	보성 다향제	장흥물	봉화은어	한산대첩	제주들불	계
전체만족도	5.43	4.95	5.11	5.46	5.13	5.25	5.40
축제재미	5.67	5.08	5.45	5.84	5.32	5.23	5.64
프로그램	5.64	5.04	5.42	5.76	5.28	5.09	5.62
먹거리	5.13	4.69	4.93	5.24	5.19	5.02	5.35
살거리	5.35	4.72	4.85	4.84	4.94	4.94	5.17
사전홍보	5.38	4.76	5.17	5.49	5.16	5.76	5.45
안내해설	5.38	4.84	4.99	5.62	5.06	5.29	5.39
지역문화	5.00	5.05	5.10	5.58	5.34	5.36	5.42
시설안전	5.51	5.22	5.20	5.70	5.14	5.04	5.41
접근성/주차장	5.54	4.97	4.52	4.83	4.55	5.06	4.92
재방문/추천의사	5.69	5.15	5.51	5.70	5.33	5.68	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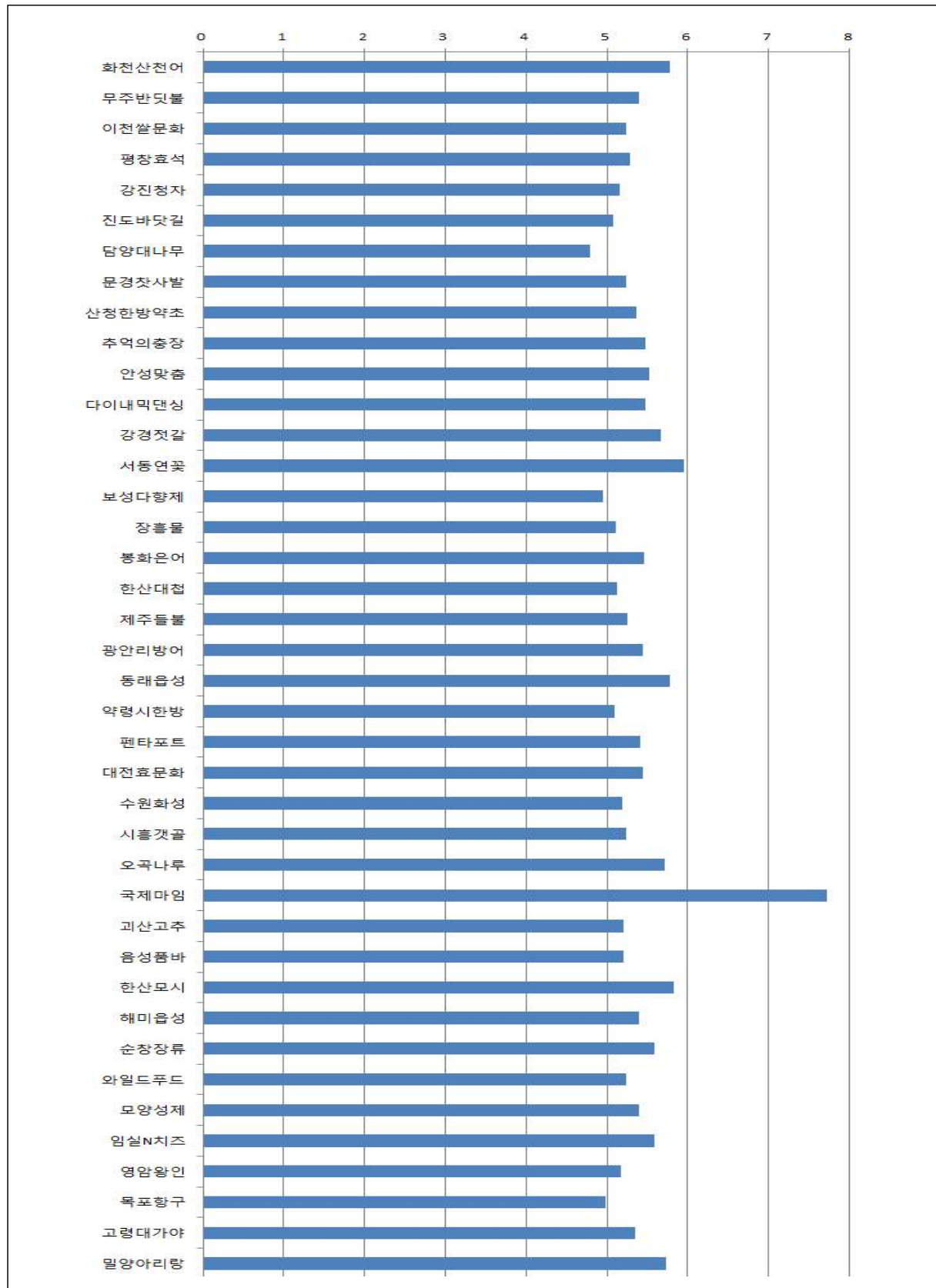
■ 유망축제 만족도 비교

축제 등급		유망축제							
항목	전체 평균	광안리 어방	동래 읍성	약령시 한방	펜타 포트	대전 효문화	수원 화성	시흥 갯골	계
전체만족도	5.43	5.45	5.77	5.09	5.41	5.44	5.22	5.24	5.52
축제재미	5.67	5.66	6.14	5.02	6.24	5.40	5.68	5.64	5.81
프로그램	5.64	5.58	6.09	5.10	5.99	5.60	5.76	5.58	5.74
먹거리	5.13	5.20	5.81	4.77	4.90	5.51	5.11	4.99	5.44
살거리	5.35	5.07	5.29	4.92	4.49	4.97	4.49	4.72	5.17
사전홍보	5.38	5.38	5.73	5.04	5.05	5.41	5.40	5.02	5.43
안내해설	5.38	5.71	5.73	5.09	5.74	5.52	5.21	5.35	5.48
지역문화	5.00	5.73	5.99	5.65	4.29	5.54	5.54	5.32	5.62
시설안전	5.51	5.69	5.70	5.29	6.15	5.71	5.41	5.52	5.65
접근성/주차장	5.54	4.97	5.14	4.65	5.17	5.22	4.23	4.64	5.06
재방문/추천의사	5.69	5.55	6.05	5.40	6.12	5.52	5.55	5.57	5.79

<표 계속>

축제 등급		유망축제							
항목	전체 평균	오곡 나루	국제 마임	괴산 고추	음성 품바	한산 모시	해미 읍성	순창 장류	계
전체만족도	5.43	5.72	7.80	5.22	5.25	5.85	5.40	5.58	5.52
축제재미	5.67	6.16	8.76	5.33	5.76	6.09	5.42	5.80	5.81
프로그램	5.64	6.04	8.75	5.31	5.57	6.03	5.46	5.70	5.74
먹거리	5.13	5.95	7.76	5.09	5.15	5.66	5.24	5.70	5.44
살거리	5.35	5.78	6.75	5.23	4.73	5.70	5.31	5.50	5.17
사전홍보	5.38	5.32	7.31	5.13	5.34	5.82	5.36	5.50	5.43
안내해설	5.38	5.30	7.55	5.27	5.15	5.96	5.41	5.40	5.48
지역문화	5.00	5.85	7.70	5.39	5.57	6.10	5.55	5.80	5.62
시설안전	5.51	5.61	7.92	5.24	5.42	5.94	5.40	5.60	5.65
접근성/주차장	5.54	5.17	7.25	4.71	4.36	5.24	5.36	5.00	5.06
재방문/추천의사	5.69	6.01	8.38	5.51	5.44	6.00	5.53	5.80	5.79

축제 등급		유망축제							
항목	전체 평균	와일드푸드	모양 성제	임실N 치즈	영암 왕인	목포 항구	고령 대가야	밀양 아리랑	계
전체만족도	5.43	5.23	5.40	5.58	5.17	4.98	5.35	5.72	5.52
축제재미	5.67	5.50	5.70	5.80	5.18	5.01	5.51	6.15	5.81
프로그램	5.64	5.40	5.50	5.70	5.21	4.91	5.33	5.90	5.74
먹거리	5.13	5.30	5.30	5.80	5.22	4.88	5.29	5.61	5.44
살거리	5.35	5.00	5.00	5.40	4.79	4.86	5.20	5.40	5.17
사전홍보	5.38	5.30	5.40	5.50	5.04	4.93	5.30	5.80	5.43
안내해설	5.38	5.00	5.30	5.40	5.11	5.03	5.18	5.70	5.48
지역문화	5.00	5.20	5.60	5.50	5.31	5.07	5.46	5.94	5.62
시설안전	5.51	5.20	5.40	5.70	5.32	5.13	5.49	5.81	5.65
접근성/주차장	5.54	4.80	5.10	5.10	5.05	4.85	5.11	5.09	5.06
재방문/추천의사	5.69	5.60	5.70	5.90	5.46	5.09	5.59	5.89	5.79



[2018년 문화관광축제 축제별 전체 만족도 비교]

4

방문객 소비지출 결과 종합

(1) 전제

- 2018년 축제 소비지출 분석에서는 응답자들의 교통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에 이어 지자체에서 조사한 교통비 항목을 포함하여 분석함
 - 2016년까지 교통비 항목을 제외한 이유 : 오류 발견
 - 원칙적으로 방문객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 교통비 항목은 축제를 개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한 비용만을 기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총교통비용(거주지→경유지→축제장)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
 - ※ 단, 연도별 축제 소비지출 비교에서는 교통비 항목 제외(2016년까지 자료 없음)
- 아울러, 각각의 설문조사기관에서 집계한 소비지출 금액이 너무나 큰 편차를 보임. 일부는 객관성이 다소 미흡한 수치들이 발견되므로,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숫자는 단순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연도별 소비지출 변화

-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소비지출 금액은 1인당 49,187원으로써 전년 대비 8.3%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값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교통비 제외)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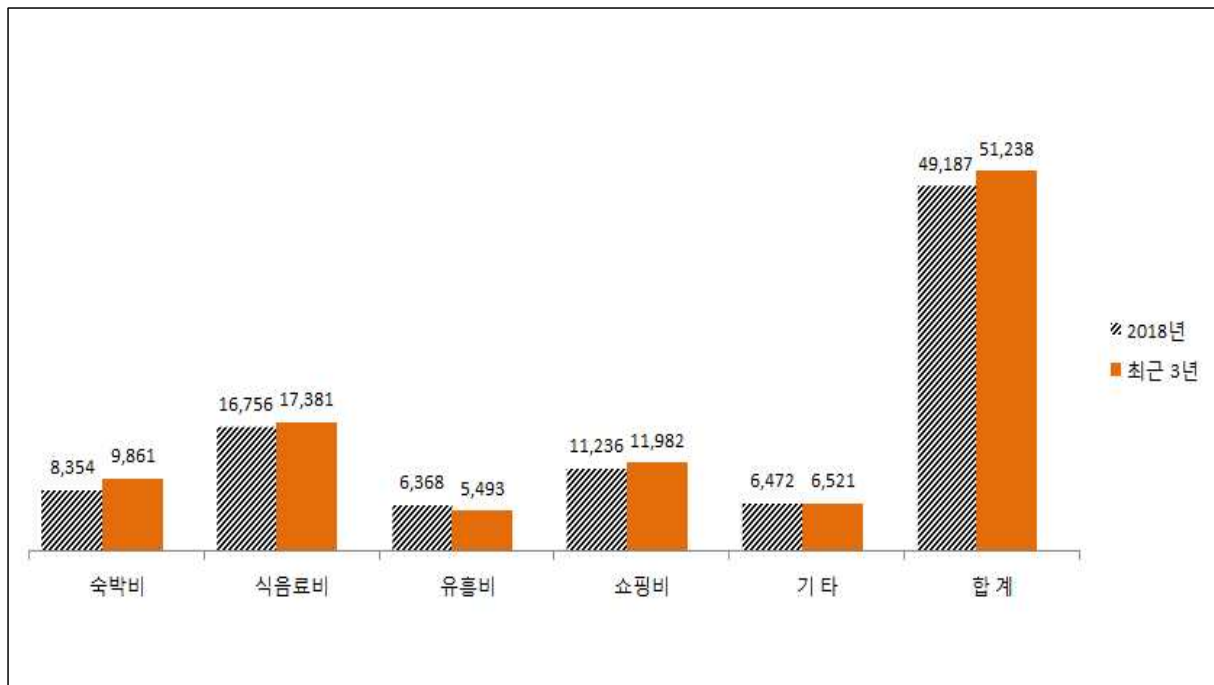
년 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2006	9,542	15,382	5,056	14,886	4,108	48,974
2007	8,521	16,761	5,605	17,317	4,708	52,912
2008	7,707	15,128	5,150	14,876	5,393	48,254
2009	7,944	16,902	4,695	14,974	5,601	50,116
2010	8,712	16,163	4,777	14,846	4,112	48,610
2011	10,287	17,502	5,488	14,970	4,570	52,817
2012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2013	9,395	17,392	5,709	12,285	5,349	50,131
2014	11,135	21,099	5,548	13,233	5,445	56,460
2015	9,478	16,144	4,978	10,607	6,924	48,131
2016	9,688	16,987	6,140	13,275	5,833	51,923
2017	10,416	19,013	5,361	12,064	6,807	53,661
최근 3년 평균	9,861	17,381	5,493	11,982	6,521	51,238
2018	8,354	16,756	6,368	11,236	6,472	49,187

(3) 항목별 소비지출

- 2018년도 축제방문객의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식음료비가 34.1%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쇼핑비 22.8%, 숙박비 17.0%, 기타비 13.2%, 유흥비 12.9%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과 비교해 보면, 식음료비·유흥비는 증가한 반면, 숙박비·쇼핑비·기타비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향후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축제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숙박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및 특색 있는 지역 특산물 및 기념품 등 살거리의 개발이 요구됨

[2018 문화관광축제 항목별 소비지출 현황]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2018년	금 액 (원)	8,354	16,756	6,368	11,236	6,472	49,187
	구성비(%)	17.0	34.1	12.9	22.8	13.2	100.0%
최근 3년	금 액 (원)	9,861	17,381	5,493	11,982	6,521	51,238
	구성비(%)	19.2	33.9	10.7	23.4	1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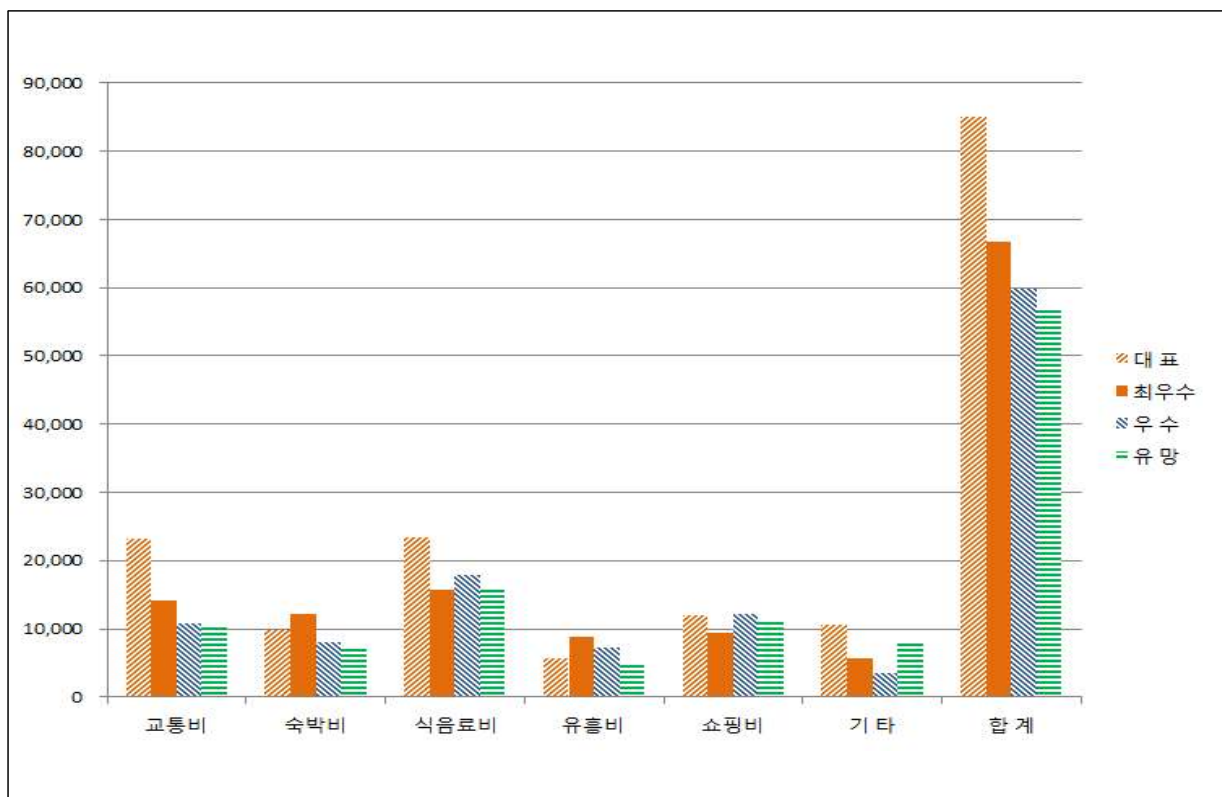
[2018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지출 세부항목 비교]

(4)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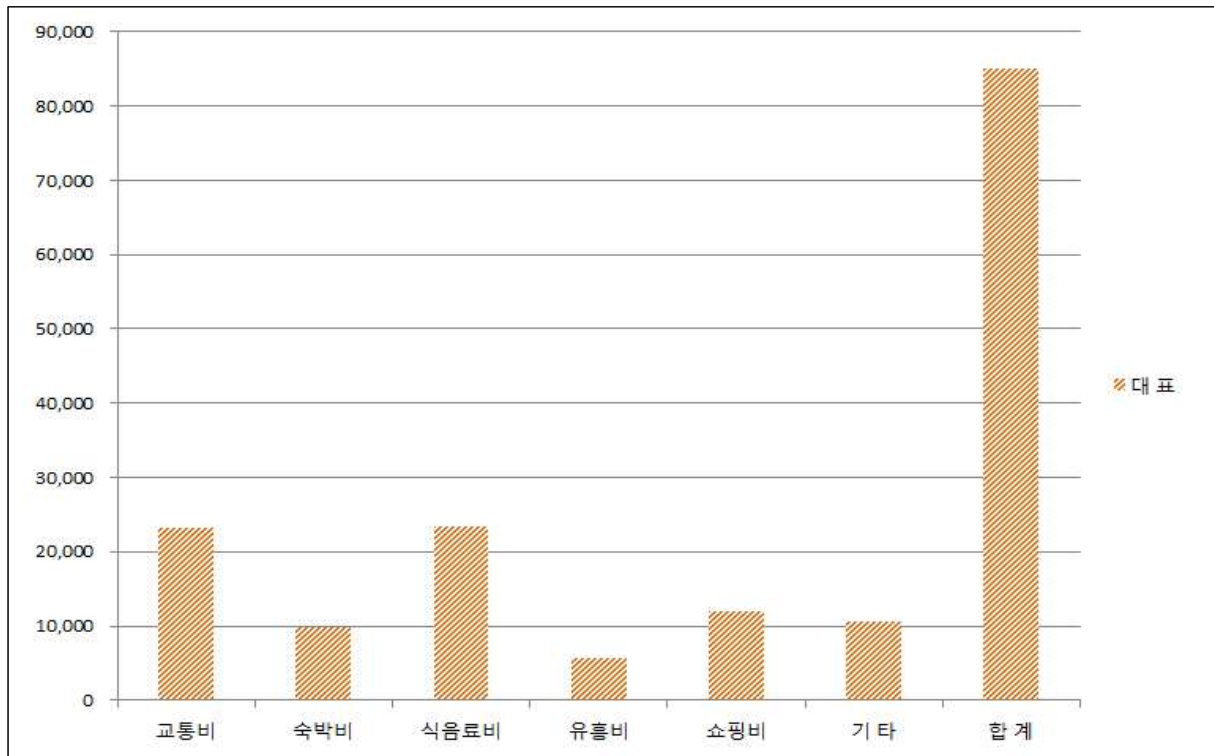
- 다른 년도와 소비지출을 비교했을 때는 자료 확보의 문제 및 데이터 오류성으로 인해 교통비를 제외하였으나, 2018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지출만을 분석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포함함
-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을 축제 등급별로 비교해 보면 대표축제가 84,98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최우수축제 66,748원, 우수축제 59,859원, 유망축제 56,672원 순으로 나타나, 축제의 수준에 따라 소비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소비지출이 최우수축제, 유망축제, 우수축제, 대표축제 순으로 높았던 것과는 차이를 보임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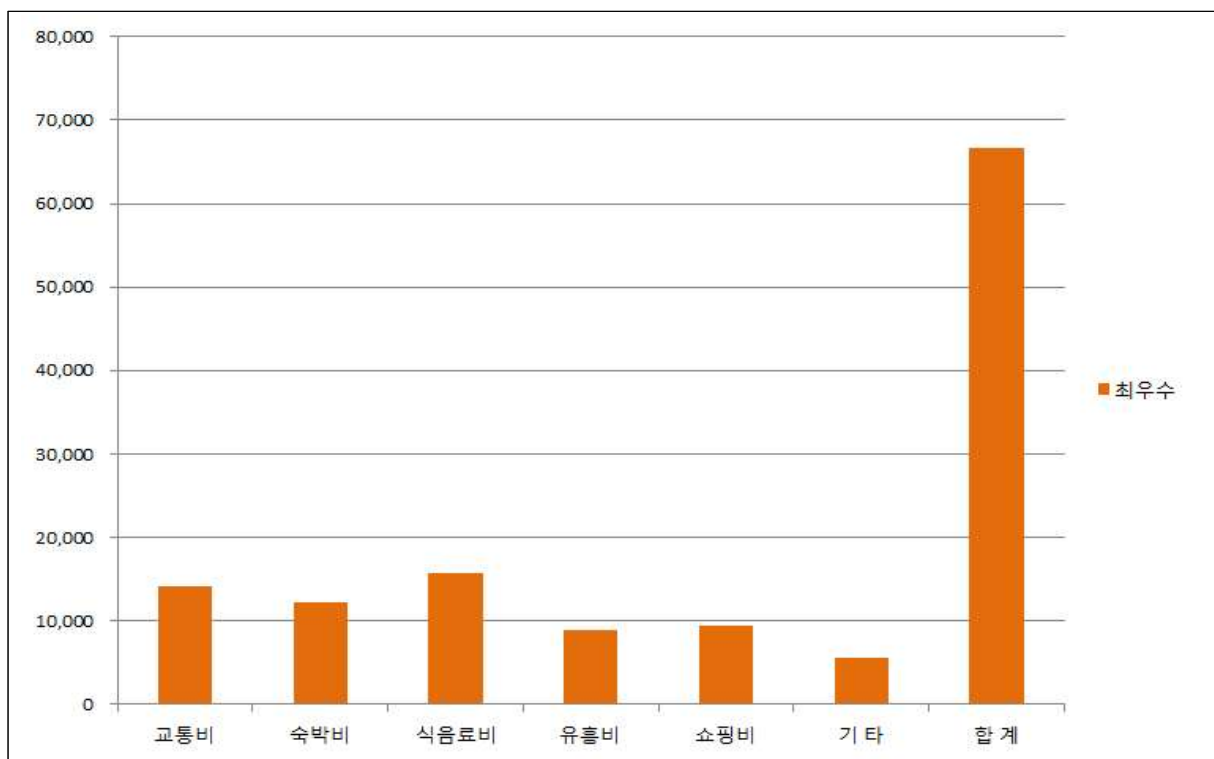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전 체	11,986	8,354	16,756	6,368	11,236	6,472	61,211
대 표	23,289	9,926	23,379	5,761	12,023	10,608	84,985
최우수	14,156	12,192	15,639	8,910	9,337	5,613	66,748
우 수	10,843	8,142	17,845	7,380	12,198	3,451	59,859
유 망	10,730	7,026	15,679	5,097	11,337	7,804	56,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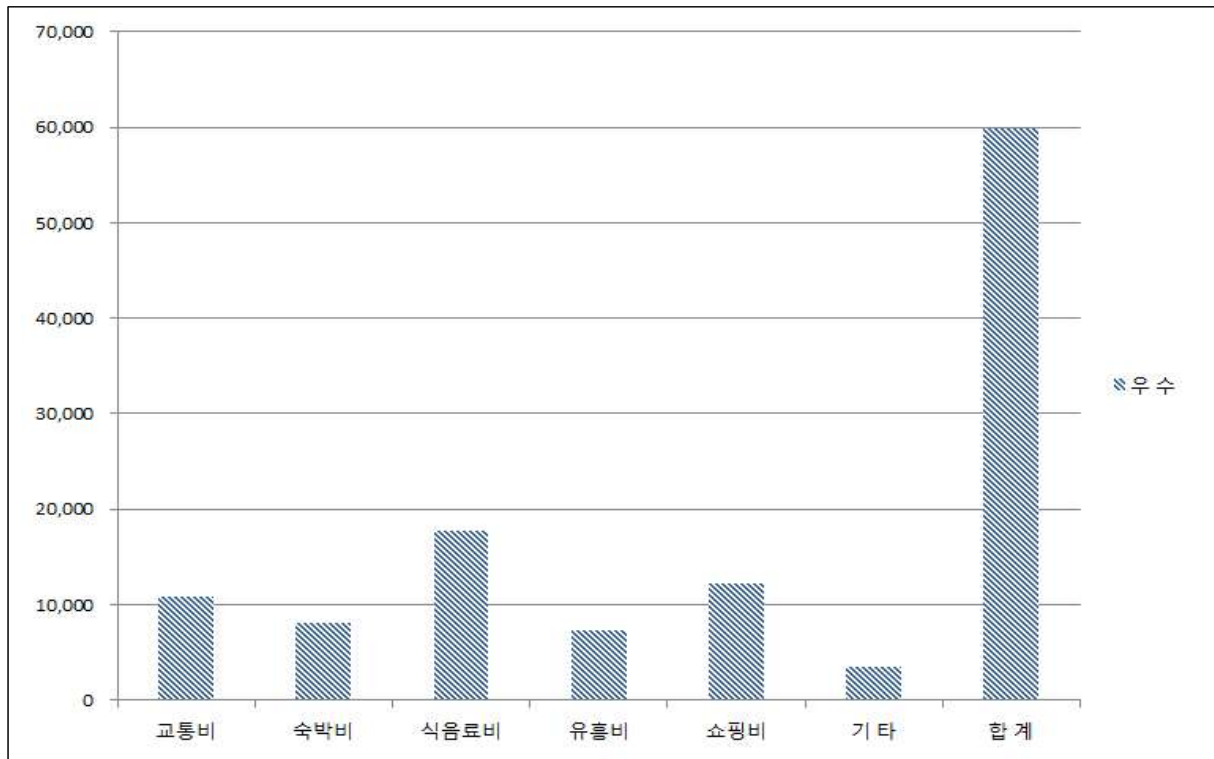
[2018년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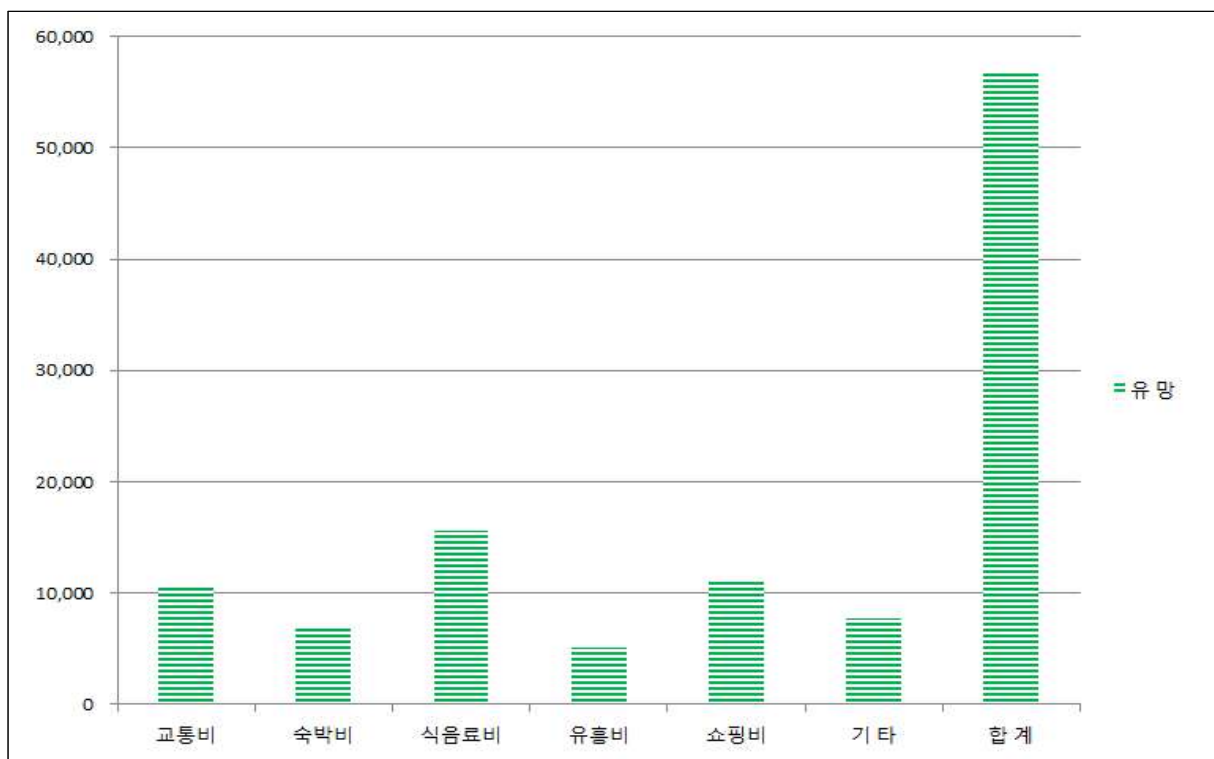
[2018년 대표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2018년 최우수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2018년 우수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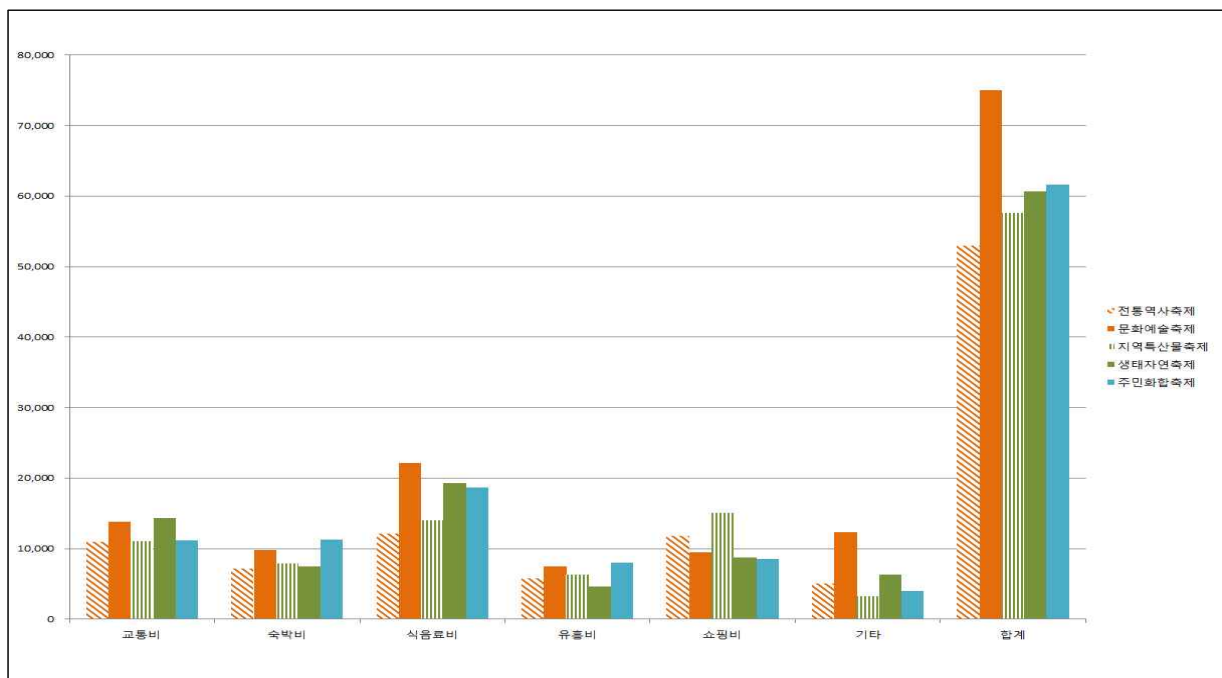
[2018년 유망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5)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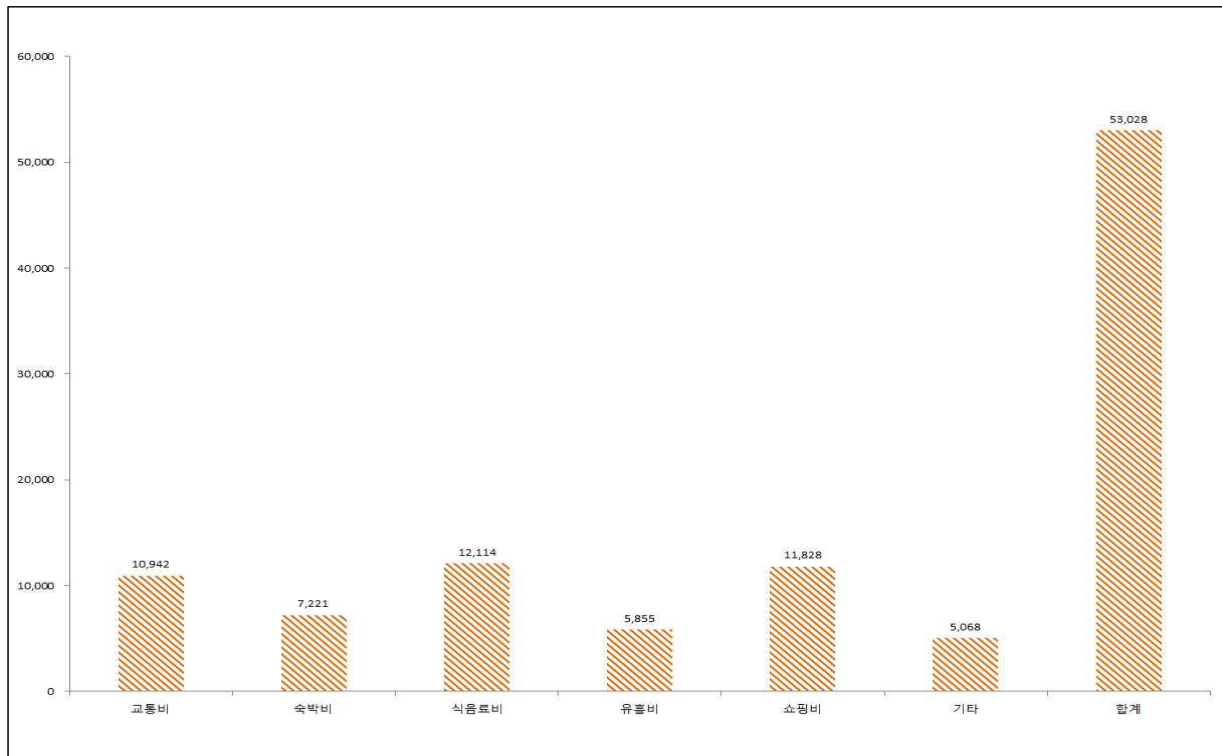
-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 유형별 소비지출은 전통역사형, 문화예술형, 지역특산물형, 자연생태형, 주민화합형 축제로 구분하여 비교함
- 유형별 평균 소비지출액은 문화예술형이 75,03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민화합형 61,618원, 자연생태형 60,658원, 지역특산물형 57,642원, 전통역사형 53,028원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유형별 평균 소비지출액은 지역특산물형이 84,55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형(81,198원), 주민화합형(64,117원), 전통역사형(50,026원), 자연생태형(47,869원) 순으로 나타남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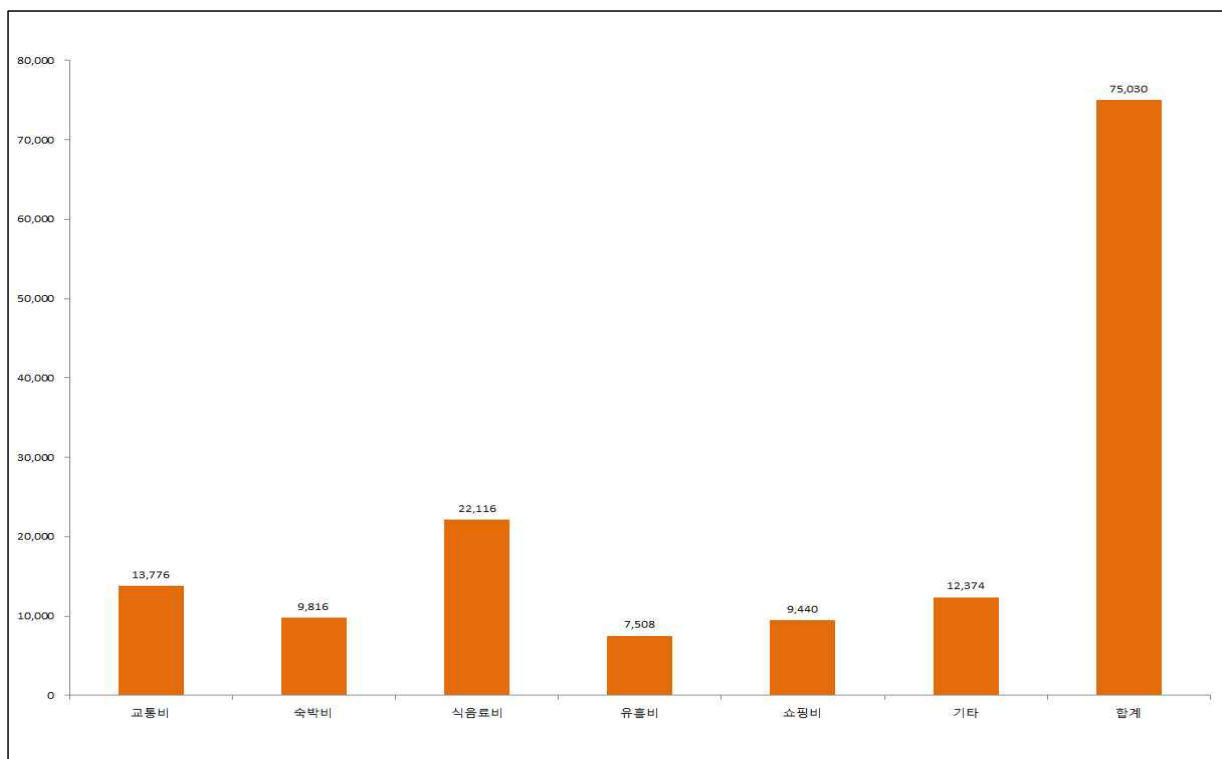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평 균	11,986	8,354	16,756	6,368	11,236	6,472	61,211
전통역사형	10,942	7,221	12,114	5,855	11,828	5,068	53,028
문화예술형	13,776	9,816	22,116	7,508	9,440	12,374	75,030
지역특산물형	11,076	7,911	14,028	6,296	15,096	3,236	57,642
자연생태형	14,291	7,460	19,249	4,572	8,730	6,357	60,658
주민화합형	11,152	11,275	18,709	7,975	8,528	3,979	6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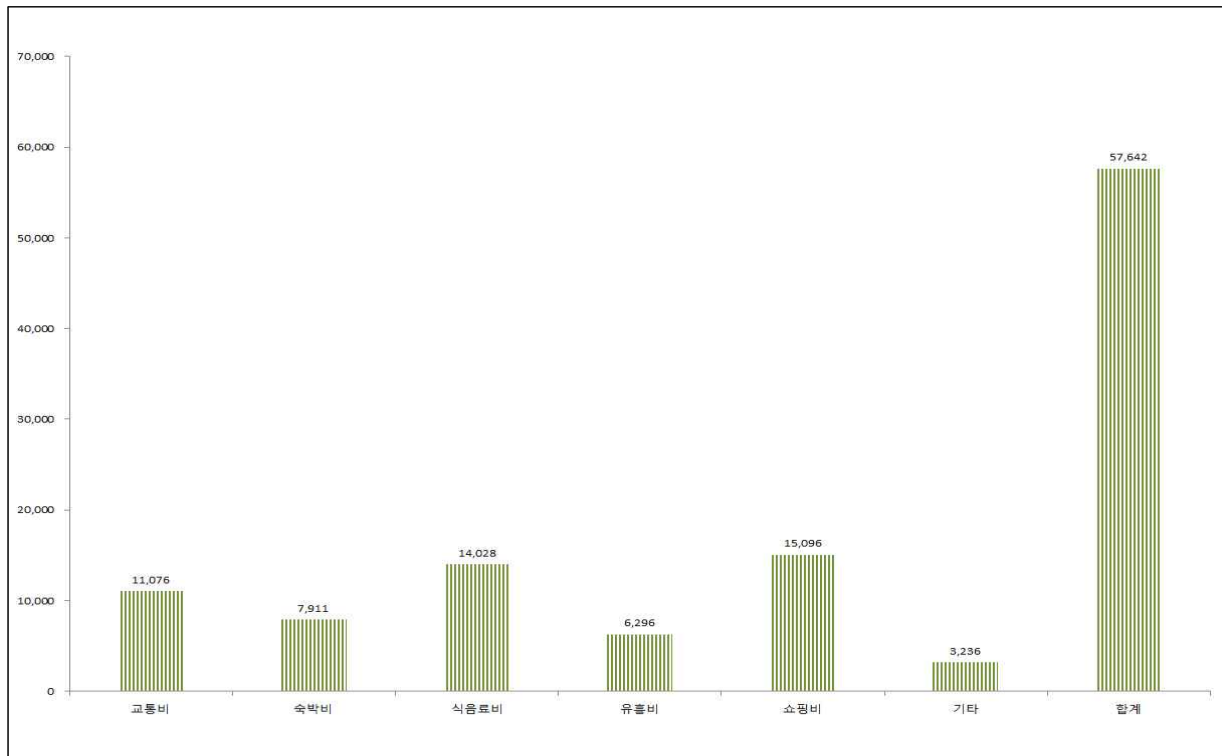
[2018년 문화관광축제 축제유형별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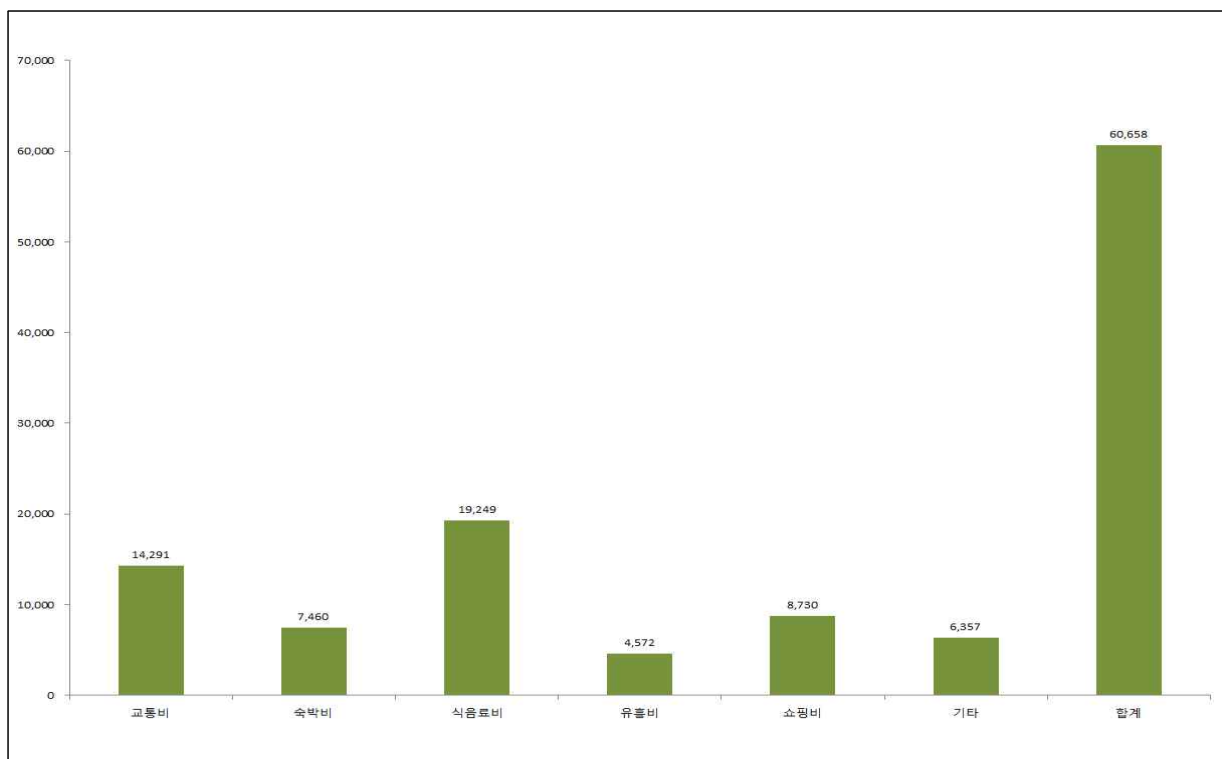
[2018년 전통역사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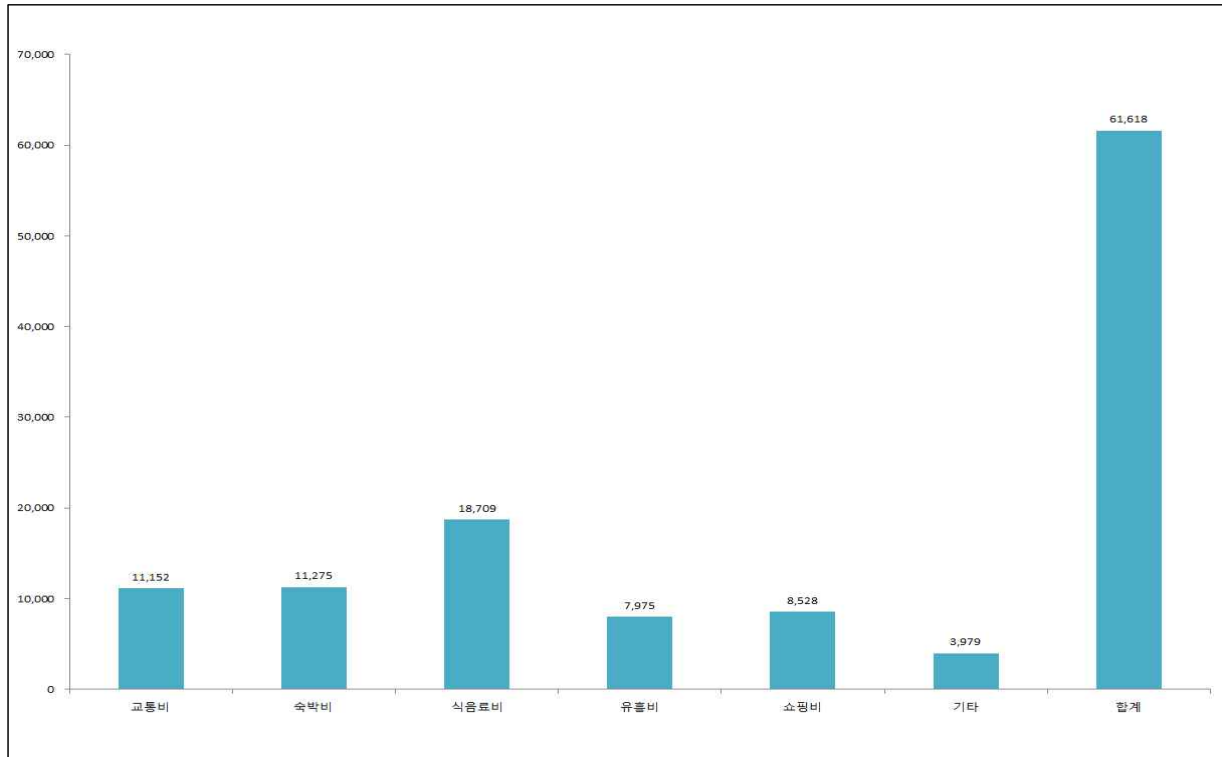
[2018년 문화예술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2018년 지역특산물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2018년 자연생태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2018년 주민화합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6) 축제별 소비지출 비교

■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축제 : 인천펜타포트축제

- 2018년에 문화관광축제 중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축제는 ‘인천펜타포트축제(159,544원)’으로 나타나며, 교통비를 제외해도 ‘인천펜타포트축제(140,046원)’가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춘천국제마임축제(134,961원), 무주반딧불축제(95,070원), 산청한방약초축제(83,720원), 강진청자축제(82,920원), 광주추억의충장축제(82,088원), 강경젓갈축제(80,263원) 순으로 높았음
- 교통비를 제외해도 춘천국제마임축제(120,755원), 산청한방약초축제(72,735원), 강경젓갈축제(67,643원), 무주반딧불축제(65,192원), 광주추억의충장축제(64,436원), 정남진장홍물축제(62,405원), 광안리어방축제(61,952원)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항목별로 소비지출이 높은 축제

- 교통비
 - 무주반딧불축제(29,878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진청자축제(23,380원),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19,933원), 인천펜타포트축제(19,498원), 해미읍성축제(17,528원), 화천산천어축제(16,700원) 순으로 나타남
- 숙박비
 - 춘천국제마임축제(34,802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청한방약초축제(25,242원), 인천펜타포트축제(20,688원), 광안리어방축제(19,063원), 제주들불축제(13,609원), 강경젓갈축제(13,187원), 강진청자축제(13,170원) 순으로 나타남
- 식음료비
 - 인천펜타포트축제(38,832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광주추억의충장축제(28,420원), 무주반딧불축제(27,549원), 정남진장홍물축제(25,273원), 원주다이내믹페스티벌(23,965원), 밀양아리랑축제(23,100원), 춘천국제마임축제(22,515원) 순으로 나타남
- 유흥비
 - 이천쌀문화축제(26,217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춘천국제마임축제(18,908원), 안성맞춤남사당축제(16,933원), 산청한방약초축제(15,005원), 광주추억의충장축제(11,945원), 제주들불축제(10,803원) 순으로 나타남

○ 쇼핑비

- 강경젓갈축제(40,657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괴산고추축제(25,213원), 통영한산대첩축제(22,291원), 여주오곡나루축제(22,069원), 무주반딧불축제(15,967원), 강진청자축제(15,790원), 춘천국제마임축제(14,896원) 순으로 나타남

○ 기타비

- 인천펜타포트축제(66,589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춘천국제마임축제(29,634원), 화천산천어축제(15,975원), 문경전통찻사발축제(8,173원), 정남진장홍물축제(7,961원), 해미읍성축제(7,904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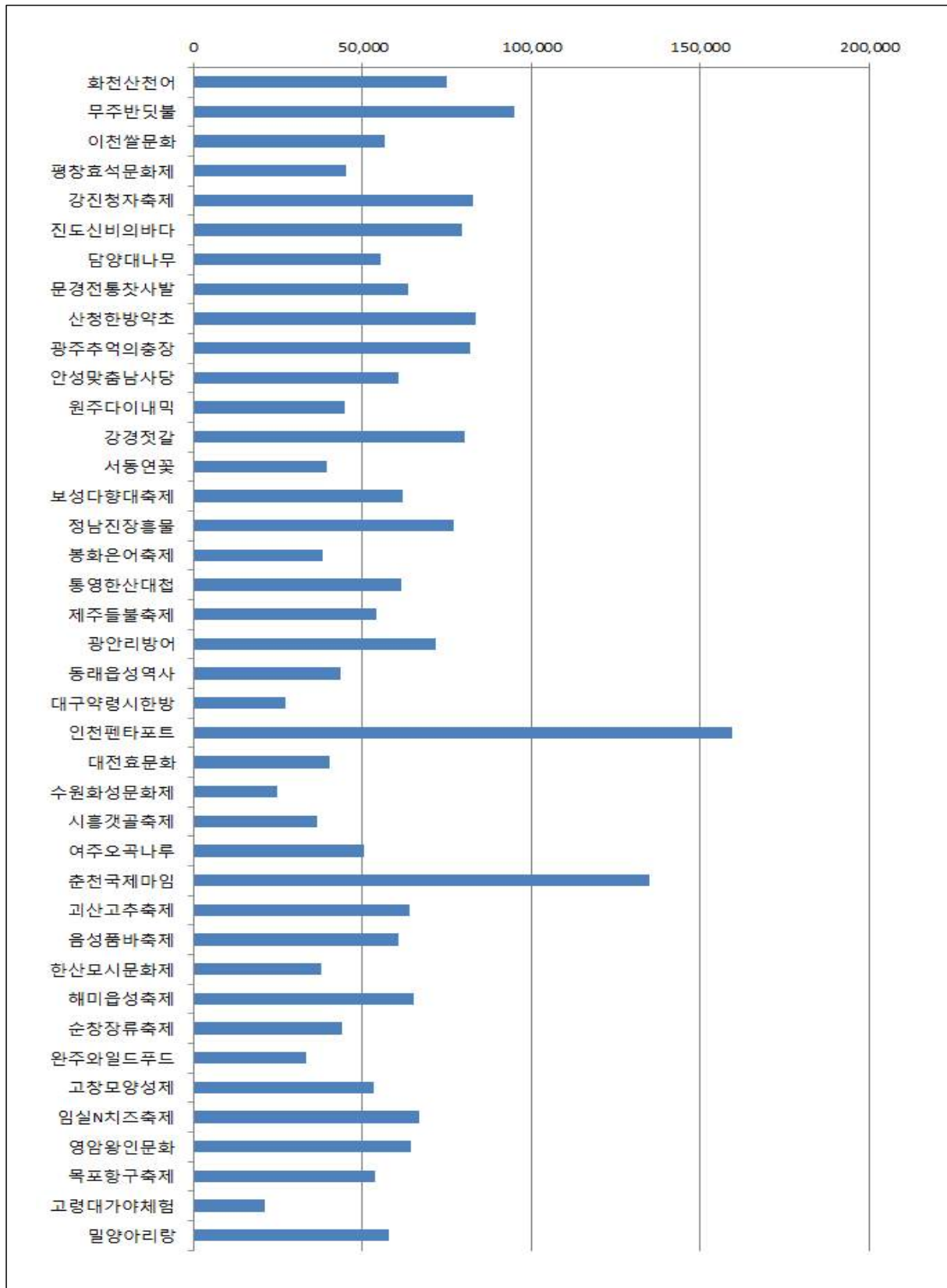
(단위 : 원)

축제등급	축 제 명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평 균		11,986	8,354	16,756	6,368	11,236	6,472	61,211
대표	화천산천어	16,700	9,430	19,209	5,508	8,708	15,975	74,900
	무주반딧불	29,878	10,421	27,549	6,014	15,967	5,241	95,070
최우수	이천쌀문화	6,106	2,165	17,201	26,217	2,861	2,117	56,667
	평창효석문화제	13,444	10,558	13,046	1,371	3,979	2,847	45,245
	강진청자축제	23,380	13,170	18,680	4,070	15,790	7,830	82,920
	진도신비의바다	19,933	13,076	21,635	7,102	11,523	6,330	79,610
	담양대나무	11,859	12,140	17,538	2,641	6,628	4,600	55,406
	문경전통찻사발	13,337	8,990	14,809	5,963	12,353	8,173	63,665
	산청한방약초	10,985	25,242	12,865	15,005	12,228	7,395	83,720
우수	광주추억의충장	16,652	5,807	28,420	11,945	14,297	3,967	82,088
	안성맞춤남사당	9,498	4,635	21,314	16,933	2,167	6,078	60,625
	원주다이내믹	5,423	2,232	23,965	5,099	6,067	1,487	44,802
	강경젓갈	12,620	13,187	10,346	2,706	40,657	747	80,263
	서동연꽃	7,982	4,432	13,352	4,656	7,294	1,818	39,534
	보성다향대축제	14,726	9,136	20,571	3,871	10,298	3,443	62,045
	정남진장홍물	14,430	12,916	25,273	6,536	9,719	7,961	76,835
	봉화은어축제	8,517	6,007	13,149	3,047	2,478	5,141	38,339
	통영한산대첩	9,373	9,462	9,117	8,202	22,291	2,971	61,416
	제주들불축제	9,206	13,609	12,945	10,803	6,713	893	54,169

<표 계속>

(단위 : 원)

축제등급	축 제 명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평 균		11,986	8,354	16,756	6,368	11,236	6,472	61,211
유망	광안리어방	9,784	19,063	19,674	9,655	7,747	5,813	71,736
	동래읍성역사	4,939	7,073	8,770	9,595	6,888	6,109	43,374
	대구약령시한방	4,045	543	5,681	830	13,439	2,784	27,322
	인천펜타포트	19,498	20,688	38,832	7,291	6,646	66,589	159,544
	대전효문화	10,459	1,423	9,580	5,866	8,727	4,263	40,318
	수원화성문화제	4,769	1,530	10,659	917	5,239	1,847	24,961
	시흥갯골축제	2,723	1,395	20,599	1,104	7,037	3,637	36,495
	여주오곡나루	9,049	3,907	12,473	1,608	22,069	1,431	50,537
	춘천국제마임	14,206	34,802	22,515	18,908	14,896	29,634	134,961
	괴산고추축제	15,767	1,260	15,629	3,356	25,213	2,836	64,061
	음성품바축제	14,203	4,053	21,956	4,617	13,304	2,685	60,818
	한산모시문화제	7,456	3,355	9,340	6,130	9,620	1,775	37,676
	해미읍성축제	17,528	5,946	13,244	7,256	13,238	7,904	65,116
	순창장류축제	10,734	3,075	11,518	2,187	14,219	2,042	43,775
	완주와일드푸드	7,168	1,228	10,833	1,883	8,724	3,303	33,139
	고창모양성제	11,169	5,637	15,099	6,139	12,079	3,258	53,381
	임실N치즈축제	15,365	12,322	15,995	3,647	13,538	5,902	66,769
	영암왕인문화	15,832	9,527	19,361	5,924	9,730	3,842	64,216
	목포항구축제	9,819	7,300	17,910	6,587	9,151	3,082	53,849
	고령대가야체험	5,361	903	6,488	975	5,725	1,578	21,030
	밀양아리랑	15,458	2,508	23,100	2,554	10,839	3,565	58,024



[2018년 문화관광축제 축제별 전체 소비지출 비교]

5

외지관광객 비율

■ 전체 외지관광객 비율은 68.7% 차지

- 2018년 문화관광축제를 방문한 참가자 중에서 외지관광객은 68.7%, 지역주민은 31.3%로 나타나, 외지관광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축제별 외지관광객 방문 비율을 살펴보면, 정남진장흥물축제 9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화천산천어축제 96.5%, 담양대나무축제 95.0%, 영암왕인문화축제 94.8%, 임실N치즈축제 94.3%, 보성다향대축제 93.9%, 평창효석문화제 92.7%, 봉화은어축제 90.0%, 진도신비의바닷길 축제 90.0% 순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 방문 비율이 높은 동래읍성역사축제가 94.2%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89.0%, 원주다이내믹댄싱축제 86.4%, 제주들불축제 75.9%, 해미읍성축제 65.9%, 수원화성문화축제 55.8%, 목포항구축제 52.0% 순으로 높았음

축제명칭	비율(%)		축제명칭	비율(%)	
	지역주민	외지관광객		지역주민	외지관광객
강경갯갈축제	37.2	62.8	안성맞춤남사당	45.8	54.2
강진청자축제	16.9	83.1	여주오곡나루축제	31.1	68.9
고령대가야축제	19.9	80.1	영암왕인문화축제	5.2	94.8
고창모양성제	43.0	57.0	완주와일드푸드	22.9	77.1
광안리어방축제	28.4	71.6	원주다이내믹댄싱	86.4	13.6
괴산고추축제	22.0	78.0	음성품바축제	23.0	77.0
담양대나무축제	5.0	95.0	이천쌀문화축제	30.9	69.1
대구약령시한방문화	89.0	11.0	인천펜타포트	22.0	78.0
대전효문화뿌리축제	38.6	61.4	임실N치즈축제	5.7	94.3
동래읍성역사축제	94.2	5.8	정남진장흥물축제	3.1	96.9
목포항구축제	52.0	48.0	제주들불축제	75.9	24.1
무주반딧불축제	14.0	86.0	진도신비의바닷길	10.0	90.0
문경전통찻사발축제	17.7	82.3	추억의충장축제	22.2	77.8
밀양아리랑축제	41.0	59.0	춘천국제마임축제	48.0	52.0
보성다향대축제	6.1	93.9	통영한산대첩축제	32.6	67.4
봉화은어축제	10.0	90.0	평창효석문화제	7.3	92.7
산청한방약초축제	19.1	80.9	한산도시문화제	34.8	65.2
서동연꽃축제	18.0	82.0	해미읍성축제	65.9	34.1
수원화성문화축제	55.8	44.2	화천산천어축제	3.5	96.5
순창장류축제	13.3	86.7			
시흥갯골축제	35.7	64.3	평균	31.3	68.7

6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89.6% 차지

- “○○축제가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 주 동기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즉,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사람의 비율은 89.6%로 높게 나타남
 - 2017년 85.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이 높은 축제
 - 화천산천어축제 100.0%가 10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산모시문화제 99.2%, 강경젓갈축제 96.0%, 서동연꽃축제 95.8%, 임실N치즈축제 95.7%, 순창장류축제 95.2% 순으로 높았음

[2018 문화관광축제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축제명칭	비율(%)	축제명칭	비율(%)	축제명칭	비율(%)
강경젓갈축제	96.0	보성다향대축제	90.4	인천펜타포트음악	88.1
강진청자축제	81.6	봉화은어축제	—	임실N치즈축제	95.7
고령대가야축제	—	산청한방약초축제	88.8	정남진장흥물축제	91.5
고창모양성제	87.0	서동연꽃축제	95.8	제주들불축제	83.2
광안리어방축제	79.8	수원화성문화축제	93.8	진도신비의바닷길	94.4
괴산고추축제	84.7	순창장류축제	95.2	추억의충장축제	81.7
담양대나무축제	93.8	시흥갯골축제	93.4	춘천국제마임축제	74.8
대구약령시한방문화	86.4	안성맞춤남사당	85.4	통영한산대첩축제	76.9
대전효문화뿌리축제	93.0	여주오곡나루축제	91.6	평창효석문화제	91.7
동래읍성역사축제	89.9	영암왕인문화축제	93.6	한산모시문화제	99.2
목포항구축제	94.4	완주와일드푸드축제	94.7	해미읍성축제	85.0
무주만들불축제	93.8	원주다이내믹댄싱	93.9	화천산천어축제	100.0
문경전통찻사발축제	83.5	음성품바축제	82.6		
밀양아리랑축제	—	이천쌀문화축제	89.4	평균	89.6

2018 문화관광축제 >>>

III

지자체의 축제별 설문조사 분석결과



K o r e a C u l t u r e & T o u r i s m I n s t i t u t e

1

부산광안리어방축제

만족도

부산광안리어방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안내해설·지역문화이해·시설안전·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지사 만이 높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의 테마, 콘텐츠, 스토리텔링 등의 강화가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0,516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17%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교통비·숙박비·유흥비·쇼핑비·기타비는 높았으나 식음료비는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숙박비·식음료비·유흥비는 높았으나 교통비·쇼핑비·기타비는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2

부산동래읍성역사축제

만족도

부산동래읍성역사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도 모든 항목에서 전체 축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신규 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다만,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71%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축제 수익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특색 있는 음식, 상품, 체험거리 등의 개발과 함께 주변 지역과 연계한 체류시간 확대 방안이 요구됨



3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만족도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축제재미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다만,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나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축제 콘텐츠/테마와 프로그램, 시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편의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8,830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4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교통비·식음료비·쇼핑비·기타비는 높았으나 숙박비·식음료비는 낮았음.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쇼핑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축제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4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만족도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유사하게 분석된.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6개 항목(축제재미, 프로그램, 안내해설, 시설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등)은 높았으나 4개 항목은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먹거리, 살거리, 사전홍보, 지역문화의 이해 부분에 대한 강화가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4,720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261%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쇼핑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지역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5

광주추억의충장축제

만족도

광주추억의충장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3개 항목(안내해설, 시설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항목)이 낮게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의 안내해설시설 및 기반시설, 교통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7,720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34%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교통비·식음료비·유흥비가 높았으나 숙박비·쇼핑비·기타비는 낮았음. 전국 평균에 비해 숙박비·기타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야간 프로그램 확대, 주변 자원과 연계 등 체류시간 증대방안이 요구됨



6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만족도

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3개 항목(축제먹거리, 살거리, 접근성 및 주차장)을 제외한 7개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적 특색을 보유한 먹거리, 살거리의 발굴 및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5,276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66%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숙박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축제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7

이천쌀문화축제

만족도

이천쌀문화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사전홍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대부분의 항목이 낮게 분석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556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93%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식음료비·유흥비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식음료비·유흥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 방안과 함께 지역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8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만족도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5개 항목(축제프로그램, 살거리, 사전홍보, 지역문화이해, 재방문 및 타인방문유도의사)에서 높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 발굴 및 시설 안전 강화,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8,310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99%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쇼핑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식음료비, 유희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 방안 및 지역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9

수원화성문화제

만족도

수원화성문화제의 만족도는 전년대비 다소 높았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먹거리와 살거리 개발이 필요하며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2,854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41%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축제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10

시흥갯골축제

만족도

시흥갯골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안내해설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위한 프로그램, 시설 등의 개선 방안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0,876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60%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식음료비·쇼핑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식음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축제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11

여주오곡나루축제

만족도

여주오곡나루 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도 사전홍보, 안내해설을 제외한 항목에서 전체 축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신규 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온프라인 홍보, 유관기관 협력 홍보 등 사전홍보체계 강화가 요구되며 관광객 편의를 위한 안내해설체계 구축도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83%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한 쇼핑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축제 수익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특색 있는 음식, 상품, 체험거리 등의 개발과 함께 주변 지역과 연계한 체류시간 확대 방안이 요구됨



12

화천산천어축제

만족도

화천산천어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방문객들의 축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난 주차장 등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9,604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22%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년대비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유희비·쇼핑비가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 및 축제와 지역 자원 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 파급효과 방안이 요구됨



13

평창효석문화제

만족도

평창효석문화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재미, 지역문화이해,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 대비 축제 프로그램·먹거리·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의사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축제 테마 설정 및 축제 홍보, 안내체계 개선 등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4,965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74%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숙박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교통비·숙박비는 높았으나 식음료비·유희비·쇼핑비·기타비는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특색 있는 먹거리, 살거리, 체험거리 등의 개발이 요구됨



14

원주다이너믹댄싱카니발

만족도

원주다이너믹댄싱카니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살거리·지역문화이해·시설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항목이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 특산물·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 교통체계 개선 등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558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73%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식음료비·유흥비는 높았으나 교통비·숙박비·쇼핑비·기타비는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식음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 및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15

춘천국제마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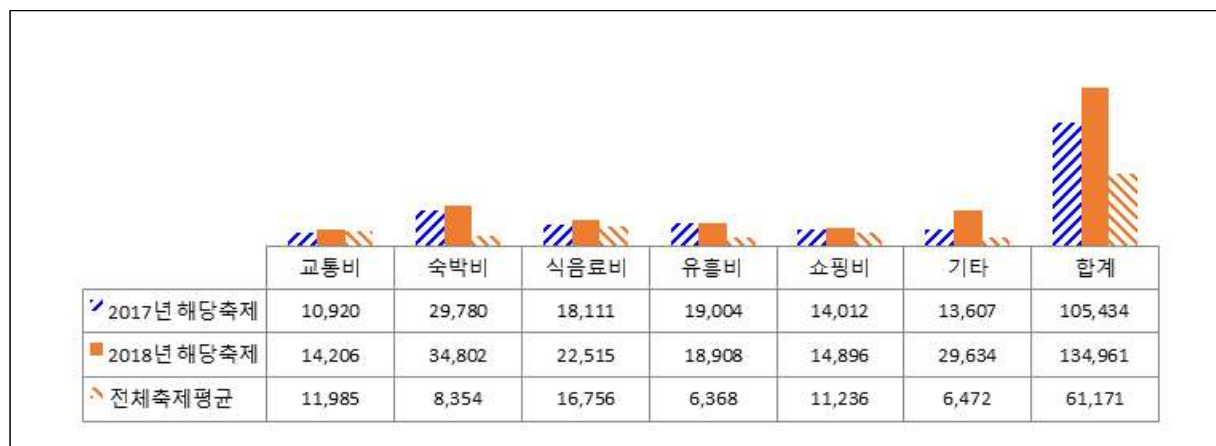
만족도

춘천국제마임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뿐만 아니라 전체 축제평균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음. 보다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난 지역 특산물, 기념품 등의 개발을 통한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9,257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221%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유흥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이 매우 높은 축제라 할 수 있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16

괴산고추축제

만족도

괴산고추축제의 만족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사전홍보·지역문화이해·시설안전·접근성 및 주차장유도의사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살거리·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의사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홍보체계, 교통체계, 시설안전체계 등의 강화가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115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10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교통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숙박비·식음료비·유흥비·기타비가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확대 방안 및 먹거리, 체험거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17

음성품바축제

만족도

음성품바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 대비 낮았으며 항목별로는 축제재미·지역문화이해·재방문 및 타인방문유도 의사 항목은 높은 반면, 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사전홍보·시설 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항목은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화 프로그램 발굴, 먹거리 및 살거리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이 요구됨. 신규 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99%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교통비·식음료비·쇼핑비는 높았으나 숙박비·유희비·기타비는 낮았음. 이에 축제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숙박객 유치 방안 및 다양한 체험거리 발굴이 요구됨



18

강경젓갈축제

만족도

강경젓갈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살거리·지역문화 이해 항목을 제외한 8개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 시설안전·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의사 항목을 제외한 8개 항목에서 높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 및 축제시설의 안전체계 개선 등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1,240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31%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숙박비·유흥비·쇼핑비·기타비는 높았으나 교통비·식음료비는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교통비·숙박비·쇼핑비는 높았으나 식음료비·유흥비·기타비는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방안 및 다양한 특산물, 기념품 발굴을 통한 설거리 개발방안이 요구됨



19

부여서동연꽃축제

만족도

부여서동연꽃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살거리·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항목을 제외한 8개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개발 및 주차장 등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4,462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6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교통비·식음료비·유흥비는 높았으나 숙박비·쇼핑비·기타비는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축제 수익창출 계획 수립이 요구됨



20

서천한산모시문화제

만족도

서천한산모시문화제의 만족도는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목 간 비교를 통해 다소 낮게 나타난 접근성 및 주차장의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62% 수준으로 나타남. 축제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게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축제 수익창출 계획 수립이 요구됨



21

서산해미읍성축제

만족도

서산해미읍성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과는 동일하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축제 평균과 비교해서는 축제 재미 · 프로그램 · 먹거리 · 사전홍보 · 시설안전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 이색적인 테마 · 콘텐츠의 설정 및 먹거리 개발, 사전홍보체계 강화, 시설안전 강화가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44,338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06%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교통비 · 유희비 · 쇼핑비 · 기타비는 높았으나 숙박비 · 식음료비 항목은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숙박객 유치 방안 및 차별화된 축제 음식 개발이 요구됨



22

무주반딧불축제

만족도

무주반딧불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먹거리·살거리·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항목이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특색이 있는 음식, 특산물, 기념품 등 먹거리와 살거리의 개발 및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3,597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5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숙박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유흥비·기타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높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자원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 촉진함으로써 유흥비의 비율을 높임



23

순창장류축제

만족도

순창장류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의사를 제외한 8개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높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차장 등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661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72%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교통비·숙박비·쇼핑비는 높았으나 식음료비·유희비·기타비는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쇼핑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축제 수익창출 계획 수립이 요구됨



24

완주와일드푸드축제

만족도

완주와일드푸드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의사를 제외한 9개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84,418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54%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및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축제 수익창출 계획 수립이 요구됨(다만, 2017년 소비지출이 1인당 지출액인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됨)



25

고창모양성제

만족도

고창 모양성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축제프로그램 · 먹거리 · 살거리 · 안내해설 · 시설안전 항목이 낮게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적 특색이 있는 음식 · 기념품 · 특산물 개발, 안내시설 확충 · 시설안전 강화가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40,159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87%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쇼핑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축제 수익창출 계획 수립이 요구됨



26

임실N치즈축제

만족도

임실 N치즈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도 지역문화이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신규 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09%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교통비·숙박비·쇼핑비는 높았으나 식음료비·유흥비·기타비는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축제 음식 발굴 및 체험거리 개발이 요구됨



27

강진청자축제

만족도

강진청자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낮았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살거리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525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136%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교통비·숙박비·기타비는 높았으나 식음료비·유흥비·쇼핑비는 낮았음.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유흥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특산물, 기념품 등 다양한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28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만족도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사전홍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6,932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30%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기타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기타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다만, 다른 항목에 비해 유흥비·쇼핑비가 낮게 나타나 다양한 체험거리 발굴 및 특산물·기념품 개발이 요구됨



29

담양대나무축제

만족도

담양대나무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8,225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91%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식음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숙박비·식음료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축제 음식 개발 및 다양한 체험거리 확대, 특산물·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30

보성다향대축제

만족도

보성다향대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770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101%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교통비·식음료비·쇼핑비는 높았으나 숙박비·유흥비·기타비는 낮았음. 전국 평균에 비해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는 높았으나 유흥비·쇼핑비·기타비는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체험거리 및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31

정남진장홍물축제

만족도

정남진장홍물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 재미·프로그램·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항목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의사를 제외한 9개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4,548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126%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숙박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쇼핑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32

영암왕인문화축제

만족도

영암왕인문화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 재미, 프로그램, 사전홍보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의사를 제외한 8개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2,027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0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유희비·쇼핑비·기타비 항목이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체험거리 발굴 및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33

목포항구축제

만족도

목포항구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도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신규 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88%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식음료비·유흥비는 높았으나 교통비·숙박비·쇼핑비·기타비는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숙박객 유치 및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34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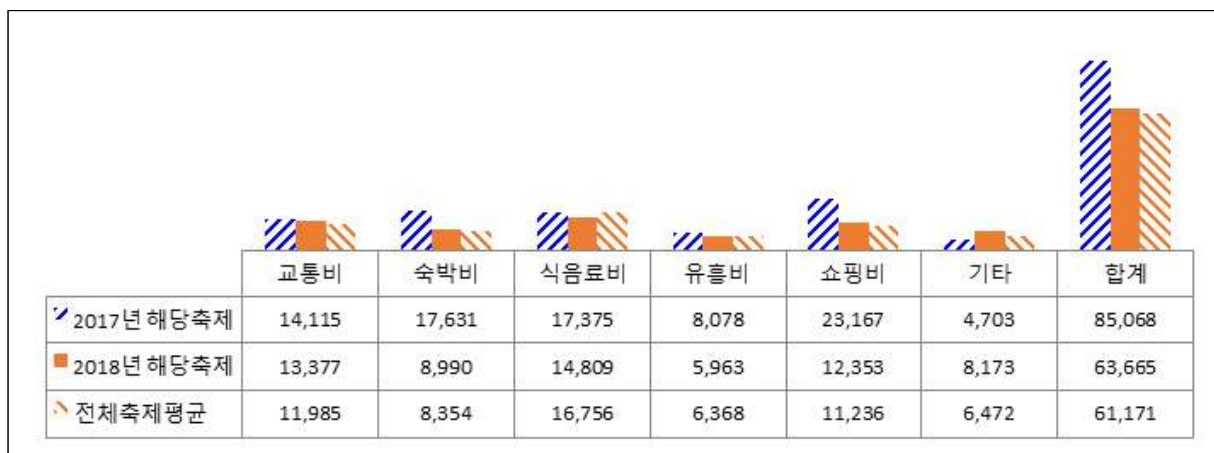
만족도

문경전통찻사발축제의 만족도는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먹거리·살거리·사전홍보·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항목에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사의사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1,403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104%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식음료비·유흥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높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특색 있는 축제 음식 개발 및 다양한 체험거리 발굴이 요구됨



35

봉화은어축제

만족도

봉화은어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먹거리·살거리·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항목이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색 있는 음식 개발 및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548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63%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교통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축제 수익창출 계획 수립이 요구됨



36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만족도

고령대가야체험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살거리·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의사를 제외한 항목은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 및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6,220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34%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쇼핑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축제 수익창출 계획 수립이 요구됨



37

산청한방약초축제

만족도

산청한방약초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을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살거리·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의사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의 명확한 테마 부여, 프로그램 개발, 먹거리 및 체험거리 발굴 등 축제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6,666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137%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식음료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특색 있는 음식 개발이 요구됨



38

통영한산대첩축제

만족도

통영한산대첩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재미·프로그램·먹거리·지역문화이해·시설안전·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의사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7,303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100%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유희비·쇼핑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교통비·식음료비·기타비가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특색 있는 음식 개발이 요구됨



39

밀양아리랑축제

만족도

밀양아리랑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모든 항목에서 높았음. 다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 주차장 등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2,025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9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숙박비·유흥비가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숙박비·유흥비·쇼핑비·기타비가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숙박객 유치 방안 및 다양한 체험거리, 특산물·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40

제주들불축제

만족도

제주들불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8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만이 낮게 나타났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사전홍보,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의사를 제외한 7개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7,727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89%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교통비·식음료비·쇼핑비·기타비가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교통비·쇼핑비·기타비가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축제음식 발굴 및 특산물, 기념품 등 다양한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2018 문화관광축제 >>>

IV

전문가 현장평가 축제별 결과



K o r e a C u l t u r e & T o u r i s m I n s t i t u t e

1

광안리어방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4월 27일(금) ~ 4월 29일(일) / 3일간
- 장 소 :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 주 최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주 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프로그램(2) : 어방그물끌기 한마당, 경상좌수사행렬
 - 주제프로그램(5) : 어방민속마을, 진두어화, 수문장교대식, 무형문화재공연(수영야류, 수영농청놀이), 망쥬레
 - 문화·공연 프로그램(7) : 개막축하공연, 폐막공연, 어방문화공연, 세계민속페스티벌, 의장대 공연, 수군무예공연, 어방꾸러기음악회
 - 참여·체험 프로그램(11) : 맨손으로 활어잡기, 활어요리경연대회, 생선회 깜짝경매, 어기영차! 그물끌자!,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 사진공모전, 우리옷 체험, 수영성 민속대결, 내왕소리체험, 수영성 유물발굴 및 복원체험, 생선 통구이 화덕체험
 - 부대행사(9) : 윈드서핑대회, 해양레포츠체험, 먹거리장터, 소망등, 문화예술의거리(자율공연, 수공예품·기념품 전시·판매), 비치씨네마, 특산물장터(업소가격할인행사), 전통뱃놀이, 어방수라간

(2) 총 평

- 잘된 점
 - 완성도 높은 공연, 개막식 등 축제콘텐츠
 - － 어방축제의 주제와 의미를 살리는 어방 해상실경뮤지컬 공연의 질이 한층 향상되었으며, 관객의 편의성과 몰입도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돋보였음. 특히 완성도 높은 뮤지컬은 축제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방문객의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등 타 축제와 차별화되는 요소임

- 또한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막식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축제의 핵심요소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동성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 수준 높은 축제의 운영과 진행
 - 축제안전본부 운영, 경찰의 순찰 강화, 안내요원 배치 등 관광객의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 축제공간을 5개의 마당으로 구분하여 조닝별로 파라솔, 의자, 돛자리 대여 등 관람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됨. 특히 무료 식수대 배치, 돛자리 대여, 무료 한복대여 등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음
- 높은 지역주민 참여로 기대되는 축제 발전 가능성과 효과 기대
 - 축제예산중 많은 부분을 지역소재 업체 협찬 및 수익사업으로 충당해 재정자립도가 17% 수준이며 지역주민의 축제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향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의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높이 평가됨
 - 또한 주변 식당가와 협조하여 축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변 맛집 등과 연계하여 음식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축제의 지역과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은 점을 높이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공연프로그램 기획
 - 해상무대 공간구조상 제약으로 인한 관람인원의 제한, 야외 야간행사라는 점을 고려해 관람객과 공연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점은 향후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공연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필요
 - 공연프로그램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다소 혼란스러운 점, 체험프로그램의 유료화로 인한 참여자수의 제한, 매력 있는 체험프로그램 수의 제한 등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여짐
 - 대표 축제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외부홍보가 부족해 축제브랜드 형성에 한계가 있는 점은 매년 지적되는 점으로 대표프로그램의 콘텐츠 완성도 제고와 함께 홍보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더욱 수준 높은 축제를 위한 운영상 개선 필요
 - 야간안내소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안내요원 확충, 행사장 인근 주차장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특히 바닷가 공연 등 야간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야간 안전요원 배치 등은 향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 지역사회 주도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확대 필요

- 지역상인회와 함께하는 음식상품 개발, 축제공간의 지역사회로의 확대, 젊은 층 참여 확대를 위한 길거리 음식 개발, 민관협력의 축제추진조직 설립 등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광안대교 야간경관을 배경으로 공연하는 어방 해상실경뮤지컬은 작년과 달리 700석의 해상무대를 설치하여 편의성과 몰입도를 향상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수영지역 어민의 삶, 경상좌수사 수군의 훈련장면, 왜란 전투장면 등 어방축제의 주제와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기획됨 - 완성도 높은 뮤지컬을 통해 축제의 내용과 방향을 알리고 방문객의 관심도를 집중시킬 수 있어 타 축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음(용왕제, 그물끌기 등 공연 전후로 관람객들이 지역 색을 살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한 점도 돋보임) ○ 경상좌수사 행렬은 전문 공연팀이 행렬 곳곳에서 공연을 펼쳐 볼거리가 다채로웠으며, 광안리에 놀러온 간접참가자들도 축제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된 프로그램이었음 ○ 해상무대 좌석이 700석으로 한정되어 있고 외부에서는 무대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무대·좌석의 높이 조절, 좌우에서 관람객이 볼 수 있는 무대세트 변화 등 보다 많은 사람이 어방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야간 공연(어방)은 낮과 달리 기온이 내려가 관객들이 추위에 떠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였으며, 팜플렛 등을 통해 ‘긴팔 옷 필수’ 등의 사전고지도 필요함 ○ 문화공연 프로그램이 여러 행사장에서 이루어져 혼란스러움이 가중되었고, 메인 행사장을 구분하기 힘들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유료로 진행되어 체험자 수가 적었으며, 방문객의 관심을 끌만한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였음 ○ 개막식까지 행사장 조성이 이뤄져 포크레인, 트랙터가 미관을 해친 부분, 해상무대 바로 옆에 대기실이 없다보니 공연 참가자가 추위에 노출된 부분은 개선 필요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 해변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의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현장에서 축제안전 본부를 운영하고 특히 경찰의 적극적인 해변·해상순찰 등이 관광객의 안전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식수대를 다수 배치하고 돛자리 대여, 햇빛 차단을 위한 일회용 썬캡을 나누어 주어 축제 관람 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유용하였음 ○ 해상실경뮤지컬 관람석 정보를 입구 안내요원이 실시간 안내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였으며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격할인 행사 정보를 팜플렛으로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안리 해변을 어방, 민속, 공연 등 5개의 마당으로 zoning 하고 도로변의 카페·커피숍, 해변을 따라 설치된 파라솔과 의자, 돛자리 대여 등 행사참여와 휴식을 도로변과 해변 두 개의 동선에서 접근할 수 있게 적절히 구성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어방’의 해상무대를 파도에 의한 안전상의 이유로 모래 해변으로 이동시킨 것은 순발력 있는 조치였음 - 축제공간을 바다를 바라보며 배치한 것 역시 축제의 재미와 의미를 부각시키는 효율적인 공간 배치였음 ○ 개막식에 파고가 다소 높아 실경뮤지컬 워터스크린 부표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밧줄 등이 요구되며, 행사장 설치를 위해 동원된 포크레인과 트랙터 등이 만든 바퀴자국이 너무 깊이 패어 관광객 도보 시 위해요인으로 작용함 ○ 야간까지 바닷가 공연이 열리는 만큼 메인 축제 공간 외에도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 야간 안전 요원을 축제장(특히 해변) 곳곳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어방 민속마을 등 저녁 9시까지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관광안내소 등은 도심축제의 특성상 일부 안내소에서라도 야간에 운영하여 관광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예산 6.7억 중 1.2억의 예산을 지역업체 협찬 및 수익사업으로 충당해 재정자립도가 17% 수준이며 향후 협찬확대 등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가능성이 있음 - 축제 담당자들은 대체로 친절해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았으며, 축제 곳곳에 전문가를 배치해 축제의 재미를 높인 것도 돋보임 ○ 생선을 활용한 먹거리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였으며, 확대 보완 추진하거나 주변 맛집 등과 연계하여 음식 관광을 활성화 하는 것도 좋을 듯함 - 물고기 잡기 대회 때 ‘민락횃집타운’의 협조가 어우러지는 등 지역주민이 참여가 돋보였으며, 잡은 물고기 등을 현장즉석에서 회를 떠 주는 광경은 광안리의 특성을 잘 살린 먹거리 프로그램이었음 ○ 광안리어방축제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관주도의 축제로서 향후 지역주민 주도의 자생력 있는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상설 축제추진주체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안리 및 민락횃촌 주변 음식점과 연계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쓰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해당기간 금, 토, 일요일은 축제 개최와 상관없이 손님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으며, 광안리 어방축제의 목적이 단순히 축제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어방 브랜드 형성을 위한 것임을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 공유해야 함 ○ 축제의 공간을 광안리 모래사장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인근 방파제 영역까지 자유롭게 넓혀 버스킹, 그래피티 등의 무대를 선보이는 것도 필요하며, 일부 할인 프로그램이 있으나 인근 상가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에 참여한 8개 공연팀 중 7개 공연팀이 지역 대학, 합창단이며 팜플렛에 각 공연팀의 명단, 준비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수영구 지역주민은 자부심과 공감대를, 관광객은 지역 색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어방민속마당의 해녀문화체험관에 해녀복장을 한 수영구의 수영민속보존회 할머니들이 실제 그물짜기, 다디미 등을 시연하며 관광객들에게 해녀문화와 어방민속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 등 체험, 음식 등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수준이 높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의 여러 축제 중 대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할 필요함 – 어방축제에 관한 홍보가 덜 돼 부산지역 뿐 아니라 다수의 여행객들이 축제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면은 보완해야 할 점임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간이지만 지역 전통과 어우러져 도심 속, 해변가에 전통문화를 녹이려는 시도가 훌륭하며, 뮤지컬, 행렬 등을 잘 보완하고 완성시키면 단순한 바다라는 공간을 넘어서 문화예술이 접맥된 도심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폐막식 일부 연예인 공연 이외에는 연예인 동원이 최소화되었고, 개막식도 약식으로 진행되었음 – 연예인 동원 행사가 많지 않았으며,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예산 수반이 많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야간에 광안리 해변 곳곳에서 벌어지는 버스킹이 비정형화되었지만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행렬 등에 전문 연예인들 보다는 지역 동아리 등을 참여시킨 점은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라는 면에서 돋보이는 부분임 ○ 축제가 주말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광안리 일대에 주말 숙소가 부족해 참가자들이 외부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축제수익 분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2

동래읍성역사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10월 12일(금) ~ 10월 14일(일) / 3일간
- 장 소 : 동래문화회관, 읍성광장, 온천장 일원
- 주 최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 관 : 동래문화원·동래읍성역사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 프로그램(2) : 동래부사행차 길놀이, 동래성전투실경 뮤지컬
 - 주제 프로그램(3) : 1952년 조선 동래를 만나다(관문체험), 조선 동래사람 되어보기(동래장터 체험), 동래세가닥줄다리기
 - 문화·공연 프로그램(15) : 말뚝이는 왜 말뚝이인가? 인형극, 동래부사집무재현마당극, 전통줄타기 공연, 조선 전기수가 읽어주는 옛이야기 버스킹, 동래전통민속공연, 읍성민숨씨자랑 등
 - 참여·체험 프로그램(13) : 장영실 과학체험전, 동래읍성 병영-복식-크로마키 체험, 동래한걸음 야행, 전국 연날리기 대회, 읍성민 씨름대회 등
 - 부대행사(7) : 동래세일대축제, 주민자치 발표회·전시회, 읍성민 먹거리 장터, 명물거리 홍보 운영 등

(2) 총 평

- 잘된 점
 - 동래성 전통 실경 뮤지컬 등 볼거리 풍부
 - 복문을 활용해 송상현 부사와 동래읍성 주민들의 결사항전의 전투과정을 잘 그려내는 등 공연프로그램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프로그램 정비를 통한 집중도 높이기 위해 노력의 성과
 - 기존 4개 분야 65개 종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40개 종목으로 재정비하는 등 집중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음. 특히 야간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축제장의 야간 분위기 조성하고자 한 노력이 높이 평가됨

- 축제장 접근성 제고, 안전 및 축제장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은 비교적 잘 이루어짐
 - 셔틀버스 운영, 축제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 교육, 안전매뉴얼 숙지 및 안전요원 배치, 구역별 축제장 관리, 포토존 설치 등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음
 - 특히 축제공간이 넓은 점을 감안하여 스태프 투어를 통해 축제장 전반을 둘러볼 수 있게 만든 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됨
- 전문 공연 중심의 축제로의 발전가능성 충분
 - 뮤지컬 공연을 통해 동래읍성 전투를 재현하는 등 축제주제를 고려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은 다른 축제와 차별화되는 요소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관람객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공연의 질 제고 노력 필요
 - 인형극, 뮤지컬, 마술 등 관람객의 참여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의 수는 많았으나 단순 관람에 그치고 있어 공연프로그램의 질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공연 프로그램 관람객의 편의 제고 필요
 - 공연장의 간담의자 설치,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야간 안전 관리 등 야간 공연성격을 감안한 다양한 관람객의 편의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관람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 필요
 - 간이화장실 추가 설치, 주차장 확보, 휴식공간 마련, 동선 관리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해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형 축제로서 1592년 임진왜란 당시의 동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읍성역사 축제로 스토리를 중심으로 체험과 역사교육형 축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인형극, 뮤지컬, 마술 등 관람객을 참여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많아 단순 관람에만 그치지 않음 - 동래성 전통 실경뮤지컬 공연은 복문을 활용해 송상헌부사와 동래읍성시민들의 결사항전의 전투과정을 잘 묘사했으며, 그 외 작은 음악회, 마술, 줄타기 등 공연이 많았음 ○ 야간의 동래를 관광하는 '동래 한걸음 야행'을 편성하였고 소망 등을 내걸어 야간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축제장의 야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 '동래부사행차길놀이'는 동래부 동헌에서 동래문화회관까지 1.5km 구간을 행렬하며 구간마다 전문 연극인의 퍼포먼스로 치열했던 동래성 전투를 표현해 축제의 주제를 부각시킴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래세가닥 줄다리기도 동래의 대표민속놀이이자 이번 축제의 대동성이 발휘되는 프로그램인데 동래온천장에서 펼쳐져 축제의 주요동선에서 벗어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연장 앞에 관람석을 만들었지만 간의의자 설치 등을 통해 공연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래읍성 북문언덕에서 펼쳐진 실경뮤지컬 '외로운 성'은 작품성과 의미가 큰 주제공연으로 의미가 크나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이 필요 ○ 동래세일대축제는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으나 주요 상권과 거리가 있어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효과 극대화방안 마련 필요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매뉴얼에 따라 세부적인 프로그램별로 안전요원을 적절한 위치와 시간에 배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전면부에 운영 및 안전본부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였으며 축제 운영스텝 및 자원봉사자가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별도로 인쇄하여 소책자 형태의 안전매뉴얼을 별도로 발행하여 교육 후 배포하였음 - 사전에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통해 축제 프로그램 소개 및 축제장 내 질서유지에 대한 사항들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함 ○ 읍성 자체의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을 최대한 자연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인위적인 구조물보다 자연스런 분위기를 내하고자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래문화회관, 북문언덕, 읍성광장 등 지형에 맞춰 적절하게 행사장을 배치하였으며, 5구역으로 나눠 주제별로 행사장을 꾸몄음 ○ 동래역과 온천장역, 명장역 등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분산역 등 주요 외부에서의 부산과의 플랫폼에 축제 붙임 부족. 태풍이 지나가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며 다음해에는 이에 대한 대비 필요함 ○ 축제장의 주차장(매우 협소함), 간이 화장실, 휴식 공간 등 축제공간 구성부분을 재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부스가 협소해 서서 먹는 사람이 많았으며, 메뉴도 다양하지 못해 읍성만의 전통음식 개발이 필요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조직은 동래구에서 행정지원을 하며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축제의 기획, 조정, 자문 및 평가의 역할을 하며 실제적인 실행은 동래문화원이 세부계획수립 청 예산집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하며 대행사에 의해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특성상 역할 배분이 적절하며 지역의 전반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보임 ○ 호패체험, 조선시대 옷 입어보기 등등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스탬프투어를 통해 관람객들이 축제장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활용도가 높았음 ○ 축제의 시민 및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축제 기획 단계부터 시민기획단 형태로 축제아카데미, 벤치마킹 등의 방법을 통해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나름대로 방향이 필요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의 경우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없어 향후 동래읍성역사축제의 먹거리개발이 필요함 - 문화회관 뒤쪽 길가에 동별로 테이블을 점령해 마을별로 술판이 벌어져 동선 상 방해되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으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 있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에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연의 경우 소규모 무대를 운영하고 자매결연 지자체인 고창의 국악단 공연 등을 활용하여 의미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동래읍성민 씨름대회, 시화전, 서화전, 가요제 등 주민 참여형 행사가 많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뜨거움 - 읍성민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국밥, 국수 등 25개 품목 판매를 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지역특색을 반영한 음식을 제공함 ○ 현재의 축제 예산은 문화관광축제로서 면모를 갖추고 홍보체계를 갖추기에는 다소 적은 예산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확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요태, 박구윤 등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공연을 하였으며, 제시된 프로그램을 취소 없이 진행하였음 ○ 청사조롱 조명과 야간 공연프로그램이 많아 밤에도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음 ○ 조선시대 이름짓기, 관문체험, 호패체험, 엽전체험, 조각보, 동래탈, 목검 등 동래읍성만의 전통 체험거리가 많았으며, 거리에서의 즉석 OX퀴즈 독특하고 재미있었음 ○ 실경 뮤지컬 공연은 경사면에서 진행하다보니 인파가 몰릴 때는 동선상 어려움이 있으며 화단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경사면에 앉아 관람하기에 1인용 방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했으면 좋겠고, 지형 상 부채보다는 깔판을 나눠주는 것이 실용성이 있음

3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5월 3일(목) ~ 5월 7일(월) / 5일간
- 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 약령시(약전골목) 일원
- 주최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 주관 : (사)약령시보존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 프로그램(2) : 고유제, 개막식
 - 참여 프로그램(5) : 근대문화 골목투어, 정성탕 나누기, 점포박물관 스탬프투어, 달빛 야경투어, 한방먹거리 시음행사(한방수제맥주 등)
 - 경연 프로그램(1) : 전승기예(한약재 썰기) 경연대회
 - 체험 프로그램(15) : 약령술문, 한방문화 체험(전통의상, 예절, 약찹싸기 등), 사상체질 체험관, 약초동산, 한방 족욕 체험, 한방 환 만들기, 한방 힐링센터(한방진료 및 무료상담), 한방 놀이터(북카페, 약탕기 디퓨저 만들기 등), 주제관(약령시 역사관), 테마한약재 전시 및 체험관, 한방푸드트럭, 약령문화체험(짚공예, 약초방향제, 전통활 등), 약저울달기, 약령옛길(청사초롱, 향주머니만들기 등), 약령다방
 - 공연 프로그램(6) : 약령마당극, 한방놀이터(키즈 밸리댄스, 어린이국악공연 등). 한방 힐링콘서트, 약령시 가수왕, 거리의 풍각쟁이(아코디언, 솔로가수공연 등), 약령명탐정,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 주제, 축제공간, 축제 프로그램의 일치성이 돋보였음
 - 축제주제는 메디컬 도시 대구와 부합하고, 축제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이 축제의 주제인 한방, 약령, 건강과 잘 어울리게 구성되어 있음
 - 전반적으로 주제와 관련하여 전시, 공연, 판매, 체험 등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음
- 한방관련 관광객들의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배치한 점은 높이 평가됨

-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약령명의관이나 사상체질관과 한방힐링센터를 통한 의료체험행사는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젊은 참가자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돋보임
 - VR체험, 푸드트럭, 약령명탐정 등 젊은 느낌의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향토음식 부스를 배제하고 푸드트럭으로 대체하여 젊은 분위기 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개선된 축제서비스와 축제 관리 운영
 - 축제장 곳곳에 진행 및 안내요원이 잘 배치되고 있으며 체질체험관 등 인기프로그램에 번호표 기기를 도입하여 관람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었음
 - 축제장의 선형상 동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테마별 흐름도를 작성하여 축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축제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
 -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활용되지 않은 거기공간을 활용하여 축제장 전체 규모를 확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은 높이 평가됨
- 축제기획에 대한 투자와 관심
 - 2017년부터 축제감독을 선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축제발전을 위한 상가주민 등과의 협력노력도 높이 평가됨
- 무엇보다도 한방거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한방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관광객에게 알리고 홍보한 점은 높이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대형 거리를 중심으로 프로모션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메인으로 열리다 보니 축제라기보다는 큰 이벤트 공간으로 인식되는 한계가 있어 향후 기본적인 축제성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대표프로그램에 대한 고민과 지속적인 개발 필요
 - 축제프로그램이 대부분 전시, 판매, 부스 체험 등으로 이루어져, 대표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부족함
 - 현재 대표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상체질 체험관, 한방 힐링센터, 한약전시관도 정적이고 단순체험위주로 되어 있어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대표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거리 중심 선형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고민 필요
 - 약령거리 특성으로 인한 선형공간의 단점으로 인해 단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주무대의 역할이 약하므로 이동형과 거점형의 프로그램을 적절히 배치하여 축제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야간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시관광 활성화 노력 필요
 - 현재 축제기간중 야간프로그램은 달빛야경투어가 유일해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특히 주변의 우수한 근대문화유산골목길과 연계한 특색있는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방의 이미지 극복과 젊은 층 유입을 위한 개선 노력 필요
 - 현재 축제참가자들인 장년층 위주에서 가족층, 젊은 층 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하고 한방이라는 전통적인 테마를 건강, 힐링 등으로 테마를 확대하는 등 젊음은 층에게 어필하기 프로그램 개발 필요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회 동안 쌓인 한방노하우를 가지고, 관광객들이 직접체험 하도록 하는 약령명의관의 사상체질관과 한방힐링센터를 통한 의료체험행사 등이 대표프로그램으로서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고 차별화되고 있음 - 즉,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사회의 특징과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축제 전체의 테마프로그램이 한방의 정체성과 집중화 되어있어 관광객의 지속적인 관심을 잘 유도하고 있음 ○ 약령시 연계 한방건강 프로그램체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체질 체험관에서 체질진단과 처방 -> 한방힐링센터에서 추나요법 등 진료 -> 한약재 전 시관에서 체질에 맞는 한약재 확인 -> 약령시 약재상에서 약재 구매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다만, 방문객 입장에서는 연계시스템이 느껴지지 못하고 아직은 사상체질 체험관, 한방 힐링 센터 개별프로그램으로 인식됨 - 향후 대표프로그램으로서 강화 확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명확히 구축하여 부각할 필요가 있음 ○ 본 축제에 내제된 중요한 가치인 약령시가 안고 있는 근대한국의 정신을 축제에 승화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보완될 필요함 - 즉, 근대골목과 약령한방시가 융화된 스토리텔링의 체계화 작업이 가미됨으로써 보다 알찬 축제가 될 것임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현장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는 한방차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고가의 한약재로 정성스럽게 달구어 관광객들에게 실비로 제공하고 있고, 평소 고가로 운영되는 주차장들도 축제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형축제로 잘 운영되고 있음 ○ 지역상가와 충분히 협조하여 야간관광활동을 활성화 시켜할 것으로 평가됨. 오히려 도심축제의 진정한가치성은 야간활동이 핵심콘텐츠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물론 지역 상인들의 반발 등 산적한 과제들이 있으나 범시민적 차원에서 야간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안들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봄 ○ 축제를 통하여 권역내의 상가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타 도심축제의 경우 주최 측에서 의도적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역상가의 차별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있는 사례를 참조해야 할 것임

평가항목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실행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령명탐정의 경우 방문을 곳곳에 크게 붙이고 수배령을 내렸으나 수배된 캐릭터의 배우들이 곳곳에 다녀도 붙잡고 퀴즈를 맞추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음. 프로그램 공급자들은 진행을 하고 있으나 수요자들은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 주목을 끌지 못하고 생동감이 떨어짐 ○ 공간 배치의 적절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약박물관 앞 광장에서 벌어진 한방놀이터1(체험) 프로그램은 무대와 뒤섞여 프로그램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다소 유명무실해짐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회와 협력해 축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축제를 계기로 약령물 상품을 판매하는 등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 ○ 한방축제의 특성 상 자칫 어른위주의 축제로 흘러갈 수 있는 내용들을 어린이의 눈높이 맞는 다양한 놀이와 테마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표적시장의 욕구에 대응하고 있음 ○ 사상체질에 대한 학문적, 실용적인 측면을 축제기간동안 충분히 그 가치성을 관광객들에게 인식시키고 한방의 과학성 제대로 입증하는 질적으로 우수한 과학적인 축제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안내체계가 부족함. 앞서 지적인 바와 같이 보다 디테일한 외국어로 된 안내판제공이나 해설체계가 미흡함 ○ 약령시만의 고유한 차별적인 한방가치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홍보전략이 다소 부족함. 전국에서 약령시만의 정체성확보와 차별적인 한방상품화전략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응이 필요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예년에 활용하지 않은 거리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축제장 전체의 규모적인 확장을 가지고 있음. 특히 청년창업자들이 참여한 '한방푸드트럭'이 퓨전형식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한방먹거리타운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축제기간동안 한약 상가에 실제로 많은 약재가 팔리고 있어 지역상인의 수익성확보(축제기간 30~40%)에 축제가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테마한약재전시관의 경우 기존의 사상체질을 8개로 세분화로 분류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행사로 발전하고 있음. 새로이 미디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보인 '약령문'과 축제통용화폐 등 축제활성화를 위한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 축제로 평가됨 ○ 본 축제의 방향성이 질적인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은 높이 평가되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개선들이 필요함. 예를 들어 약령솔문의 주변 바닥과 설치물의 재배치, 약령문에 대한 브랜드네이밍 미설치, 한방장터길 등의 일관된 스토리전개의 부족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음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회 개최의 지속적인 축제의 경험이 있어 문체부의 평가지침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예년과 달리 축제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약령시를 세계적인 관광목적지로 개발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할것으로 사료됨 ○ 대중적인 대표 체험프로그램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에서의 공방형 체험프로그램 이외에도 약저울달기처럼 주제관련성을 가지고 다수의 방문객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집단적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약령시축제하면 떠오를 수 있는 명장면을 만들 수 있어야 함

4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8월 10일(금) ~ 8월 12일(토) / 3일간
- 장 소 : 송도 달빛축제공원
- 주 최 : 인천광역시
- 주 관 : 인천관광공사, (주)에스컴
- 주요행사 :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 80여팀의 공연 및 부대 프로그램
 - 펜타포트락페스티벌 : 국내·외 뮤지션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아웃도어 락페스티벌로 특색 있는 3개의 스테이지 공연과 함께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펜타포트 슈퍼루키 : 실력 있는 신진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상금 및 축제참여기회 제공, 앨범제작 지원 등 아티스트의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라이브딜리버리 : 인천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
 - 라이브클럽파티 : 지역 내 우수한 라이브클럽을 선정하여 ‘펜타포트라이브클럽’으로 지정하고, 특색에 맞는 공연을 기획, 유치

(2) 총 평

- 잘된 점
 - 국내 대표적인 락페스티벌로서의 발전가능성 내포
 - 7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등 계속해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유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장점임
 - 특히 락을 향유하는 계층이 과거 젊은 층에서 오늘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장르가 되면서 투자와 기획여하에 따라서 국내대표 음악축제로 발전가능성이 충분함
 - 접근성 개선 노력과 축제장의 높은 쾌적성
 - 행사장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고 예약주차장이 행사장 바로 앞에 위치해 방문객들이 축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특히 서울 등 외지 방문객을 위해 왕복셔틀버스를 운영하였고 행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야시간까지 운영한 점은 좋게 평가되었음

- 축제장이 넓은 녹지와 음악축제의 특성상 주변 위해 시설과 소음 민원발생 시설이 없는 등 축제공간으로 우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부스 및 참여업체들의 관리도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축제공간의 환경여건이 우수함
- 축제의 재정자립도 강화노력과 축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축제의 재정자립도와 대중화를 위해 티켓 판매 가격을 낮춘 점, 축제 사전 안내 노력과 꽃가마 셔틀버스, 현지 안내정도, 주차장 관리 등 잘 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안내 및 주차장 예약 등은 효율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용자의 평가도 좋았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인천 락페스티벌만의 차별성 확보와 운영방법 내실화 필요
 - 해외 락페스티벌과의 개최시기 조정, 매년 주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테마별로 운영하는 운영방법의 개선, 지자체의 투자와 관심 제고 등이 필요해 보임
- 개선사항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의지가가 다른 축제에 비해 낮음
 - 타 축제에 비해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매년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주차장-티켓박스-출입구로 이어지는 축제장 주 출입동선 환경 개선 필요
 - 티켓박스, 출입구의 어수선했던 분위기 개선, 화장실 설치 등 축제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 필요
- 휴식공간 설치, 혹서기 대책, 노약자 등 모든 계층을 위한 배려 등 필요
 - 폭염과 관련한 휴식공간 마련, 모든 연령층의 접근성 개선, 푸드트럭 인근 그늘막과 식사장소 등에서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방문객 관리, 축제공간내 상업시설 혼재 문제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속적인 프로그램 질 관리 노력과 타 축제와 차별화된 포지셔닝 설정 필요
 - 그동안 프로그램 완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차별화된 출연진 섭외 등을 통해 타 유사 축제와 차별화하여 축제 브랜드와 이미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락이 젊은 층의 전유물처럼 보였다면, 오늘날의 락은 향유하는 연령층이 크게 높아졌음. 따라서 당 축제에서 목격한 방문객들의 연령대 역시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었음 ○ 국내의 대표적인 대중음악축제로서 규모 있는 락페스티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7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등 계속해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고유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과 휴게실, 흡연지역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음 ○ 해외아티스트의 경우 일본에서 열리는 ‘섬머소닉’ 락페스티벌과 중복되고, 국내아티스트 역시 다른 곳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 따라서 인천 락페스티벌만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면 KBS-1TV 가요무대가 매번 색다른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부합한 가수를 초청하여 공연하듯, 당 축제 역시 인천을 상징할만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부합된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공연해야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타 축제 대비 간결한 사업계획서 내용 등으로 이전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도 어떠한 점에 있어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소 찾기 어려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주 행사장 이외에 인디밴드 육성 및 슈퍼루키, 라이브클럽파티 등은 인천 지역 축제발전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음. 이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및 사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f/up해보는 노력도 필요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내부의 공간구성 및 주변환경이 매우 쾌적하였으며, 특히 예약 주차장이 행사장 바로 앞에 위치한 까닭에 방문객들의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각지에서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하였고 특히 늦은 시간에 끝나는 행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야 시간에도 운행하였음 ○ 축제 장소인 달빛축제공원은 수용인원 약 5만명으로서, 지속적으로 음악축제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넓은 녹지와 주위에 별다른 시설물들이 없는 개방형 공간으로 다른 축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소음 등 주변의 민원발생 가능성이 적음 ○ 각 부스 및 참여업체들의 입점 및 홍보시설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12년 이상의 노하우가 있어 주관기관의 관리도 잘되고 있어, 축제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간이나 부스에 배치된 운영요원들의 근무태도 역시 매우 우수한 편이었음 ○ 당 축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주차장→티켓박스→출입구는 개선의 여지가 많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연신 흙먼지가 날렸고, 티켓박스와 출입구는 환영의 분위기보다는 어수선했던 느낌을 주었으며, 화장실을 전혀 배치하지 않은 것도 지적할 수 있음 ○ 당 축제와 같은 공연형 및 도심형 축제의 경우 상업적 운영은 불가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내부 결제수단을 국민카드 및 코나카드로 한정시킨 것은 과하다고 판단. 그보다는 현금도 통용시키되 대신 20~30%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협찬 카드사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좋다고 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폭염과 관련하여,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젊은 계층이 아닌, 연령층의 경우, 접근 자체가 어려운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푸드트럭 인근 그늘막과 식사장소 등에서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방문객의 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잡성을 피하기 어렵고, 공연장과 푸드존 외에는 상업시설들이 혼재되어 있어, 질서 및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중교통 이용과 셔틀 버스 이용은 편리하나 셔틀버스 운행시간은 제한적이었으며(20분 간격), 스폰서를 연계한 특정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셔틀버스 이용에 제한을 두는 등 이용객에게 불편을 야기토록 함 (코나카드 앱) ○ 주말을 포함한 행사의 성격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장 인근 불법주차 단속 등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자생적인 발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등 사전 안내 뿐 아니라, 꽃가마 셔틀버스, 현지 정보안내, 주차장 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한 안내 및 주차장 예약 등도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축제의 재정자립과 대중화를 위해 올해 티켓판매가격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춘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으며, 문화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완성도는 그 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국내 타 축제와의 차별성 및 포지셔닝(가격대 및 출연진들의 수준 등)을 고민해야 하는 숙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더 나아가 관광축제로서의 가능성은 메인 행사의 방문객 수로만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지속강화나 지역문화홍보 효과 등에 노력을 더욱 경주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축제장은 물론 출연진들로부터 ‘인천 = 락음악’의 상관성을 찾기 어려웠으며, 지역적 뿌리가 약한 축제는 주민의 호응은 물론 외지인의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평군이 재즈축제를 개최하면서 군민들에게 ‘재즈’가 일상화되도록 적극 보급하려고 노력하였듯이, 당 축제도 ‘락’이 시민들에게 보다 친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행사운영이나 기획이 주관사인 (주)에스컴에 의해 진행되다보니, 주최측인 인천광역시의 역할이나 기여도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시와 관광공사, 에스컴의 역할분담이나 거버넌스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주요 공연 이외에 루키프로젝트, 라이브 딜리버리, 라이브클럽데이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부대프로그램으로서, 주목을 끌기 어렵고, 이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노력도(예. 연계관광 확대 등)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축제의 특성이 락음악을 좋아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유료행사이기 때문에, 상업성이 강한 특성을 이해는 하지만, 공공의 후원(명칭 등)을 받는 행사로서의 성격은 찾아보기 어려워, 민간지원이나, 시비만으로 운영하는 행사로서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자립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수 있음(올해는 국민카드가 스폰서가 되어 상업성과 관리 수준이 강할 수 밖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나 가족대상 층의 고려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의 관광콘텐츠로서, 브랜드 확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미흡하여, 7년째 유망축제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임)

평가항목	평가내용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공연의 특성도 있지만, 집계일시 및 운영기간이 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잘 지켜졌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별)운영기간 : 8. 10일 15시 ~ 23시 / 8. 11 ~ 12일 11시 ~ 23시 / 유인측정(핸드계수기 측정) ○ 온라인, 오프라인, 기타 협찬사/후원사 등 초대장(권) 입장권 등 집계 포함 ○ 행사장 입장 교환팔찌 재고수량 파악을 통해 집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2중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보임 - 예) 제작수량 - 재고수량 = 행사장 입장인원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락페스티벌이라는 축제의 특성상 젊은 층을 대상으로 특정 타겟을 중심으로 하는 한정적 축제로서의 성격이 짙고, 야외공간에서 12년 넘게 훌륭한 뮤지션들의 공연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 캠핑장 등과 연계하여, 야외에서 음악을 밤새 즐길 수 있는 24시간 축제의 장 마련이라는 점, 국내외에서 락페스티벌이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지자체와 연계하여 구축했다는 점 등은 축제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축제의 질과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축제방문객들이 주로 ‘락 애호가’인 까닭에 대부분의 공연을 관람한 관중들의 몰입은 대단하였음 ○ 당 축제는 2가지 근본 문제를 풀면 크게 성장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당 행사의 핵심이 국내외 아티스트 초청공연인 까닭에 다분히 규모만 큰 공연 또는 콘서트로 보여질 수 있음. 따라서 출연진과 관객의 만남과 화해라는 축제의 기본정신을 살리도록 획기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됨 - 둘째, 인천시와 락음악의 연결고리를 풀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항상 다른 지역 및 국가에서 초청한 아티스트로 공연을 꾸미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임 ○ 엄밀하게 말하자면 국내외 연예인을 동원으로 인해 과도한 예산이 외부로 지출될 뿐 주민과 관광객이 ‘인천의 가치’를 공유하고 즐기는 축제성이 결여된 행사로 볼 수도 있음 ○ 전반적으로는 기획, 콘텐츠, 운영, 발전성, 성과 등 평가항목 면으로 보았을 때는 축제의 자립성을 놓고 볼 때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연계관광 및 지역축제로서 뿌리내릴 수 있는 공공성 등의 측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축제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꼭 고려해야 할 것임

5

광주추억의충장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10월 5일(금) ~ 10월 9일(화) / 5일간
- 장 소 : 광주 동구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
- 주 최 : 광주광역시 동구
- 주 관 : 추억의 충장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 프로그램 : 개막식, 폐막식
 - 공연 프로그램 : 추억의 서커스, 추억&토크 콘서트, 충장 가을 음악회, 세대공감 콘서트, 지역 문화그룹 공연, 지역 우수문화 공연
 - 경연 프로그램 : 충장 퍼레이드, 대학가요제 리턴즈, Dancing 90's, 청바지 리폼경연대회, 충장축제 사진대회
 - 체험·참여 프로그램 : 추억의 테마거리, 추억의 고고장, 충장 달빛 캠핑, 추억의 프로레슬링, 충장댄스 플래시몹, 충장 플레이그라운드, 추억의 복싱, 충장 포토존, 서커스 마술학교, 충장 키즈존
 - 교류·연계 프로그램 : 아시아푸드페스티벌,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G-POP 페스티벌, 충장 사랑방
 - 부대행사 프로그램 : 청바지 페스티벌, 충장 청년(청춘의 거리), 충장 먹거리 특화존, 무등 아트 페스티벌 5

(2) 총 평

- 잘된 점
 - 기상상황에도 축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은 높아 평가됨
 - 태풍상황에도 축제기간으로 단축하고 축제 프로그램을 3일 동안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였음
 - 대표프로그램인 '충장 퍼레이드' 성공적 진행
 - 축제주제와 관련된 팀으로 참여인원을 제한하여 예년에 비해 참여인원은 적었지만 내용적으

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또한 축제참가자들을 위해 사전에 리플렛에 퍼레이드 내용 및 순서를 사전 공지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은 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음

- 7080 주제임에도 전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돋보였음
 - 기존 7080 컨셉에서 90-00세대까지 포용할 수 있는 주제 영역을 확대시켰으며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거리축제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간 활용 및 이해관계자간 협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교통통제, 축제입구 홍보아치, 스텝 및 지원봉사 인력 노출도가 다른 축제에 비해 높았고, 주변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관람 지속성을 높인 점은 높게 평가됨
 - 주무대인 5.18광장을 중심으로 주제별 구역을 설정하고 각 구역에서 콘셉트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냈음
 - 특히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와 협력하여 축제공간을 확대하여 프로그램 배치 등에 있어서 협력한 점은 높이 평가됨
- 비교적 적은 예산을 들였지만 연계행사, 지역사회 협력으로 성공적 축제 개최
 - 연계행사를 통해서 축제의 외연을 넓히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이 주체가 되었지만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협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축제 개최
 - 특히 거리축제, 상가축제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잘 이끌어낸 점은 높이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여전히 전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기획과 프로그램 개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
 - 올드세대의 문화를 훌륭하게 포장해서 제시는 했지만 현세대의 문화를 올드세대들에게 제시하는 축제내용은 부족한 점 등 세대화합형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는 여전히 놓여 있음
- 축제공간별 주제와 차별화의 의도와 다르게 커뮤니케이션 전략에는 한계를 드러냄
 - 행사장별로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내용이 연출될 것이라는 것은 축제참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향후 필요해 보임
 - 또한 도심축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축제기획의 의도를 시민들이나 참가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해 보임
- 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
 - 매년 대행사 선정에 따라 이벤트 위주의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총감독 체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
 - 특히 이벤트 중심의 행사로 인한 참여자들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대표프로그램이 약하다는 지적은 있는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 보강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광주충장축제는 ‘추억, 세대공감!’이라는 주제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메인 콘셉트에 반영하여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함 ○ 축제 주제와 관련이 적은 팀들을 배제하여 퍼레이드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임팩트 있는 공연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한 점이 돋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리플렛에 퍼레이드 내용 및 순서 등을 사전 공지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함 ○ 기존 7080 콘셉트의 축제에서, 90-00세대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주제 영역을 확대시켜서 전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였음(홍보다양) ○ 7080으로 대변되는 ‘올드세대’의 문화를 현재의 시민들에게 잘 포장해서 제시했지만, 90-00세대 혹은 현재의 세대들의 문화를 ‘올드세대’들에게 제시한 축제내용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드세대’들의 추억을 일방적으로 재현한 행사로 보임 ○ ‘추억’이라는 도시경험을 공유하고자 했으나 ‘광주의 추억’을 보여주기에 부족했고 ‘아시아’로 확장되기에 보편성과 확장성이 보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레이드는 ‘세계3대’, ‘아시아대표’라는 타이틀을 주장하나 명확한 컨셉과 환상이 보이지 않음 ○ 올해의 주제 ‘추억, 세대공감!’을 구현하기 위해 세대공감 수단으로 청바지를 드레스 코드로 상징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청바지를 드레스 코드로 안착을 위한 청바지 활용 확대전략은 미흡하다고 평가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장로와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주변을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였으며 주변 구 조흥은행무대, 금남로공원, 충장로우체국, 금남로, 예술의거리 등 주요 거점장소 장악력이 상당히 높았음 ○ 축제장소가 광주의 중심 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행사장 접근성이나 안전은 물론이고 제반 시설의 활용이 용이하여 축제의 몰입도가 높다고 평가함 ○ 축제기간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한 관광 투어를 실시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외국인통역 및 관광안내 서비스 운영을 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움(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서비스) ○ 축제 행사장이 도심의 여러 장소에서 열리는 관계로 많이 혼잡할 수 있는데 축제 전반에 대한 안내와 안전 조치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각 축제장의 축제프로그램과의 조화로운 운영이 미흡함 ○ 지난 축제때 보다 많은 참가객이 참여하여 교통은 물론 주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향후 민간 주차장에 대한 협조와 안내요원 배치 등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 주변 주차시설이 매우 복잡해 보였으며, 거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자칫하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 미아보호센터 운영하여야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예산은 5억4천9백 만 원이지만 연계행사(전국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G-POP 페스티벌)을 통해서 축제의 ‘외연’을 넓혔고 다양하게 펼쳤지만 ‘통합성’을 강화시킴 ○ 광주충장축제가 도심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상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축제의 발전가능성은 우수하다고 판단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추진주체가 광주광역시 동구인데, 대부분의 외지인은 광주 동구 충장축제로 인식하지 않고, 광주충장축제로 인지하고 있음 - 축제가 더욱 발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주를 대표하는 추진 주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추억의 테마거리에 제시된 ‘추억체험’은 피상적인 체험 위주이며 시민들이 몰입하랴 수 있는 ‘컨텐츠’와 ‘환상’이 부족 - 광주만의 ‘7080’, 광주에만 존재했던 ‘추억’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 ‘광주’것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광주의 것’에 기반하여 ‘한국’, ‘아시아’로 확장되어야 함. 2018년 축제내용은 전국 어디에 내놓도 그 도시의 축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그 도시만의 특색이 없다는 것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 정도의 축제예산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시민참여와 시민 관람객 동원율을 보여주고 있음 - 2018년의 경우 태풍으로 행사에 변화가 있었지만 ‘날짜선정(주말-한글날)’과 금남로 ‘차 없는 거리’로 진행하여 탄력을 받음 ○ 충장축제추진위원회 30인의 자문과 아이디어로 행사의 기초와 중요결정이 이뤄지며, 행사지원 본부장은 부구청장, 지원총괄은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 행정이 주도하는 축제임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지원총괄을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 설정한 점은 단순히 축제행사 하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쇠퇴하고 있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제시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의지를 보여줌 ○ ‘대행사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경쟁입찰 평가항목에 ‘거리퍼레이드’, ‘청바지’, ‘추억의 테마거리’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 축제를 대행하더라도, 축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정적 노력이 보임 ○ 서커스, 고고장, 청바지, 대학가요제 등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한국의 대중문화를 전시, 공연, 체험, 음식 등의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 - ‘추억 스토리텔링’을 통해 ‘에듀테인먼트 축제’를 지향했으며 시민들에게 상당한 노출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 ○ 이번 충장축제는 태풍으로 인해 축제 기간이 축소 됐지만 행사의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어서 성공적으로 폐막을 함 ○ 주말과 함께 진행된 충장축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행정주도의 방식 등을 넘어 ‘인문학적 성찰’을 더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 참여 방식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보임 ○ 2018년 차별화 전략으로 ‘서커스’를 제시하였으나 동춘서커스로 전국 어느 축제에서도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중국사람들로 대체되어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보임 ○ ‘13개 동, 46개 단체, 1,500명에 이르는 자발적 주민 참여’라는 슬로건보다 중요한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는게 중요하며, 축제컨셉에 1500명이 어떻게 동일한 컨셉을 표현해 주고, 몰입하는지가 중요함 ○ ‘아시아문화존’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기에는, 그 콘텐츠를 채우는 내용성이 부족해 보임. 충장축제가 아시아에 무엇을 제시하고자하나, 제시하고 있는 콘텐츠가 설득력이 없음 ○ 이전의 충장축제는 7080세대들을 중심으로 컨셉을 잡았지만 올해부터는 90세대까지 확장하면서 축제명에서도 7080 빼고 70809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청바지를 주제화 시킨점은 돋보이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6

대전효문화뿌리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10월 5일(금) ~ 10월 7일(일) / 3일간
- 장소 : 「효! 월드」 뿌리공원 및 원도심 일원
- 주최 : 대전광역시 중구
- 주관 : 대전효문화뿌리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개·폐막식 : 개막행사, 폐막행사
 - 문중참여 프로그램 : 전국문중 “영웅”입장퍼레이드, 10주년 기념 전국문중 화합의 비빔밥, 문중문화 체험관, 효문화 대상, 문중 화합 올림픽
 - 문화·공연 프로그램 : 주제공연 영웅의 효 뮤지컬, 전국문중 “영웅” 입장 퍼레이드, 전국 어린이 효 창작 동요제, 함께해 효 합창 페스티벌, 아슬아슬 전통줄타기, 전국효문화 청소년 페스티벌, 청소년 뽕짝 해효!, 대한민국 효 골든벨, 청소년 효 연극, 3대가족 퍼레이드 해효!, 즐겨 HYO DJ!, 전승놀이 시연, 미션레이스 효도령·효낭자 GO, 효심의 풍악을 울려라, 대전최고 노래교실 열전, 전국 건강효통 댄스 페스티벌, 전국 효통 버스킹 페스티벌, 효심 야행 불꽃쇼
 -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 : 함께해 효 세족식, 10주년 기념 전국문중 화합의 비빔밥, 한복 입고 축제 즐기기, 개성만점 조선시대 캐릭터 열전, 효서당 효초리 체험, 불효자 옥살이 형벌 체험, 당신의 이름은 꽃입니다. 나의 성씨집 만들기, 의료재능 나눔, 효통 유등 페스티벌, 푸짐한 인심 수라간, 문중문화체험관, 자원봉사 행복나눔, 참여 마당극 “거꾸로사는 세상”, 게임만 하는 불효자 VR체험, 111 효실천 캠페인, 효 데이 선포식, 추억의 주전부리&효스토리 음악다방, 효 스토리텔링 모아모아, 축제 기념품 판매, 효통 치맥 페스티벌, 지역특산물 판매, 추억의 군대시절 체험, 심폐소생술 소방체험, 효문화 진흥원, 전통팽이 장승 만들기, 전통예절 배우기, 효&뿌리 미술·백일장
 - 국궁장 “어린이 효 놀이마당” 운영 프로그램 : 어린이 버블&마술쇼, 보고, 만지고, 느끼며 배우는 곤충체험, 가족 보드게임, 플라워 힐링 트레킹, 어린이 국궁체험, 페이스 페인팅&태극기 핸드프린팅, 에어바운스 놀이동산, 추억의 솜사탕&달고나 체험, 동화속 효이야기 “동화구연”
 - 기타 프로그램 : 전국시조 경창대회, 주변 관광 효 투어, 청소년 효 캠프

(2) 총 평

■ 잘된 점

- 우천 상황에 대한 대처 등 뛰어난 상황관리 능력
 - 축제 첫날 우천으로 행사진행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와 일시를 일부 변경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상당한 운영역량을 보인 점은 높이 평가됨
- 축제개선을 위한 노력과 열정은 높이 평가됨
 - 축제에 대한 지자체, 지역주민, 문중 조직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인상적임. 특히 최근 축제발전을 위해 사례지 답사, 분야별 포럼 개최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해온 점은 높이 평가됨
 - 다만 축제주체의 재설정을 통해 축제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하고 축제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총감독제, 상설사무국 도입 등이 필요해 보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를 대표할만한 대표 콘텐츠 발굴 필요
 - 문중 입장 퍼레이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차별성이 있으나 축제를 대표할 만한 대표 콘텐츠를 내세우는 데는 축제참가자들의 관심도나 매력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임
 - 특히 전국적인 인지도, 젊은 층의 참여도 및 재방문을 저조 등 대표 프로그램이 대중적인 참여를 이끌만한 매력성은 부족해 보임
- 축제로서의 성격이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
 - 축제라기보다는 대규모 문화행사 또는 캠페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별도의 자문과 컨설팅이 필요해 보임
 - 특히 문중과 효를 억지로 연결시켜 스스로 축제주체의 확장성을 제한하기 보다는 뿌리는 주제로 문중이야기와 스토리를 축제의 컨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프로그램인 문중 ‘영웅’ 입장 퍼레이드(가문의 영광)는 국내 유일 성씨를 주제로 한 뿌리공원을 배경으로 연출되어 장소적 독특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녀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돋보임 ○ 전국문중퍼레이드는 프로그램 주제를 영웅으로 설정하여 안중근, 윤봉길, 신재호 등의 이야기를 연극인들이 참여하여 퍼레이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퍼레이드 뿐만 아니라 각 문중의 유서 깊은 이야기들을 선별하여 이를 음악극, 연극, 뮤지컬 등으로 극화함으로써 축제와 문중의 콘텐츠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만함 ○ 우천으로 행사가 어려울 수 있었으나 전국에서 참여한 문중들이 적극적인 진행의사를 밝힘으로써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인 문중퍼레이드를 우중에도 실시할 수 있었음.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통해 문중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고 협력적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음 ○ 문중들이 축제를 문중 결속의 기회, 모임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례와 욕구가 많고, 상당히 축제 참여의 힘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중의 참여욕구를 잘 활용하여 축제 프로그램, 콘텐츠로 연결하는 기획이 필요함 ○ 축제라기보다는 ‘대규모 효 문화행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효’는 축제의 주제라기보다는 기념하고 보전해야 하는 문화로서 문화제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함. 효는 중요한 가치임에는 분명하나 축제의 주제로는 부적합함 ○ 효를 강조하는 방식은 현대의 트렌드를 읽지 못해 과거지향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캠페인 코드로 읽히게 됨. 축제로서의 자연스러움, 해방감, 몰입감, 참신성, 공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원활한 교통운영을 위해 주택가의 지역주민들에게 한달 전부터 안내활동을 하며, 구청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교통통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책임성있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공원의 전반으로 관광객의 동선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이 느껴짐 ○ 세부추진계획 상 안전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등 임무별 업무분장을 명확히 계획하여, 안전관리 대응에 대한 노력이 돋보임 ○ 서대전 사거리, 갤러리아, 롯데백화점 등 지역중심지에 LED 광고판을 무상 제공받아 축제홍보에 활용하며 저비용 매체를 적극적으로 확보함. 관내 기사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 향후 관외 홍보활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효문화마을로의 동선은 아쉬웠고, 뿌리공원에서 성씨비로는 동선이 이어지지 않아 뿌리공원 자체의 매력을 더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음 ○ 국궁장에 어린이 체험장으로 조성한 재밌는 세상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장소에 설치됨. 관내 어린이집을 전수 섭외하여 어린이 체험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 노력은 높이 사지만, 축제 주제와 어린이 프로그램의 연결성이 떨어짐. 축제의 주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뿌리공원에 소재한 효문화진흥원과 연결하여 어린이 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중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축제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효 학습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관은 외부업체들보다는 지역사회의 동별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음식부스를 통일된 시설로 설치하여 정리된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 참여를 유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의 유명빵집인 성심당과 협력하여 효빵을 제작하여 판매하도록 함. 다만, 좀 더 대중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축제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이나 이용과 관련해 참가비를 도입하거나, 가격이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음 ○ 축제의 발전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동별 자생단체의 참여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장점이라고 판단됨 ○ 향후 문중별 전통음식 경연대회 혹은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퓨전 음식 페스티벌을 소주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성심당의 '효빵'은 조금 더 매력도를 보강하면 더 좋을 것 같음(크기를 작게하고, 좀 더 맛있게 만든다든지), 효빵이라는 축제와 맞는 빵이 있음에도 성심당의 다른 빵의 매력도가 훨씬 높아 보이고, 마케팅도 그 쪽에 집중된 느낌임 ○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상설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현재는 시에서 주도하고 대행사가 운영하는 체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구조는 운영 면에서는 안정적일 수 있으나 기획 측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현재로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축제 전반에 녹여내고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총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함 - 장기적으로는 중구의 대표축제로서 다수의 문중과 중구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축제를 만들어가는 안정적인 조직화를 위해 사무국을 상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회성의 행사성 축제를 벗어나 연중 준비하고 활동하여 축제에서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에 시도했던 올해의 문중 등 문중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연중 꾸준히 준비하여야 함. 또한,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효 주제에 맞추어 중구의 청소년들이 연중 효를 주제로 자원봉사단 활동을 하고 효축제에서 발표하고 함께 공감하는 효 주제의 참여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 이는 축제와 중구 주민의 일체감을 높이고 축제의 생명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방문객 집계지침에 의거하여 집계지침에 의거하여 집계범위, 집계 개소수 등을 준수함 (무인측정) ○ 자동 집계하는 계수기를 설치함 ○ 실질적으로 축제 발전에 필요한 방문객 행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연령, 거주지, 동반유형 등)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 '성씨'라는 독특한 소재를 활용한 관광공간에서 펼쳐지는 효문화뿌리축제는 우리민족의 고유성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매우 중요한 축제 자원임에는 틀림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욱이, 축제에 대한 지자체, 지역주민, 문중 조직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인상적이며, 누적된 축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제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평가항목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수차례에 걸쳐 축제발전을 위해 사례지 답사, 분야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답사, 토론회, 컨설팅 등의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명칭에 효 사용이 과다하고 작위적으로 효를 강조하고 있음. 프로그램 제목의 2/3 정도에 효가 들어가 있음. 또한 효가 들어간 제목의 프로그램 중에는 전혀 효와 상관없는 프로그램도 있음(효심불꽃쇼 등). 하지만, 문중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는 전혀 효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문중 자체가 독립적인 주제성을 갖고 있으므로 효 단어를 억지로 포함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의 특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임. 다시 말하면 문중을 중심으로 잡으면 효를 드러내지 않아도 효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임 ○ 축제성과 몰입성이 약한 효라는 주제에 축제를 가두기보다는 다양하게 변주가 가능한 뿌리를 핵심테마를 삼고 244곳의 문중과 문중의 이야기들을 핵심소재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매해마다 소주제(영웅, 가족애, 사랑, 보은, 예술혼, 세대공감 등)를 하나씩 설정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문중들이 해당 주제에 참여하게 하는 구조가 바람직함. 효는 굳이 부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기본적인 바탕이야기가 될 것임. ○ 축제의 주제와 연관된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중구와 대전지역의 효 문화, 문중 관련 이야기를 발굴하여 이를 축제콘텐츠로 만드는 작업이 미흡함. 현재로서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먹거리부스에 지역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 효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직설적인 표현과 효에 대한 당위에 치우쳐 있음. 영상메시지를 활용하는 등 관객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효 콘텐츠 제작과 구현이 필요함

7

이천쌀문화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10월 17일(수) ~ 10월 21일(일) / 5일간

■ 장 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 최 : 이천시

■ 주 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풍년마당 프로그램 : 이천쌀홍보관, 4-H 과제전, 야생화 전시, 대장간, 전통엿, 거북이 만들기, 거북포토존, 거북극장, 민속의상 체험, 거북이 주막, 아트마켓 등
- 공연마당(글로벌마당) 프로그램 : 글로벌 쌀문화 체험존
- 농경마당 프로그램 : 손모내기, 마당질(탈곡), 이천쌀밥 맛보기, 벼생육·전시, 짚공예, 농경유물전, 포토존(허수아비+황금들녘+우마차+뗏가리+날가리+짚가리+장승/숫대/농기)
- 동화마당 프로그램 : 인형극, 어린이 그림전시, 튀밥놀이터
- 놀이마당 프로그램 : 목공체험, 화훼체험, 염색체험, 요리체험, 솜사탕체험, 당나귀체험, 미니돼지체험, 도자체험, 외국인송편만들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놀이
- 기원마당 프로그램 : 쌀사랑 깃발 만들기, 풍년대장군·햅쌀여장군 장승 만들기, 희망숫대 만들기, 운수대통놀이
- 햅쌀마당 프로그램 : 과일전시관, 햅쌀도정·판매, 화훼전시, 뽕튀기
- 쌀밥가마솥 프로그램 : 쌀 가공식품 전시·판매(쌀 가공식품 중심), 가마솥포토존, 가마솥체험
- 동네장터 프로그램 : 농·특산물의 전시+시식+판매
- 햅쌀거리 프로그램 : 우마차, 엿장수, 용줄다리기
- 호수마당 프로그램 : 사생대회 수상그림 현수막전, 소원등 만들기 체험, 유등 포토존
- 도자마당 프로그램 : 알알이 쌀알 특별전시, 쌀문화축제 20주년기념 사진전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공간의 광역화 시도 등 주행사장과 부대행사장의 유기적 연계
 - 사기막골, 전통시장, 구만리뜰, 농업테마공원 등 부대행사장을 조정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도한 점은 높이 평가됨
- 글로벌 쌀문화 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 모색
 -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자국의 농경문화와 공연, 음식 등을 보여주고 체험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 쌀문화 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보임
- 방문객 및 지역사회 단체 등 축제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열린축제 프로그램의 도입
 - 읍면대항 줄다리기 대회에서 해당 주민 외에 방문객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한 점 등 열린 축제를 지향한 점은 높이 평가됨
 - 특히 지역의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직능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
- 축제개최 효과를 지역사회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
 - 방문객들의 동선을 축제장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장터까지 유인할 수 있도록 기존 동선과 공간배치를 개선하였음
- 축제장 운영 및 진행요원의 헌신적 노력
 - 행사장 각 마당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진행요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돋보였고, 각 놀이마당에서 어린이 방문객을 대하는 태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프로그램 개최를 위한 동선 및 공간배치상 개선 필요
 - 이천쌀밥 명인전은 축제주제와 부합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으나 같은 장소에서 가마솥이 천명이천원행사 쿠폰 대기자 줄에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프로그램과 공간배치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행사 안내판의 적절한 배치와 개선 필요
 - 대형 행사장 안내판의 설치위치가 방문객 입구 주동선에서 벗어나게 배치되어 있고, 행사장 곳곳에 세워진 안내판이 방문객의 현위치를 표시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해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쌀문화축제는 농업인들이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농업인축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교류축제, 외국관광객들이 우리 고유의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펼쳐짐 ○ 호수마당을 비롯한 설봉공원 전체로 확장 운영된 축제공간과 제각기 특색 있게 구성된 13개 마당, 100개가 넘는 다양한 체험놀이, 가을단풍과 어우러진 포토존 등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음 ○ 특히, 이천쌀의 진가를 맛볼 수 있었던 이천명 이천원 가마솥 밥짓기 행사와 이천쌀밥명인전, 장작불 가마솥 밥짓기 체험, 무지개 가래떡만들기, 글로벌 쌀요리 체험 등은 관광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가마솥 2,000명”, “2천원 무지개 가래떡 뽑기” 등의 중심 프로그램은 하루 2회(12:00, 14:00) 운영되었으나 관광객들이 일시에 집중되어 행사장이 다소 혼잡하였고, 참여하지 못한 관광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음 ○ 이천쌀문화축제가 오랜 기간 성장해오면서 다양한 상징적 프로그램들(무지개가래떡, 가마솥이천명, 이천쌀밥명인전, 이천거북놀이 등)이 개발되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강점인 동시에 매년 유사한 대표 프로그램이 전형적으로 운영되는 지점에서 약점이 되기도 함 ○ 작년에 비해 축제장 공간을 저수지, 도자마당 등으로 확대하여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도자마당으로 가는 관광객이 많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자연스럽게 도자마당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치가 필요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 IC에서 설봉공원 입구까지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으며, 행사장까지 이동하는 접근성도 매우 좋았음 ○ 13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축제장의 각 마당별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비교적 아주 넓지는 않은 설봉공원을 촘촘하게 활용하고 있어 축제행사장 내에서의 접근성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주차의 이슈도 있는데 축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넓은 주차장을 별도 마련, 셔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함 ○ 축제장내에 모내기부터 쌀을 가공하는 과정까지 한곳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게 구성하였으나 쌀 경작지 공간은 다소 협소하였다는 의견이 많았음 ○ 지역내 많은 단체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나 이들에게 연간 지속적으로 서비스 정신, 축제컨텐츠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쌀문화축제를 상징하는 마당극을 기획, 제작 공연하고, 가마솥이천명이천원, 이천쌀밥명인전, 가마솥밥짓기체험, 솔뚜껑구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킬러콘텐츠를 보강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쌀문화축제는 가족단위로 체험형 축제방문이 광범위하고, 쌀구매 등의 지역농산물 유통에서도 인지도나 브랜딩이 되어 있는 편이어서 발전 잠재력이 있음 ○ 축제추진조직은 군청의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대행사들이 실행하는 구조이지만 전체적으로 군에서 일괄 대행하는 구조가 아니고 기획적 일관성 가지고 운영하여 축제운영의 체계성이 있음 ○ 축제장에서 이천 쌀을 주된 메뉴로 하는 음식을 많이 볼 수 있으나, 이천의 지역문화와 연계된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지역의 무형문화재인 거북놀이, 용줄다리기 등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쌀 문화 축제가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함 ○ 현장에서 이천 쌀과 농산물을 판매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부스 대여비, 행사참가비 등 일정부분의 축제재정 자립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이천쌀문화축제는 42만여 명의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7,000여 명에 달해 향후 각국 여러나라의 외국인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 ○ 축제를 통한 수익금 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익년도 축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 ○ 기업체 스폰서십을 활성화한다면가 특정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게 하는 형태의 축제 재정자립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인이 동원되지 않았음에도 마당극 공연은 매우 훌륭했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질 높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 이천 쌀문화 축제장에서는 방송용 무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연예인 동원과 같은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아 타 축제에 비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돋보임 ○ 젊은 층의 축제참여 홍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인터넷, 트위터 등 SNS홍보를 활성화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이천 쌀 문화 축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수도권에서 개최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참여가능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외국어 안내방송, 외국어 홍보물 비치 등 외국인 수용태세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축제에 참여하는 국적별 통계를 이용하여 상위 참가 외국인 국가의 농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전략을 고려

8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10월 2일(화) ~ 10월 7일(일) / 6일간
- 장소 : 안성맞춤랜드, 안성시내 일원
- 주최 : 안성시
- 주관 :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 : 바우덕이추모제, 전야제, 개장식, 개막식, 폐막식
 - 상설공연 : 바우덕이 주제 공연, 남사당 공연, 전통 연희 공연, 해외민속공연단 초청공연, 월드퍼레이드, 조선시대 퍼레이드
 - 특별공연 : 바우덕이 주제창작마당극, 전통마당극, 덧뵈기 나이트 아웃, 가족맞춤공연, 서울시립관현악단 특별공연, 바우덕이 콘서트, 전통문화 콘서트
 - 체험 및 전시 : 어름산이체험, 남사당 여섯마당체험, 1865안성장터, 남사당 캐릭터 이벤트, 농경축산체험, 민속놀이체험, 한복체험, 세계음식문화체험, 먹거리장터체험, 안성 옛사진전, 안성8경 사진전
 - 시민참여 프로그램 : 안성시민 전통놀이 한마당, 안성시민 예술무대,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발표회, 청소년어울림마당, 스쿨문화 음악페스티벌, 재롱둥이 페스티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2) 총 평

■ 잘된 점

- 정체성이 뚜렷한 축제의 주제와 프로그램
 - 축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연예집단인 남사당의 놀이문화를 주제로 기획된 공연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출된 점은 높이 평가됨
 - 주제공연은 남사당공연단이 직접 공연을 기획하는 등 축제콘텐츠 개발을 주도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 주제성이 강함

- 해외공연단의 경우 각국의 전통공연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공연 자체도 축제의 주제와 일치성을 보이는 등 기획이 좋았음
- 비교적 잘 진행된 축제 운영과 기반시설
 - 많은 수의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청결이나 안전 등 축제장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 축제장의 기반시설은 전반적으로 잘 갖추어져 행사의 진행이나 방문객의 수용 등이 효율적이고 쾌적했음
-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열정
 - 축제담당 팀장의 경우 축제업무를 7년간 맡고 있는 등 전문성과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 축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민간의 기획홍보전문가를 채용하여 축제 기획과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표 프로그램 공연 완성도 제고 등 질적 개선 노력 필요
 - 주제공연의 내용적 완성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속적 보완과 공연기획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연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남사당놀이의 핵심인 연희성을 강화한 콘텐츠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임
-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를 위한 노력과 발전적 진화의 필요성
 - 남사당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LED 복장이나 장비 등을 활용한 야간 남사당 공연의 개발이 필요함
- 다양하고 동시에 많은 프로그램 진행으로 일부 행사 프로그램의 질 관리상 문제 발생
 - 축제 프로그램의 양 보다는 핵심 콘텐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질적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개선책이 필요해 보임
- 축제의 일정이나 정보 전달 체계 개선
 - 축제정보 획득이나 방문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한 1달 전에는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조치 필요
- 향후 남사당공연단 중심으로 축제 기획과 운영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축제의 자생적 발전토대 구축 필요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축제는 남사당 전통문화를 축제테마로 하고 있어 타 축제와의 차별성이 있음 ○ 대표프로그램은 메인무대와 옛장터무대, 남사당전용공연장 등 3개 무대에서 매일 열리는 남사당바우덕이공연으로 공연의 완성도, 관객참여도 및 호응도가 매우 높음 ○ 축제마다 있는 통상적인 먹거리를 배제하고,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들을 축제장에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먹고, 지역의 우수한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사통 팔달한 곳에 축제장을 만들고 나뭇 짜임새있는 형태를 취했지만, 야간의 볼거리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함 ○ 축제의 기획은 좋았으나 10.5~6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야외공연이 취소되어 다소 아쉬움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인 안성맞춤랜드는 2012년에 조성된 약 10만평의 시민공원으로 남사당공연장(실내), 넓은 잔디광장과 주차장, 수변공원을 갖추어 있어 매우 쾌적하고 이용에 편리함 ○ 축제장소를 한곳에 고정하고 관련 시설물의 동선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안전요원은 비교적 충분히 배치되었고 특히 10.5~6일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안전사고 유의방송과 야외공연의 신속한 취소 결정 등으로 관람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음 ○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보개면사무소에서 남사당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도로의 정체가 극심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로를 이용하여 내방리방면에서 진입하는 도로 등 우회로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남사당로 주변 주차장 확보 및 우천시에도 활용가능 하도록 조치(금년 10월7일의 경우 전날 우천으로 준비된 보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음에 따라 정체가 가중된 측면이 있음)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에서 농산물 및 음식판매를 제외하면 행사 주최 측에서의 수익원은 거의 없는 실정. 유료인 남사당공연장에서의 주제공연이 유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하는 등 전반적으로 축제의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바우덕이 농악행사를 실내 전문공연장에서 유료로 진행을 하고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뭇 오페라와 유사한 형태로 관객과 호흡을 같이하고자 창조적인 모습으로 바우덕이 농악행사를 전문공연장에서 진행한 것은 향후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안성국밥 등 일부 먹거리 외에도 특색있는 지역 먹거리의 개발이 필요 ○ 타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안성시청 담당부서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상시적인 축제조직의 운영이 필요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5억원의 예산 중 시비가 14억 정도로 시비의 비율이 높아 지속가능성이 우수함 ○ 지역특산물 판매장과 장터, 음식부스를 행사장에 적절히 분산 배치하여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구매를 유도 ○ 지역 농업인과 축산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체험부스 운영 및 각종 농특산물을 판매로 수익 창출 ○ 행사자체의 수익보다 집객(集客)효과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참가한 지역 업체와 농가의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측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자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좋은 명품(안성유기 등) 전시 및 판매 등은 타 지자체의 참여하는 곳과 다르게 차별화하고, 특징화해서 안성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주어야 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국밥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가 풍성하였고 특히 먹거리 장소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함 ○ 지역과 연관있는 연예인을 초대하는 등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축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KBS 6시 내고향 생방송을 축제 초기에 실시하여 전국에 알림으로서 방문객을 늘리고자 한 것은 효율적으로 보임 ○ 장터에 배치한 먹거리 부스의 경우 이용객이 몰리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줄을 길게 늘어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위생 및 서비스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우천에 대비하여 실내행사를 조금 늘리거나 우천시 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세워 우천시에도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9

수원화성문화제

(1) 개요

- 기간 : 2018. 10. 5(금) ~ 10. 7(일) / 3일간
- 장소 : 화성행궁, 행궁광장, 장안공원 연무대 등 수원화성 일원
- 주최 : 수원시
- 주관 : 수원문화재단
- 주요행사
 - 전야행사 : 화령전 고유별다례, 전야경축타종, 낙성연
 - 대표 프로그램 : 개막연, 혜경궁 홍씨 진찬연, 친림과거시험 무과재현, 폐막공연
 - 화성행궁 프로그램 : 조선별미극장, 효행상 시상식, 화성 구르미로 날다 전통쌍줄타기, 캐릭터 인형극 수원이와 놀자, 행궁에서 만나요 조선연희꾼, 화성행궁 상설 공연, 체험 프로그램
 - 행궁광장 프로그램 : 수원화성 상상공작소, 조선 어른씨 놀음
 - 수원화성 프로그램 : 수원 예술축전, 수원화성 강강술래, 효의 성곽순례 '야간동행', 수원화성 축성체험, 수원화성 깃발체험, 세계의상페스티벌, 조선명탐정 탐관오리의 정체, 수원이의 이동스튜디오, 전통 석고마임
 - 시민중심 프로그램 : 프로그램 기획분과 제안사업,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분과 제안사업, 시민공모 프로그램
 - 야간 프로그램(정조, 미래의 빛으로 피어나다) : 조동언의 지등퍼포먼스, 미디어아트(만 천명월주인옹), 행궁오솔빛길, 방화수류정 달빛음악회, 수원등불축제
 - 연계 프로그램 : 국제자매도시의 밤, 수원음식문화축제, 규방공예전시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
 - 수원화성문화제는 수원화성 축성 기간 중 행해진 정조의 화성행차 행사 전반을 재연하는 것을 축제의 기본형식으로 삼고, 핵심프로그램을 통해 수원 화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요소의 재연이나 재창조를 추구하고 있는 등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축제 프로그램 전반에서 축제의 주제인 수원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전통문화 소재의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역사문화축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
-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성
 - 철저한 고증에 기초한 프로그램 재현, 프로그램의 문화적 가치 및 의의, 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소구력 등에서 대표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지역성에 기반한 축제 소재 활용
 - 축제 대표 프로그램의 소재는 정조와 혜경궁, 화성의 축성, 조선 무예, 궁중문화 등 수원화성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는 역사콘텐츠에 기반하고 있어 다른 역사문화 축제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축제공간이 가지는 장소성과 축제주제의 일치성
 - 수원화성의 역사적 공간을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역사문화축제의 장소성이나 현장성을 확보. 특히 축제공간을 화성 일원으로 확대하고 공연, 체험, 전시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축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수원화성 자체의 장소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 수원화성문화제의 또 다른 축인 수원화성 자체의 장소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 축제 운영 개선 필요성
 - 축제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방문객들의 축제참여를 높이고 있으나 공연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주차장 관리나 체험부스 운영에 있어 일부 운영요원의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해 사전교육을 강화가 필요함
 - 야간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오후 5시 이후 가족단위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야간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축제의 지속가능성과 축제효과 확대 필요
 - 유료화 가능성이 확인된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석을 확대 설치하는 등 축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또한 수원 및 경기지역 방문객 위주에서 숙박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한 야간프로그램 기획 필요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만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적 자원(수원화성, 정조대왕 능행차)을 바탕으로 축제의 주제 및 전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명확하여 타 축제와 차별화되어 있음 ○ 행사 전 일정의 프로그램 대부분이 당대의 건축물 내에서 조선시대를 연상하게끔 스토리텔링이 되어 유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으로 인해 1~2일차 행사의 대부분이 취소되었으나(대표 프로그램인 “개막연”과 “혜경궁 홍씨 진찬연”은 시간·장소 변경으로 정상 진행_ 태풍이 지나간 3일차는 일부 행사(전통쌍줄타기, 친림과거시험 무과재현 등)를 추가하여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축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음 ○ 정조대왕 능행차는 국내 대표 행렬의 반열에 오른 관심프로그램으로 화성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도 그 의미와 규모가 돋보였음 ○ 행사별 세부사항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찬연의 경우 재현행사로서 왕의 친위부대가 주변을 호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행사내 내 무대 전면에 있음으로써 관객의 시선을 차단하여 공연 관람을 방해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정조대왕 능행차 여민동락의 경우 현대의 국적을 불문한 남녀노소가 참여한 것에 의미는 있으나, 관객의 관심은 당대의 재현행사이므로 수정 필요해보임(폐막연 관람을 위해 정조대왕 행차 관람 직후 관객의 대규모 이탈 발생)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로 인해 대다수의 행사가 취소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으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이 돋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동향에 따른 야외행사의 시간·장소 변경 및 취소 - 시설물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 및 행사장별 안전요원 상시 배치 - 지역 공공기관(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 및 주민(자원봉사) 등 안전요원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음 ○ 자연재해(태풍)에 대하나 유연하고 탄력한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연 장소 변경 후 현장 안내(온라인 동시 공지) 및 대형 스크린을 통한 실시간 중계, 변경장소로의 셔틀버스 운행 - 태풍의 한반도 상륙 당일 오전에 예정된 진찬연의 오후시간(태풍 빠져나감)으로 변경을 통한 관객 만족도 제고 ○ 행사 자체 홈페이지를 비롯한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의 홈페이지 SNS를 통한 행사 취소·변경 공지가 이루어졌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으로 인해 행사의 취소 및 시간·장소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진 1~2일차에 정보가 실시간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관람객의 혼선이 발생하기도 함 - 수원시 플러스 카톡 친구 등록이 되어있어, 카톡으로 실시간 정보를 알릴 수 있었으나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완 필요 ○ 태풍의 영향권이었던 1일차부터 2일차 오전은 안전요원을 제외한 안내요원은 행사장에서 보기 어려웠으나, 2일차 오후부터 3일차는 적절히 이루어짐 ○ 대규모 행사임에도 주차 공간 확보가 아쉬움(수도권의 공터 부재 등 문제)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 프로그램이 집중하고 있고 야간 프로그램 세련화와 체류형 관광자원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도 향상 등 확연히 나타남 ○ 축제가 시민주도형으로 적극 변모하려는 의지가 있고 시민참여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발전 가능성 높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궁 내 마을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음료 봉사 등) ○ 축제 추진주체(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는 6개 분과로 구성되고, 기부금은 수원문화재단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추진위원회는 조례를 통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주최는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수원시, 수원문화재단이며, 실제 행사의 컨트롤타워는 수원시에서 수행하고 있음(위기대응에서 일사 분란한 행정력이 돋보임) ○ 수원갈비 등 지역 특색 먹거리의 다양한 개발 노력 필요 ○ 교육은 행사 전일 시행되었으며, 매일 오전 별도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태풍이라는 큰 변수에 대응함에 있어 놓치게 된 부분으로 보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조 미래의 빛으로 태어나다 야간 프로그램 유료화로 체류형·참여형·수익형 축제로 발전해 가고 있음 ○ 조선별미극장(3,000원), 화성행궁 야간프로그램(3,000원), 능행차 특별관람(5,000원 및 10,000원) 입장료, 기업 및 주민 기부금(약 4억원) 등을 통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 ○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갈 수 있는 콘텐츠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으나 외국어 안내 번역물은 너무 직역하는 형태여서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여러 고유명사까지도 의역해서 설명하는 글로벌 센스가 필요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대사로 연예인이 활동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가족으로 본인이 희망에 의해 참여했으며, 비용은 시의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함 ○ 다양한 프로그램(60여개)이 준비되었으나 자연재해(태풍)로 인해 1~2일차의 행사 대부분이 취소되고, 대표 프로그램(개막연, 진찬연)은 시간·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재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였으며, 날씨 정상화 이후 신속하게 프로그램 진행 및 홍보 추진 ○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외 전통문화재를 활용한 대형 축제로서 외국인 관광객(중·일 단체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개별관광객)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으나, 행사 변경여부가 SNS 등에서 외국어로 안내되지 않았으며 안내인력도 보이지 않았음 - 화성행궁, 연무대, 화서문, 장안문 각 관광안내소가 있고 영·중·일 팸플렛은 있으나 축제 팸플렛(능행차 포함)의 번역 자료는 없음

10

시흥갯골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9월 14일(금) ~ 9월 16일 / 3일간
- 장소 : 시흥갯골생태공원 일원
- 주최 : 시흥시
- 주관 : 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 프로그램 : 갯골패밀리런, 갯골놀이터
 - 체험 프로그램 : 소금놀이터, 갈대놀이터, 나무와 풀놀이터, 가을꽃놀이터, 곤충놀이터
 - 공연 프로그램 : 어쿠스틱 음악제, 나무숲 공연장, 소금창고 인형극장, 시흥댄서 시흥래퍼, 수영장 예술극장
 - 연계 프로그램 : 시흥청년축제학교, 전국미술대회

(2) 총 평

- 잘된 점
 - 주제와 공간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
 - 생태예술놀이라는 명확한 주제와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과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치가 돋보임
 - 축제장 곳곳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갯골 패밀리런’ 대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생태 자원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프로그램의 기획이 돋보임
 - 특히 플리마켓인 시흥아트마켓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뿐만 아니라 구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 환경친화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
 - 차없는 축제를 표방하여 축제장 외 별도의 주차장에서 축제장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축제로 승화시킴
 - 몽골부스같은 인위적인 부스대신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부스를 제작하여 환경연출이 자연과 조화로움을 연출한 점은 돋보임

○ 갯골히어로의 활약

- 각 동별 자원봉사센터 750여 명 중 갯골히어로 선발된 50여명의 지역 자원봉사자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음

○ 세계적인 생태축제로의 발전가능성

- 글로벌 축제로의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생태이벤트나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시흥갯골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특히 시흥시가 생태관광도시로 발전비전을 가지고 있어 축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생태적 가치를 축제요소로 승화시키기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 필요

- 시흥갯골의 가치성에 대한 폭발적인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며, 시흥갯골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획이 필요

○ 시흥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 시흥시민 전체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적 축제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체계적인 홍보전략 개발 필요

- 축제 소재나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흥 갯골의 가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체계적인 전략 구사 필요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골패밀리런과 갯골놀이터가 대표 프로그램으로 유아를 첫 번째 목표로 한 점이 타 축제와 큰 차별성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패밀리런은 미션놀이와 퍼레이드를 통해 타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한층 높였으며, 두 프로그램 모두 가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를 재미와 움직임으로 제공한 점이 매우 긍정적임 ○ 시흥갯골축제는 시흥갯골이라는 독특한 자연생태자원을 축제의 주제로 관련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제에서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생태자원 연계한 프로그램의 차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갯골축제의 프로그램은 곤충놀이터, 소금놀이터, 갈대놀이터, 갯골놀이터 등 축제의 주제인 시흥갯골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프로그램의 차별성도 확보하고 있음 ○ 축제 장기 비전의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자원을 주제로 하는 축제의 경우 축제가 성장할수록 관람인원의 증가로 생태자원 보존에 한계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 및 관리계획 필요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Over Tourism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시흥갯골축제와 같이 잠재력이 매우 큰 생태자원 주제의 축제는 발전방향에 대한 사전 준비로 향후 축제 밀도 관리계획 등이 보완되어야 함 ○ 축제 주제에 부합되는 식음분야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트럭 및 지역상인회와 연계한 식음 운영의 경우 시흥의 지역색 또는 시흥갯골생태와 연관된 주제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 시흥지역 특산물인 연음식을 주제로 한 식음분야가 배치되어 있긴 하였으나, 축제참여객이 주로 이용하는 푸드트럭 및 지역식음업장에서 차별화 요소 보완 필요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프로그램마다 안전과 관련된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는데, 참여자들이 봉사자들이 곁에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의 수가 비교적 많다는 점이 우수함 ○ 행사장까지의 접근성은 셔틀버스 운영, 트램버스 운영, 주차장 안내 등으로 최대한 행사가 교통으로 방해 받지 않도록 하면서 대중들의 접근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는 노력이 각 지점마다 배치되어 있어 인상적이었음 ○ 방문객이 버리는 석유화학 폐기물 수거를 청년 수레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 점은 매우 긍정적인 점 - 자연환경의 생태와 함께 인공물의 생태를 지키려는 모습을 방문객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우수한 점으로 이해됨 ○ 자원봉사 인력의 체계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인력을 운영 특성별로 구분하여 조직적으로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셔틀버스 운행 자원봉사자: 전철역, 시흥시청 및 각 동 주민센터 셔틀버스 정차장에 집중 배치 2) 갯골히어로: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지원, 시흥시 지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사전교육, 협력시스템 가동하여 자원봉사 인력의 최적화 및 효율화 ○ 전망대가 나무로 되어 있어 생태적이긴 하나, 안정성에서는 약간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 수를 늘리고 유아를 위해 만일을 대비하는 전망대 펜스에 대한 시설 안내가 다소 추가되면 좋을 것임 ○ 안전요원의 경우 전문적인 안전요원과 봉사로서의 안전요원의 구분이 필요한데, 특히 전망대와 배 타기 등은 그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노력(전문요원의 배치)을 좀 더 한다면 방문객들의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갯골축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흥시 주민들의 활동 중에서 선발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가성비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이해됨 ○ 소금창고인형극장, 시흥댄서시흥래퍼, 곤충놀이터 등의 수행자들을 지역주민 단체로부터 선발하여 운영하여 참여도를 높였으며, 대표 프로그램인 갯골패밀리런은 미션 수행과 저어서 퍼레이드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인 점이 우수함 ○ 축제 조직체계는 추진위원회, 감독,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년간 운영해 온 관광두레사업으로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잘 갖추어져 있어 축제의 전문성과 효과성이 잘 드러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게 부존자원의 우수성 없이도 무형의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주민의 만족과 참여를 높인 점은 매우 우수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청년축제학교 운영을 통한 후진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축제학교를 운영하여 미래의 축제기획자를 교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성된 인력들이 실제로 시흥갯골축제 사무국 활동에도 참여 ○ 푸드 트럭이나 음식관의 음식이 가격대비 양과 질이 좋은 편이었으나,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라 보기는 어려움 ○ 생태축제의 전문성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골습지 배낭여행 등 생태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생태보존 및 보전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대한 효과성 등이 부각될 수 있는 전문 시설 및 전문 프로그램 보완 필요 ○ 축제 사무국 상설화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갯골축제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을 주 행사장으로 하고 있는데, 시흥갯골생태공원의 경우 축제 기간 외에도 일상적인 생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축제 사무국의 상설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축제기획의 안정성 보완 필요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지속가능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의 경우 지자체와 함께 시흥갯골과 연계된 지역 활동가 및 지역단체들이 네트워크 조직으로 구성되어 향후 지속적인 축제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재정자립도의 경우 축제입장료를 별도징수하지 않고 축제 프로그램 운영에서 참가비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축제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도는 확보함 - 또한, 특정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아 상업적인 색채를 배제하여, 기업 후원에 따라 축제의 성격이 변화되는 위험성 배제 - 경기만 에코뮤지엄의 사례와 같이 시흥, 안산, 화성 등 서해안 갯벌에 위치한 지역 연합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어, 서해안 생태벨트를 연계한 축제의 확장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음 ○ 재정 자립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아 상업적인 색채가 배제되고, 축제입장료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 참가비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축제가 성장하며 증가하게 될 축제운영비에 대한 재정자립계획 수립 필요 - 현재 축제진행 관련 재정자립도 자료 요청(문화체육관광부 지원비율, 시흥시청 지원비율 등)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놀이터라는 주제와 대중교통 중심, 쓰레기 없는 축제 등 운영 방침이 일관되어 우수한 축제로 사료됨 ○ 축제 분위기에 부합하는 공연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의 경우 축제 주제와 상관없이 유명가수를 동원하여 공연 및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흥갯골축제의 경우 주간에는 나무숲 공연장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된 공연을 진행하고, 지역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시흥댄서시흥래퍼 프로그램,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어쿠스틱 음악제를 개최하여 축제 분위기에 부합하는 공연이 진행됨 - 또한 축제에 홍보된 프로그램이 계획된 대로 시행 되었으며, 축제와 무관한 의례 식순이나 행사가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았음 ○ 공연장 시설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숲 공연장의 경우 규모가 작아 참가자의 몰입도가 높았으나, 어쿠스틱 음악제의 경우 공연자가 객석과 대화시도 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데, 이는 참가자의 규모대비 객석과 무대와의 거리, 음향시설 및 화면 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1

여주오곡나루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10월 26일(금) ~ 10월 28일(일) / 3일간
- 장 소 : 여주 신륵사관광지 일원
- 주 최 : 여주시
- 주 관 : (재)여주세종문화재단
- 주요행사
 - 대표 프로그램 : 가마솔 여주쌀·오곡 비빔밥 먹기, 군고구마 기네스, 나루 굿 놀이(GOOD 7), 꼭 한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곳!

(2) 총 평

■ 잘된 점

- 농특산물과 농경문화, 나루터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살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로 여주의 쌀, 고구마 등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도농교류의 장임
- 본 축제의 주요 소재는 오곡과 나루인데, 여기서 오곡은 오곡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주의 특산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오곡나루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은 ‘가마솔여주쌀·오곡비빔밥 먹기’, ‘군고구마 기네스’, ‘나루굿놀이’, 등 특산품이나 지역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돋보임
- 주말 밤에 실시한 낙화놀이도 지역의 민속문화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민속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표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기획, 운영자들의 고민이 필요함. 특히 여타 축제와 뚜렷히 구별되는 여주오곡나루축제만의 새로운 대표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해서 이 축제의 경우 주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프로그램인 군고구마 기네스는 여주 특산물인 고구마를 방문객에게 쉽게 접근하고 고구마와 여주를 연결시켜 연상하기 쉽게 만들어준 프로그램임 ○ 어린이들이 농경문화에 대해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나루터에 동물농장, 씨름장, 대장간, 장승 등을 운영한 것도 타 축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보임 ○ 시식으로 고구마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고구마 구매를 원하는 방문객은 바로 인근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시식을 함으로써 고구마 판매로 이어지는 효과를 지님 ○ 지역 문화예술단체에서 진행하는 민속체험마당 공연장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였으며 소규모의 마당공연 형태의 작은 무대를 많이 만들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축제를 즐기도록 유도함 ○ 지역문화자원의 활용도도 떨어짐. 세종대왕이나 황포돛배를 활용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그저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 소재 정도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 ○ 전체적인 마당과 거리개념을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군고구마기네스장과 같이 핵심콘텐츠인 여주쌀밥, 오곡밥 가미술 코너도 그 자체가 메타포가 강한 것으로 일반관람객이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가 열리는 신록사관광지는 축제가 아니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화장실, 주차장, 휴식공간, 숙박시설, 박물관, 공원 등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로 여주역까지 도착한 후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축제장까지 연결한 점은 교통 편의성을 높임 ○ 장소를 유명한 관광지인 신록사 일원으로 선정하여 기본 접근성이 높아 방문객을 모으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 안전요원, 진행요원, 자원봉사자 등을 적절히 배치하였고, 안전교육을 실시함. 특히 풍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인근 주유소의 위치, 풍속, 풍향 등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함 ○ 날씨 변화에 따라 축제시기에 강우, 폭풍, 저녁시간대의 기온 급강하 등의 기후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축제시기를 10월 초순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 필요 ○ 축제장을 마당형태로 보완한 것은 매우 적절하며 장기적으로는 몽골텐트를 가급적 없애며 대안으로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 형태로의 진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축제장 환경 측면에서 더욱 축제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임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예산 규모의 다른 축제와 비교했을 때 축제의 규모나 미적 분위기가 뛰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이 축제를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조직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가능성이 커 보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참여도는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로서 높게 보여지며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참여노력도 보임 ○ 축제 추진주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주세종문화재단으로 바뀌어 농산물판매 위주에서 지역 문화와 결합하는 노력이 향후 있을 것으로 기대 ○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민간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시민축제기획단과 축제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지역주민들에게 축제 프로그램을 공모하게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일정 프로그램 공모도 실시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행정에서 문화원, 농업인단체, 작목반, 농촌관광조직, 자원봉사센터, 행정부서 등이 실무협의체를 조직하여 충분한 협의와 조정노력을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델로 보임 ○ 고구마 연구회 등 여주의 특산물에 대한 연구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음. 축제장에서 군고구마 라떼, 자색고구마에이드 등 다른 곳에서는 마실 수 없는 메뉴와 고구마 피리 등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 판매이지만 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구매하고 홍보효과 차원에서 관람객의 편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햅쌀의 경우 할인율이 관람객이 체감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역농산물 홍보차원에서 할인율을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인을 과도하게 동원하지 않고 지역주민이나 작두굿 등의 콘텐츠로 채운 것은 장기적으로도 축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축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행사장을 구역을 잘 설정하고 소규모 무대를 중간중간 배치하여 축제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늘리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배치한 것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표프로그램과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필요함 ○ 여주세종문화재단 축제 전담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경력개발, 교육 등의 추진이 필요함

12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1월 6일(토) ~ 1월 28일(일) / 23일간
- 장 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3개 면 일원
- 주 최 : 화천군
- 주 관 : 재단법인 나라
- 주요행사
 - 대표 프로그램 : 산천어 얼음낚시, 산천어 수상낚시, 산천어 맨손잡기 등
 - 기타 프로그램 : 겨울문화촌, 얼음이섬, 세계얼음썰매체험존, 얼음축구, 좌식배드민턴, 봅슬레이, 스노우편파크 등

(2) 총 평

■ 잘된 점

- 산천어를 활용한 얼음낚시, 빙상에서 하는 다양한 놀이 등 산천어와 얼음 테마로 구성된 겨울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겨울 축제임을 보여주었음
- 하천에서 진행되는 얼음관련 프로그램과 더불어 화천읍내에 선등거리페스티벌이라는 이름하에 산천어 한지등, LED 루미나리에(하트거리 등), 가면무도회, 버스킹, 얼음조각광장 등을 기획하여 화천읍 전체를 축제장으로 활용하였음
- 축제장 면세점 설치, 산천어 밤낚시로 지역 숙박 유도 및 선등거리 페스티벌 등의 야간 프로그램 확대 등 '1박2일 체류형 가족축제'로의 변신을 통하여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매년 축제가 개최되면서 이상 기후로 인한 축제의 지속경영의 난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고심이 필요해 보임. 또한 축제 재방문객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변화를 위한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산천어 맨손잡기 체험장 부근 교각 아래에 벽면을 설치하여 다양한 설상조각으로 축제장 분위기를 연출한 모습이 돋보였으나, 벽면 이면은 민낮으로 방치됨으로서 디테일 측면에서 볼 때 아쉬움이 있었음
- 화천산천어축제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성공한 축제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을 더욱 공고히하기 위해서는 축제 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시간의 축제 아카데미를 넘어 군민 모두가 축제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친절한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장기교육의 화천군민 축제아카데미를 매년 운영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저변확대가 필요해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천읍 도심 거리 중앙로에 2만7천여 개의 등(燈)을 조성하였으며, 선등거리 가면무도회, 선등거리 이벤트 등의 선등거리 페스티벌 확대운영을 통해 관광객을 화천읍 도심으로 유도하고자 하였음 - 또한 관광객이 물리는 주말에는 선등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등 시내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음 ○ 동 축제는 ‘산천어 체험’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방문객들이 직접 산천어 잡기 체험을 할 수 있게 알차게 구성함 - 보통 일반일에게 낚시라는 행위는 쉽게 즐기기 어려운 관광 아이템인데 반해 플라스틱 낚시대로 실제 미끼없이 손쉽게 낚시 체험을 즐기 수 있게 준비한 동 행사의 대표 프로그램은 일반인과 아이들에게 큰 기쁨과 특별한 체험 경험을 제공함 ○ ‘산천어 체험’을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내세우되 그 밖의 눈, 얼음 체험, 행사장 인근 지역 시설에서의 각종 문화, 이벤트 행사 등 산천어 체험 이외에도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두루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임 ○ 천사오토바이, 로봇, 범퍼카는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얼음 위에서 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통합매표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었으며, 고작 10분~15분에 약 1만원의 고가 이용요금으로 인해 화천산천어축제의 대중적 서민적 측면과 거리가 있어 보였음. 또한 일부 장비는 고장으로 잘 작동되지 않아 이미지를 반감 시키고 있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부근 공용 주차장부터 안전요원을 여럿 배치해 건널목 등부터 수시로 교통정리,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또한 안전요원, 봉사자 등의 행사 관계자들은 명패를 걸고 있어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안내부스, 응급의료센터, 흡연실 등 편의안내시설을 잘 구비해 놓았음 ○ 주말 미니버스 3대를 이용하여 축제장까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셔틀 운영하였으며, 축제장 내에는 전기자동차셔틀을 배치하여 방문객의 이동을 도왔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셔틀버스도 운영하였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천읍에 진입하면 조명탑을 설치하여 축제장에 접어 든 것을 알게 하고 산천어 등이나 루미나리에 등을 통하여 고객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며, 선등거리에 촛불의자를 마련하여 관광객의 추위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하는 등 소소한 재미와 체험을 제공함 ○ 축제 기간 중 상시 라디오 프로그램과 연계한 얼음나라 방송국을 운영함으로써 축제장 안내 및 외국어 통역 방송,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하여 방문객에게 안내 편의 제공과 함께 흥미를 유발하고 있었음 ○ 회센터 내에 난방을 위한 유류 온풍기를 설치 가동하고 있었으나, 온풍기 안전지시대 구조물 및 온풍기 주변에 신발을 포함한 잡동사니 물건들이 널려있는 상황으로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음 ○ 예약 낚시터와 현장 낚시터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행사장 입구에서 예약 낚시터 입장권 발급 부스를 찾기가 어려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인터넷 예매 시 안내가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낚시터를 가는 방법과 입장권 발급이 현장 낚시터 부스와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을 명확히 해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자체 수입과 축제장 내 사회단체가 운영한 매점, 푸드트럭, 회센터, 구이 터, 면세점, 농특산물 판매장 등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현금 유동성을 크게 늘려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음 ○ 행사 운영에 지역민, 지역 군부대, 경찰 등 공공인력과 주민이 모두 함께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의 구성층은 젊은 청소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노년층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노년층의 참여가 지역축제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하는 푸근한 인상을 주었음 ○ 안정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모의 현장 테스트를 하는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축제 주요시설에 대해 목록화 하고 이에 대한 점검계획을 체계적으로 체크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돋보였음 ○ 체험거리 및 즐길거리는 많았지만 지역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 등에 대한 인상은 체험거리에 비해 다소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내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점의 항목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항목들로 화천만의 대표적인 먹거리라 생각되기 어려움 ○ 축제장 주변 추천 음식점의 특성과 정보를 수록한 먹거리 로드맵 책자 제작과 보급이 필요하며, 이러한 식당의 철저한 선별과정과 서비스 교육 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 겨울은 강추위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밤낚시나 야간페스티벌 등의 축제 볼륨을 키움으로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 관광객의 수나 경제적 효과가 작년에 비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옴 ○ 화천산천어축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동남아시아, 중국에서 직접 홍보활동을 하였고, 서울권 외국인을 위한 셔틀버스 등의 방법을 제공함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낚시터, 산천어 구이 공간 등을 잘 조성하여 축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주제와 무관한 프로그램의 운영, 연예인에 의존한 프로그램 및 식순에 의한 의례행사의 과도함이 있지 않았음 ○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는 대한민국 겨울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은 충분히 발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재)나라, 공무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축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바램은 강원도만의 겨울놀이를 발굴하여 화천산천어축제에서만 즐기거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어야 함 - 바로 옆 고장 평장에서도 송어축제라는 유사한 축제가 만들어졌고, 이처럼 벤치마킹이 빠르게 진행되는 축제 특성상 화천산천어축제는 가장 앞에선 대표주자로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13

평창효석문화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9월 1일(토) ~ 9월 9일(일) / 9일간

■ 장 소 :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 주 최 : 평창군

■ 주 관 : (사)이효석문학선양회

■ 주요행사

○ 주요 프로그램

- 전통마당 : 메밀음식체험장, 지역우수농특산물, 봉평고향사진전, 거리시화전, 예술놀이터, 소설인물체험
- 자연마당 : 물가동네마당, 야간조경(빛세계), 버스킹공연, 공예체험, 전통민속놀이, 전통뗏목타기, 시화전, 윈드베너, 메밀꽃밭(자연포토존), 메밀꽃밭(테마포토존), 소설속의 인물과 대화, 소설속 인물 연출, 추억의 DJ, 어린이 프로그램, 풍등날리기
- 문학마당 : 작품시화전, 메밀꽃필 무렵 영화 상영, 퀴즈대회, 추억의 보물찾기, 독서쉼터, 문학특강, 한책읽기, 버스킹공연(클래식), 마음전하기, 거리백일장, 독서토론회, 소설낭독대회(학생/일반), 선생님께 편지쓰기, 엽서보내기

○ 기타 프로그램

- 체험 프로그램 : 음악교실, 소설속 인물체험, 힐링독서, 체험북, 스텝프렐리, 행운의 룰렛, 키드프로그램, 뗏목체험, 추억여행, 찰떡치기, 전통민속놀이, 학교종이 땡땡땡, 고고싱~ 깡통열차, 작가와 함께 걷는
- 공연 프로그램 : 윈드오케스트라, 메밀꽃 마당극, 영화상영, 거리상황극, 버스킹공연
- 참여 프로그램 : 문학산책, 문학강의, 거리백일장, 추억의 보물찾기, 풍등 날리기
- 전시 프로그램 : 특별기획전, 축제의 기억 사진전, 사색의 거리, 사랑의 거리, 작가 초대전, 사진전

(2) 총 평

■ 잘된 점

- 주제의 명확성과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
 - 주제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정체성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으며 서정적이고 정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은 다른 축제와 차별화되는 점이라 할 수 있음
- 시설배경을 잘 구현해 놓은 축제 공간 구성의 탁월성
 - 축제장을 메밀꽃밭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네 가지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관광객은 시설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 속에 축제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은 높이 평가 받을 만함
- 부문별 책임이사제를 도입하여 축제 운영의 거버넌스 체제 확립
 - 민간으로 구성된 축제사업부를 기획, 홍보, 자원봉사 등 부문별 책임이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음
-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지
 - 메밀밭 경작지가 줄어드는 우려 상황에도 주민들의 메밀밭 1평 갖기 운영 전개와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메밀 특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높은 재정자립도 축제
 - 축제의 핵심 포토존의 하나인 메밀꽃밭의 입장료가 2,000원으로 효석문화제는 사실상 유료축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장료 수입과 축제 개최 이후 메밀수확을 통해 총 운영비의 15~20%를 충당하고 있는 것은 군단위 축제에서 보기 드문 재정자립도 우수축제로 평가할 수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개최시기 조정 문제의 어려움
 - 메밀밭이 축제의 배경이라는 점은 장점으로 보이나 메밀꽃의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하여 일부 빈터가 남아있는 등 다소 문제도 발생한 점은 아쉬운 점임
- 축제프로그램의 단조로움과 체험프로그램의 부족
 - 축제의 주제 특성상 정적인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축제 방문객의 확대라는 점에서 고민해보아야 할 부분임
 - 또한 주간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어 달밤의 메밀꽃을 활용한 다양한 야간프로그램의 발굴을 통해 체류관광객의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역명소와 연계한 적극적 홍보 추진 필요
- 강원도 대표관광지인 평창의 주요 명소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축제를 통한 평창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 필요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적 작품을 배경으로 축제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고자 넓은 공간에 메밀밭을 조성함으로써 다른 축제들과 공간구성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음 ○ 평창효석문화제는 이효석작가의 문학 가치를 드높이고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하고자,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기반으로 메밀꽃밭과 소설 속 이야기를 평창군 봉평면 메밀밭에서 전개함에 따라 축제의 장소성과 차별성이 분명한 축제라 평가됨 ○ 평창효석문화제는 추억을 만드는 재미와 메밀음식 등 봉평장의 전통먹거리, 메밀꽃밭의 야간 경관 콘텐츠를 활용한 체류형 문화관광 축제라고 평가함 ○ 행사의 핵심 주제인 인연, 사랑, 그리고 추억이 보편적이고 통속적인 개념이라, 행사장에 인상 깊게 구현되지 않았음 ○ 올해는 스토리가 있는 축제로 도약을 노력한 점이 보이나, 아직 좀 더 스토리 내용을 보강하고 체험행사와 이벤트를 만들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 주민이 이끄는 공연이었지만, 볼 거리가 많지는 않았음(공연의 핵심 콘텐츠 부족)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운영요원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진행 및 안내요원이 적절한 위치에 있었으며, 친절하게 관람객을 맞이해주고 있었음 ○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 자체가 축제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축제장을 3개의 마당(문학마당, 자연마당, 전통마당)에서 이효석 체험, 메밀꽃밭 체험 그리고 전통시장체험과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에는 이효석문학관 곁에 조성된 “효석달빛언덕”은 축제 이후에도 축제공간에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효율적인 공간이라 평가함 ○ 축제 행사장이 매우 넓고 주무대(전통마당)와 메밀꽃밭, 이효석생가 그리고 이효석문학관 등 축제진행 장소들이 주변 행사장과는 거리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문객의 관람 유도가 미흡했다고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효석달빛언덕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평가함. 따라서 행사장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표지의 추가설치가 필요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이용권이 있어, 메밀밭, 달빛언덕, 이효석 문학관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재정자립에 역할을 하고 있음 ○ 메인 무대 앞 주민들이 메밀국수를 저가에 팔고 있어, 재정자립에는 도움을 주고 있으며, 행사 전체 물가를 낮추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피하고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효석선생과 메밀꽃밭이라는 소재 말고도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효석달빛언덕”에서의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며, 또한 전반적인 축제의 수준이 과거보다 높았다고 평가함 ○ 축제의 복잡한 구성을 어떻게 단순화해, 이동동선, 핵심콘텐츠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음. 전체적으로 복잡한 축제는 자연을 소재로 메밀꽃밭의 정체성과 맞지 않음. 야간과 메밀꽃밭을 연결시켜 조용하고 안정적인 관람도 꾀할 필요가 있음 ○ 평창효석문화제가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유지하는 측면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외지의 방문객이 급증하다보니 지역의 환경과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축제장이 난개발로 옮기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축제장소가 향후에도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환경보존과 정비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평가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밀밭의 자연과 이효석 문학이 어우러진 자연+문학의 요소를 축제 대표 콘텐츠로 차별화를 꾀했음 ○ 이효석 문학선양회의 선양사업을 기초로 평창을 문학관광지로 부상시키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함 ○ 올해 평창효석문화제는 “소설 체험북(5,000원)”을 구매하는 관람객들에게 포토존, 이효석문학관 및 효석달빛언덕을 무료로 입장하여 체험할 수 있게 한점은 돋보이는 운영방안 이었다고 평가함 ○ 평창효석문화제는 축제의 추진 주체가 평창군과 봉평면 추진위원회(이효석문학선양회)에서 직접 기획,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오래 동안 축제를 진행해 오면서 나름의 축제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큰 변화가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완성도 높은 최우수축제로서의 부족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평창효석문화제는 민간주도형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아직은 평창군과 (사)이효석문학선양회,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축제의 추진 주체 역할을 하고 있어서 축제운영을 위한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축제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견수렴체계를 마련해야 발전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는 무엇보다도 KTX 평창역 연계 축제전용 운행노선을 열차 도착시간과 출발시간에 맞추어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함 ○ 제20회 평창효석문화제는 “이효석의 고향”이라는 주제하에 소설 “메밀꽃 필 무렵”과 소설속 이야기 공간인 메밀꽃밭과 이효석을 콘텐츠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정적이며 잔잔한 감동이 있는 축제라고 평가함 ○ 축제 관람객이 가족단위, 고령층 위주이나 향 후 젊은층이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젊은 축제 아이템이 보완됐으면 함 ○ 축제 프로그램과 공간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홍보마케팅이 부족하고 이슈화한 이벤트가 부족한것이 아쉬운 점이라 판단하며, 보다 적극적인 스토리 발굴과 이벤트로 홍보마케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14

원주다이너믹댄싱카니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9월 11일(화) ~ 9월 16일(일) / 6일간
- 장 소 : 따뚜공연장 일원, 원일로, 문화의 거리, 원주시 일대
- 주 최 : 원주시, 제36사단
- 주 관 : (재)원주문화재단
- 주요행사
 - 주요 프로그램
 - 댄싱카니발 : 시민자율참가(원주시·전국 시민동아리 및 문화예술단체), 120m의 초대형 퍼레이드 무대, 군부대 참여, 해외 참가팀 퍼레이드(러시아, 필리핀, 일본, 중국, 대만 등)
 - 개막식 및 폐막식 : 개막식 퍼포먼스(월드플래시몹, 시민합창단), 폐막식(카니발파이널2 및 시상식)
 - 문화예술공연 : 한국의 멋(생동놀이), 군(軍)·락(樂)(군의 열정), 클래식하모니, 카니발파이널1(스페셜)
 - 프린지페스티벌 : 예술단체와 함께하는 공연
 - 프리댄싱페스타 : 5~20인 이하 팀 대상 소규모 댄싱카니발, 아동·청소년·일반, 독창적이며 다양한 공연 진행
 - 부대행사 : 축제포럼 & 축제아카데미, 키즈 ZONE, 댄싱 ZONE, 다이너믹 프리마켓, 푸드&푸드트럭 ZONE, 군(軍) 문화체험

(2) 총 평

- 잘된 점
 - 신기성과 흥미를 유발하는 축제주제와 대표프로그램의 주제성과 완성도
 - 댄싱경연대회를 대표 프로그램화하여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춤이라는 장르가 가지는 소재성으로 인해 독특한 볼거리 제공하는 등 주제성과 완성도가 높은 축제로 평가됨

- 축제공간을 광역화하는 등 돋보인 기획력과 지역사회 참여
 - 주제에 걸맞게 거리 퍼레이드로 예선전과 경연대회를 치루고 시내는 물론 문막읍까지 프린지공연을 확대함으로써 시가지 전역에서 축제분을 조성하는 등 기획력이 돋보였음
 - 또한 경연대회를 다이나믹팀과 스페셜팀으로 나누고, 스페셜팀을 5개 분야로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계층 및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참여도를 높여 지역주도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는 점은 축제의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보여짐
- 축제공간 및 동선 구성은 축제 성격에 맞게 훌륭하게 운영된 것으로 평가
 - 공연장, 특설무대 설치와 무대 주변의 자석배치 등 관람객들의 진출입이 자유롭게 공간 구성을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축제장 전반의 관람객 동선은 잘 구성되었고, 도심과 행사장 곳곳에 프로그램 안내판 설치와 프린지 공연과 길거리 공연의 시간배정, 그리고 진행 등은 전반적으로 잘 진행 된 것으로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주제와 부합하는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
 - 댄싱 주제와 부합하는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여러 나라가 참가한 댄싱의 스토리가 부족하여 단순히 흥미와 보는데 그치고 있는 점은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족한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 개선 필요
 - 푸드트럭의 배치공간에 비해 향토음식 부스 공간이 다소 부족했으며 이동통로와 식탁이 놓여진 공간도 다소 혼잡스러운 분위기는 개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해 보여 향후 공설운동장 등을 개방하여 확대하고, 교통안내요원 증원배치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주간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 자원과 연계 필요
 - 축제의 메인행사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주간에도 지역내의 관광자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농수산물 중심을 하는 지역축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춤”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지역축제에 접목하여 시·공간을 넘어서는 관심과 참여를 제고 - 규모와 볼거리 측면에서 시각적 압도감이 뛰어나며 참여인원과 상설시설의 조합은 차별성이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댄싱 경연팀들이 축제 핵심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참가 경연형 축제이자 퍼레이드형 축제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함 ○ 참가팀 중 절반가량이 지역의 각 동에서 참여하고 있어 지역특성이 반영되어 있음. 특히, 축제참가를 위하여 팀당 2백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아 연중 연습하고 있어 지속성과 지역문화자원 육성관점에서 수범사례라 할 수 있음 ○ 댄싱의 광범위한 소재는 범용성의 장점이 있어 규모의 확장, 참여용이성이 높으나 고유성과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한정성 측면에서는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경연 프로그램 장소 집중성(메인 무대)은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집중성이 높은 편이어서 향후 축제가 도시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안전관리 이외에 지역민이 봉사로 참여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주정차안내 등 전체적으로 안내체계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고려하여 주관 병원개념의 응급체계 구축 ○ 총 6천 3백석 규모의 전용공연장은 탁월한 편이며 총 10만 제곱미터 상당의 원주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하고 있어 축제장규모는 양호함 ○ 대형음식부스를 운영하고 있어 축제장내 청결을 유지하는 청소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연인원 1천 5백 여명의 청소자원봉사자가 종사함 ○ 원주문화재단 내 문화자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2년간 160여명의 준전문가를 배출함. 배출된 인적자원이 축제의 주요 운영체계를 담당하고 있음 ○ 축제장 진입로는 주요도로 인접과 종합운동장의 특성상 개방적 것에 비해 축제안내소는 축제장내 중앙에 위치한 한 곳에 불과하여 적절한 안내서비스 제공은 취약함 ○ 주무대는 대형공연이 수시로 진행되고 음식부스가 위치한 공간에도 별도 무대가 운영됨. 아울러 동선 곳곳에 공연이 전개되는 점은 축제장에 활력요소가 되나 여러 음향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불협한 소음으로 변함. 공연중심의 축제로서 음향의 시간별, 공간별 짜임새는 부족한 편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 14억을 포함하여 약 16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총 예산 대비 약 7~8%가량의 수익구조를 갖춤. 입장과 관람이 무료인 관계로 주요 수익원으로 푸드트럭과 음식 및 판매부스 공간 임대료로 구성됨 ○ 지역주민 참여도는 상당히 높이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획단, 봉사단, 합창단, 재능기부, 홍보 등 축제 전반에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였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축제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었음 ○ 먹거리 부스 52개 중 48개는 원주에서 출점한 업소로 지역의 음식이 축제장에 망라됨 ○ 축제 초년도 이후 최근 7년간로 원주문화재단을 통해 축제가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축제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획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상시 업무추진(일시적인 필요인력: 청소, 시설물 설치 등) 제외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내 판매, 음식 부스가 70여개 이상 집중된 반면 축제장 인근 과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상권은 미흡한 편 ○ 치악산한우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먹거리를 축제로 연계하고 있는데, 댄싱카니발에 지역먹거리 외에도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축제상품 기획이나 축제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군부대를 비롯, 주민들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댄싱팀으로 참여하는 경험이 확장되면서 지역사회가 일 년 간 준비하여 개최하는 지역기반 축제문화로 자리잡히고 있음 ○ 2010년 설립된 원주문화재단 내 7인의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에 의해 연중 기획, 관리되고 있음 ○ 기존의 지역문화자원을 넘어선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원주지역의 새로운 문화자원을 만들어 냄과 동시에 지역민, 지역특산물, 지역봉사, 지역재능기부등 다양한 지역색과의 결합을 시도한 노력이 돋보임 ○ 원주 관내 지역별 생활문화 관련 동아리활동을 통해 경연에 참여하도록 축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나 자발성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봄 ○ 축제감독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안정적인 축제운영조직도 축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인력, 시민들이 축제의 준비과정과 일상적 지역문화활동으로 연계되어 축제가 지역문화인력을 양성하고 활동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이 연계되면 원주댄싱카니발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인 동원은 배제되었으며 시민과 축제참여 공연팀으로 구성된 대형 런웨이로 특색있는 개막행사 진행 ○ 주 공연장의 규모가 지역축제로 손색이 없었으며 공연시 국가 및 테마를 안배하여 구성한 노력이 보였으며 다양한 구성을 통해 보다 흥미로운 공연을 관람이 가능하였음 ○ 축제의 정체성이 매우 명확하고, 핵심 프로그램이 튼튼함. 또한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핵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식이고, 지역기반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도 명확해서 축제의 역동성이나 일상성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갈 것이라 생각됨. ○ 현장에서 제공하는 안내 인쇄물은 휴대가 불편하거나와 즉각적인 축제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할 정도로 크고 두꺼움. 야간에 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작은 활자를 보기도 불편함. 모바일과 리플렛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구체정보와 간략정보를 구분 배포할 필요가 있음

15

춘천마임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5월 20일 ~ 5월 27일(일) / 8일간

■ 장소 : 수변공원, 중앙로 및 춘천시 일원

■ 주최 : (사)춘천마임축제, KBS춘천방송총국, 춘천MBC

■ 주관 : 춘천마임축제 운영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 프로그램

- 물의도시;아!水라장 : 사전 거리 퍼포먼스(마임동화 ‘구름치기’, 클라운 진 ‘신기한 별론 사전’), 컬러링로드 & 비치로드, 도심 물장난, 주체공연, 아프리카 댄스 난장, 디제잉 풀파티
- 극장공연 : The Artist
- 봄의도시;우리동네 좋은날 : 즐거움 UP!, 친밀감 UP!, 상상력 UP!, 에너지 UP!
- 봄의도시;도깨비난장 : ① Site 별 몸짓, 춤짓, 광대짓, 대동짓, ② 체험, 놀이 프로그램 ‘하이원더랜드 & 로맨틱 플레이스’, ③주체공연, ④ ‘세계를 보는 창(체코)’ : 마리오케트 공연 ‘Karromato’의 ‘Wooden Circus’, 춘천마임축제 자체작품 30회 기념작 ‘건배-Viva La Vida’

○ 기획 프로그램

- Now & Next, 체험 놀이 프로그램-1 ‘하이원더랜드’, 체험 놀이 프로그램-2 ‘로맨틱 플레이스’, 마임프린지, 마임아카데미(아프리카 댄스 워크숍, 슈트맨&슈트걸 워크숍, ‘건배-Viva La vida’ 워크숍, 페스티벌 클럽, 찾아가는 공연(일장일판 컴퍼니 클라우진, 일장일판 컴퍼니 마임동화, 일장일판 컴퍼니 극단 즐겨찾기, 왈츠매직 극단 즐겨찾기)

(2) 총평

■ 잘된 점

- 마임축제가 축적한 축제 브랜드를 바탕으로 도시를 넘는 도시축제로서 물, 불의 컨셉을 연계한 마임축제로서의 축제성을 살리고자 축제기획 의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전략을 연중 상설 활동으로 연계하고자 하였음

- 축제기간 외 일상적 시기에 시민, 기업, 지역 등과 연계한 마임축제의 활동을 펼치고 이에 기초해서 5월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펼쳐내고 있는데, 지역축제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반을 자생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축제는 대표프로그램인 ‘불의도시: 아!水라장,’ ‘불의도시: 도깨비 난장(이후 ‘불의도시’로 부름), ‘봄의 도시’를 포함하여 ‘마임 아카데미,’ ‘브라운 오번가 거리공연,’ ‘찾아가는 공연,’ ‘극장공연,’ ‘페스티벌 클럽,’ ‘마임프린지,’ 등 춘천시 전역을 활용하여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춘천 시내 전체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민간의 독립적 축제조직으로 생존하고 축제의 재정 자립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축제 자체의 예술적 성공이나 폭발적 축제성의 조직과 구현보다는 일상적 사업이나 활동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활동을 모아내는 상황으로 기울 우려가 있음
-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살림으로써 도시의 핵심 문화관광의 콘텐츠로 성장하고자하는 비전은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현 단계는 시민, 청년, 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적 기반을 재정립하고, 확장된 축제의 장소성을 살리면서 축제성을 새롭게 정립해가고 있는 단계라고 봄. 그러나 춘천마임축제로서의 혁신적 예술성, 축제적인 역동성을 보다 선명하게 살려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되며, 중장기적 과제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임 장르의 예술적 제약을 넘어 볼거리와 체험이 결합된 메인 프로그램 물난장-아수라장, 꽃과예술-마임공연의 확장, 불난장-도깨비난장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축제로 풀어내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돋보임 ○ 마임축제에서 아수라장과 도깨비난장은 브랜드화 되어 있어 문화관광축제로서의 대중적 힘은 분명함 ○ 물에서 시작해서 불로 마무리 하는 명확한 스토리라인을 바탕으로 호반의 춘천의 이미지를 잘 부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의 도시’는 6개의 무대를 설치하고, 무대에 따라 일정 시간마다 다른 공연이 이루어 지고 있었고, 공연마다 목표시장을 달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음 ○ 6개의 무대의 무대공연의 다양성만큼이나 축제를 한마디로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향후 정체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는 모든 집단을 위한 모든 공연으로 인식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예술축제로서의 프로그램 콘텐츠의 혁신성, 예술적 매력도 등이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대중적 참여와 체험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예술축제로서의 균형감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과 관련된 행사인 만큼 화재에 대비하여 지역 소방서의 지원이 있었고, 지역 경찰 등의 협조를 통해 안전 관리를 잘 하였음 ○ 축제의 장소도 몸짓극장을 비롯해 중앙로 브라운5번가, 수변공원 등 도시의 거점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도시축제로의 확장성을 만들어가고 있음 ○ ‘불의 도시’의 진행 및 안내요원, 자원봉사자, 부스인력 등 자원봉사자의 육성, 교육,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 짐 ○ 자원봉사자 캐비를 비롯해, 시민공연단, 지역청년 문화기획자 및 예비문화기획자 등이 함께 했고, 지역 내 대학, 기업, 상권, 경찰소방 등도 축제를 만드는 과정에 연계하고 있는 지점도 축제의 역사성에 맞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됨 ○ ‘불의 도시’의 경우 축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차 후 도로를 건너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음 ○ 축제 장소가 도시의 여러 거점에서 만들어진 것은 도시축제로의 확장성이라는 강점도 있지만 반대로 축제성이 분산되는 약점도 있음. 장소마다 특성과 연계성이 프로그램의 역동성이나 프로그램적 연계성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자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업연계 프로젝트, 축제 프로그램의 적정선에서의 유료화, 마케팅 활동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봄 ○ 춘천마임축제는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축제 개최 초기에는 독특한 축제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성공한 축제였으나, 이후 경쟁 예술축제의 등장으로 부침을 겪음 ○ 축제조직도 상설화되면서 조직구성원 및 운영에서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음. 상설조직 유지를 위한 일상적 사업과 활동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특색을 반영한 먹거리뿐 아니라 지역 특색이 들어간 기념품이나 행사 등도 개발되면 좋을 것 같음 ○ 현재 지역협력,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에 있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사업의 내용의 전달에 어려움이 있음. 인력양성, 지역협력 등 보다 사업을 유형화하고,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고, 이를 홍보하여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임축제 운영에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고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창출해가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그램의 일상 사업화,’ ‘콘텐츠 창작 및 개발,’ ‘일상적 교육사업,’ ‘상설축제 개최’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시스템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구축함. 현재 마임축제는 이러한 지역의 단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축제날 만의 축제가 아닌 축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의 결과물의 하나로 진행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축제 운영요원 및 공연자들 역시 ‘깨비’, ‘슈트맨 & 슈트걸’ ‘아프리칸 댄서’ ‘악동 도깨비’, ‘청년투게더 프로젝트’ 등 자체 아카데미 및 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다시 축제프로그램에 참여케 하는 순환구조를 구축함 ○ 이는 전반적으로 민간축제로서의 확실한 축제운영 모델의 구축을 통해 축제의 발전가능성을 확보한 모범사례로 판단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음. 또한 수동적인 행사뿐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도 있어 좋았음 ○ 축제와 무관한 의례 식순, 연예인초청 공연은 없었음. 다만, 공연예술축제 특성상 프로그램에 필요한 공연자를 초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프로그램은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음 ○ 30년 장수하고 있는 민간 주도의 지역예술축제로서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되고 있는 국내 공연예술축제들 사이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생각됨.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다각적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지역의 젊은 주체들이 주축이 되어 일상적 사업과 활동을 만들어내어 재정자립도, 조직운영의 전문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와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함

16

괴山高추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8월 30일(목) ~ 9월 2일(일) / 4일간
- 장 소 : 괴산군청앞 광장 및 동진천 일원
- 주 최 : 괴산군
- 주 관 : 괴산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고추별별마당 : 세계고추전시회, 괴산고추품평회, 괴산고추홍보관, 고추속체험 개폐막식, 괴산임격정선발대회, 임격정뮤지컬, 황금고추를 찾아라, 속풀이 고추난타, 고추이벤트, 고추퍼레이드 등
 - 괴산문화마당 : 군민종합작품전시, 사진전시, 전통공예품 전시(괴산노인회)
 - 괴산어울림마당 : 문화·놀이기반 체험 및 유관기관 홍보 등
 - 물장구마당 : 고추달린 물고기를 잡아라, 기타 물놀이이벤트
 - 고추장터 : 읍면 고추장터, 고추방앗간(2개소), 농특산물 판매장터, 쉼터
 - 먹거리마당 : 간이음식점, 아시아 핫푸드존, 빨간맛식당, 향토식당, 읍면식당 등
 - 고추잠자리마당 : 전국 캠핑대회

(2) 총 평

- 잘된 점
 - 대표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노력
 - 지역 특산물인 고추를 주제로 한 축제로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 소재 특성상 대표 프로그램 개발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황금 고추 찾기’와 ‘고추난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년대비 규모 확대와 운영의 차별화를 시도하여 방문객들의 호응도를 이끌어 낸 점은 높이 평가됨

- 또한 고추축제의 특성을 살려 주제를 명확하게 기획했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기존 프로그램도 보강되었음
- 우수한 축제공간 환경과 인적 서비스
 - 축제의 주무대는 관내 또는 고속도로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무대와 지근거리에 종합운동장 등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우수한 축제공간 환경을 가지고 있음
 - 특히 하천을 두고 주무대와 야시장·향토식당 등을 분리 배치하여 축제 몰입도를 제고하고 있음
 - 또한 축제 담당자 및 자원봉사자의 축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였고 교육도 잘 되어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역특산물 축제로 지역민의 관심과 전폭적 지원
 - 축제를 고추판매 및 브랜드 제고의 수단임을 인식해 주민들의 애정과 자부심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축제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축제의 발전가능성이 높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표 프로그램의 한계 극복의 과제
 - 대표 프로그램이 지역민과 관광객의 몰입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고추축제의 의도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대표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함
- 고추와 임꺽정의 관계 설정
 - 축제에서 ‘임꺽정’이라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좋았으나 고추와 임꺽정과 관련성은 부족해 보이며 임꺽정 관련 프로그램도 뮤지컬 정도에 국한되어 있어 축제주제성을 부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임
- 축제장 동선 구성 개선 필요
 - 축제의 목적이 특산물 판매와 브랜드 가치제고라고는 하지만 너무 판매에 초점을 두어 고추판매장을 축제장 전면 배치한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축제장 전면에는 판매장 보다는 프로그램 공간으로 전환하여 축제정신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주무대와 보조무대의 프로그램과 행사를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주무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편성도 재조정이 필요해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를 단일의 소재로 삼아 대표 및 주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확실히 타 축제와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축제의 의도는 고추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넘어 괴산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두고 있다고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산 출신의 작가인 벽초 홍명희선생의 역사소설의 주인공인 임격정과 고추를 연계시켜 주무대의 조형물 및 뮤지컬(하태 핫태 임격정)을 제작하였음. 아울러 축제공간의 장식 및 분위기 연출 등에도 임격정과 고추를 활용하는 등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축제의 이미지 및 정체성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음 ○ 대표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하여 규모 확대를 시도하였다고는 하나 대표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타 축제와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축제의 역사와 규모를 고려할 때 축제장 내 고추캐릭터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축제의 주제인 물인 임격정의 존재가 부각되지 못하였음. 아울러 임격정과 고추라는 성격이 상이한 두 가지 소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대표 프로그램 중 ‘속풀이 고추난타’는 방문객 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행사 회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확대가 필요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날 밤 기습 폭우로 인하여 하상의 체험부스 존이 완전히 훼손되었고 주무대의 잔디마당이 침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신속히 복구하여 우수한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음 ○ 축제의 주무대는 군청 앞 너른 잔디마당이므로 관내 또는 고속도로 나들목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였음 ○ 축제장은 너른 잔디마당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공간적 환경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을 사이에 두고 주무대와 야시장향토식당 등을 분리 배치함에 따라 축제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었음 ○ 축제장의 배치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함. 주무대의 위치가 보조무대 같은 상황임. 경연대회나 활발히 운영되지 않는 체험부스는 주무대나 보조무대에서 이벤트성으로 운영할 필요 있음. 축제장의 중심에 놓인 보조무대 주변이 너무 정적임. ○ 주무대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편성이 너무 느슨하고 즐길거리, 볼거리 등이 부족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길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가 고추판매 및 고추 브랜드 제고의 수단임을 주민들이 인식함으로써 고추와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과 자부심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였음 ○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케팅할 상근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자치단체의 지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부족한 부분을 상쇄하는 것으로 판단됨. 괴산축제위원회의 재단법인화 및 축제예산 증액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팀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주도 아래 자원봉사자 80여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졌음 ○ 생활체육공원내 고추잡자리마당에 캠핑존을 구획하여 100여팀의 유료(2만원) 캠퍼를 모집한 것을 제외하고 수익창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음 - 고추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 산업형 축제임에 따라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장직거래를 통해 11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고 모두 외지 방문객이 구매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산고추축제의 주된 목적은 농가소득 증대와 괴산고추의 브랜드 가치 제고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대다수 프로그램이 고추를 소재로 하였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꾸려짐 ○ 방문객 호응이 좋은 속풀이 고추난타 등 대표프로그램을 유료화를 통해 재정자립도 확보가능성 발견 ○ 괴산 고추나 임꺽정 등을 활용한 축제 캐릭터 상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판매했으면 좋겠음 ○ 군청의 축제팀이 축제를 점담하고는 있지만, 상설조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함. 장기적으로는 ‘조직위원회’체제로 가는 것이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에서 다소간의 의전행사가 있었으나 과도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호응과 환호로 화답할 정도로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식하여 몰입하였음.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연예인 동원은 전년에 비해 축소하여 예산낭비 방지하였고 행사전일 폭우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진행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하려는 노력이 보였음 ○ 지역 관광자원과 프로그램 연계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축제의 확장성을 위해 연계 강화 고려 등 ○ 장미여관 등 연예인을 동원하여 야간에도 축제장이 관광객으로 붐비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대다수가 지역주민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외래 관광객 유입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외래 관광객 유입을 위한 킬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지역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 역시 향후 발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괴산의 유명 먹거리인 ‘올갱이국’ 등을 축제의 대표음식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이 외에도 괴산 고추축제하면 떠오르는 먹거리의 개발이 필요함

17

음성품바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5월 23일(수) ~ 5월 27일(일) / 5일간
- 장소 : 음성 설성공원 및 시가지, 복개천일원, 음성꽃동네 일원
- 주최 : 음성군축제추진위원회, 음성예총
- 주관 : 음성품바축제 기획실무위원회
- 주요행사
 - 무대공연 : 전국 사할린동포 한마음 대회, 열림식, 관광객과 함께하는 품바 공연, 길놀이 퍼레이드 퍼포먼스 프린지, 품바왕 선발대회 본선 공연, 천인의 옛치기, 천인의 품바 비빔밥 나누기, 품바 연극 공연(늘품), 품바 락 페스티벌, 어울림 타악 퍼포먼스, 연극공연(극단 해보마), 품바래퍼경연대회, 래퍼 프린지, 나는 가수다!, 길놀이 퍼레이드, 길놀이 2판 4판 난장판, 전국 품바 가요제, 품바 고고 장구
 - 거리공연 : 플래시몹
 - 특별공연 : 품바촌, 점핑 하이, 남사당 놀이
 - 유료공연 : 성인전용 품바 상설 유료공연
 - 버스킹 : 공연(강동대학교), 김나린(기타리스트), 밀키웨이(전자현악), 공연(아일랜드기타), 공연(투스즌), 공연(투스톤), 공연(투스즌)
 - 부대행사 : 품바 움막짓기 대회, 아름다운 음성전, 시간여행-추억의 거리 체험 및 전시, 플래그 아트페스티벌, 한방건강체험관, 음성군 꽃잔치, 한방건강체험관, 품바 사진촬영 대회

(2) 총 평

- 잘된 점
 - 본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전국 품바왕 선발대회는 전국의 팔도 품바들이 모여 전국 최고의 품바팀을 선발한다는 취지의 행사임
 - 타 축제에서는 주로 변방무대에서 활약하는 품바를 메인 무대행사에서 선보인다는 점에 서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주로 중장년층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는 반면, 품바 래퍼경연대회, 퍼포먼스 프린지 등 젊은 관객층을 위한 무대도 선보여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층을 흡수하고 있음

- 故 최귀동 할아버지의 숭고한 인류애와 박애정신을 기리며 음성품바의 상징인 사랑과 나눔, 이웃사랑 실천을 표방하는 축제로 대부분의 수익금이 유니세프 기금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진다는 면에서 축제 기획의도가 명확하며 대부분의 축제 프로그램이 품바라는 주제와 연관이 있음
- 또한 음성의 대표적인 명소인 음성 꽃동네와의 협업을 통해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제 기획의도를 지역의 문화자원과 잘 접목시킨 사례라고 할 만함
- 품바가 주인공이 되는 국내 유일의 축제로 타 축제에서 흔하게 보게 되는 품바를 재조명하여 축제의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독특한 축제로 방문객들에게 타 축제와는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선사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품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계기도 될 것으로 사료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관광객과 함께하는 품바공연의 경우, 본 공연인 전국 품바왕 선발대회와 비교하여 관람객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이는 공연 자체의 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축제당일 햇빛이 강하고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차양막이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요인도 큰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에는 관람객 배려 차원에서 소공연장에도 차양막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체험 프로그램 중 품바움막체험의 경우 음성군 읍면에서 움막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체험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반해 읍면 주민들의 모임이나 읍면잔치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주민들 간의 흥겨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방문객들의 체험을 방해할 수도 있어 방문객과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품바축제는 꽃동네 설립 모태가 된 故 최귀동할아버지의 숭고한 삶의 의미를 바탕으로 축제를 기획함 - 사랑과 나눔을 주제로 함과 더불어 풍자와 해학, 흥이 있는 축제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축제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지역주민부터 방문객들까지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흥이 넘치는 축제로 성장한 것은 본 축제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음 ○ 대표 프로그램으로 길놀이 퍼레이드나 품바경연대회 등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품바의 해학과 분장으로 프로그램 속에서 연출뿐만 아니라 실제 본인들이 즐겁게 참여함으로 보는 이들에게도 즐거움이 전해지며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뛰어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전용 품바 상설 유료공연(입장료 1만원)의 경우, 유료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품바왕 선발대회 공연과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았음. 향후 성인전용 공연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 ○ 품바촌의 경우, 각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는 좋았으나, 체험내용이 비슷하고 각 지역별 차별점이 두드러지지 않았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바축제기획실위원회 15명과 경호인력 11명 임무부여 및 위치별 안전관리요원 배치(각종 안전사고 대비 119구급차와 사설이송단 응급구조사와 구급차량 대기) ○ 주 행사장은 설성공원으로 행사장에서 약 1.2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음성문화예술회관에 셔틀버스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축제장까지의 접근성 제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변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하여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성을 높였음 ○ 자원봉사인력이 행사장 곳곳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행사장 안내를 하는 등 많은 활약을 하고 있었으며, 부스인력은 각 부스 당 적정인원이 배치됨 ○ 좁은 하천 길을 따라 음식부스가 있어 많은 방문객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는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안전관리 강화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행사의 개입을 배제하고 지역의 예술문화 단체회원들 및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축제로 품바옴막짓기, 대회와 길놀이 퍼레이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옴막: 9개읍면/ 430명, 길놀이퍼레이드 21개팀/1,788명) ○ 음성품바축제 기획실위원회는 비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축제 약 3개월전인 2월부터 운영이 되어 축제 기획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실무위원은 예총회원,꽃동네 관계자, 극동대 교수진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19년 동안 본 축제를 담당해오고 있는 조직으로 비록 상시조직은 아니지만 안정성 있는 조직으로 파악이 되며, 축제 총감독이 기획실무위원들 대상으로 축제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 함 ○ 음식부스의 경우, 부스가 통일되지 않아 산만함을 보였으며, 축제를 대표할 만한 음식은 없고 대부분 타 축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채워짐. 향후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음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으로 품바캐릭터 상품 및 각종 품바관련 상품판매, 품바카페, 품바비빔밥 식당, 품바체험존, 한방체험관 등 운영으로 재정자립 노력을 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익금은 유니세프나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부됨 ○ 음성품바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노력해야 할 점은 재정적인 자립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는 예총이 주도하고 있지만 재정은 아직도 대부분 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협찬이나 프로그램의 수익사업의 일부분을 차년도 축제를 위하여 재투자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바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과도한 예산이 수반하는 특정 연예인을 동원한 프로그램은 없는 게 본 축제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회식에서도 의전행사를 간소화하여 축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음 ○ 음성품바축제의 특징적인 것은 진행 및 안내요원, 자원봉사자 등이 품바로 분장하거나 복장을 갖추고 축제를 진행·안내하고 축제장을 정리하는 등의 모습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있음 ○ 과거에는 품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으나 음성품바축제로 인해 품바에 대한 공정관념이 탈피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으며, 잘 기획한다면 우리나라 전통 민속으로도 형상화 할 수 있을 가능성 내재 ○ 본 축제가 좀 더 전국적인 규모 혹은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품바에 대한 고정관념타파를 위한 품바의 정체성 브랜드 확립과 글로벌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18

논산강경젓갈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10월 10일(수) ~ 10월 14일(일) / 5일간

■ 장 소 : 강경금강둔치, 옥녀봉 일원 등

■ 주 최 : 논산시

■ 주 관 :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문화행사(23) : 만선배맞이, 강경포구 전국마당극 경연대회, 강경포구 플래시몹, 강경포구 버스킹, 이용식의 강경포구 차차차, 개막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강경포구 전국여고동창가요제, 강경포구 전국가요제, 강경포구 인형극장, 심형래의 유랑극장, 강경포구 서커스, 강경포구 팔씨름왕, 청소년 포구어울마당, 놀피예술인 한마당, 구구팔팔어울마당, 충청도 웃다리풍장, 풍류놀이, 풍물 어울마당, 포구 외줄타기, 갈대숲 라이브, 세계민속공연, 강나루 불꽃놀이, 폐막축하공연
- 체험행사(12) : 젓갈김치담그기, 가마솥 햅쌀밥과 젓갈시식, 강경포구 탐방(조랑말·행복열차), 강경포구 민속놀이, 강경골목 젓갈딱지왕, 양념젓갈 만들기, 젓갈 페이스 페인팅 및 네일아트, 추억의 교복포토존, 추억의 연탄구이, 강경포구 공예체험, 강경포구 발효체험, 강경포구 다식체험
- 특별행사(12) : 충남 농악경연대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 강경포구 전국어린이동요제, 강경포구 사생대회, 놀피 백일장, 아빠와 함께 요리경연대회, 청춘마이크플러스 공연, 환경 풍물극 공연, 강경포구 국악한마당, 젓갈김장열차, 부여국립국악단 공연, 축제연계공연
- 상설행사(18) : 강경포구 레스토랑, 젓갈 특선판매장, 조선3대시장 홍보관, 강경포구 포토이벤트, 강경 포구주막, 축제연계 전시관 (순창, 한산 등), 국화 포토존, 젓갈캐릭터 포토존, SNS포토 이벤트, 예스민 농특산물 홍보·판매전, 기업 우수제품 홍보판매전, 축산물 홍보 판매전, 젓갈마당쇠 퍼포먼스, 갈대숲 오솔길 걷기, 강경 옛모습 및 축제사진 전시, 포구 푸드트럭, 놀피대장간, 축제 기념품 판매
- 부대행사(2) :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각설이 공연

(2) 총 평

■ 잘된 점

- 지역브랜드와 축제컨셉의 일치성
 - 강경 젓갈축제는 역사성과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닌 지역자산으로서 역사성과 전통성을 보유하고 있는 젓갈을 소재로 한 축제로서 축제의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브랜드와 축제 컨셉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있음
- 축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제도 도입
 - 축제사무국에서 축제/공연을 위한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축제 전체를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대학교수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축제 기획 및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있음
- 축제공간을 젓갈 거리로 이전하는 등 지역상권과의 연계 강화
 - 2016년까지 인근 금강변 둔치에서 개최되던 축제가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2017년 이후 젓갈시장으로 이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참여유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체계적인 자원봉사 시스템
 - 논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자원봉사 수급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자원봉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자원봉사 시스템 운영이 돋보임
- 지역대학과 연계한 축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건양대, 공주대와 협력하여 매년 축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축제개선을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표 프로그램 개선 필요
 - 현재 대표 프로그램인 젓갈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현재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의 수도 제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단순 나열식 체험 위주 프로그램 개선 필요
 - 차별성 있는 축제 컨셉에 비해 축제스토리가 미흡하고 단순 나열식 체험 위주의 행사가 많아 관람객들의 몰입도와 흥미유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어린이 및 젊은 층 참여확대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젓갈이라는 축제소재로서는 다소 무거운 주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 및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참신한 축제기획이 필요해 보임

- 축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도심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현재 축제장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극대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축제공간 이외에 도심권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축제 파급효과 극대화 도모 필요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경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축제의 기획의도가 매우 참신함 ○ 왕성했던 강경포구 옛 모습을 회상하며 만선으로 돌아오던 고깃배를 축하해주는 ‘만선배맞이’를 재현하여 강경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강경포구 만선을 제현한 점이 우수함 ○ 강경은 과거 평양 및 대구와 함께 조선 3대 시장으로 활약하기도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 옛날의 영화를 기리는 차원에서 강경의 역사는 물론 만선의 기쁨, 젓갈장수, 소금장수 등을 소재로 만선배맞이와 창작마당극 경연대회를 대표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음 ○ 축제의 주제 및 소재인 강경, 젓갈, 젓갈장수, 소금장수 등을 나타내지 못한 프로그램이 다수였음(강경포구 버스킹, 강경골목 프래쉬몹 등) ○ 축제장에서 강경젓갈장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축제장에서는 다소 뒷골목에 배치하였음. 공간을 보다 전면에 배치하고, 손님들이 재밌게 시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터를 구성하는 게 좋겠음 ○ 강경의 근대문화유산과 함께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좋았으나 인증사진으로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끝난게 아쉬움. 좀 더 적극적으로 근대문화유산과 연결짓고, 주변 스팟(옥녀봉, 죽림서원, 강경젓갈박물관)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필요해 보임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과 주요 접근로에 축제 종합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축제 홍보물 배부,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요원을 배치하였으며, 급수시설 운영, 강마을 편의시설(미아보호소, 휠체어, 유모차 대여 등)을 운영함 ○ 차량안내 및 주차장 관리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축제장까지 이동하여 접근하는 경로가 체계적으로 운영됨 ○ 방문객들이 처음 입장하는 곳에서 강경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음 공간에서는 젓갈소재의 콘텐츠를 즐기고 난 후 젓갈 등을 시식한 다음 쇼핑하도록 공간을 배치해야 함 ○ 음향장비를 쓰는 메인무대, 각설이타령, 에콰도르 민속공연의 소리가 중첩되어 혼란스러웠음. 특히 각설이 타령의 음향소리가 매우 커 옥녀봉까지 들릴 정도였음. 부스 배치는 적절했으나 메인과 서브의 음향장비 조율이 필요해 보임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강경젓갈축제의 경영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록 당 축제가 여타 축제처럼 입장료를 받으며 재정자립을 추구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신 축제를 통해 강경젓갈의 이미지가 크게 홍보된 까닭에 축제가 끝난 이후 김장철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젓갈을 구매하도록 자극하는 축매로 작용하고 있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젓갈상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참여와 활동이 인상적이었음. 보다 발전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선진축제를 찾아 벤치마킹을 겸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음 ○ 축제의 성과를 더욱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록 축제전문가를 시청소속으로 채용하여 운영의 안정화를 이루고는 있으나(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창의성이 부족한 까닭에 축제공간 및 콘텐츠의 혁신은 한계에 다다른 느낌을 주었음 - 즉, 지역주민 또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혁신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젓갈축제가 처음 시작되었을 무렵 20여곳에 불과한 젓갈상회가 현재는 200곳이 넘을 정도로 발전하였음. 따라서 강경읍내의 지역경제 역시 크게 활성화되었는바, 이 모든 것이 당 축제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축제장 내 젓갈 특선판매장, 요리경연대회, 양념젓갈 만들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재정자립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젓갈축제이나 강경이 가지고 있는 근대문화유산과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공간, 시간, 역사가 탄탄한 축제가 됐으면 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둔치에 마련된 축제장 이외에 풍광이 멋진 옥순봉,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강변 갈숲, 레포츠와 유람이 가능한 금강 등을 연계행사장으로 활용하였음 ○ 특히 둔치축제장 주변의 비탈면 등에 코스모스 및 구절초 꽃이 만발하게 가꿈으로써 방문객들이 강경의 가을을 만끽하도록 배려하였음 ○ 개막식 등 공식행사에서 강경포구 전국창작마당극 경연대회에 입상자의 작품을 보여주는 등, 형식적인 틀을 벗어난 개막식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겠음 ○ 핵심 콘텐츠가 약해 보임. 관람과 먹거리 살거리는 충분해 보였으나 문화적으로 축제에 온 느낌이 몸으로 와 닿아야 하는데 핵심 킬러콘텐츠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구성도 잘 되어 있었지만, 젓갈을 문화적으로 향유하고 참여와 관람이 동시에 되는 뜨거운 킬러콘텐츠가 하나 제대로 있었으면 함 ○ 둔치 축제장이 아닌 읍내 시가지에 형성된 전통시장 및 젓갈상회를 방문해본 결과 예상밖으로 손님이 없이 한산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에도 많은 젓갈상회가 영업중인 사실을 감안할 때 축제장으로 몰리는 외지인을 시가지 전통시장이나 젓갈상회로의 방문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19

부여서동연꽃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7월 6일(금) ~ 7월 15일(일) / 10일간
- 장 소 : 부여서동공원 일원(궁남지)
- 주 최 : 부여군
- 주 관 : 부여서동연꽃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개·폐막식 : 개막공연, 폐막공연
 - 공연 프로그램 : 연꽃이 國花인 7개국의 문화예술 공연(전통혼례&공연), 국내 자매결연 도시 예술단 공연, 후원 기업&단체 문화예술단 공연, 지역 예술단체 공연 &, 청소년 동아리 초청공연
 - 경연프로그램 : 서동요 창작 동요 부르기 대회, 무왕 RPG, 연꽃 사생대회 등
 - 신규프로그램 : 세계 연꽃과 문화의 날 운영, 겨울왕국, 千花一花 포퓰러 연꽃 판타지, 사랑의 연약식(연애존), 궁남지 연꽃 비빔밥·화채만들기, 연꽃나라 방송국 운영(라디오 생중계 연계), Lovely 수상 Bike(수상자전거) 체험, 달구지 타고 궁남지 한바퀴, 궁남지 사계와 세계 연 파노라마, 무왕 RPG, 글로벌 퍼포머
 - 이벤트프로그램 : 서동선화 나이트 퍼레이드, 서동연꽃 연희단 거리패, 러브 푸드 빌리지, 서동연꽃축제 웹 드라마 제작 공모
 - 상설프로그램 : 체험장(아이디어 공모 30종목), 연꽃나라 방송국 운영, 패밀리 존 체험, 소원기원체험, 연·마 음식 레시피 전시, 러브 푸드 빌리지

(2) 총 평

- 잘된 점
 -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 제공
 - 타 축제 대비 야간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사랑과 꽃을 지역의 문화상품으로 특화시킨 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이 뛰어난 축제로 평가됨

- 성공적인 축제장 관리와 운영
 - 가족체험형 쉼터 조성, 연지 주변 편의시설 설치 등 관광객 편의공간 확충 노력이 돋보임
 - 또한 안내요원, 자원봉사자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행사 진행을 돕고 방문자 문의에도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음
 - 외부 주차장 마련,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등 방문객의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노력이 좋았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킬러콘텐츠와 축제요소의 부족
 - 킬러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천화일화’ 연꽃판타지를 마련하는 등 예년에 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궁남지를 기반으로 불꽃놀이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타지역과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
 -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는 조명을 통한 야간경관요소로 체험프로그램 등 축제요소는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축제성 강화를 위한 기획이 필요함
- 프로그램 디테일의 부족
 - 축제는 많은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의 즐거움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프로그램의 운영의 디테일이 부족해 단순 볼거리 제공에 거치고 있어 프로그램 조정의 통한 질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서동요 콘텐츠 보강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축제는 서동요 설화와 연꽃이 핵심인데 대부분은 콘텐츠와 볼거리 프로그램은 궁남지를 중심으로 한 연꽃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서동요 설화와 관련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많이 부족해 축제주제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을 약화시키고 있어 서동요 콘텐츠를 현재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축제장 환경정비 필요성
 - 축제 당일 행사장 주변에 저급한 임시천막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고 주변 소음문제가 심각해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 또한 축제장내 쓰레기 통 부재 등 관리가 미흡하여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짐
- 축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연계교통망이 부족하여 충청도권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교통접근성이 매우 열악하고 외부 주차장과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셔틀버스 시간과 프로그램 시간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등 관광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서동연꽃축제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인 서동요 설화와 용의 신화가 살아 숨 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정원인 궁남지, 아름다운 연꽃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한 축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밤에는 조명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야경도 볼 수 있는 축제로 방문객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선사하는 축제임 ○ 연꽃을 국화로 하는 7개국과의 제휴를 통하여 해외 연꽃나라를 조성하였고 국가별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함으로써 해외로 확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은 앞으로 축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 판단됨 ○ 서동선화 사랑이야기의 주제공연, 천일야화 연꽃 판타지, 해외연꽃나라 랜드마크 조성 등은 관광객의 호기심과 호응도를 충분히 높이는 콘텐츠임 ○ 킬러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난 지적에 따라 ‘천화일화’ 연꽃 판타지 마련 등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궁남지를 기반으로 하는 불꽃놀이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타지역과 차별성을 충분히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콘텐츠 구성, 동선, 기획들이 모두 궁남지라는 하드웨어에 맞추어 이루어져 취약계층 등 관람객들의 수준별 코스개발 등은 다소 미흡하여, 행사장이 날씨를 고려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큼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 경찰, 자율방범대, 응급구조요원,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신속한 안전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에 항상 대기 ○ 방문객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주차장을 마련하고 셔틀버스로 이동하도록 한 것과 주말 경우는 주변 학교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은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옴 ○ 관광객 편의 쉼터 공간 등 확충 노력이 돋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체험형 쉼터 조성(족욕, 물총, 연잎속 물고기잡기, 형극 등)과 함께 연지 주변 편의시설 설치(이글루, 그늘막쉼터, 터널 쉼터 등) 등 ○ 부여서동연꽃축제는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주차장과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셔틀버스 시간과 프로그램 시간이 미스 매치되는 경우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어, 개막식과 공연은 22시 이후에 마치는데 셔틀버스는 22시까지 운영되므로 방문객들이 이전에 셔틀버스를 타기 위하여 공연도중에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었다. 축제기간동안 22시 이후까지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셔틀버스의 운영도 조정이 필요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립도 확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운영자 입장료, 홍보판매 부스로 등 수입과 지역농산물 공동 브랜드 굿즈 판매장 운영 - 스폰서 기업 참여 : O2린 축제홍보라벨 부착, 오페라단 무료 공연, 연꽃화채만들기 지원 등 ○ 연꽃이 國花인 7개국과의 협력, 국내 자매결연도시 예술단 공연 등의 협력, 후원 기업 & 단체 문화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양호하게 잘 형성되어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꽃잎 활용 먹거리 장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잎차, 연잎가공식품, 연잎밥, 연잎빵 등 ○ 부여서동연꽃축제는 향후 발전을 위하여 재정자립과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체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공남지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축제기간 조명시설과 프로그램들에 들어가는 재정이 축제를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 축제장 주변에는 부여군의 맛집들이 많기는 하지만 축제장안에서는 부여군의 특색있는 음식을 맛보기는 어려움. 주로 푸드트럭이 공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좀 더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들이 추가되어야 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연꽃 푸른음악회 등 청소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하려고 한 주제가 명확함 ○ 연꽃과 서동이라는 주제는 명확하며, 인지도를 어느 정도 획득하고 있는 바, 이를 계승하여 수요지향적인 콘텐츠를 더 개발하고,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여서동연꽃축제는 서동요 설화와 연꽃이 핵심으로 연꽃은 공남지 전역에 조성되어 있지만 서동요에 대한 내용은 축제장내에서 부족한함. ○ 연계관광 등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의 숙박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인 등 과도한 예산 지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최대한 협찬 및 연계하여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 점이 인정됨 ○ 야간 프로그램으로 귀신체험 분장 아르바이트들이 축제장에 출몰하는 것은 축제 주제와 다소 맞지 않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 후 시행이 바람직 ○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더불어 부여군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면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간의 시티투어나 관광지 소개 등은 축제기간 이외에도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기간 부여를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부여군의 우수한 관광지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0

서천한산모시문화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6월 22일(금) ~ 6월 25일(월) / 4일간
- 장소 :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관 일원
- 주최 : 서천군
- 주관 : 한산모시문화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 : 개막식 ‘한산모시, 바람을 입다’, 폐막식 ‘한산모시문화제 어워즈 & 축제 한마당’
 - 핵심 프로그램 : 미니베틀 한산모시짜기
 - 체험 프로그램 : 전통모시학교
 - 공연 프로그램 : 한산모시 모시퍼레이드, 한산모시 베틀 쇼,
 - 체험 프로그램 : 모시맘노리터, 문화상품 체험 프로그램
 - 이색 프로그램 : 한산모시 잠자리 사수대회
 - 부대 프로그램 : 한산모시마을의 일상, 이색 포토존

(2) 총평

- 잘된 점
 - 서천만의 특색있는 관광소재인 한산모시를 공통된 주제로 활용하여 모시학교, 미니베틀 한산모시짜기, 한산모시전시관, 향토음식, 체험마을 등 다양한 행사들과 체험거리들을 다채롭게 구성
 - 한산모시를 만드는 과정을 1~4교시로 구분하여 체험할 수 있게 한 모시학교는 한산모시가 왜 우수한지, 그리고 제작과정에서의 정성과 노력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그 가치를 지키고자하는 지역민들의 노력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음
 - 한산모시가 왜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됐는지 그 가치를 더듬을 수 있는 축제이며, 올해 참가연령대 확대를 위해 가족들의 체험장으로 마련한 모시맘노리터도 의미 있는 공간이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한국의 전통문화, 역사, 지역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이나 현장에 외국인 방문객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
- 축제를 흥미롭게 구성하고 방문객 유인효과를 위해서 연예인의 섭외도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축제는 연예인 동원이 다소 과한 것으로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년을 이어온 한산모시, 바람을 입다”를 컨셉으로 축제 프로그램 전반을 구성함으로써 한산모시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축제의 기획 의도와 주제를 명확히 들어냄 ○ 1,500년 이어온 한산모시 답게 모시홍보관, 교육관, 전수관 등등 다양한 한산모시와 관련된 인련의 시설들을 준비하고 그 곳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행사 집중도가 높고 의미전달도 쉬움 ○ 한산모시를 직접 할머니들과 짜보는 ‘미니베틀’은 축제의 의미를 고취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차별성이 인상적이었음. 사전 신청율도 높고, 외국인 참가자들도 반응이 좋음 ○ 한산모시 퍼레이드는 올해 일반 방문객들이 참가를 유도했지만, 더위속 행렬중 흥을 돋울 수 있는 부분이 다소 부족해 옴. 퍼레이드 때의 프로그램 보강이 좀 더 필요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요원 대신 경찰이 배치되어 개막식 및 이벤트 등 주요행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음 ○ 주차장 별도 마련, 제1주차장-행사장-제2주차장간 셔틀 운영을 통해 방문객 접근성 및 편의도모 ○ 한산모시관 일원의 조성이 모두 완료되면 접근성 개선뿐만 아니라 각 편의시설 배치나 관람객의 동선 등이 원만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됨 ○ 행사장 진입 도로 내 일렬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교통이 다소 혼잡해 보였음 - 특히, 공연은 10:20분에 종료되고 대중교통은 10:00에 종료되어 학생들 귀가가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늦은 시간 교통대안 필요 ○ 주무대와 보조무대가 두 개로 나뉘어 있었지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보조무대 등은 활용면이 다소 부족함. 작지만 의미있는 무대로 운영하는게 필요함 ○ 공간을 두개로 나누었지만 문화제의 의미를 살리는 체험공간들의 위치가 후면에 배치돼 다소 아쉬움. 오히려 먹거리 장터등을 후면으로 물리고 다채로운 문화, 체험 공간들을 주이동동선에 배치하는게 필요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과 의류라는 두 가지를 통해 축제의 재정자립 보다는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함 ○ 모시관련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해 한산모시문화제의 정통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준비와 진행을 외부업체가 아닌 지역전문가들로 꾸린 점이 의미있음. 한산모시를 응용한 다양한 먹거리들을 내놓았으며, 모시송편 외에도 지역특색을 살린 먹거리들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판매해 인상적임 ○ 서천군 담당자도 축제업무의 번거로움 등으로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등 추진주체의 전문화 및 안정화가 필요함 ○ 국내천연섬유 축제로는 유일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미흡한 점이 아쉬움. 진행상에서도 한산모시가 고가라는 것을 알리기보다 손수건, 팔찌 등으로 상품화해 늘 상용화 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함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교육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시라는 소재를 활용해 차별화/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생활용품 등으로 확대 : 현재는 음식(떡, 술)과 의류(모시) 정도임) ○ 방문자센터에서 모시옷을 입고 촬영을 하면 촬영비의 일부를 축제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활용한 점이 훌륭함. 이러한 축제와 지역매출을 연계하려는 꾸준한 시도가 필요함. 한산모시라는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에 젊은층, 가족들의 참가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돋보임 ○ 전통과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조직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주도의 행사인데 지역축제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점차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시맘기획단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축제의 주최일원으로 활약한 것은 축제의 색깔을 친근하게 바꾸는데 일조함. 다소 튀기는 했지만 청년들이 주도하는 ‘용궁’이라는 무대 역시 축제에 젊은 층을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 ○ 축제를 위해 일반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모한 점이 돋보임. 주 메인 타깃을 30~40대 가족들로 설정하고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을 다수 편성한 것도 축제의 다변화 함 ○ 개막식이 전체행사의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상을 받았으며, 주제행사를 할 때마다 귀빈의 인삿말을 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참여하다보니 모시문화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연과 이벤트가 중심이 된 행사로 주제와 행사가 뒤바뀐 듯 한 인상을 받아 아쉬움 ○ 축제의 포스터나 취지 등은 의미있고 수준급 인데 반해 타지역의 일반 홍보가 부족했던게 아쉬움. 내년이 30주년인 만큼 한산모시문화제가 유네스코 지정 유산이며 다채로운 체험형 문화제임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21

서산해미읍성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10월 12일(금) ~ 10월 14일(일) / 3일간
- 장소 : 서산시 해미면 해미읍성 일원
- 주최 : 서산시
- 주관 : 서산시해미읍성축제추진위원회(서산문화원)
- 주요행사
 - 공식 프로그램 : 고유제, 개막식, 폐막식
 - 기획 프로그램 : 태종대왕 행력 및 강무 재현, 수문장교대식, 성벽 순라행렬, 서산 국악제, 야간 문화공연(기획공연 및 불꽃놀이)
 - 주제 체험프로그램 : 호패 및 엽전 체험(호패체험, 엽전체험), 병영마당(병영 체력장, 병영 훈련 체험, 칼·활 만들기 체험, 병영무기 타각 체험, 병영깃발 만들기 체험, 해미 읍성 석전체험 ‘해자를 건너 성루를 탈환하라!’, 숙영프로그램 ‘청허정을 지켜라’), 병영 옥사마당(병영 옥사체험, 병영 곤장·형틀 체험, 관아마당극·옥사상황극), 병영 음식마당(대형 가마솥 주먹밥 체험, 병영 주먹밥 체험, 병영 주전부리 자급자족체험)
 - 공연 프로그램 : 마당극 공연(천주교 박해 마당극 ‘순교자의 길’, 역사마당극 ‘정순왕후의 일상, 여류시인 오정취당’, 역사마당극 ‘달이 섬기는 사람 경허선사’, 어린이 인형극 ‘이순신과 돌격하라 거북선’)
 - 전통문화 프로그램 : 지역 전통문화 프로그램(서산박첨지놀이, 심화영 승무, 서산요령 상여소리, 전통문화공연, 전통 국악한마당)
 - 경연 프로그램 : 지역 전통문화 프로그램(서산시 읍·면·동 농악풍물 경연대회, 서산시 읍·면·동 장기 대회, 서산시 읍·면·동 바둑 대회)
 - 상설 체험 프로그램 : 상설 장터 체험
 - 기타 연계 프로그램 : 축제 운영관련 프로그램(달집 소원지, 서산시 홍보부스 운영, 관광안내 및 해설·외국어 번역, 서산시 시티투어, 해미면민 지역활성화 무대 공연, 해미 읍성 성 밖 차 없는 거리 공익단체 홍보부스 운영)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공간으로의 접근 용이성
 - 읍성의 특성상 해미읍 중앙에 축제장이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축제장 방문이 매우 용이했으며 특히 주차장이 읍성을 둘러 곳곳에 조성돼 있어 가까운 읍성 출입문을 통해 축제장으로 진입하기도 용이했음
- 축제장의 분위기와 활용 용이성
 - 600년 전통을 가진 해미읍성은 오늘날 하나의 도시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읍성을 기준으로 밖의 현대와 안의 전통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등 축제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 축제의 가장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음
 - 단, 이와 같은 공간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구역화와 동선구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배치는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수한 축제장의 시설물의 물적 지원시스템
 - 축제 방문객의 쾌적하고 편리한 축제관람을 한 무대설치 및 그늘막, 의자 등의 충분한 준비가 잘 준비되어 있었음
- 문화원 중심의 축제주관으로 인한 지속성
 - 축제는 서산시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기획부터 추진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와 깊은 연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축제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 콘텐츠 기획 및 대표프로그램 발굴 필요
 - 2018년 축제 주제를 ‘병영성의 하루’로 설정하고 축제를 기획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기획의도를 충분한 전달하는데 한계를 드러내 주제와 프로그램간의 명확한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대표프로그램이 일반적인 행렬 포맷으로 진행되어 대표프로그램으로서의 차별성이 약하고 프로그램의 주제를 소개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해미읍성축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프로그램의 연속 및 운영의 아쉬움
 - 주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나 1일 1회 공연에 그치고 있어 방문객들이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쉬운 부분임
 - 또한 프로그램 진행요원도 주제가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진지함과 진정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지역의 특색문화소재를 충분히 활용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행사를 통해 읍성에 대한 해설을 하고, 횃불로 성곽순회를 하고, 밤에 고구마를 캐고,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식사를 준비, 수료증과 엽전을 제공하는 등 사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축제기획이 분명하고 타 축제와 행사 등과의 차별이 뚜렷함 ○ 태종대왕 행렬과 강무 등은 해미읍성에 대한 차별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직접 해먹는 주전부리와 주먹밥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음 ○ 직접 만들어 먹는 주전부리, 진짜 다듬이질 소리, 강무시 실제 무술시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마당극 등 콘텐츠 구성이 전반적으로 조선시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됨 ○ 축제에서 진행된 다양한 공연작품들이 관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면서 매우 호응도가 높았고, 재미있는 작품이지만, 확실하게 관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놀이성, 재미성, 그리고 예술성이 극대화된 대표적 공연작품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깨끗한 장소, 한복과 어울리는 성내 등 축제가 전반적으로 조선 분위기를 내는 노력이 엿보이나 보다 치밀한 구성과 계획 등이 필요해 보임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축제장의 공간마다 안전펜스를 설치하였고,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함 ○ 해미읍성이라는 지역특유의 공간과 주제가 잘 어울어지는 등 장소선정이 적절하고, 특히 인근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터미널에서 5분 거리의 행사장은 외지인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등 입지여건이 좋아 잠재적 가치가 큼 ○ 각 프로그램이 시작시간을 대부분 잘 지키고 있으며, 각 공연이나 프로그램마다 운영시간을 장소 앞 게시판에서 안내하고 있어 행사장에서 둘러보기 좋음 ○ 즐겁고 해학이 넘치는 공연을 관객들에게 좀 더 원활하게 현장감 있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음향 설비의 지속적 점검이 요망됨 ○ 여러 공간에서 공연이 진행되다 보니, 음향들이 서로 마찰을 이루면서 관객들에게 배우들의 목소리가 현장감 있게 전달되지 못하고 작게 들리는 공간이 있었음 ○ 태종대왕 강무 이외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진행이 젊은 대학생들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한 해학적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끝나고 있음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읍면동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해 화합을 강조하는 합미식 퍼포먼스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화합의 의미를 강조하는 등 지속적인 축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엿보임 ○ 서산 해미읍성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여서 지역의 강당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원하여 취타대를 구성하여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 ○ 서산 해미읍성에 대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돋보이는 축제였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서 많은 방문객들이 새롭게 확보되거나 업그레이드 된(석전체험: 해자를 도입 및 새로운 스토리 가미) 콘텐츠를 즐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를 담당하는 조직이 계속 바뀌고 있어 안정적인 축제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발전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조직체계가 필수적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해미읍성에 진행되는 축제 콘텐츠들은 모두 우리 후손들이 보존해야 할 조상들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축제 콘텐츠임 ○ 본 축제를 통해서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유산을 보존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축제이고,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축제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음 ○ 축제를 통한 재정자립 노력 등 축제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장터에서 엽전 사용과 특히 할머니장터가 인상적적이었고, 고유성과 향토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보임 ○ 축제의 주제와 잘 맞는 병영체험이나 새롭게 신설된 숙영체험은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체험을 유인함으로써 주제의 명확성을 더해주고 있음 ○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보존해야 할 훌륭한 전통 문화 유산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재현하고 있는 서산해미읍성 축제는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드높이는 매우 소중한 축제이지만, 현대적 감각에 맞게 세계의 많은 민속놀이 팀들을 초청하여 국제적인 축제로 규모를 확대하여 방문객들의 볼거리와 재미를 좀 더 풍성하게 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축제로 거듭날 것임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해미읍성 축제는 지역과 연관된 전통 설화나 사건들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콘텐츠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돋보이는 축제라고 할 수 있음 ○ 해미읍성축제가 읍성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축제로 몰아가기 보다는 해미지역 전체의 축제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매일 시티투어를 운행하는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지만 인원수가 10명도 채 안 되 출발하는 등 효과가 낮음. 타시도의 축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봐 축제와의 지역관광연계는 어려운 항목 중의 하나로 생각됨

22

무주반딧불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9월 1일(토) ~ 9월 9일(일) / 9일간
- 장 소 : 무주군일원(등나무운동장, 남대천일원, 예채문화관, 지남공원)
- 주 최 : 무주군
- 주 관 : (사)무주반딧불축제전위원회
- 주요행사
 - 환경생태 프로그램 : 반딧불이 신비탐사, 반디나라관, 남대천생명+(다슬기, 치어방류), 반디별 소풍,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1박 2일 생태탐험, 전국환경예술대전(동요제, 글짓기, 그림그리기), 자연의 나라 생태놀이터, 남대천 생태수족관, 반딧불이 국제환경심포지엄
 - 체험참여 프로그램 : 어린이나라(직업체험, 공예체험, 재활용놀이터), 어린이 예술발전소, 체험버스(튼튼먹거리탐험대, 푸름이환경교실), 소망풍등 날리기, 방문객 낙서대, 등나무 쉼터(라디오사랑방, 포토존, 산골도서관), 트릭아트, 정크(폐품)아트 설치, 마을로 가는 축제, 남대천 뗏목 타기, 반디랜드 체험, 머루와인동굴, 최북미술관 특별체험, 공예공방 체험활동, 무주향교 체험
 - 공연전시 프로그램 : 개막식, 폐막식, 반디길놀이, 반디 불꽃놀이, 송소희 오케스트라 공연, 버스킹 공연, 글로벌 태권도 시범 페스티벌, 중국 등봉시 소림무술단, 무주재능자랑, 산골군민노래자랑, 섯다리 전통문화 재현, 낙화놀이 등 전통문화 재현,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 전시회, 무주사진전시회·무주작가회 시화전, 태권도 홍보관, 귀농귀촌 홍보관, 반디 그림전(2개소)
 - 기타 프로그램 : 음악이 흐르는 축제장(라디오 사랑방), 관광객 참여 이벤트 및 인센티브 제공(룰렛, 입장할인), (국제)자매결연단체 초청, 자매결연 및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반딧불이 요정 캐릭터 운영

(2) 총 평

■ 잘된 점

- 관광객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퍼포먼스로 디테일한 요소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들이 보

완될 필요가 있음. 또한 수많은 반딧불이 가운데에 무주를 상징하는 반딧불을 발굴하고 이미지 통합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으며, 태권도와 무주축제를 연계시켜 세계인들을 수월히 무주에 방문하도록 하는 국제화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정환경 지표곤충인 반딧불이를 보호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축제 기획의도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으로 표현
 - 반딧불이 신비탐사, 남대천 생명플러스(다슬기, 치어방류), 반디학습관 등
- 컨셉, 프로그램, 공간, 운영 등 축제 전반적으로 반디, 청정자연에 관한 주제연관성이 높고,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대표프로그램의 명확성이 돋보임
- 대표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환경축제로서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관광객 만족도를 끌어올림
 - 환경과 생태계 보호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
 - 관광객들이 반딧불이 서식지로 이동하여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는 감동과 추억의 시간 제공
 - 버스50여대로 반딧불이 서식지로 이동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기대감과 반딧불이를 만나고 느끼는 감동의 시나리오는 반딧불축제만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11개국 태권도 공연 행사의 경우에 프로그램별 안내 관광객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품새 및 국가별 공연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관광객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요함. 특히 태권도의 가치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스토리텔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 머루와인동굴 등 일부 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본 축제를 위해 마련되었다기보다는 해당 관광시설에서 진행되는 상설 운영사항이었음. 축제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관광연계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함
- 지역별 다양한 단체(청년회, 부녀회, 개선회 등)가 운영한 무주향토음식관 운영과 거리장터들에 대한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무주군의 가치성을 높힐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색 환경자원인 반딧불이를 메인 테마로 한 자연 친화적 축제로, 다른 어느 축제에 비해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축제 기획의 명확성이 뛰어남 ○ 반딧불이를 주제로 한 국제환경심포지엄 위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국 확대(2개국→4개국 / 한국, 일본, 중국, 대만) - 반딧불이 연구관련 국제적인 교류 활성화 기여 ○ 반딧불이와 별의 비슷한 이미지를 잘 묶은 ‘반디별 소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의 아름다운 밤하늘에서 별자리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인기 프로그램 ○ 반디나라관의 경우 주제관으로서 반디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다만, 안전에서 반디를 볼 수 있는 공간은 향후 더 확대하고 해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VR 공간의 경우 반짝이는 반디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대표축제로서 이제는 빛, 소리, 공간, 디자인 등을 절제하며 균형을 이루고, 매력을 높일 수 있는 한 단계 수준 높은 기획과 연출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됨 ○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이 모두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이에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실내 프로그램 준비, 관광객에게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사전공지 등)의 확보가 필요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비탐사 안전 및 유도요원 전년대비 증원, 주차장 안내요원 증원, 사전교육으로 고객 대응성 제고, 충분한 주차장 확보 및 축제장 접근성 개선 ○ 축제장 공간구성을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조성(구역별 출입게이트를 설치하여 공간 구분을 효율적으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디나라, 등나무쉼터, 주공연장, 반디정원, 자연의 나라, 축제음식관, 무주홍보마당, 어린이 나라, 남대천수상체험터 ○ 축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디친구들(70명), 자원봉사자(200명), 경비안전용역인력(20명), 부스참여인력(100명) 등 행사운영 참여 ○ 이번축제에서는 상당히 공간적인 효율성은 좋으나 전국지역축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시설 음식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그리고 품바타령 등의 공연을 비롯하여 축제장 곳곳에 카드사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축제 개최 시 개선되어야 할 것을 판단됨 ○ 종합안내소의 인지도가 약함. 방문객이 주동선상에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외관과 규모를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음 ○ (풍등날리기) 예년에 비해 올 해 풍등의 수를 300개에서 400개(33%이상 증)로 확대하였으나, 진행 장소가 참가 인원을 수용하기에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모의 축소 또는 장소의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을 친환경 녹색 공간으로 구성하여 축제장 어느 곳에서든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축제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마을 퍼레이드가 인상 깊었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축제를 만들고, 즐기는 모습에 무주군 전체가 축제의 열기로 가득찬 것으로 느껴짐 ○ 축제 기념품 중에 반디 머리띠가 인기가 많으며 이를 착용한 방문객이 다수 있음. 향후 LED를 이용한 야간 용도의 기념품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본 축제에서 반딧불이의 신비체험과 함께 가장 차별화되는 낙화놀이도 더욱 확대되고 질적, 양적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처음 시도한 불꽃놀이가 킬러콘텐츠인 낙화놀이의 가치를 배가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다리의 한쪽방향만 설치되어 대표축제인 만큼 보다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강화된 야간행사의 선택과 집중이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내년에는 대행사체제보다는 총감독제를 두고 전문인력으로 상설사무국을 구성할 예정으로서 전문성 증대가 기대됨. 향후 주민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통해 역량을 키우는 반딧불축제학교도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축제의 기획·운영을 보다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주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것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필요가 있음. 지역 주민참여프로그램의 독창적인 개발과 운영활성화로 이어지면서 무주반딧불축제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함. 지역 주민 역시 주인정신으로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지역사랑이 배가될 필요가 있고 관광객들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심어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유료체험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았으며 가격대도 다소 높은 편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의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별 지자체 등의 가격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축제음식관) 지역 대표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및 지역 대표 음식점이 축제장 곳곳에 존재한다면 지역 특산물 홍보에 효과적일 것임.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언어로 된 전달체계의 정립이 필요함. 마을로 가는 축제로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소득창출을 기대했으나 다소 미비하여 다소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축제가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균형 있고 선택적인 축제콘텐츠 기획 시에 합리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낙화와 풍등, 불꽃놀이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의 연출에 있어 시각적 풍성함과 청각적 감성을 연결함으로써 감동을 높일 수 있도록 음악과 불꽃에 스토리를 부여하여 단조로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꽃놀이는 단순한 다량의 연화발사에서 벗어나 시간의 차(差), 공간의 차(差), 물질의 차(差) 등을 이용하는 예술적 연출이 필요함

23

순창장류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10월 19일(금) ~ 10월 21일(일) / 3일간

■ 장 소 :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 주 최 : 순창군

■ 주 관 :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3) : 환영인사(만찬)-발효소스토굴, 여는마당(개막), 닫는마당(폐막)
- 경연 프로그램(6) : 제15회 순창고추장 요리경연, 제30회 순창군 민속놀이 한마당, 제18회 순창군 읍면 농악 퍼레이드, 2018 장류고을 청소년 어울마당, 어린이 장류 그림 그리기 대회, 고추장 매운맛 대회
- 대표 프로그램(4) : 2018인분 고추장 떡볶이 파티, 장류주먹밥 모자이크 만들기,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2018인분 고추장 비빔밥 만들기
- 문화공연 프로그램(5) : 순창 5대명창 추모공연, 오케스트라와의 만남, 순창스타 뮤직 페스티벌,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공연, 순창 생활문화예술 공연
-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16) : 고추장소스 숯불구이 체험존,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기, 고추장 익는 마을 체험, 장류고을 추억의 거리, 청소년 꿈나라 체험교실, 쪽빛손수건 염색 체험, 장류명인 체험관, 전통매듭과 함께하는 생화팔찌만들기, 장류 워터볼 만들기, 폐이퍼 토이&삼부자 소원항아리, 마을로 가는 여행, 당나귀 체험, 장류체험관(고추장 만들기), 옹기 체험(도자기 물레체험), 발효소스토굴(VR, 나만의 메주만들기, 희망소원나무)

(2) 총 평

■ 잘된 점

- 다양한 편(fun) 프로그램의 조화
 -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 주제별 다양한 이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수축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 2018인분 고추장 떡볶이 파티, 임금님 진상행렬, 주먹밥모자이크 만들기 등 전통장류

소재기반의 킬러콘텐츠를 개발하여 선보인 점은 장류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고 알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우리 장류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세계발효소스박람회는 방문객 호응도가 좋았으며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음

○ 축제장의 분위기와 이미지 연출 우수

- 축제장 출입구와 입구 웰컴존 등이 화려한 배너와 홍사초롱 등으로 장식되어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강력하게 심어주고 있는 점은 축제몰입도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전체적인 안내판 내용과 디자인, 스팟 안내퍼포먼스와 촌극 등 안내시스템이 우수

- 객석도 순광, 무대는 역광으로 자연조명이 되도록 해 햇빛 방향이 되도록 한 점 등은 좋았음

- 전체적으로 고추장 상징의 빨간색 드레스 코드가 축제의 주제와 잘 어울렸음

○ 우수한 축제장 구성과 운영

- 축제장을 주무대, 부무대, 이벤트존 등으로 구분하여 관광객들이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했고 방문객들이 축제장 프로그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행사안내 및 배치가 우수했음

- 방문객의 편의제고를 위한 화장실, 식당, 휴게소 등을 축제장 공간에 적절하게 배치한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음

- 또한 비교적 넓은 축제장 곳곳에 다양한 부스를 설치해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했음

○ 축제장으로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참신한 기획과 안내 인력의 헌신적 노력

- 전체적으로 셔틀택시와 셔틀버스, 넓은 버스 전용 주차장 확보 등 교통접근성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기획했고 방문객의 좋은 평가를 받았음

- 특히 순창 시내에서 축제장까지 3.5km 구간을 셔틀택시 12대를 운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신한 기획으로 평가됨

- 또한 시내 셔틀택시 정류장, 주차장, 축제장 입구, 공연장 주변 등에서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의 안내로 축제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은 인상적임

○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으로 인한 축제의 높은 발전 가능성

- 순창만의 전통장류라는 차별적 소재를 활용한 축제로서 대한민국 우수축제로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지역상인, 지역공예인, 지역주민 등의 협력은 물론 최근 기업협찬형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 점은 자립형 축제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순창군의 축제 육성의지는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참신한 프로그램 기획 및 발굴 필요
 - 장류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류를 특징화 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한데 비해 현재는 이벤트 중심의 프로그램으로서는 부족함
 - 다소 무거운 주제의 축제를 대중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한 참신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특히 진상행렬은 포토존 역할을 하며 장관을 이루나 퍼포먼스와 연기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주제를 승화시키는 콘텐츠의 세련화 시급
 - 축제의 구성에 있어서 장류를 형상화하는 이미지화할 수 있는 테마보장이 필요하고 공연프로그램도 아직은 예술적 수준이 낮아 개선이 시급해 보임
 - 고추장마을 경우, 장소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참여객 동선을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유도하는 콘텐츠 개선이 필요
 - 장류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고추장에 너무 치우쳐 있어 장류 축제에 맞는 콘텐츠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류축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장 환경 조성 필요
 - 장류빌리지 초가지붕 돌담 등 부스모양을 디자인 했으나 다른 곳은 몽골텐트 일색이어서 장류축제 분위기에 맞는 축제장 환경조성에 대한 노력 필요
 - 현재의 몽골천막으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장류의 느낌을 퇴색시키고 방문객의 몰입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개선 시급해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창고추장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8인분 고추장 떡볶이 파티, 임금님 진상행렬, 주먹밥모자이크 만들기 등 전통장류의 귀중한 소재 기반의 킬러콘텐츠와 함께 다양한 편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조화시킴 ○ 고추장소스 숯불구이존, 마을로 가는 여행, 야간 경관 조형 등 주제에 맞는 이색 프로그램이 발전을 거듭하며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고루 갖춘 우수축제로 작년보다 축제가 업그레이드 됨 ○ 올 주제인 '천년의 장맛! 백년의 미소!' 기치 하에 4대 킬러콘텐츠인 △2018인분 고추장 떡볶이 파티 △2018인분 고추장 비빔밥 만들기 △장류주먹밥 모자이크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등을 정해서 주력함으로써 대표 프로그램 차별화를 위해 노력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류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고추장 쪽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음. '장류' 축제에 맞는 콘텐츠 보완에 대한 고민을 요함. 다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추장에 집중기로 했다면 축제명을 직관적으로 '고추장축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모색이 요구됨 ○ 순창장류 문화거리, 장류전통 마을과 연계한 축제구성이 필요하며, 전통마을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경찰, 의료진, 통역원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안전한 축제 로 운영하였으며, 화장실, 식당, 휴게소를 적절한 공간배치로 이용 편의를 도모함 ○ 순창 시내서 행사장까지 3.5km 구간을 셔틀택시 12대를 운영해 접근을 수월하게 했음. 이번 축제 성공의 절반은 셔틀택시와 셔틀버스, 넓은 버스 전용주차장 확보 등 교통 부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 메인무대의 상단 타이틀을 단순히 축제명이 아닌 현재 진행하는 공연제목을 써 주는 센스를 보임. 전체적인 안내판 내용과 디자인, 스피커 안내퍼포먼스와 촌극 등 안내시스템이 우수함 ○ 스태프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안내와 환대의 서비스가 만족도 높은 편이나 아직 질적인 안내 수준은 낮은 편임 ○ 축제장과 광역대도시(광주,전주)를 연결할 수 있는 셔틀버스보강이 필요하며, 축제 셔틀버스운 영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장류박물관, 발효 소스토굴에 도슨트를 두어 정해진 시간에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은 아쉬움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장류의 차별성 있는 소재로 상시관광객 유입을 극대화 하도록 축제가 관광 매력 요소로 포 지셔닝 되어 있음 ○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공연, 읍면 농악 퍼레이드, 장류고를 청소년어울마당, 요리경연대회, 어 린이그림대회, 민속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민들의 참여를 견인함 ○ 군청 축제 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2박3일간 현장을 지키면서 헌신적으로 축제 성공을 위해 노력했음 ○ 전체적인 주제별 구역설정과 공간 디자인이 훌륭하나 상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민속마을과 발효 소스 토굴을 잇는 경관형 힐링형 꽃길을 조성했으면 함. 토굴 콘텐츠와 축제 프로그램의 이원화 느낌이 안 나도록 반드시 연결돼야 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와 연계한 장류 판매를 높이기 위하여 전통마을 명인들이 생산한 장류를 축제장 안에서 판 매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전통마을을 방문하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다는점, 전통장류 에 특색 있는 음식을 가미하여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상인, 지역공예인, 지역주민 서로가 협력하여 축제를 공동 진행하는 모습이 축제 가능성을 보여줌 ○ 지역에서 중요 특산물인 장류 판매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배치와 정비된 생산과정을 관광객들 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장류 소비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게 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창 시장을 중심으로 고령 주민들을 취재한바 여전히 ‘예산낭비’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행사, 경연프로그램, 대표프로그램(킬러콘텐츠), 문화프로그램, 체험 및 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을 무리 없이 진행함 ○ 자치단체장이 의례 식순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진상행렬에 직접 참여하고 임금님 앞에 장군으로서 롤 플레이하고 극화하여 퍼레이드를 마무리하는 등 선진형 예술축제 형태를 보여줌 ○ 축제장이 행사규모나 참관객 규모에 비교하여 작다는 의견이 많아, 축제 장소를 여러 곳에 분산 개최할 필요가 있음

24

완주와일드푸드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10월 5일(금) ~ 10월 7일(일) / 3일간
- 장 소 :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 주 최 : 완주군
- 주 관 : 와일드푸드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 : 개막(식전공연, 개막퍼포먼스, 축하공연), 폐막(축제피날레, 축하공연)
 - 프로그램(와일드나라)
 - 와일드마당 : (음식) 감자삼국, 계란찜질밥, 밀떡구이, 대파미구라지구이, 메추리솥불구이, 돈꼬치구이, 대나무통구이, 참나무훈연구이, 돼지코 꼬치, 메뚜기구이, 개구리튀김, 거저리 피자·빼빼로, 꿀벌애벌레부침, 달팽이아이스크림, 글로벌와일드푸드존(닭머리찜, 소간꼬치, 마유주, 양머리꼬치 등), (체험) 맨손물고기잡기, 족대잡기, 고깃병체험, 메뚜기잡기, 통나무화덕구이, 황토화덕구이, 돌화덕구이
 - 향수마당 : 추억의 달고나, 양은도시락, 밥풀과자, 수수부꾸미, 꽃전, 시루떡 백설기찜, 호박풀떼죽, 알밤묵쭈기
 - 놀이마당 : 뱃짚미끄럼틀, 미로짚놀이터, 통나무그네, 클라이밍, 수격펌프분수대, 와일드 판클링, 와일드디딜도끼, 와이드못질, 대형다트
 - 힐링마당 : 휴카페 공간, 낮잠 자는 곳
 - 캠프마당 : 가족과 청춘남녀로 참여구분한 1박2일 와일드의 법칙
 - 프로그램(로컬푸드나라)
 - 로컬마당 : 13개 읍면의 특산품과 부녀회의 손맛이 만난 완주대표밥상
 - 농부마당 : 청정 완주의 건강한 농특산물 먹거리장터
 - 문화마당 : 지역 공동체 및 문화단체들이 꾸린 예술장터
 - 연계행사 : 어린이 사생대회, 꿈꾸는 청소년들의 와후! 化끼 페스티벌, 전국 와일드푸드 요리대회, 썩썩썩 신바람 체조대회
 - 이벤트 : 올해의 와일드푸드 선정, 와일드푸드파이터 선발대회, 도전! 와일드맨을 찾아라, 우가우가 리틀와푸족, 와일드쿠킹마당
 - 기타 : 종합안내소 운영, 축제 기념품숍, 자원봉사(안내, 청소, 통역 등)

(2) 총 평

■ 잘된 점

- 먹거리 축제로서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연먹거리, 건강먹거리를 주제로 기획한 축제로서 야생성·자연성·건강성 등을 표방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한 점은 좋았음
 - 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용한 역동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되고 독특한 먹거리 축제로서 이미지 구축하는데 성공했음
 - 대부분 프로그램이 가공하지 않은 야생성을 접목한 ‘와일드 푸드’를 지향하고 있는 점은 축제주제에 부합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평가됨
 - 특히 대표프로그램인 ‘천렵 3종+화덕+3종’ 체험은 축제기간 동안 시간대별로 운영되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됨
- 지역자원의 활용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지역주민 참여가 높음
 - 축제 핵심공간이 지역내 자연하천을 체험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1박2일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점이 좋았음
 - 축제 기간 운영한 주요 프로그램은 독특하고 이색적인 먹거리를 체험한 것으로 대부분 지역주민에 의해 개발되고 직접 운영됨
- 축제의 주제성을 잘 부각한 축제장 환경구성과 운영
 - 고산자연휴양림 등 자연적인 지형지물을 활용한 경관조성 및 축제프로그램 운영은 인위적이지 않아 와일드 축제의 주제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음
 - 물고기, 곤충, 솟대 등 다양한 조형물들이 인위적, 획일적이지 않고 예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음
- 관광객 편의를 위한 세심한 준비와 운영
 - 축제장 내 대형 안내판 및 배치도 설치, 화장실 앞 가림막 설치, 주요 지점별 바닥대형 안내스티커 부착, 흡연부스 설치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섬세한 준비가 눈에 띄었음
- 지역주민의 높은 참여도
 - 축제장 안의 거의 모든 부스는 지역주민 주도로 운영되고, 지역 청년들의 축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참여시키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음
 - 또한 축제담당자, 운영주민, 자원봉사자 등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자립도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 필요

- 유료체험 확대, 축제기념품 개발 등을 통하여 축제자립 노력을 하고 있으나 향후 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축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색적인 음식체험이 가능하고 다양한 유형의 야생 체험과 놀이로 특화되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차별성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신규 프로그램인 '와일드 푸드 파이터'는 메뚜기 튀김, 돼지고 찜, 굴뱅이 주스, 취두부 등 단계별 이색음식 먹방 경연으로써 참가자 및 관광객 모두에게 흥미와 웃음을 선사함 ○ 자연음식을 타겟으로 하여 음식관련 이벤트 뿐 아니라 메뚜기잡기 체험 등 음식과 체험 및 놀이가 결합된 아이디어가 좋음 ○ 전반적으로 축제는 야생의 음식과 놀이를 체험케 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잊혀진 기억과 향수를 자극해 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 ○ 와일드푸드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느껴져 축제이름만 들었을 때 축제에 대한 이미지 연상이 부족함 ○ 축제 마당별 진행되었던 대표 및 주제 프로그램은 하나같이 이색적이라 할 만큼 흥미롭고 신기하였으나 대규모 관광객을 유인할 정도로 규모 측면에 한계가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의 영향으로 축제의 지속적 운영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우수한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음 ○ 축제장은 고산휴양림 입구에 마련되어 접근성이 다소 어려우나 대형버스(주중 40대, 주말 60대)가 쉽없이 왕복 운행하여 이동에 불편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수많은 이용객들도 질서정연하게 협조하였음 ○ 축제장은 시랑교를 사이에 두고 놀이마당, 향수마당, 와일드마당, 힐링마당, 문화마당, 농부마당, 로컬마당 등 주제별로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구획하여 단조로울 수 있는 동선을 최대한 보강하였음 ○ 축제장은 야생의 생활문화 체험이라는 점에서 적절할 수 있으나 축제로 인한 공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임. 즉, 축제장은 이른 아침부터 대규모 인파가 방문하고 있으나 정작 축제장을 벗어난 지역은 그러하지 못하여 축제의 효과가 지역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음 ○ 공간 활성화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안내판 가장자리에 연계관광지 홍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추구하기 보다 오히려 축제에 참여한 마을의 수입향상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예컨대, 화덕 체험장을 제외한 모든 체험 프로그램의 공간을 민영화한 결과 군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거의 없는 형편임 ○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케팅 할 상근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대신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축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일드푸드를 메뚜기, 달팽이 등 이색음식으로 각인시키려고 곳곳에 해당 음식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으나, 거부감이 드는 문제가 보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는 마을단위의 지역 주민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매우 만족스러운 특징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컨대, 13개 마을에서 직접 와일드푸드 체험끼리를 기획·운영하거나(감자삼gut, 밀떡구이, 계란겉질밥, 대파미꾸라지구이, 꿀벌애벌개부침 등) 또는 로컬푸드를 판매함으로써 어느 축제에 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책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마을별 특색있는 로컬푸드를 제공함으로써 맛이 우수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음 ○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상근조직화 및 예산 증액은 매우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일관성있고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핵심 사명은 마을단위간의 협업임을 인지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규약을 제정해 볼 것을 제안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에 맞춘 행사를 위해 대한가수협회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용한 점은 예사나 대비 효과를 볼 때 효율적으로 보임 ○ 태풍으로 일정을 미루지 않고 약속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 폐막식 관련 가수 섭외는 해당 방문객 연령에 맞지 않는 젊은층 행사로 비취짐 ○ 방문객 연령층이 고령임을 감안해 휠체어나 안내도우미 등의 시설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해 보임

25

고창모양성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10월 17일(수) ~ 10월 21일(일) / 5일간

■ 장소 : 고창읍성(모양성) 및 읍 시가지 일원

■ 주최 : (사)고창모양성보존회

■ 주관 : (사)고창모양성보존회

■ 주요행사

- 개막행사 : 개막출정식(거리퍼레이드), 축성참여 고을기 올림, 개막퍼포먼스, 불꽃놀이, 축하공연, 모양성 저잣거리 재연
- 주제행사 : 답성놀이, 강강술래(재연 및 경연대회), 원님부임행차, 청사초롱 불 밝혀라, 성황제, 축성참여고을 활쏘기대회, 조선시대 순라군 재연과 체험(수문장교대식, 순라의식, 경점시보의식, 전통무예 등)
- 체험행사 : 모양성 승람도 놀이, 조선과 선사가 함께 걷는 역사문화탐방, 역사와 함께하는 모양성(고창읍성) 체험, 모양성을 사수하라, 모양성 쌓기, 모양성 입체 카드제작, 두 바퀴로 달리는 에코투어, 강강술래, 전통병영체험, 수문장 캐릭터, 전통의상 입기, 전통 활 만들기, 전통 고전머리 체험, 전통병장기(외국전통군복 등) 체험, 옥사체험, 원님체험, 아전 체험, 전투식량(조선시대/현대군) 및 현대 군장 전시, 한지공예체험, 짚신 미투리 엮기체험, 한지악세사리만들기, 천연염색체험, 천연비누만들기체험, 공예체험, 추억의 옛놀이(줄다리기, 널뛰기, 벼수확체험 등) 체험, 도자기물레체험, 군침도는 모양성 야전먹거리 체험 등
- 공연행사 : 전통무예시연, 마상무예공연, 국악공연등 상설거리공연, 모양성마당극, 아마추어 밴드공연, 공군군악대공연, 육군군악대 공연, 평양예술단 공연, 전라북도거리극축제 공연, 흥부가 완창발표회, 고창농악문화재발표회, 고창군민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공연 등
- 전시·홍보·판매행사 : 전통저잣거리 재연, 고창특산품 전시판매, 특산품 시음 및 시식행사, 한우 및 장어홍보 판매, 낙우회 시음행사(청정우유), 고창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다문화 전통음식 판매, 고창 미술협회 전시회 등
- 대회 : 축성참여고을 강강술래 경연대회, 하늘에서 본 모양성, 모양성 그리기대회, 모양성 전국가요제, 천하택견 명인전, 2018고창모양성제배 비치나비골프대회
- 연계행사 : KTX연계 전북순환관광버스, 고창시티투어, 프레월드컵 등

(2) 총 평

■ 잘된 점

- 대동성을 상징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 답성놀이나 강강술래 등 주민이 주역이 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고창 모양성제에는 지역주민이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진정으로 느끼는 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여짐
 - 우선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에 고창군민 이외에 전북 14개 시군 주민 40여명이 참여하여 모양성제의 상징을 살리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됨
 - 또한 강강술래 경연대회는 고창의 5개 단위 농협 팀과 1개의 외부팀이 참여하여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준비기간 1~2개월 동안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음
- 우수한 관광객 편의시설 및 관광안내
 - 축제장 곳곳에 휴식공간 조성, 무료 차 제공, 청결관리 등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경 쓴 흔적이 보임
 - 축제안내소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내원을 배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외국어 안내서비스 제공
- 축제프로그램 자체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축제효과 극대화 도모
 - 두바위로 달리는 에코투어, 두발로 걷는 역사문화 탐방 등 축제와 지역의 관광자원간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연계상품을 넘어 축제 프로그램 자체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축제의 파급효과를 고창군 전체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표프로그램의 규모 및 콘텐츠 기획 개선 필요
 - 답성놀이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참여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야간 답성놀이는 주간에 비해서 주민참자가수가 현저히 적어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일반 방문객 참여자를 포함시키는 등 이벤트적 요소를 강화하여 대동성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음
- 축제장 공간 배치, 동선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 필요
 - 모양성내 체험공간이 매우 협소한 가운데 줄다리기 등 체험공간을 앞쪽에 배치하여 관람객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험부스 및 체험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쾌적한 체험공간 조성 필요
 - 보건소 부스를 공간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곳 성문 앞 축제장 중심부에 배치하여 이용편

의성을 제고한 것은 좋았으나 주요 체험프로그램을 배치해 공간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체험부스 운영시간이 제각각이므로 체험부스 운영시간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며 10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체험부스 개장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차량동선 관리 및 주차장 확보 필요
 - 공식적인 주차장이 한군데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 만차시 체계적인 주차안내가 되지 않아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바, 주차장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제공과 더불어 체계적인 주차계획 수립과 주차요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
 - 축제장 주차장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에 신호등이 없고 축제를 빠져나가는 차량이 많아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요 지점에 교통경찰관이나 안내요원 배치를 통해 교통안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 또한 행사장 내로 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하여 방문객의 보행에 방해가 되므로 차량집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53년 축성된 모양성에서 답성놀이를 재현하는 축제로 역사성, 지역성, 독특성, 심미성이 있음 ○ <답성놀이>와 <강강술래> 등은 모양성을 소재로 한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모양성이라는 장소의 특징을 가장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음 ○ 답성놀이와 강강술래 행사에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여성을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선두에서 개 함. 다문화 여성은 자신의 전통의상을 입고 나눔 ○ 야간에도 소무대에서 공연을 지속함으로써 음식 부스들의 장사에 도움을 주는 등 곳곳에 숨은 배려가 있음 ○ 메인 프로그램의 매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답성놀이의 경우 현재도 독특하고 아름다우나 좀 더 강력한 임팩트가 있으면 흡인력인 커질 듯 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외 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했고, 축제 장소 내에 오물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청소되는 등 눈에 띄지 않는 곳곳에서 축제 운영이 세심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장소 계획 및 운영적 측면에서, 주출입구인 메인 도로에서 고창 특산품을 판매하고, 좌우측 도로에 먹거리 포장마차와 음주 판매 포장마차를 배치함으로써, 축제가 진행되는 메인 장소와 먹거리 장터의 소음이 섞이지 않고, 또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로 인해, 먹거리 포장마차가 축제의 메인처럼 보이는 타 지역 축제들과 달리, 고창의 지역 특산품이 잘 부각되었고, 또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가족축제라는 인상을 주었음 ○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한 리플렛 및 안내판 설치, 대중교통 이용자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하여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p>관광객들의 편의를 도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간 동안, 고창고속버스터미널 내에 축제 홍보 또는 축제 장소(모양성)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 ○ 45회째 개최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모양성제의 특성상, 지역 몇 인근 지역에서는 별도의 안내 없이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 입장에서는 축제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상황이었음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군 각 읍면의 지역주민들이 본인 지역의 특산품을 소재로 코스튬하고 퍼레이드를 펼쳤는데, 참가한 지역주민들이 퍼레이드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일본의 마츠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흥겹고 완성도 높은 퍼레이드였음 ○ 본 축제의 백미라 할 만 했던 <관광객과 함께하는 야간 답성놀이 및 강강술래 체험>은 참가자 모두 한복을 입은 지역 여성들이었는데, 참가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흥겹게 즐기면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강강술래나 답성놀이 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군’과 관련된 행사였는데, 위의 소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보이나, 관람객 입장에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았고, 축제에 참가하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 ‘고창모양성제’를 소개할지 알 수 없을 것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 특산품 판매 코너의 특산품들은 마감 시간에 대부분 매진될 정도로 판매율이 높았으나, 특산품 구매 외에 방문객들이 축제에서 돈을 쓸 만한 프로그램이 없었음. 모양성 안에서 시행된 체험 프로그램 대부분이 무료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축제에 대한 주요 홍보 문구로 “국난극복을 위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호남도민이 총화 축성한 고창읍성(모양성)의 축성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축제에 대한 호기심 및 방문 동기를 주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임 ○ 고창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장어와 복분자를 시중 음식점 보다 30% 정도 싼 값에 제공하고 있으며 (홍보 목적이라고 함)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바가지 요금이 아닌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있음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축제 행사 참가자들이 상업적(돈 받고 행사하는 전문가)으로 보이지 않고, 관광객이 지역 축제에서 기대하는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정서가 잘 느껴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어, 전통무예와 기마 시연자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관심을 보이는 어린이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소개하고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등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임 ○ 개막 2주 전에도 고창모양성제 온라인 사이트의 <프로그램 페이지> 내용이 2018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고, 2017년 내용이 그대로 있었음 ○ 모양성을 중심으로 축제가 진행되어야 하는 특성상, 한정된 장소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음향효과를 이용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방문객의 축제 경험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장소 계획에서 이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6

임실N치즈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10월 6일(토) ~ 10월 9일(화) / 4일간
- 장소 : 임실치즈테마파크·치즈마을 일원
- 주최 :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
- 주관 :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
- 주요행사 : 9개 테마 77개 프로그램
 - 공식/공연 프로그램 : 여는 치즈, 축하공연, 지역주민 참여공연, 초청공연, 닫는 치즈 등
 - 경연 프로그램 : 전국 어린이 치즈요리 경연대회, 전국 어린이 치즈 창작동요대회 등
 - 전시 프로그램 : 천만송이 국화, 세계치즈 전시관, 임실N치즈&향토 문화역사 전시 등
 - 체험/참여 프로그램 : 국가대표 왕 치즈피자 만들기, 우유드림 행복드림 퍼레이드, 임실 N치즈페어(치즈시장), 쿠킹클래스(최현석 셰프), 치즈요리 나눔행사, 낙농체험, 우유먹은 메기잡기, 치즈경매, 아모르파티 등
 - 부대행사 프로그램 : 향토음식관, 한우명품관, 농·특산물 판매장 등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치즈 및 관련제품의 소비가가 돋보였고, 프로그램 구성 역시 치즈 및 치즈관련제품의 상품화 과정을 체험화하여 축제 경험을 다양화 하고 정체성을 강화함. 아울러 축제장의 장소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배치를 통하여 축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임
 - 대표프로그램 “국가대표 왕 치즈피자 만들기”는 어린이 등 가족이 흥미롭게 참여하기 좋은 프로그램임
 - 축제에 참가한 지역민들이 축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인 친절이 잘 발휘되었다고 보임. 이러한 환대는 축제 참가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추억으로 작용하여, 축제 재방문에 대한 동기로 연결될 수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 소재의 명확성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고, 특히 축제의 개막 행사를 제외한 주요 행사가 모두 어린이 대상이고,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는 조력자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축제를 함께 즐기고, 참가한다고 느끼기에는 부족함
- 행사장에서 열리는 개별프로그램은 원활하게 진행 되었으나, 프로그램 중 퍼레이드의 경우 퍼레이드가 단순한 걷기 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소 단조롭게 느껴짐. 플레시몹 등을 통해 대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테마파크 내에 축제 기간 동안 운영하지 않는 시설들이 다수 있었지만, 출입통제 및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이로 인해 참가자들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축제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트릴 수 있음. 이러한 시설에 대한 관리가 보다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즈’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재를 프로그램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타 축제와의 차별화에 성공적으로 기여함 ○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요정’, ‘마칭밴드 퍼레이드’, ‘백만송이국화’ 등의 요소가 축제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고, 또 축제의 이미지를 동화적인 느낌으로 연출하는데 효과적으로 일조했음 ○ 임실N치즈의 전국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임실’을 ‘치즈’와 강력하게 링크시키고 각인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치즈 외의 다른 지역문화의 소개나 접목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축제를 참가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의 경우, 본 축제 외에 임실의 다른 관광지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워 보임 ○ 주제프로그램이 다양한 반면 주제의 명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킬러콘텐츠의 보강이 필요함. 축제의 목적을 고려하여, 축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가치를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 프로그램의 보강이 필요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배치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축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함 ○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이 돋보임. 특히, 임실역에서는 택시를 이용한 셔틀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에서 임실 간 셔틀버스가 운행되어,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가하기 용이했음 - 치즈축제의 장소로써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최적의 분위기와 편의성을 제공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부스에 참가한 지역주민, 그리고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환대가 인상적이었음 ○ 개막 당일은 행사장 전반의 개막 준비가 미흡했고, 주차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음. 주차불가 구역에 주차한 차량들이 많아 행사 준비 및 진행, 참가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음 ○ 전주-임실 간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으나, 전주 시내에서 임실N치즈축제에 대한 홍보를 볼 수 없었음. 주말에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추진주체가 지속적으로 기획, 운영을 맡아와서 관리의 안정성 및 축제 발전의 잠재성이 돋보임 ○ 외국인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경우 명품 축제로서 발전가능성이 엿보임 ○ 매년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매년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대표 행사’와 재방문의 묘미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부대 행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기획될 필요가 있음 ○ 임실N치즈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대행사 선정이외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어 보임.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축제 담당자 및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축제장의 규모 및 프로그램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음식 관련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어, 전체 축제 공간이 음식 체험부스화 되고, 축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가치의 공감을 방해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에서 다양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부스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축제의 지속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일실N치즈축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제품을 참여시켜 부스에서 판매하게끔 하여 판매와 더불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음 ○ 축제의 행사운영이 대행사 선정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행사 부스 참여 외에 지역주민의 축제 기획 및 평가 등 행사 운영에 적극적 참여가 없었음 ○ 축제장이 현재 운영 중인 치즈테마파크 공원을 사용함에 따라 동선 구성이 매끄러움. 다만 입구 쪽 동선구성은 다소 수정의 필요성이 있음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공간을 활용한 다수의 공연장이 있었고, 일부 공연장에 연예인이 출연하였으나,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음 ○ 프로그램은 안내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됨. 행사의 변경 및 축소가 없었고, 과도한 의례나 비정상적인 식순 없이 원활히 진행됨 ○ 축제장 입구에 대한 경관관리를 통해, 축제장의 입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입구의 좌측에 농산물 코너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길을 열어 놓는 과정에서 축제장의 입구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셔틀버스 제공이 원활한 반면, 이에 대한 안내는 다소 부족함. 특히, 임실역의 경우 택시를 이용한 셔틀 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운영요원이 적극적이지 않아 택시셔틀에 대한 이용율이 떨어짐 ○ 입지 및 주변환경 등이 훌륭하고 관람객들이 참여도도 높았으며, 도로 등 다소 협소한 공간 구성만 해소할 경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임

27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5월 16일(수) ~ 5월 19일(토) / 4일간

■ 장 소 : 고군면 회동리 및 의신면 모도리 일원

■ 주 최 : 진도군

■ 주 관 : (사)진도군 관광진흥협의회

■ 주요행사

- 주제행사(8) : 뽕할머니 제례, 신비의 바닷길 체험 및 만남 한마당, 뽕할머니 소망띠 잇기, '신비의 땅을 울려라'북놀이 퍼레이드, 뽕할머니 가족 대행진, 새벽 햇불 퍼레이드, 미라클 레이저 멀티미디어쇼, 2019 만남 기원 풍등날리기
- 공연행사(20) : 회동무대 공연(4일), 개막퍼포먼스, 진도무형문화재공연(9종), 문화교류공연(3종), 풍물뱃놀이 공연, 제40주년 축제 기념 축하쇼, 평양백두한라예술단공연
- 부대행사(12) : 해상선박퍼레이드, 국제 학술 심포지엄, 프리스타일 랩 콘테스트, 미라클 라이브 카페, 진도아리랑 버스킹 및 콘테스트, 만남 대국민 토크쇼, 섬마을 음악회, 진도전통민속주막, 울돌목 트로트 페스티벌, 뽕할머니 가족 코스프레 마임, 수상 오토바이 퍼레이드, 가족사랑 사진 콘테스트
- 글로벌행사(6) : 글로벌 음악여행(글로벌존), 글로벌 씨름대회, 글로벌 팀보대회, 미라클 버블폼 슬라이드, 컬러풀 진도, EDM 올나잇 스탠드 쇼(야간행사)
- 체험행사(16) : 진도무형문화재 체험(2종), 명인에게 배우는 서화서예 체험, 진도개 체험(회동·가계), 뽕할머니 소원·소망등 달기, 신비의 해수 족욕 체험, 한국전통문화체험(2종), 뽕할머니 소망연 만들기 체험, 신비의 도자기 만들기 체험, 신비의바닷길 퍼즐 맞추기, 통 악기 만들기 체험, 그림과 소원문으로 바닷길을 열자, 진도특산물 시식 체험 및 판매, 진도홍주체험, '소라와 신비의 바닷길 이야기'4D 영상체험
- 전시행사(4) : 난야생화 전시회, 수석 전시회, 관광진도사진전시회, 관광기념품 전시·판매
- 연계행사(3) : 시골마을로가는농어촌체험, 주요관광지 버스투어, 진도개 경주(5. 20.진도개 테마파크)

(2) 총 평

■ 잘된 점

- 순수하게 지자체의 힘으로 운영된 고효율·저비용 축제
 - 30년 동인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피드백을 통해 축제기획이 이루어졌고 이벤트 행사의 다양성과 세부 프로그램이 구체성과 업무분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획사 없이 순수하게 지자체 공무원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진도의 전통적인 문화와 융합되어 조화롭고 우수한 축제기획
 - 진도 무형문화재 공연, 진도아리랑 경연대회, 국악공연, 진돗개 공연 등이 바닷길 체험 행사와 연계되어 조화롭게 운영된 프로그램 기획이 돋보임
 - 신비의 바닷길과 진도의 전통문화와 예술적 가치가 융합되어 진도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성공했고, 특히 진도에서 전해내려 온 지역특색의 소재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잘 연결시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흥미를 유발하였음
- 외국인 선호하는 한국적 축제로서 성공
 - 보령축제와 함께 외국인 가장 선호하는 축제로서 외국인 한마당을 통해 외국인들이 직접 축제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타축제와 차별성이 돋보임
- 군내 문화예술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축제의 시너지효과 배가
 - 진도는 유수의 문화예술팀들이 많은 곳인데 이들을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음
 - 또한 학생 자원봉사자, 축제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와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지역특색을 반영된 축제로 자리매김
 - 축제홍보에 있어서도 예산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팀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오프라인 홍보 활동 전개했으며 특히 지역 젊은이들을 활용하여 유튜브나 SNS 홍보를 강화하였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진도특산물 판매, 먹거리 장터 운영 등에 있어 지나친 상업성에 대한 경계 필요
 - 진도특산물 판매, 먹거리 장터 운영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너무 상업적인 측면도 있어 축제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 필요
- 내외국인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공간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도 필요해 보임

- 축제의 참여성과 재미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필요
- 지나치게 신비의 바닷길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족이나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시해 가족이나 연인들이 추억을 남길 만한 스토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진도의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주제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요소이나 축제의 재미성이 다소 약할 수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음악과 예술 장르를 포함시키는 등 축제의 재미성이 배가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필요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축제와는 확연히 다른 신비의 바닷길이라는 지역적 자연현상(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었음 - 진도아리랑 공연 등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공연과 접목하는 부분이 우수함 ○ 바다가 갈라지는 시기는 진도의 특색인 문화자원을 접목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강조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많음 ○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외국인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 ○ 금년과 같이 바닷길이 두드러지게 열리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안 필요. 즉, 대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으나 날씨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축제기획의도가 많이 퇴색되었음 ○ 체험관에 가면 음력 2월 말~3월을 전후에 가장 잘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축제가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려면 제일 잘 열리는 날 축제일을 잡는 것이 바람직 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닷길 주변에는 안전요원이 잘 배치되어 있어 대응 노력이 긍정적임 - 진행요원, 자원봉사자, 부스인력은 적절하게 배치되어 방문객들이 쉽게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음 ○ 다만, 바닷길이 아닌 축제 장소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함 ○ 행사장 출입구에 주차장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걷는 길도 그리 멀지 않아 편리성을 갖추고 있음 ○ 글로벌한 축제를 위해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였으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인디언음악을 지속적으로 연주하는 것 등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 ○ KTX 목포역은 멀리서 오는 집결지이므로 홍보물(X배너 등) 배치 필요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부터 관광객에 대해 입장권을 판매하고 관광객은 입장권을 활용해 읍내 전 지역의 다양한 상점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시도하는 점 등이 우수함 ○ 행사가 협의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선주들의 협조 등 자발적 참여도도 높은 것으로 보임 - 담당직원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있어 지속적 발전 가능성도 높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의 홍보 및 축제 참여방법, 축제를 즐기는 방법 등 다양한 팁을 제공해 축제에 대한 호기심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들이 어떤식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팁 등 - 가족과 연인과 혼자 등 참가방식에 따른 체험방법을 제공해 좀 더 재미있고 의의를 둘 수 있는 방안 고민 필요 ○ 바닷길 축제인 만큼 바다와 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참여 선수들의 지원과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 강구 필요 ○ 행사장을 찾은 많은 방문객이 실제 바닷길이 어디냐고 묻는 등 바닷길이 열리는 장소의 표시방법도 필요할 것 같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 바다와 관련된 수산물 판매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받고 있어 재정 자립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해당지역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수/목 행사를 신비의 바닷길 체험장이 아닌 읍내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돋보임 ○ 본 축제와 관련되어 진돗개 행사와 테마파크 등 기타 주변에 체험거리가 있음에도 이와 시너지 효과를 살리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의 자체 행사가 좀 더 프로페셔널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뽕할머니 등 인형들과 걷는 길의 만국기들은 매우 질이 낮아보여 축제의 품위를 높이는 데에 더 주력하는 것이 필요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 연예인 가수들이 등장하지 않아 비교적 큰 돈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바닷길이 열리면 미역, 소라, 낙지, 바지락 등 해산물을 채취한다고 써 놓았는데, 자연이 주는 1년에 한 번 주는 선물로서 이 날 만큼은 방문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음 ○ 바닷길의 컨셉이 만남과 화합이라고 한다면 인근 마을 주민과의 친목·화합 등 그것들과 연결고리를 만들면 감동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8

강진청자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7월 28일(토) ~ 8월 3일(금) / 7일간

■ 장소 :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일원

■ 주최 : 강진군

■ 주관 : 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의식행사(2) : 무명도공 기원제, 개막퍼포먼스
- 기획행사(14) : 축제 대표 콘텐츠 학술 심포지엄, 흙을 밟고 던지고 적시고(투게더 점핑 소일), 청자 (만들기)야 만갑다!, 나도 청자축제 SNS 서포터즈!(현장즉석참여), 제20회 고려청자 학술 심포지엄, 제18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및 수상작 전시, 명품청자 전시·판매전, 화목가마 요출 및 즉석경매, 희망의 불꽃 화목가마 불 지피기, 청자 제작과정 시연, 청자판매 경품 이벤트, 청자와 다산 백일장 대회, 전국 일반 물레성형 경진대회 및 작품 전시, 한·중 도자기 교류전
- 전시행사(8) : 전국 도자 전시 및 판매, 역대 청자 포스터 전시, 제18회 고려청자 특별전, 대형 청자조형물 전시, 대형 청자등 전시, 조선민화 특별전, 청자골 캠핑촌 운영, 강진산 고려청자 국보(보물) 재현품 전시
- 체험·놀이 행사(14) : 청자 코일링 체험, 물레 성형하기, 청자 상감 체험, 청자조각하기 체험, 청자 핸드 페인팅 만들기, 청자 풍경 만들기 체험, 오물락 조물락 청자만들기, 청자 액세서리 만들기, 청자 스탬프 랠리, 불링공 청자 깨뜨리기, 물 풍선 터뜨려 청자 가져가기, 청자문양 페이스 페인팅, 봉숭아 손톱 물들이기, 잉어 등 물고기 먹이주기 체험
- 공연행사(8) : 광주 KBC 개막 축하쇼(광주 KBC-TV 녹화), 즐기자! 버스킹(길거리 공연), 읍면 주민자치센터 공연(읍면 화합의 날), 나이트 팝 페스티벌, 강진 청자골 예술연합회 축하 공연, 청자골 어린이 청소년 어울마당, 청자골 세계문화예술공연, 한여름 밤 트로트 향연
- 부대행사(16) : 물놀이 체험장·수영장 운영, 가훈 써주기, 풍물놀이, 한방 건강검진 체험관 및 금연 클리닉 운영, 전통차 예절겨루기, 강진 문화유적 투어, 청자골 야생화 전

사회, 청자골 분재 전시회, 초대형 워터 슬라이딩 운영, 전통 옹기 제작 시연 및 체험, 청자골 맛의 1번가 운영, 자랑스러운 향우와 함께(만찬), 초록민음 농수산물 판매전, 청자골 야생 수제차 다도체험, 사랑을 싣고 소원달기, 어린이 짚트랙 운영

- 연계행사(4) : 강진 3대 물놀이장 운영(V랜드, 초당림, 석문공원), 바지락 캐기·갯벌낚시 (3개 어촌마을 체험), 외국인 초청 낭만 콘서트(마랑토요음악회), 다산특별전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주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 대표 프로그램인 ‘투게더 점핑 소일’은 축제주제에 부합하는 대표프로그램으로서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체험형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음
 - 올해 축제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청자관련 프로그램이 많아 축제의 취지와도 잘 부합하고 청자를 일반인들이 삶속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됨
- 다양한 체험 및 공연문화 등 체험 프로그램 확대
 - 강진 청자와 관련된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여 방문객들의 관심 유도
 - 어린이 놀이터 티즈 존, 어린이 체험부스물놀이장 등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도자기, 석공 등 직접 제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되던 야간관광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야간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킴
- 축제장 공간구성, 편의시설 확충, 안내체계 등 물적환경 우수
 - 축제장 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먹거리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방문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
 - 예년에 비해 관광객 편의시설,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등에 많은 노력과 예산 투입한 점은 높이 평가됨. 특히 차광막 설치, 오색 우산그늘, 썬넷 설치 등 여름철 무더위 및 직사광선 해절을 위한 해가림 설치 확대 관광객 휴게·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였음
 - 또한 방문객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하는 등 방문객 이동동선에 다양한 안내시설 확충
 - 전기 운행을 통한 시설간 이동 연계성 강화, 셔틀 버스 운행, 노약자 등을 배려한 축제장내 이동수단 마련 등은 높이 평가됨
- 다각적인 홍보마케팅 노력, 지역주민 적극적 참여, 프로그램 개선 노력과 의지 등으로 축제발전가능성이 높음
 - 한국관광공사, 국제소상인회, 여행공방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300명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 지역주민은 자원봉사자, 공연자, 환경미화인 등 축제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축제 개최
- 매년 실시되는 축제모니터링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프로그램의 질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참신하고 차별적인 축제프로그램 기획 필요
 - 청자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다른 축제의 프로그램에 비해 매우 뛰어나거나 독특한 프로그램은 부족
 - 체험프로그램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만한 프로그램이나 축제 대표프로그램으로서 흡인력은 다소 부족해 보여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수준 높고 일탈성이 강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수에 비해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 특히 강진 처자의 의미와 내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므로 향후 민간전문인력 보강 및 컨설팅을 통해 축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해 보임
- 축제장 공간구성, 편의시설 확충, 안내체계 등 물적환경 우수
 - 주변 도시까지의 교통접근성은 우수하나 서울, 수도권 등 광역교통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내 개선 필요
 - 일례로 축제기간동안 목포역, 광주송정역에서 축제장까지 시외버스를 연장 운행하는 방식 등으로 광역교통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 축제의 자립도 향상 노력 필요
 - 현재는 별도의 자체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오직 군비와 국비에 의존하여 개최되고 있는 축제로서 자체 수익 상화를 통해 자립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스폰서십을 강화하는 축제재원 마련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프로그램 ‘투게더 점핑 소일’은 가족단위의 많은 관람객들이 태도 밟기 체험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방학을 맞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체험형 놀이를 제시함 ○ 명확한 축제 소재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진 청자’라는 명확한 축제 소재를 보유하고 있어, 이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발굴에 유리함 ○ 축제장이 청자박물관 일원이라는 점, 청자 모형물이 축제장의 중심에 있다는 점은 우수해보임 ○ 강진청자축제는 강진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인 청자를 테마로 한 축제인만큼 청자관련 프로그램이 많은데 특히 물레성형체험, 이열치열 화목불가마체험, 강진점토팩체험, 불링공 청자 캐트리기 등 청자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본 축제의 취지와도 잘 부합하며 청자를 일반인들의 삶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엿보임 ○ 축제 의미 부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청자에 대한 의미 부여가 부족하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시설 도입이 필요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체계 개선 및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하고 방문객 이동 동선에 다양한 안내시설을 확충함. 아울러,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표기도 강화됨 ○ 강진시내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 운영으로 행사장 접근성을 위한 노력을 보였으며, 고려청자박물관,민화박물관이 위치한 청자촌에 축제장소를 마련한 점은 청자축제의 본질을 살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먹거리 공간 별도로 설치하여 편의성과 재미를 동시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내의 혼잡도 등을 방지하고 방문객의 편의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먹거리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고 지역의 대표 음식을 입점시켜 색다른 먹거리의 재미를 부여함 ○ 축제 시기에 대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가 매년 7-8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무더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 청자 체험이 시기에 제한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5월 여행주간이나 날씨가 좋은 가을에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가 필요할 듯함 ○ 행사장 곳곳에 특정 종교의 홍보부스가 배치되어 있어 일부 방문객들이 불편해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특정 종교의 홍보는 자제시키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통해 외국인 유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공사, 국제소상인회, 여행공방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300명을 축제에 유치함 ○ 지역주민 적극적인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활동, 공연자 참여, 축제장 청결 운동 등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축제 활성화를 도모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변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축제 후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객 참여가 저조했던 프로그램 일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올해 축제에 반영함 ○ 본 축제는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어 축제 추진주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군청 문화관광과와의 협력도 유기적임 ○ 민간 전문 인력 보강과 함께 정부의 기획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자라는 매우 좋은 소재를 갖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등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민간 전문 인력을 보강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프로그램 기획 등을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대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공공부문)과 축제의 수익을 가져가는 주체(민간 청자 판매 등)가 다른 상황에서 축제의 발전을 위해 수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체험, 프로그램, 공간의 연계성을 위한 스토리 디자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진의 지역이야기, 청자이야기 등 다양한 스토리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에 이를 표현하지 못하다는 느낌임 - 축제 전반적으로 스토리 구상안이 필요할 것이며 스토리 구상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및 시설 배치가 실현되어야 관광객들이 축제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가 높아질 것임 ○ 교통 거점지역에서의 연계 교통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에서 강진청자축제장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미흡함 - 목포, 나주, 여수, 광주 등 주변 도시까지의 광역접근성은 우수하나 교통 거점지역에서의 연계 교통시스템이 매우 ○ 스폰서십을 통한 재원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고 스폰서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재원 마련 및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화천 산천어축제의 경우 쌍용 등 다양한 기업에 스폰서십을 강화하여 축제를 추진하고 있음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와 지역 숙박 연계하는 체류형 상품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지역 음식 등의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체류관광객 유치 방안 필요 ○ 좀 더 다양한 지역 및 계층의 방문객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가족단위 관람객 이외에도 일반 성인남녀 관람객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수준높고 일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축제의 지역 확산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축제 기간 중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도 축제 참여자들이 강진군 지역으로 분산되어 지역 경제에 효과를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29

담양대나무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5월 2일(수) ~ 5월 7일(월) / 6일간

■ 장 소 : 죽녹원, 관방제림 일원

■ 주 최 : 담양군

■ 주 관 :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대숲향기 힐링체험 : 명품숲길 휴(休) 체험, 대나무축제 SNS 생생정보통신(초록 담양, 프리 포토프린트), 전우치전 스토리미션, 죽신제, 담양 별빛여행, 담양으로 추억여행, 담양생활사전시전
- 땃 고을 수상체험 : 담양천년 소망배(소원배 달기), 대나무 땃목타기, 대나무 카누체험 “정글의 법칙” 대나무땃목만들기, 대소くり 물고기잡기, 천년의 용솟음, 대나무물총만들기 및 물총놀이
- 땃 고을 문화체험 : 추억의 죽물시장 재현, 죽취아리랑 플래시몹, 대나무문화산업전, 대나무문화학교, 대나무수확놀이터, 컬러링그림그리기, 대나무축제 20주년 기념관, 대나무퍼팅놀이, 대나무 놀이기구 체험, 대나무골청정생태관, 죽제품 제작, 대나무활쏘기, 대통도자기만들기, 대나무연만들기체험, 대나무가훈써주기·탁본체험, 운수대통 소망술 담그기(전통술 전시), 대나무화분만들기, 대통쌀담아주기, 대숲속의 외국인원정대, 다문화음식체험관, 죽죽이와 보담이의 건강여행, 금연 홍보연극, 건강홍보관, 노천카페
- 대숲천년 천년담양 : 대나무역사문화퍼레이드, 전국죽순요리경연대회, 전국청소년그림그리기대회, 전국청소년대나무악기 및 댄스경연대회, 대나무악기놀이터, 대나무시화전, 대나무사계절사진전, 친환경농특산물 판매, 추억의 전통놀이 체험, 뽀빠어린이미니짚라인 체험, 대나무족욕체험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기획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프로그램 기획

- 대나무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대나무 연만들기, 대나무 활체험, 대나무 화분만들기, 대나무 어린이 놀이터, 대소쿠리 물고기 잡이 등을 축제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음
- 지역성에 기반한 축제장 환경 구성
 - 축제장 주요 주무대 및 그늘막, 부스, 전시·체험·판매시설, 곤충 조형물, 축제장 주요 시설 및 조형에 대나무를 활용한 축제장 환경을 구성해 주제성 및 지역성을 강화하였음
 - 축제장 곳곳에 대나무 벤치, 대나무 쓰레기통, 대나무 앞으로 만든 주무대를 설치해 축제 주제를 충분히 각인시키고 있음
- 재미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제공
 - 관방천을 활용한 대나무카누체험, 대나무뗏목타기, 자전거 등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재미있는 체험요소로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음
 - 대소쿠리 물고기 잡이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인기프로그램으로 향후 탈의실 등 편의시설이 개선이 개선되는 더욱 매력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 대표 킬러 콘텐츠 프로그램의 부재
 - 대나무 환경 페레이드는 지역 학생 및 읍면별 참여로 주민이 함께하는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축제 킬러 콘텐츠로 관광객이 참여하고 함께하기에는 콘텐츠 내용과 수준이 나직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나무라는 단일 소재를 가지고 개최되는 점과 기획방향이 명확함. 20년 동안 축제를 운영한 기획 노하우가 잘 반영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수학 등 학생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한 점이 우수함 예) 대나무 수학놀이터 등 ○ 담양의 브랜드인 대나무라는 단일의 소재로 대표 및 주요 프로그램의 기획을 의도하였다는 점에서 확실히 타 축제와 차별성을 가짐 ○ 인근 죽녹원, 관방천, 관방제림 등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계관광 및 친환경 축제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한 점이 충분히 인정됨 ○ 담양대나무축제를 대표할 만한 킬러콘텐츠로서의 대표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차별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주최측에서 이야기하는 대나무역사문화페레이드는 5월 6일 오후라는 특정시간에 배치되어 있으며,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수요조사 및 반응을 참조하여, 축제프로그램 및 대표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함. 인터넷 축제정보 및 댓글 등 후기를 충분히 참조해볼 필요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프로그램이 연예인 축하공연 및 콘서트 등에 치중되어 아름다운 환경 및 공간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 ○ 전통적인 분위기를 가미하되 주제와 연관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축제품의 다양화를 통한 체험적 및 오락적 요소를 도입하되 별도의 공간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안내요원, 자원봉사자, 부스인력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참여도 다양하게 이루어짐(12개 읍면, 다문화 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체험 등 요소가 있었으나, 물이 얇고, 안전관리가 양호하여 위험요인에 대응하려 한 노력이 충분함 ○ 축제공간이 죽녹원 인근으로 집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관련 편의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 편의를 고려한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됨 ○ 작년에 비해 독립대 공간으로 축제공간을 확장하고 축제의 영역을 넓힌 측면이 인정되나, 관람객 입장에서는 너무 넓고,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어르신 등 대상층을 고려해보았을 때,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에 주무대와 종합체육관 등 일부 공간과 시설에만 축제가 집중된 성격이 큼 ○ 주말의 팬텀싱어는 주무대를 꽉 매운 관람객들이 열광할 정도로 감동적인 공연이었으나, 예정 시간 보다 앞 당겨 진행됨으로써 정시에 맞추어 방문한 관객들에게 약간의 혼란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팸투어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발전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작년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학생 등 초청 등을 시행한 점이 인정됨. 자매도시 및 다문화 부스 운영 등에 노력을 기울인 점도 좋음 ○ 대표 프로그램의 경우 12개 읍면 주민이 직접 소품을 제작하고 각기 특색있는 이벤트 마련 혹은 소토리텔링할 정도로 관심이 높고 또 관람객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케팅할 상근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자치단체의 지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부족한 부분을 상쇄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글로벌 수준으로의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도비 이외에 재원조달의 노력에 좀 더 힘을 기울이며,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연합하여 축제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축제의 재정자립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 체험프로그램과 부스 임대 수입을 제외하고 재정자립을 위한 수단은 거의 없음. 그러나 대나무 카누 및 뗏목 체험 등 인기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방문객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음 ○ 별빛여행, 인문학공연 등 차별화 프로그램을 기획한점이 우수하며, 기초지자체가 주관하는 즉석체험 등 지역특색을 살리려 한점이 인정됨(수복면 운영) ○ 관광명소인 메타세콰이어길과 프로방스가 축제장과 지근 거리에 위치하여 최초 방문객들에게는 축제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담양 관광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후 및 야간 프로그램(필리핀 뱀부춤, 팬텀싱어, 야간 레이저경관)이 예고없이 취소되었음. 방문객이 많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부는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축제의 미지의 실추가 우려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레시몹의 경우 축제의 주제와 관련성은 적지만 죽녹원 앞 소무대를 가득 메운 관광객들을 열광시켰으며, 이들의 일부는 직접 음악에 맞추어 참여할 정도로 흥겨웠음 ○ 대다수 프로그램은 대나무를 소재로 기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숲향기, 천년을 품다’라는 주제와 연관성은 낮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컨대, 핵심 프로그램으로써 ‘추억의 죽물시장’은 축제품이 다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체험적 요소가 미약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하였음. 무엇보다 전통적 요소가 재현되지 못하여 교육적 의미도 찾기 어려웠고, 오히려 요즘 볼 수 없는 축제품의 전시라는 의미가 강하였음 ○ 축제의 개최 시기가 농번기와 중첩되므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축제의 위상, 이미지 및 인지도를 고려할 때 지역주민이 기획하고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를 확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 주제와 거리가 있으나 관람객들에게도 보는 재미와 참여하는 즐거움을 선사한 플레시몹이 프로그램 개발의 좋은 사례일 수 있음

30

정남진장홍물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7월 27일(금) ~ 8월 2일(목) / 7일간
- 장 소 : 장홍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주 최 : 장흥군
- 주 관 : 정남진 장홍 물축제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시작하는 날 : 공식행사(개막식), 축하행사(장홍 워터 樂 폴파티)
 - 주제 프로그램 :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 지상최대의 물싸움, 맨손 물고기잡기, 수중 줄다리기
 - 특별 프로그램 : 장홍 워터 樂 폴파티, 별밤 수다(水多)쟁이, 지상 최대의 Water Boom, 장홍 플라주
 - 놀이·체험 프로그램 : 수상프로그램(우든보트 타기, 수상자전거 타기, 카누 타기, 뗏목 타기, 바나나보트 타기, 플라이보드, 디스코광광 타기, 야외풀장 운영), 육상프로그램(대형 물놀이장 운영, 도전 드림팀 「돌다리도 두들겨라」, 기타 체험프로그램(목공예 만들기, 천연염색, 다육이 만들기 등))
 - 경연대회 프로그램 : 전국 대학 뮤지컬 갈라 페스티벌, 정남진 청소년 강변 음악축제, 남도 삼색요리 경연대회
 - 전시·체험행사 : 물축제 역사·주제 전시관, 물 과학 체험, 다문화·복지 체험관
 - 군민·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 수중 이벤트, 물싸움 이벤트,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연, 청소년 동아리 공연
 - 외국인 공연 프로그램 : 전문공연단 공연
 - 연관행사 : 제11회 전국사진 촬영대회,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 정남진 물과학관 운영, 정남진 천문과학관 운영

(2) 총 평

- 잘된 점
 - 도심축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탐진강, 읍내거리 등 도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제프로그램 및 거리퍼레이드 등을 개최하여 지역민의 축제 참여와 도심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 체류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야간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 노력 필요
- 강진 청자축제와 협력하여 지역간 상생의지 및 축제간 상생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이해관계자 협력과 원활한 축제운영
 - 축제운영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였으며 방문객들에게 쉼터제공 및 정보제공을 위한 편의서비스, 축제안전 등 도모. 특히 주차관리 및 안내의 체계화 마련과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
- 지역사회 열정적 지원과 축제성공 기원
 - 축제성공을 위하여 상인들이 직접 물호스를 들고 행진구간 중간에 물 급수를 해주는 등 물놀이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군수를 비롯한 사회단체장들도 봉사하는 솔선수범을 보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방문객 편의도모를 위해 개선 노력 필요
 - 노약자 등을 위한 행자장 탐방 시설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주차관리 및 안내체계화 마련과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축제를 통한 도심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파급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도심형 축제의 특성을 활용한 도심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색 자연 환경인 탐진강을 활용하여, 1급수 강에서 즐기는 여름 축제로서 타 지역 축제와 차별성이 있음 ○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는 장흥물축제의 대표프로그램으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호응도 높았으며 특히 상인들은 바닥난 물통을 채우는 것 뿐만 아니라 물호스로 참가자들에게 물세례를 퍼부으며 적극적으로 축제에 동참하였고 거리 중간에 공연단의 연주 및 댄스가 흥을 돋움으로써 시가지 전체가 축제장화 된 참여형 축제임 ○ 정남진 장흥 자연자원인 탐진강 등의 물을 주제로 하여 여름축제로서의 차별적 특성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축제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물싸움, 물난장 등 ‘물놀이’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수대첩퍼레이드, 지상최대의 물싸움, 워터락 풀파티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놀이형 축제로서 최근 타 지역에서 유사한 물축제가 많이 생겨남으로써 다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수가 매우 많았으며, 모두 동일한 의상(파란색 티셔츠)을 착용하고 있어, 자원봉사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음.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임 ○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수변축제지만 더위는 어쩔 수 없었으나 그늘막, 스프링클러, 물폭포와 분수터널을 이용한 온도저감 효과, 주 무대 행사시 뿌려지는 물 등 여름철 수변축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고 판단됨 ○ 작년 국도공사로 인해 행사장이 다소 분산되었으나 올해는 장흥교 주무대를 중심으로 예양교까지 행사장을 집적시켜 이동성이 좋아졌으며 쉼터와 그늘막, 물품보관소 등 편의시설도 적절히 배치되었음 ○ 수변 물놀이 축제는 회전율이 높지 않고, 인근 재래시장, 상권과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임. 특히 확보된 주차공간에 대한 정보제공, 만차시 인근 주차공간으로 유도 등에 대한 매뉴얼 부재와 주차관리요원의 교육미비로 관람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보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주차계획 수립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야간 프로그램이 주 무대장으로 한정되기는 하나 수변을 산책하거나, 돌다리를 건너는 등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바 향후 행사시에는 야간 안전요원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관광객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 깊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석에서 짬신·바구니를 삼거나 지역 특산물로 만든 음료를 홍보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돋보임 ○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중간중간 물공급이 중요한데 상인들이 물공급에 참여하고 물호스로 물세례를 퍼붓는 등 적극적인 축제참여가 돋보임 ○ 한우, 키조개, 표고버섯을 활용한 한우삼합이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축제를 통해 지역 한우농가 및 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여러차례 먹을 수 없는 고가의 음식이기 때문에 물놀이 중간중간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팜플렛에는 장흥9미, 장흥9품 등 지역 먹거리에 대해 홍보하고 있었으나, 축제장 내 향토음식관이나 직거래 장터에서 차별화된 다양한 지역먹거리를 체험하기 어려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특성(축산물, 수산물) 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특색을 반영한 먹거리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흥 토요일장을 비롯해 지역 기반 콘텐츠 및 관광자원과 연결하여 관광축제로서의 장점을 살리고 있음 ○ 장흥 토요일장터 및 축제장과 밀접해 있는 지역 상권과 상생하기 위해 축제장에는 일정한 규모의 먹거리장터와 특산물 코너가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남진장흥물축제의 주제 프로그램으로 살수대침퍼레이드, 지상최대의 물싸움, 맨손물고기잡기가 있지만 축제기간 내 동일한 패턴으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수준에 머물고 있어 콘텐츠 소구력이 증폭되는 것에 한계적임 ○ 또한 축제 프로그램별 특성 및 운영체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가 또는 전문조직의 협력체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 내 주민을 비롯해 지역문화인력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노력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안 지역 중에서 물자원을 활용한 여름관광축제로 소재적 차별성이 분명하고, 탐진강을 비롯해 장흥토요시장 등의 지역콘텐츠와 연계한 체험형 축제로서의 특성화는 분명한 장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군의 열정과 의지로 축제 프로그램 및 운영, 축제장소 등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 및 인근 지역의 방문자들에게 소구력을 가진 지역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있음 ○ 홍보된 안내책자에는 ‘탐진강 및 우드랜드 일원’이 축제 장소로 소개되어 있으나, 관광객들은 탐진강 행사장에 집중될 뿐, 우드랜드 행사장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 연계 프로그램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 프로그램의 내실화 필요(편백림, 천문과학관 등) ○ 특히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주체적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의 청년(청소년~청장년층까지 포괄적으로) 등이 결집하여 주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전략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축제 시기가 아닌 일상적 시기의 문화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여 축제를 통해 표출되는 계기와 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31

보성다향대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5월 18일(금) ~ 5월 22일(화) / 5일간
- 장소 :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 주최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보성차생산자조합)
- 주관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보성차생산자조합)
- 주요행사 : 9개 분야 60여종
 - 오프닝세레모니 : 식전공연, 개막달빛차회, 월인천강차자리 오프닝
 - 어울리는자리 : 또르르광장놀이터, 보성차마당, 책과차생활, 다향백일장& 사생대회
 - 마주하는자리 : 월인천강차자리, 차잎따기
 - 권하는자리 : 차만들기, 보성차마실, 그린티뷰티하우스, 녹차비누만들기, 녹차인절미만들기, 차잎그리기, 차잎따기, 소원등만들기
 - 스페셜 스페이스 : 응점차마실, 차사발빛기, 전통악기만들기, 한국명차선정대회
 - 지역협력 프로그램 : 득량만 스포투어, 남도바닷길체험
 - 네트워킹 프로그램 : 문화관광축제포럼, 대한민국다향예술대전
 - 오픈스테이지 프로그램 : 다신제, 보성달빛차회, 포엠콘서트, 보성소리마당 등
 - 부대행사 : 차밭힐링트레킹, 보성로컬푸드마켓, 향토식당 등

(2) 총 평

- 잘된 점
 - 지역브랜드와 축제컨셉의 일치성
 - 지역브랜드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녹차를 활용한 축제로서 지역정체성과 축제의 주제성이 일치하고 녹차산업이 지역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축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축제개선 노력과 전문성 강화
 - 개막식 행사 간소화, 대형텐트 철거를 통해 공간 쾌적함 강화, 죽육파고라·빛동산·빛터미널 등 야간 경관조명 강화, 청사초롱 등 야간 축제장 분위기 조성

- 총감독제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제 도입, 지역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축제개선 노력 전개
- 적극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 노력
 -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 홍보를 통해 외국인 유치 노력 전개
 - 또한 수도권 지역 여행사 및 코레일과 연계한 적극적인 축제방문객 모객 노력을 통해 외국인 팸투어단 120명, 코레일 관광객 1,500명 유치
- 지속가능한 축제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 축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축제관련 내용, 안내서비스, 셔틀버스, 안전대책, 우천대책, 프로그램, 유관기관, 행정지원기관, 인근업소 등 상세한 운영 편람을 제작하여 사전배포 후 진행에 활용하도록 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공간의 스토리 콘텐츠 발굴 필요
 - 우수한 축제 컨셉에 비해 축제 스토리가 미흡하고 단순 나열식 시설 및 체험위주로 되어 있어 축제공간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축제공간의 스토리 발굴 필요
- 주차 및 편의시설 개선 필요
 - 많은 방문객으로 인한 차량 주차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인근 도로변에 차량주차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녹차밭이라는 공간 특성의 한계로 인해 화장실, 휴게시설 등이 부족하여 관광객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확충 필요
-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축제 행사장과 도심이 떨어져 있어 지역으로의 관광파급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역 내 다양한 관광자원간 연계 프로그램 적극 개발 필요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다향축제의 대표적 브랜드인 녹차를 활용하여 축제장 위쪽 차밭에서 직접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차잎따기를 통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실제 차밭 공간에서 “월인천강차자리”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다양한 팀으로 구성된 차자리는 축제의 공간을 환상적인 공간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분위기 있는 음악과 낭만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는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 소풍 등 주제를 정하여 주제에 부합하는 축제장 디자인(평상 등) 및 프로그램(월인천강 찻자리) 구성이 돋보임 ○ 군지마을 갯가체험 등 인근마을 투어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축제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대 및 연계형 관광 장려 ○ 어울리는 자리, 권하는 자리, 마주하는 자리 등으로 서로 차별되는 축제장 공간을 계획한 점은 훌륭하지만 각 공간별로 부스 디자인이 동일하고 공간명을 나타내는 조형물 등이 눈에 잘 띄지 않아 각 공간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음 ○ 만약 어느 한 곳에서 녹차를 활용한 대동난장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더욱 훌륭한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임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간별로 안내요원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지역 인적자원 활용노력이 돋보임 ○ 보성다향축제에 온 많은 관광객들에게 “녹차 새싹”을 연상케 하는 머리핀을 제공함으로써 축제 공간에 들어온 많은 관광객들이 동질성과 연대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대동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전략임 ○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확보하여 녹차 밭으로 이끌어 가는 모습은 너무 좋았고, 특히, 방송으로 직접 외국인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통역을 제공해준다는 점은 매우 훌륭한 전략이며, 글로벌 축제를 향한 디딤돌이라고 사료됨 ○ 녹차를 활용한 족욕 공간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에게 확실하게 장소적 인식과 “녹차 온천”이라는 메시지와 구체적 효능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유도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음 ○ 당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보고 싶은 것은 아마도 산록에 형성된 녹차밭의 장관일 것임. 그러나 축제장 내부에 있는 녹차밭의 경관은 기대에 크게 못미쳤음. 이웃한 대한다원에 버금가는 녹차밭을 보고 건도 느낄 수 있어야 명실상부한 녹차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외국인들이 “녹차”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에는 일본과 중국의 차와 연계하여 축제를 진행했던 만큼 다음 번에는 기존 외국인 관광객의 열띤 호응과 더불어 “차 문화”의 역사가 깊은 영국과 같은 유럽 지역과도 연계하여 축제를 진행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으며, 글로벌 축제를 향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개막식 공연을 위해서 마련된 “소풍” 컨셉은 매우 정갈한 느낌을 주고, 차를 준비한 도우미분들이 직접 차를 따라주고 대화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매우 참신함 ○ 각 특화공간별로 시음, 놀이, 감상, 판매 등의 콘텐츠를 배치함으로써 방문객들이 넓은 축제장 곳곳을 찾아가도록 하고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하였음 ○ 특히 숲 근처에 설치한 ‘마주하는 자리 월인천강’은 축제의 분위기와 품격을 높이는데 일조하였음 ○ 예컨대 녹차밭 경관개선, 박물관에 전시한 콘텐츠 개선, 식물원의 정체성 재정립 등이 시급한 과제일 것임

평가항목	평가내용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인천강 찾자리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차산업 종사자 등을 섭외하여 해당 축제 및 차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음 ○ 개막식 공연에서 펼쳐진 공연 예술은 예술적 완성도를 위해서 지나치게 예술미학을 추구하고자 한 나머지, 전통공연예술과 축제 공간에서 고려해야 할 공연예술의 차이를 잘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긴장을 풀고, 여유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로 하여금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 쌍방향 소통이 아닌, 공연배우 혼자만의 일방적 소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듬 ○ 향후 재정자립을 위한 입장료를 받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빈약하였음. 만약 재정자립을 위해 입장료 징수를 검토한다면 우선 축제장 내부시설을 개선하고 콘텐츠의 수준과 역량을 크게 확충해야 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인 동원 등을 일절 지양하고 지역민과 상인 등의 참여로 축제 구성 ○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개막식 대신에 차茶소풍, 달빛차빛 등의 다례회를 활용한 콘텐츠를 광장 무대에 올렸는바, 축제의 품격에 적합한 기획이었다고 판단함 ○ 녹차박물관에 전시된 “우주로 간 보성 녹차”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축제로 이끌어 내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같이 훌륭한 축제 자원들이 다수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 ○ 축제장에서 축제 담당자들이 방문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으로 구체화시킨 콘텐츠에 맞는 복장이나 축제의 분위기에 맞는 복장을 갖추어서 방문객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축제의 대동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복을 입은 채, 축제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

32

영암왕인문화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4월 5일(목) ~ 4월 8일(일) / 4일간
- 장 소 :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역사공원, 도기박물관 등
- 주 최 : 영암군
- 주 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행사(1) : 왕인박사 일본가요! 퍼레이드
 - 주제행사(6) : 왕인박사 추모 한시백일장 외 5종
 - 기획행사(4) 氣찬영암 스탬프챌리 외 3종
 - 문화공연행사(30) : 백제 차문화 시연회 외 29종
 - 놀이체험행사(36) : 백제 문화체험 외 35종
 - 연 계 행 사(7) : 월출산 국립공원 30주년 지정 기념 홍보관 외 6종
 - 부 대 행 사(9) : 왕인의 길 체험 외 8종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 대표프로그램인 왕인박사 일본 가요! 퍼레이드 등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왕인이 라는 역사적 인물과 그 행적을 교육적이면서 재미있게 표현하였음
 - 특히 대표프로그램인 왕인박사 일본 가요! 퍼레이드는 왕인박사의 도일 행적을 신명나 고 창의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축제의 소재와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음
 - 우수한 축제의 물리적 환경구비와 운영 인력
 - 주무대인 왕인박사 유적지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보조무대인 구림마을과 상대포 역 사공원이 주무대와 기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동선 구성이 매우 편리한 등 전반적인 축 제운영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안내 및 안전요원이 축제장 곳곳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안내요원도 적절하게 배치되고 있었음
- 축제 홍보 등 관광객 유치활동의 적극성
 - 서울 명동과 광주 충장로 등지의 홍보 캠페인을 비롯하여 서울 지하철의 홍보영상 등 축제홍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이로 인해 본 축제는 외지관광객 비율과 축제 참여 목적의 방문자가 다른 축제에 비해 높은 등 축제 홍보 효과를 보이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소재에 비해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부족
 - 왕인박사라는 인물은 본 축제만의 유일한 소재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토대로 연출된 퍼레이드는 국내의 역사문화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출요소로 차별성이 부족함
 - 또한 지속적으로 축제 프로그램 수를 늘려왔으나 축제소재가 가지는 한계성을 인해 다소 무겁고 딱딱하다는 평가가 많고, 여전히 다수의 프로그램이 주제 및 조제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음
- 주차 문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세심한 기획 필요
 - 우수한 접근성으로 인해 자가용 이용객이 많은데 비해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차량 정체 등이 발생해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였음. 향후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주차공간의 확보 및 주차문제 해결 필요
 - 대표 프로그램 운영상의 일부 미숙한 점이 발견되는 등 축제프로그램 운영상 세심한 준비와 기획이 필요해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프로그램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는 당시의 현실을 재현하여 흥미를 유발함 ○ 지역출신의 역사적 실존인물을 축제의 콘텐츠로 개발함으로써 다른 지역축제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차별성이 있었음 ○ 일본 아스카문화의 원조인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일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 ○ 축제장내에 “백제전통주막”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이는 역사인물축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음 ○ 일본에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떠났던 왕인박사 일행은 2백여 명으로 그중에는 대장장이, 오복사(五服師), 양주인(釀酒人), 도기공 등이 포함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의 기술은 오늘날 사케, 자기, 의복 등 일본의 대표적인 생활문화의 밑거름이 됐기에 이들에 대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함 ○ 강풍 및 비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이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므로 향후 사전일기예보를 통해 먼밀한 악천후 대비 프로그램운영전략 수립이 필요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간 중 우천에 대비하여 축제장내 시설물 안전조치와 관광객 주요 이동로에 “야자매트” 설치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 ○ 축제기간동안 영암버스터미널~축제장 구간 일반버스 운행 횟수 늘림으로써 관광객 대중교통 이용에 큰 도움 - 구립초교~독천으로 이어지는 군도를 축제기간동안 일방통행으로 운영함으로써 교통 혼잡 해소 ○ 성담방면에 열쭈, 택견시범 공연 등의 프로그램 배치는 왕인박사 유적지의 공간효율성 높이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음 ○ 2017년도 축제기간 중 구립마을에서 운영되었던 ‘구립마을 벚꽃열차투어’를 올해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되지 않아 구립마을, 도기박물관, 상대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관광이 다소 위축되었으므로 이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 ○ 왕인박사가 일본으로 떠난 날은 음력 3월초로 되어있는 것을 감안해 벚꽃개화시기를 예측해 유동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사료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축제의 킬러 콘텐츠라 할 수 있는 “왕인박사 일본가요!”는 메인행사장에서 상대포 역사공원까지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읍면단위의 지역주민들이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였을뿐만 아니라 환송 퍼포먼스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참여하여 참여형 축제의 성공모델이 되었음 ○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왕인문화축제에 대한 자부심 고양시킴 ○ 축제 추진주체가 지속적으로 기획, 운영을 맡아와서 관리의 안정성 및 축제 발전의 잠재성이 돋보임 ○ 향토음식판매관의 메뉴를 보면 거의 동일하고 타지방에서도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주인 것을 감안할 때 영암 특유의 먹거리 개발 필요 ○ 왕인문화축제는 역사문화축제이므로 축제를 통한 특산물 판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왕인박사 관련 캐릭터 상품개발, 문구류 상품개발 등을 통해 축제로 인한 부가적인 경제유발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함 ○ 왕인문화축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한 노력이 절실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인근의 왕인박사유적지는 축제주체의 역사성은 물론 왕인관련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사실감 제고에 도움을 줌 ○ 축제기간이 농산물 출하시기가 아니었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함으로써 왕인문화축제가 지역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음 ○ 왕인문화축제는 역사문화축제이므로 특산물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형 축제에 비해 직접적 지역경제파급 효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인물축제의 일반적인 특징인 관람형, 교육형 콘텐츠를 체험형으로 전환하여 관광매력성을 제고해 나가야 함 ○ 2017년도 축제기간 중 구림마을에서 운영되었던 ‘구림마을 벚꽃열차투어’를 올해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되지 않아 구림마을, 도기박물관, 상대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관광이 다소 위축되었으므로 이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왕인문화축제에서는 연예인 동원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비해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문화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였음 ○ 과도한 의례행사나 식순이 포함되지 않아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왕인문화축제는 역사인물축제이므로 교육적인 내용이 프로그램에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참여프로그램이나 놀이문화로 이를 대치할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33

목포항구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10월 5일(금) ~ 10월 7일 / 3일간
- 장소 : 목포항 및 삼학도 일원
- 주최 : 목포시
- 주관 :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 프로그램 : 파시(박경리 ‘파시’ 연출극, 어생 그랜드 세일, 선상 파시경매, 파시 수랏간, 어물전 난장, 一黑三白 체험·판매존, 파시 퍼레이드 ‘풍어파시길놀이’, 목포항 낭만열차
 - 공연 프로그램 : 박경리 ‘파시’연출극, 프린즈 페스티벌, 목포항 ‘바다콘서트’, 시립예술 아트페어, 이수무용단 ‘춤이있는 가을바다’
 - 경연 프로그램 :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2018 서남권 다문화가족축제, 예향남도 시군 여성단체 문화교류, 시민 열창대회 ‘나는 가수다’, 목포 청소년 페스티벌
 -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 : 평창올림픽 로봇물고기 체험, 목포항 요트승선 체험, 구이터, 회터존, 낭만정원 및 도깨비의 목화체험, 가을바다 해상(카누, 카약 등) 체험, 맨손 전어 잡기체험, 물고기등 터널 전시, 청춘창업 1879과 함께
 - 부대 프로그램 : 제27회 목포전국사진촬영대회,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연계 전시, 평화광장 갈치낚시 행사, 수목비엔날레 연계 기획·전시,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연계 전시, 춤추는 바다분수 특별연출

(2) 총평

- 잘된 점
 -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당초 3일간의 행사가 1일로 압축되어 진행되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취소가 불가피하였음에도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 목포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목포항은 인지도 높아 관광 접근성은 탁월한 편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낭만항구와 신명이라는 주제에 맞는 코어콘텐츠 개발과 참신한 기획이 필요해 보임
- 핵심적이고 주제와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 등 재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시 경매를 대표프로그램으로 강조함. 전통 돛을 설치한 어선에서 진행되는 선상 파시경매 및 중매인체험이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5시 반부터 1시간 가량 선상에서 실시하였으며 이는 수산물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활어경매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축제의 주제와 항구의 특징이 비교적 잘 반영된 대표프로그램임 ○ 목포의 유일한 축제로 항구도시 목포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준비를 했으나 태풍으로 인한 일정 축소로 아쉬움이 많음 ○ 파시 경매, 고 이난영님을 기리는 ‘나도 가수왕’등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가 눈에 띄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타 지역 축제와 내용이 비슷한 것이 흠 ○ 선상에서 전개하는 파시경매는 특이성과 주제성이 높으나 조석으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므로 1회에 그치고 80여 명의 참가자 제한이 있음 ○ 파시경매의 경우 선상(바지선)에서 진행되다 보니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어려워 보였음. 생선경매와 함께 건어물 시장을 활용한 건어물 경매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안전요원이 곳곳에 배치되어 교통과 주차안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소방, 의료시설을 잘 대기시켜 놓았음) ○ 25호 태풍에 의한 피해우려로 개최일 5일과 6일 휴장함. 위험요인 대비 휴장으로 피해 회피 대응 우수 ○ 목포항은 축제의 주제를 잘 반영하며 수산시장이 인접하여 소비지출 유도측면에서 양호한 장소설정 ○ 항만이므로 추락. 입수 방지를 위한 펜스설치, 프로그램 부스 등이 부두와 해변 점점지점에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장소의 유리한 점이라 할 수 있는 해변풍광 조망은 불편함 ○ 축제진행 종사자는 대행사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와 관내 중고생 자원봉사자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 전 간략한 임무설명 외 심화교육부재로 숙련성과 전문성은 낮은 편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등 터널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물고기 모양 등 설치. 30여명의 노인이 연간 1천 여 개 제작함. 축제와 주민일자리창출 연계의 좋은 사례 ○ 프린지 무대에 참여하는 16개 팀은 관내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재능기부로 참여함. 수천만원에 달하는 섭외비용의 절감효과

평가항목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놀이 및 향구올림픽 등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해 기획되었고 경연프로그램들은 나름의 재미 요소가 있었음 ○ 목포9미 향토식당은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먹을거리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았음 ○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려면 도시의 장점을 모아, 일정 시기를 잡아 도시 전체를 축제장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 함 ○ 장기적인 축제의 재정 자립을 위한 유료화 등을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 선정과 관객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획이 필요해 보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시가 성행한 지역으로 문화유산을 축제의 주요소재로 설정함으로써 고유성과 독창성 현저함 ○ 수입구조는 없으나 예산절감과 현물협찬을 통한 재정확충이 있음. 기관과 기업 등에서 자체비용으로 사인 및 플래카드, 홍보구조물 등 제작. 설치함. 은행과 병원, 해운사 등에서 참여했으며 약 4천 만원 가량의 예산절감 ○ 축제기획은 대행사와 목포시청 주관부서에서 협업함. 관직의 특성상 보직이동과 공모에 의해 대행사는 매해 변동되므로 축제기획의 지속성은 불안한 편 ○ 축제추진 주체는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로 2년 임기로 40여 명의 직능별 인사로 구성됨. 비상설 단체로 재정자립을 위한 수입활동 제한적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대표프로그램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었음. 전체예산의 30% 가량이 수상과시경매무대에 지출되어 대표프로그램에 상응하는 규모와 비중을 확보함 ○ 축제장 진입로는 공공장소의 특성상 개방적임. 그러나 북측 주요출입구 1곳에 안내소 설치되어 여러 방향에서 진입하는 방문객에게 충분한 축제안내 제공하지 못함

34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4월 28일(토) ~ 5월 7일(월) / 10일간
- 장소 :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문경읍 온천지구, 점촌 문화의 거리
- 주최 : 문경시
- 주관 : (재)문경축제조직위원회, 문경전통찻사발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 : 선조사기장추모헌다례, 개막식, 시상식
 - 알찬행사 : 입장권 경품추첨, 축제후기공모전, 야간프로그램(2018 별이 빛나는 신북천, 점촌 夜밤에 한사발), 봉암사 순례탐방, 시민의 날, 농특산물 판매
 - 기획전시 : 자매도시(이성시)초청전, 일본 후쿠오카도예 명인전, 대한민국 도예명장 특별전, 문경전통도자기 명품전,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어린이 사기장전, 축제 20주년 기념관
 - 공연 : 주무대공연(지역예술단체 공연, 시민의날 지역민 장기자랑, 코믹 저글리 공연, 벌룬 매직 공연), 거리공연(변방의 북소리, 문돌이를 잡아라)
 - 특별행사 : 사기장이 들려주는 찻사발 이야기, 문경전통 발물레 경진대회, 아름다운 찻자리 한마당, 전국가루차 투다 대회, 전국차회다례시연, 찻사발 경매, 찻사발 역사강연, 축제 20주년 기념 핸드프린팅
 - 체험행사 : 사기장의 하루 체험, 찻사발 빚기, 찻사발 그림그리기, 망댕이 가마 불지피기, 흙속의 구슬찾기, 다례체험, 한복체험, 망각의 찻집, 차담이 어드벤처, 북오나라 소원찻사발, 흙테마놀이터, 용상체험

(2) 총 평

- 잘된 점
 - 지역특성을 잘 드러내는 축제소재와 성공적 축제 운영
 - 축제 개최의 목적이 문경 전통 장작 가마를 사용하는 도예인들이 참가하는 축제로서 본 축제를 통하여 지역도자 문화를 계승발전하고 도자문화 브랜드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있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전체적으로 축제목적에 맞게 기획과 콘텐츠의 구성은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축제소재와 어울리는 축제장 환경구성과 장소 선정
 - 축제가 열리는 문경새재 야외공연장과 오픈세트장은 축제의 소재 부합성 측면에서 볼 때 방문객으로 하여금 진성성과 주제와의 일치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되어짐
 - 또한 축제장 공간을 주제별로 공간구분 및 동선관리가 잘 이루어져 있어 방문객들의 축제관람을 배려한 점은 높이 평가됨
- 우수한 매체별 홍보전략과 외국인 관광객 대응체계
 - 매체별 홍보전략이 잘 구성되어 있으며 문경새재 아리랑 플래시몹을 활용한 대도시 홍보 등 찾아가는 홍보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SNS 홍보가 잘 진행되었음
 - 또한 전담여행사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국인 편의시설 구축, 외국인 안내체계 등 외국인 관광객 대응체계가 비교적 잘 추진되었음
- 민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성공적 축제 운영
 - 본 축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가마 찻사발 도예인 등이 중심이 축제라는 점에서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이 있고 문경시의 지속적인 축제 발전 노력을 통해 매년 축제규모나 프로그램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음
 - 특히 문경시는 재단설립을 통해 축제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축제추진주체의 체계화 정도에 있어서도 높게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전시 중심의 축제프로그램 구성
 - 대표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나 이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이 전통찻사발 전시라고 생각될 만큼 공간구성이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시판매 행사로 오해할 소지도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대표 프로그램의 놀이성과 몰입성 강화 전략 필요
 - 대표프로그램인 사기장의 하루 체험과 망각의 찻집은 축제 주제와의 부합성은 높으나 프로그램의 놀이성과 재미성이 강력하지 않아 대표프로그램으로서 방문객을 강력하게 흡인할 수 있는 몰입성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전통찻사발을 일반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설과 설명의 강화 필요
 - 전통찻사발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이 없어 찻사발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해설사 또는 도예인 자원봉사자를 통한 해설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도예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대동성의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축제조직위나 프로그램 구성이 대부분 도예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축제로 오해할 수도 있어 일반 지역주민의 축제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경찾사발축제는 전통 장작가마를 사용해 생산되는 “찾사발”을 주제로 하고 있어 타 도자기축제와는 주제의 차별성이 있음 ○ 2017년 대표프로그램이 사기장의 하루체험과 망각의 찻집이었으나, 2018년에는 사기장의 하루체험과 찾사발 경매로 변경했음. 특히 2017년도에는 찾사발 경매를 이벤트 행사로 진행한 반면 2018년도에는 대표프로그램으로 격상시켜 축제의 핵심콘텐츠인 찾사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함 ○ 또한 2017년 축제 자체평가와 축제평가위원 의견반영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등 축제기획의도가 명확히 반영된 축제기획을 통해 축제의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됨 ○ 찾사발축제의 주요 방문계층(target market)에 대한 고려 및 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함. 일반 축제 방문객을 위한 양질의 체험프로그램은 충실히 준비되어 있는 반면, 고가의 찻사발 및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계층과 작가와 교류를 원하는 계층을 위한 품격 있고 작품성 높은 행사프로그램(기획전시)은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을 재현한 오픈세트장을 축제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전통 찻사발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며 장소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우천시 등 기상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였음 - 특히 한옥별로 각 도자기 작가(업체)의 독립된 전시판매장을 배치하여 각각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한 점, 여행객들이 골목골목 한옥마을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하고 배너 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점이 인상적임 ○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의 축제장은 사극 세트장과 축제콘텐츠의 조화라는 점에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여건을 가진 축제라고 사료됨. 또한 매년 축제를 거듭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프로그램 별 축제장 구성도 올해가 가장 좋았던 것으로 보임 ○ 문경세재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거리가 있어 노약자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중간지점에 농산물 판매장과 참여명장들의 배너를 배치하는 등 불거리를 제공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으나, 정작 가족 방문객이 집중된 5월5일은 혼잡을 우려 전동차 운행을 하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음 ○ 찻사발 전시공간이 매년 작가별로 다르게 배치되기는 하나 장소만 달리할 뿐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축제방문객으로 하여금 신기성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찻사발 명장들의 축제참여가 매우 적극적이며, 축제 방문객과 교류하려는 의지가 높았음. 이러한 참여를 이끌어낸 '문경전통찻사발축제추진위원회'의 안정적인 리더십이 돋보였음 ○ 국제행사의 축소, 지역 차인단체의 다례행사 확대 등 축제 개최 20주년을 맞아 축제의 외형을 키우기보다 축제를 통한 수익 증대, 도예인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내실 있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음 ○ 축제 조직위원회의 상설조직화로 축제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확보 ○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는 주민주도의 조직위원회, 그리고 축제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을 통해 축제추진추진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됨 ○ 도예인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도예인 부스별로 전시 판매하는 것과 별도로 일반 사람들이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찻사발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을 조합원 구성원이 다함께 축제장에 마련하여 판매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도 충분히 축제의 재립도 향상을 위해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됨 ○ 축제에 참여하는 도예인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경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문경찻사발 축제의 핵심전략은 지속가능한 축제, 도예인 중심축제, 방문객 및 실수요자를 겨냥한 프로그램 개발, 찻사발의 브랜드 가치 제고로 삼고 있음. 2018년도까지는 단순 전시 중심의 축제느낌이 강했으나 올해는 전시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체험 및 공연프로그램을 많이 강화했으며, 특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국 차회단체 등을 겨냥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축제의 내실화 강화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 20년 동안 “찻사발”에 집중하여 축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축제 개최를 계기로 지역 고유의 도자문화를 계승하여 산업(금년 36개 지역 전통요 참여)으로 육성하였음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공연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공연장의 위치도 주요 전시판매장과 분리하여 조용하고 차분한 찻사발축제장 분위기를 연출한 점은 높이 평가함 ○ 찻사발의 진정한 모습은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닌 찻사발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를 체험하는 것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축제 운영 측면에서 세트장과 실제 제작 현장과의 다양한 접목을 시도하는 등 축제장과 문경 찻사발 제작 공방을 상호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세트장에서도 이를 보여주는 식으로의 전환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5

봉화은어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7월 28일(토) ~ 8월 4일(토) / 8일간
- 장소 : 봉화읍 체육공원/내성천일원
- 주최 : 봉화군
- 주관 : (사)봉화군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행사 : 제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반두잡이 어신선발대회, 제1회 전국 맨손잡이 팀 대항전, 내성천등등콘서트
 - 체험행사 : 은어잡이(반두·맨손), 야간 은어잡이, 숯불구이체험, 은어물난장놀이터, 내성천 워터워, 내성천 아르고체험, 어린이 놀이동산, 수상놀이기구, 다슬기잡기 체험, 은어를 만나고 자연을 꿈꾸다!(자연사랑창의예술체험), 은어낚시존 운영 등
 - 참여행사 : 봉화인 한마당, 군민 은어소원등 달기
 - 공연행사 : 개·폐막공연, 2018내성천등등콘서트(6가지 공연), 창작뮤지컬 ‘이몽룡’, 버스킹공연(축제장내·외)
 - 전시행사 : 은어학교 운영, 은어축제 20주년 기념공원, 트릭아트 포토존, 야간경관조명 등
 - 연계행사 : KBS전국노래자랑, 전국생활체육검도대회, 가재마을체험, 가족건강걷기, 문화유적탐방 버스투어, 오락가락가요제(봉화·춘양)

(2) 총 평

- 잘된 점
 - 지역이미지와 부합하는 축제 테마 선정
 - 봉화군의 청정이미지와 봉화 은어라는 테마를 통해 자연공존형 축제, 청정지역의 이미지로 지역마케팅을 이루어냄으로써 새로운 지역브랜드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됨
 - 단순하고 명료한 축제의 체험속성을 드러낸 프로그램 구성
 - 은어잡이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체험콘텐츠를 만디, 맨손잡이 등 다양한 체험적 요소로

해석하여 프로그램화시킴으로써 축제의 체험적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음

- 특히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께 어우러져 체험할 수 있게 한 것은 함께 하는 축제로서 프로그램 기획이 잘 이루어진 부분임
- 가족체험형 축제로서 우수한 공간 선정과 구성
 - 전년도 축제에 비해 축제장의 면적을 확장하여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족형 축제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함
- 축제를 통한 새로운 지역이미지 및 브랜드 확립 가능성 확인
 -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봉화군은 청정환경과 자연 이외에는 지역발전 동인이 없는 전형적인 낙후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은어축제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지역 인지도 상승 및 축제도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 요소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 주제와 부합하는 프로그램 발굴과 기획 필요
 - 예년에 비해 축제주제와 무관한 프로그램은 지양했지만 여전히 은어와 관련성이 부족해 보이는 프로그램이 많아 환경과 은어의 컨셉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향후에는 은어라는 환경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제의 명확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공간구성 및 운영의 효율화 필요
 -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 내성천변에 쉼터를 설치하였으나 판매 및 체험시설과 구분되지 않아 혼잡스럽고 어수선했던 점이 있어 편의시설 배치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축제장 공간디자인의 상징화, 명료한 환경구성 등 공간디자인 측면에서 시각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은어를 상징화하는 디자인을 기본으로 공간디자인의 차별화가 필요해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화군은 은어잡이 체험을 대표프로그램으로 하는 축제 개최를 통하여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발전에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음 ○ 은어반두잡이, 은어맨손잡이는 은어를 주제로하는 대표 놀이프로그램으로서 축제의 주제성과 차별성이 매우 명확하였으며, 관광객의 흥미유발을 이끌어 내는데 충분하였음 ○ 전국반두잡이 어신선발대회를 축제기간 중 예선전의 추가진행과 최종 결승전에서 승패를 겨룰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면 축제 방문객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대회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반두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지역 특색 문화자원으로 이몽룡 뮤지컬이 있는데, 축제 기간에 다 열리지 못해 관람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어반두잡이, 맨손잡이, 야간 반두잡이 등의 체험프로그램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선 설치 부표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안전관리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에 잘 대응하고 있었음 ○ 내성천을 무대로 낮과 밤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메인인데,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요원 배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며, 또한 주변 특산물 행사장에서도 음주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 점은 매우 긍정적임 ○ 내성천 터널 개통을 통하여 시내와 내성천 축제장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은어잡이 전 잠시 쉴 수 있도록 평상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자가 고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은어손질, 은어구이와 튀김을 위한 공간과 동선 운영이 너무 복잡하고 어수선했으며, 이로 인하여 동선이 막히고 꼬이는 현상과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서비스로 인하여 불만이 생기는 형상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아울러 쾌적한 공간 환경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어반두잡이, 은어맨손잡이의 입장료 징수를 함에 있어서 동시에 일부금액을 봉화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환불 정책을 펼침으로써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 ○ 모두 9개의 유료 체험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은어 반두, 맨손잡이 체험 후 활동과 개인 노력에 따라 은어 잡이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됨 ○ 체류관광객 증대를 위한 축제장 대여텐트촌 확대 및 관내 숙박객 야간반두잡이 할인, 야간 무료체험 및 야간 수변무대공연 시행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 ○ 축제의 리플렛이나 축제 행사장 대부분의 부스 및 식당메뉴 등에 외국어 표기가 없었음. 봉화 은어축제의 외국인 수용대세가 부족해 보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체험마을 및 수박재배 농가를 연계하여 축제기간 동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관광객을 대상으로 수박서리 및 삼굿구이 체험을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농촌체험을 통한 감성교육과 부모님 세대의 추억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연계행사를 통하여 좋은 호응과 평가를 받았음 ○ 은어와 관련된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의 주민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은어를 양식업체로부터 구입해서 판매하지만, 인기 있는 먹거리가 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색 먹거리로 한약우와 송이요리가 있는데, 행사기간에 판매되고 있음 ○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물품보관소, 반두 및 맨손잡이체험장 등에서 진행을 도움으로써 성공적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주제와 무관한 프로그램의 운영, 연예인에 의존한 프로그램 및 식순에 의한 의례행사의 과도함이 없었음 ○ 개막식 행사와 더불어 진행된 불꽃놀이 행사도 과하지 않았으며, 드론을 이용한 개막식을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음 ○ 현지 특산물로 약우와 송이버섯 그리고 은어 관련 판매 등이 봉화 주민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찰되지만, 기본적인 농산물(각종 과일, 야채 등)의 판매가 잘 이루어져야 주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나 판매 기법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함

36

고령대가야체험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4월 12일(목) ~ 4월 15일(일) / 4일간
- 장소 : 대가야박물관, 테마관광지, 문화누리 등 대가야읍 일원
- 주최 : 고령군
- 주관 : (사)고령군관광협의회
- 주요행사
 - 체험프로그램
 - 가야국 : 가야문화권협의회 시·군 홍보부스 및 가야 주제관 운영 등, 가야문화권협의회 시·군 공연
 - 게임존 : 앱 게임 ‘도전! 가야 최고의 레전드’ 운영
 - 공연존 : 주요공연(퍼레이드 ‘가야의 통합’ 거리행진), 공연프로그램(뮤지컬 ‘가얏고’, 스트리트 뮤지컬, 인형극, 마당극)
 - 프로그램존 : 가얏고 존(가야금 리듬게임, 가야금 제작체험), 용사 존(대가야 활 제작 체험, 대가야 칼 제작 체험, 대가야 투구 및 갑옷 제작 체험, 대가야 방패 제작 체험), 토기 존(점토성형 체험, 대가야 토기 제작 체험), 생활 존(바비큐 체험, 대가야 복식 체험), 철기 존(대장간 체험), 예술 존(대가야 금동관 제작 체험, 대가야 귀면화 제작 체험), 문화 존(대가야 순장체험)
 - 농촌·전통문화 체험 : 딸기수확 체험, 녹색 농촌마을 체험, 녹색테마생태관 체험, 가족 사랑 딸기 이벤트
 - 고분군 야간트래킹 : 백등과 함께하는 야간 트래킹
 - 연계·부대행사
 - 연계행사(10) : 가야사 국제학술대회, 제18회 대가야왕릉제, 고령군민 노래자랑, 제39회 악성우룩추모제, 상가활성화 시장축제, 제10회 매운당 이조년 선생 추모 전국백일장, 뮤지컬 ‘가얏고’ 공연, 금관기 게이트볼 대회, 전국 모토크로스 대회, 제13회 전국화랑기 무예 대회
 - 부대행사(7) :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대가야박물관 기획특별전, 대가야 고상가옥생활체험, 축제장 소규모 공연(오픈무대), 마당극 ‘대가야 환타지아’ 공연, 인형극 ‘호랑이 부인과 대가야 사또’ 공연, 세계 ‘현’ 페스티벌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기획의 명료성
 - 2018 고령대가야체험축제는 대가야 시대의 특징적인 역사문화적 요소인 건국설화, 토기, 철기, 무기류, 의식주, 순장문화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을 축제의 핵심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하고 있어 축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성공하였음
- 축제장 장소성 확보와 우수한 축제공간 활용
 -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와 대가야박물관 일원을 축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가야체험축제의 주제체험을 강화하는 장소성을 확보하고 있음
 - 축제장을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박물관 앞 광장, 문화누리 일원 등 3개 지역으로 확장하고 축제공간의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축제공간의 활용성을 높였음. 특히 역사체험존으로 구성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는 체험을 몇 개의 존으로 구분하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체험프로그램을 군집화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의 축제참여와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 축제 홍보 등 적극적 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
 -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언론홍보 외에 축제홈페이지 운영, 웹진 제작, 축제웹툰 및 포스트 제작, SNS 홍보, 블로그 마케팅 등 온라인홍보마케팅 활동 전개
- 고령군 관광협의회 등 민간중심의 축제 기획과 운영
 -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계기로 고령군 관광협의회가 처음으로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맡아 민간주도로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함. 향후 관광협의회는 민간주도 관광전문조직으로서 향후 축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파급효과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표프로그램의 차별성 부족
 - 역사체험 프로그램의 수는 많으나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규모, 참여인원 등을 고려할 때, 축제의 주제성을 반영하고 축제의 대표이미지를 형성하며 대다수 방문객들의 축제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으로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대가야 건국신화를 소재로 한 퍼레이드를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구성이나 연출, 규모 측면에서 대표 프로그램 경쟁력을 부족해 보임
 -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앞 연못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수상무대에서 실경뮤지컬로 초연된 ‘가얏고’는 전통음악과 현대적 뮤지컬 어법의 조화속에 담긴 작품으로서 고령대가야 체험축

제를 대표하는 공연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 만큼 지속적 육성이 필요해 보임

○ 축제공간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 축제공간이 확장됨에 따른 공간동선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간의 연계성이나 축제공간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축제동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방문객들의 축제 참여가 일부 공간에 한정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특히 축제과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축제공간을 일부 읍내까지 확장했으나 이에 따른 일부 불만과 불편도 제기되고 있어 불편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 축제 운영인력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보급 필요성

- 축제장에 배치된 일부 안내요원 및 진행요원이 축제장의 배치나 프로그램 진행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운영체계화가 부족하여 축제참여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축제장 운영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축제장내 일부 음식점은 가격 대비 부실한 음식물 제공, 불친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상인 및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프로그램의 이원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을 활용한 모바일 앱 게임을 개발하여 체험하도록 하고 ‘뮤지컬 가얏고’를 공연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보여줌 - 다만, 기존 야외에서 실시하던 뮤지컬을 실내 공연장에서 공연한 것은 다소 아쉬움 ○ 최고의 스토리형 축제 컨셉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가야라는 명확한 역사적 이야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 스토리텔링 및 스토리디자인을 할 경우 국내 최고의 스토리형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가야 유물에 대한 체험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야 유물에 대한 정보 습득 기회가 다소 부족함. 이에, 가야 유물에 대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이원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전용 축제장과 게임형 축제장을 이원화하여 흥미를 유발함. 다만, 사전 홍보를 통해 방문객이 사전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변대학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경대학교 등 주변지역 대학과 연계를 통해 진행요원을 모집하고 활동을 도모함 - 올해부터 공무원에 배제함으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함 ○ 여행사와 협약을 통한 모객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6대 권역 여행사와 협약을 통해 축제 홍보 및 모객 유치 - 1일 평균 100대 수준으로 방문(버스비 일부 지원)

평가항목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셔틀버스 운행의 효율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셔틀버스가 2개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셔틀버스 시간 명시 및 정거장 표지판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들의 셔틀버스 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우천시 고령시외버스터미널에서 셔틀버스 탑승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개발한 캐릭터 활용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앱 게임의 주인공인 캐릭터를 축제에 활용하는 부분이 미흡함. 대가야 축제의 주인공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대구대학교 등 인근 대학에 의뢰하여 축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수정/보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축제 전담기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계기로 '고령군 협의회'를 구성하여 축제 기획, 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인근 지역 거주민을 중심으로 방문하고 있으나 축제가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노력이 요구됨 - 기존 활용하고 있는 여행사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 문화관련 22개 시군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22개 시군이 축제에 참여하여 일부 부스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속적인 협력과 활성화 필요 ○ 박물관 등 기존 시설 최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가야문화누리관 등 기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축제 공간으로 활용함 ○ 체험의 연계성을 위한 스토리 디자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곳곳이 흥미로운 체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축제장 전체로 보았을 때는 서로 연계성이 미흡함. 이에 대가야라는 이야기와 캐릭터 등을 활용한 스토리 디자인을 재구성하여 이를 공간 배치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22개 가야문화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가야관련 콘텐츠가 부족하며 농산물 판매에 치중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프로그램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방문객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프로그램 및 행사는 없었음 ○ 우천 대비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 행사로 진행되다보니 우천시 일부 방문객들의 동선상에서 불편함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됨 ○ 공원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축제 계획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 대가야 축제장은 다른 축제장과는 달리 기존 체험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현재 축제의 체험거리 대부분은 공원방문객들이 상시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임 - 이에, 축제 프로그램 개발 시 상시 공원에서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별하여 공원 활성화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37

산청한방약초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9월 28일(금) ~ 10월 9일(화) / 12일간

■ 장소 : 산청IC입구 축제광장 및 동의보감촌

■ 주최 : 산청군

■ 주관 : 산청한방약초축제 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프로그램

- 주제관 : 한방진료 무료체험, 보약 공진당 만들기 체험, 재미있는 어린이 한의학 체험, 건강진단기기 및 가상현실 체험, (산청대표)약선음식 전시, 약선음식 관련 체험 및 약선음식 포토존, 산청 한방약초산업의 미래를 여는 관내 기업 참여,

- 약초판매장터 : 올바른 약초 달이기 체험, 기혈순환체조 운영, 유명 셰프 참여하는 약초·농산물 활용 요리·토크쇼, 요리사 지망생 참여 요리대회, 산청맥주와 공연·이벤트의 콜라보, 옛날 한약방 모습 재현, 전국 한의대생 대상 미래 허준 발굴, 마당극 '약초골 효자전', 마당극 '오작교 아리랑'

○ 기타주제 프로그램 : 관내 학생 참여 그림대회, 동의보감촌 구절초 등을 주제로 한 출사대회, 산청한의학박물관 특별전 '韓醫의 왕진가방'

○ 방문객 참여·체험프로그램

- 한방·약초 체험 : 약초체험, 대왕약탕기 한방 약차 체험, 어의·어녀복 체험, 약초향기주머니 만들기 체험, 약초화분만들기 체험, 한방약초죽옥 체험, 천연약초버블 체험, 동의보감 책만들기, 닥종이 인형만들기, 한방약초 천연염색 체험, 전통다례 체험

- 기타 홍보·체험 : 베리류 가공품 만들기 체험, 전통농주 홍보관, 산청수제맥주 체험, 산엔청 청정한우·청정돈 무료시식회, 향노화 기능성 누에 생태 체험, 페이스페인팅 체험, 짚풀공예 체험, 건강명심보감 쓰기체험, 전통민속놀이 체험, 지리산국립공원 홍보·체험관, 귀농·귀촌 상담소, 기후변화 홍보관, (주)경남향노화 홍보관

○ 차별화 프로그램 : 전국 향노화 실버 합창경연대회, 불교문화제전, 꿈나무 힐링 놀이마당, 평생학습 축제, 읍면대향 민속놀이 경연대회, 전통농주 터주대감 찾기, 우리농산물 홍보관, 산엔청 청정골 장터, 무명 베짜기 재현, 힐링산청 파이널 페스티벌

- 야간프로그램 외 : 개막식 및 식후 행사(개막식 퍼포먼스 및 개막 세리머니, 개막축하 열린음악회), 힐링산청 아마추어 팔도품바 대회, 기산국악제 공연, KBS 전국노래자랑, 축제와 함께하는 1박2일 힐링캠프, 동의보감촌 야간경관

(2) 총 평

■ 잘된 점

- 명확한 축제의 기획의도와 콘텐츠의 높은 주제 관련성
 - 산청군의 입지와 허준, 유이태 등과 관련한 역사성 및 전통성을 활용하여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축제기획의도가 명확함
 - 축제콘텐츠가 동의보감관, 향노화 & 아토피 체험관, 한의학 박물관, 산촌약초관 등에서 진해함으로써 주제 관련성이 높았음
 - 특히 2018년 축제 주제인 ‘향노화 & 아토피’와 관련한 콘텐츠를 강화하였고 아토피 관련 기업들의 참여와 지지도 높았음
- 약초 향기를 활용한 축제장 분위기 조성
 - 축제장 내부와 이동동선을 따라 약초 주머니를 설치 하여 축제장 곳곳에 약초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는 등 약초 향기를 활용하여 축제 정체성 강화하였음
- 지역특성을 활용한 축제로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음
 - 산청군의 특성상 1,000여종의 자생 약초와 많은 지역민들이 약초재배를 통한 소득 증대효과를 보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공감대 및 긍정적인 인식이 높고 자발적 참여도 높아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축제로 평가됨
 - 또한 2017년부터 민간에서 축제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 향후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등 축제 자립화 및 지속가능성이 높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주제 관련성이 낮은 콘텐츠 및 프로그램 다수 존재
 - 많은 예산이 투입된 특설무대 및 마당극장, 축제광장 등의 축제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축제의 주제와의 관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대표 프로그램의 대중성 강화 필요
 - 대표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헤민서 한방 무료 진료, 약초를 이용한 족욕체험, 약선 음식 체험 등이 시설 및 공간, 재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방문객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향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축제장 규모를 감안한 이동수단 확보 검토 필요

- 축제장의 규모가 넓고 많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으나 대부분 걸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무한케도 열차 및 다양한 이동시설의 검토가 필요함
- 약초 관련 먹거리 장터 확대 및 향토음식 상품 개발 필요
- 현재 고정식당형의 향토음식점이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시설의 한계 및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방문객들의 지역의 다양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므로 먹거리 장터의 확대 및 지역성이 높은 다양한 음식상품 개발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축제의 위상에 걸맞게 한방 및 약초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있었음 ○ 한방 및 약초와 관련된 것을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방문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용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칭찬할만한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 약초, 웰니스 등 지역의 독특한 콘텐츠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전반적으로 축제 기획력 우수 ○ 축제장 내부에 상설로 운영되는 약초장터, 한방약초연구원, 산청약초판매장 등과 축제기간에 임시로 가설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당 축제의 부대행사장으로 활용되는 동의보감촌의 주제성 및 탈일상성 등도 크게 돋보였음 ○ 주제관, 체험부스 등 방문객의 참여와 호응이 좋았으나 횡수가 제한적이고,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에 대기 시간이 길었던 점은 아쉬움 ○ 지리산 자락에 터를 잡은 산청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각종 약초들이 재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함. 비록 약초시장 부근에 약초화분을 전시하고는 있었으나 규모, 종류, 분위기 측면에서 아쉬웠음.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약초동산을 조성하여 관람코스도 활용한다면 당 축제의 정체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임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의 전반적인 안전도가 높았으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적절히 배제함 ○ 외지에서 축제장을 방문할 경우 산청IC를 통과하는 즉시 축제장이 나타날 정도로 접근성은 매우 우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축제장 인근에 상당히 큰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한 까닭에 주차 후 축제장으로 진입하는 동선도 양호하였음 ○ 주무대, 주제관, 체험장, 약초 판매장, 특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을 혼재하지 않고 명확히 공간을 구획하여 관람 편의를 제공한 점이 우수함 ○ 축제장 내에 있는 천막도 지역의 특색에 맞는 벚꽃색깔로 디자인하면서 좀 더 축제장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에 대한 방문객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피드백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음 ○ 약초, 특산물 판매장의 경우, 너무 밀집되어 있고 통로 폭이 넓지 않아, 방문객이 집중 시 이동 동선이 복잡하여 불편하였음 ○ 축제장 내부 동선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주출입구 양쪽에 전국팔도장터, 농특산물판매장터, 향토음식점 등을 집중 배치한 까닭에 약초의 신비로움을 기대하고 입장한 방문객들의 기대심리를 저하시켰음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을 통해 소비되는 축제장 내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산청의 힐링 이미지를 높이는 간접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당 축제로 인한 경제/사회/문화적 효과는 매우 높다고 봄 ○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애착이 매우 크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만한 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에 놓인 쓰레기통조차 축제의 이미지에 맞는 약탕기 형태로 만들어 놓는 센스가 돋보임 ○ 당 축제를 통해 산청군의 산업이 약초/한방/힐링 등으로 특화되었으며, 나아가 경상남도의 이웃 시군들까지 힐링을 주제로 한 관광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음 ○ 축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애착도 강하고, 성공적인 축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젊은 층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흠임 ○ 대부분 축제장이 이원화된 경우 상생보다는 공멸이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음. 그러나 당 축제는 연계행사장으로 쓰이는 동의보감촌 지역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특히 산청군 이외의 외지에서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산청에서 왜 한방이 유명한지를 동의보감촌에서 실감하도록 콘텐츠를 개발, 배치하기를 권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한방 및 약초를 끊임없이 다양한 소재(먹거리, 화장품, 의약품 등)로 개발하고 있으며, 축제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축제라고 할 수 있음 ○ 지역 특산물 거래가 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지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으로써 주제관에 배치된 한방진료체험을 비롯하여 한방약선관, 향노화체험 등의 주제성 및 방문객 반응이 매우 좋았음 ○ 체험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일부 프로그램의 유료화를 통한 축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필요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보감촌 역시 값비싼 콘텐츠보다는 평상시 운영하던 상설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따라서 방문객들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곳곳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있었음 ○ 축제를 찾은 많은 방문객들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38

통영한산대첩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8월 10일(금) ~ 8월 14일(화) / 5일간
- 장 소 : 문화마당 및 강구안 일원(통제영, 이순신공원 등 통영시 일원)
- 주 최 : 통영시
- 주 관 :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 주요행사
 - 대표행사 : 군점 및 이순신장군 행렬, 한산대첩 재현, 공중 한산해전
 - 주행사 : 고유제, 이순신장군 전통무예시연, 거북선 노젓기 대회, 이순신장군 바다 활쏘기 대회 및 체험,
 - 이순신학교 : 이순신체험학교, 승전고를 울려라!, 어린이 군점, 왜군 좀비와 싸워라!! & 버블쇼, 이순신 및 한산대첩 아동그림그리기 대회, 이순신 워터파크
 - 기획공연 : 통영한산대첩축제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이순신과 함께 놀자!!), 평화바다 음악회, 1318!! 통영의 꿈!!, 통영거북선음악회, 시민대동제 및 승전축하주막
 - 초청공연 : 자매도시 초청공연(과천시 국악협회), 명량대첩축제 교류공연(진도군 강강술래), 전통연희극 “한 여름의 도깨비 난장”
 - 특별행사 : 황금 거북선을 찾아라!!, 거북선 파이어판타지,
 - 전통예술공연 : 승전무 공연, 남해안별신굿 공연, 통영오광대 공연,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정기발표회, 통제영 시조창 한마당
 - 학술세미나
 - 체험마당 : 통제영 학당, 삼도수군통제영 탐방(통제영 역사보물찾기, 통제영 비석 및 현판 해설), 통영한산대첩축제 스탬프 투어, 거북선 얼음조각 퍼포먼스, 이순신의 여름 바다,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체험, 해군함정 및 해경함정(1005함) 공개행사 및 체험
 - 전시홍보마당 : 통영 농·특·수산물 전시홍보판매, 통영 먹거리 무료시식회, 2018 통영 나전칠기전시회, 한산대첩 축하 전국서예대전 작품전시회, 월남 참전 기록사진전, 해병대 장비 전시마당
 - 참여마당 : 젊음의 광장, DDD SHOW, 버블 코스프레 거리퍼레이드, 한산대첩 방송국, 이순신 책방, 찾아가는 책 읽는 버스, 통영 강구안 골목 프리마켓, 한산대첩 푸드트럭존,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식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 탄탄한 축제기획과 프로그램 구성
 - 본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과 위대한 한산대첩의 승전을 소재로 한 축제로서 이순신장군 행렬, 거북선 출정식 및 한산대첩 재현 등의 대표 프로그램을 주행사 및 특별행사, 기획공연, 전시·체험·참여 마당을 통해 교육적이면서 재미있게 기획하였음. 특히 프로그램 전반이 축제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으며 역사적·문화적·오락적 요소를 골고루 가미하여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추구해보려는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음
-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
 - 이순신장군의 행차 모습을 재현한 퍼레이드, 통제영 휘하 수군들의 군사점호, 그리고 한산해전의 출전에 앞서 수군들이 거행한 출정식 및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선과의 격전을 재현한 한산대첩 등 본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은 역사적 공간에서 장엄하고 웅장하게 재현되고 있으며 때로 교육적이면서 재미있게 연출하여 관람객의 높은 지지를 받았음
- 통영시 전역이 축제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활용이 우수함
 - 다수 프로그램은 주무대인 문화마당과 한산대첩 광장에서 진행되지만, 일부 개별 프로그램은 당포항, 이순신공원, 충렬사, 세병관, 제송당 등 통영시 전역에서 진행되는 등 통영시 전역이 축제장이라 할 정도로 공간 활용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체험마당, 참여마당, 먹거리장터 등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하고 부스 배치를 달리 구획함으로써 관람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문제 해결 필요성
 - 축제가 통영시 전역으로 분산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주무대를 중심으로 혼잡도와 주차난이 꽤 심각해 개선이 필요함. 차량증가로 인한 혼잡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로 문화마당 앞을 폐쇄하여 보행자 전용으로 하거나 중앙전통시장에서 SC제일은행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한산해전 출정식이 거행되는 당포항의 협소한 주차공간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음. 한 가지 대안으로 삼덕위탁공판장 측의 협조를 받아 출정식이 거행되는 2시간 동안이라도 관광객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 강구가 필요함
- 한산대첩 재현 관람공간인 이순신 공원 현장운영의 미숙함

- 한산대첩의 재현을 관람하는 이순신공원의 공간적 특성을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현장운영이 미숙해 관람객이 프로그램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문객들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축제를 관람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프로그램으로 한산대첩 재현, 공중 한산해전이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축제로 축제의 진정성을 나타내기에 매우 우수했다고 판단됨 ○ 통영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한산대첩 재현은 타 축제에서는 보기 힘든 장엄한 프로그램으로 차별성이 도드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북선, 어선 등이 동원돼 해상에서 학익진을 펼치는 모습등은 좋은 볼거리로 축제의 테마와도 어울림 ○ 공중 한산대전은 여름밤축제의 젊은층에게 큰 반응을 이끌었음. '왜군 쯤비와 싸워라' 등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보강한 점이 훌륭함 ○ 한산대첩 재현은 의미있고 좋은 볼거리였지만 이순신공원 언덕으로 이동한 참가객들만 제대로 볼수 있다는 점이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프로그램인 한산대첩 재현순간을 스크린을 통해 문화마당 메인무대나 시내 곳곳에 흩어진 축제의 현장에서 함께 관람할 수 있다면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순신 워터파크'라고 하는 곳은 축제의 진정성을 나타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진행 및 안내요원, 자원봉사자, 부스인력 등 자원봉사자의 교육,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해양소년단, 해병대 등 바다와 어울리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점이 흥미로웠음 ○ 축제장으로 활용되는 문화마당(강구안), 통영충렬사, 세병관, 이순신공원 등은 축제 주제와 프로그램의 조화, 프로그램 진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축제의 이미지화에 적절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 문화광장의 거북선을 축제장 입구로 구성하여 장소의 축제관련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세병관, 충렬사, 이순신공원 일대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을 통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였음 ○ 축제장까지 찾아가는 길에 통영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축제 현수막이 많았으나, 축제장까지 가는 버스에 "축제장 경유" 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산대첩 기념사업회'의 존재로 민간주도축제로서의 확실한 축제 운영 모델이 구축이 되어 축제의 발전가능성을 확보한 모범사례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행사장인 문화마당(강구안) 주변은 통영 특산물인 충무김밥, 꿀빵집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 ○ 대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어선과 인력 등이 다수 지원돼야 하는 데 시민들의 생업을 뒤로하고 축제를 지원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무료 시식회 등 통영의 먹거리 등을 소개한 부스도 인기 높았음. 참가객들이 중앙시장, 동피랑 등 인근 관광지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통영관광에 어울려 이바지 함 ○ 한산대첩축제는 역사 인물 축제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순신 캐릭터 상품 및 한산대첩 관련 판매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축제장 내 쇼핑할 곳이 한정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제는 제57회로 역사적 우수성은 물론 이순신장군 행력, 공중 한산해전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충무공 이순신의 고장으로 이미지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답게 통영의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충무공의 위대한 승리 한산대첩을 기념하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깊었음 ○ 역사인물축제로 다소 딱딱할 수 있으나, 이번 축제는 ‘이순신과 놀자’의 주제로 좀 더 친근한 컨셉으로 느껴짐 ○ 강구안 골목 등을 청년들의 벼룩시장 등으로 활용한 점도 통영의 골목을 알리고 잘 이용했다는 점에서 도드라짐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순신 장군 테마의 최대축제로 대표 프로그램 등이 인상적임. 연예인 등을 동원한 의례적인 프로그램이 없고 자체프로그램이 다수였던 점도 훌륭함 ○ 날씨를 감안해 프로그램 등이 적혀 있는 부채 등을 나눠준 것 등은 실용적임. 거북선 만들기 등 테마와 어우러진 가족용 소프로그램을 갖춘 것도 즐거움을 선사함 ○ 세병관 등 유적을 무료개방하고 공방 등을 곳곳에 배치해 통영의 전통체험을 가능하게 한 것도 인상깊었음. 단 유용한 프로그램이 메인무대에도 함께 했으면 하는 홍보와 배려가 아쉬움

39

밀양아리랑대축제

(1) 개요

- 기간 : 2018년 5월 17일(목) ~ 5월 20일(일) / 4일간
- 장소 : 영남루 및 밀양강변 일원
- 주최 : 밀양시
- 주관 : (재)밀양문화재단
- 주요행사
 - 대표프로그램(3) : 밀양강 오딧세이, 국민대통합아리랑, 역사맞이 거리 퍼레이드
 - 주제형 프로그램(8) : 아리랑 주제관, 아리랑 주제공연, 밀양아리랑 경창대회, 밀양아리랑 학술대회, 아리랑 체험존, 소망기원등, 아리랑 캘리그래피, 아리랑 거리예술공연
 -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14) : 아랑규수선발대회·제향, 불씨채화, 고유제, 무형문화재 축제, 농악경진대회, 3대 인물 테마존 M.A.P-C, 밀양 역사탐방, 스탬프 투어, 전통놀이, 수상 체험존, 농업&먹거리 상상관, 미량초우 브랜드홍보관, 밀양 은어잡기·시식체험, 해천뮤직페스티벌, 읍면동 한마당 축제, 서막식, 폐막식, 프린지 콘서트, 전시·홍보체험관, 아리랑문화의 거리, 먹거리존, 수상별론 전시, 기념품 판매, 경품 추첨
 - 동시 프로그램(12) :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전국밀양아리랑연극제, 전국한글백일장, 전국취화대회, 전국한시백일장, 영남궁도대회, 전국 연날리기 대회, 밀양민속씨름대회, 밀양아리랑 가요제, 출향인 고향의 밤, 수학체험 어드벤처

(2) 총평

- 잘된 점
 - 명확한 축제 기획의도와 주제 관련성
 - 지역의 전통예술문화자원인 아리랑을 주제로 기획된 행사라는 점에서 축제의 기획의도가 명확했고 프로그램 전반의 주제 관련성도 있었음. 특히 축제프로그램 전반에서 ‘아리랑’을 주제로 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도 연계시키고 있음
 - 축제장 구성과 물적 현장운영의 우수성
 - 도심에서 축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축제장의 통제정도가 좋았고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실경 오딧세이의 배경을 지역의 대표 문화재인 ‘영남루’를 배경으로 한 점은 좋았음

- 또한 행사장을 영남루, 송림 및 밀양강변 등 기존의 시설물을 충분히 활용하였고 각 구획을 설정하여 특성을 잘 살려 운영한 점도 좋았음
- 지자체의 육성 의지와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 지자체의 축제 육성 의지가 매우 강하고, 밀양문화재단 등 축제전문조직을 중심으로 축제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 등 축제의 미래발전 가능성은 밝다고 볼 수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표프로그램 ‘밀양강 오딧세이’ 콘텐츠 개선 필요
 - 대표프로그램인 실경공연 ‘밀양강 오딧세이’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기는 하나 관광객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스토리가 나열식으로 전개되어 관광객 몰입도가 낮아 프로그램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밀양 아리랑 대축제의 주제관도 정체성이 부족해 향후 축제에서는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부족한 지역외 축제 홍보 및 관광객 유치 활동
 - 지역내 홍보는 밀양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권역별, 매체별 유치활동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지역내 숙박 등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도 부족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양강 오딧세이는 밀양강, 남원루 등의 풍광과 어우러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형상화한 점이 돋보임. 60년의 노하우가 반영된 대표 프로그램이었고 축제 참가자들의 반응도 좋았음 ○ 축제대표프로그램이 ‘밀양강 오딧세이’는 시민배우 1,500여명이 참여한 야간멀티미디어 쇼로 실경공연으로 타축제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임 ○ 올해는 아리랑 주제관을 설치해 참가자들이 직접 아리랑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편리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아리랑을 가깝게 접할 수 있었고 아리랑과 연관된 체험 프로그램들을 발굴한 점도 눈에 띄어 ○ 축제장에서 아리랑을 더 많이 보고 느끼고 싶은 외부참가자들에게는 축제 분위기, 프로그램 등에서 아쉬움이 드러남. 섬세한 콘텐츠들에서 축제의 주제에 부합되는 사항들을 더 보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간 중 구급차, 안전요원 배치 등 비교적 관리 및 운영이 잘 되고 있었음 ○ 전년대비 축제장의 공간구성이 우수하였으며 편의시설배치(화장실, 쉼터등)가 확대되어 방문객 편의성을 제고하였음 ○ 밀양역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도보이용객 및 타지역여행객들에게 편의 제공 ○ 축제장을 중심으로 풍물시장, 전시 체험 존, 문화의 거리 등이 골고루 분산돼 있어 축제장에 오랜 시간 머물며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었음. 술숲이 어우러진 밀양강변도 한낮의 더위를 피해 축제를 즐기기에 좋음 ○ 야간 공연 전후로 안전상에 큰 취약점이 있었음. 특히 뚝방길 메인 진입로 일대와 푸드트럭이 조성 지역은 경사로와 이어져 큰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무대공연을 위해 설치된 객석 쪽 시설물등에도 별도의 안전펜스가 없어 위험이 뒷따름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양문화재단내 축제팀을 신규설치 운영함으로써 축제운영의 지속성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지역대학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꾸며낸 패션쇼 및 뮤지컬 무대로 기존 아리랑 주제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과 비교적 젊은세대도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콘텐츠 확보 및 제공 가능 ○ 다채로운 먹거리 부스가 돋보임. 지역 특산물을 시식하고 홍보하는 코너가 좋으며, 전시, 체험존을 통해 인근 지역의 다채로운 단체들이 축제가 참가한 점도 돋보임. 다양한 협찬사들이 함께 한 점도 축제 자립의 가능성을 엿보게 함 ○ 지역단위에서 참가한 운영요원들이 다수 였으나 축제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안내소에서는 차량통제시간의 셔틀버스 정차위치등을 잘 알지 못했고, 꼭 필요한 시간, 위치에 안내요원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 셔틀버스 시간, 교통통제 여부 등의 사전공지 등도 아쉬움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역사의 밀양문화제를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켰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아리랑'을 주제로 하여 콘텐츠를 확장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있음 ○ 시민배우 1,000여명이 참여한 밀양강 오딧세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성 및 지역문화 계승이 돋보였음 ○ 밀양 농업&먹거리 상상관 운영의 경우 도시 내 주연령층과 직업층을 고려한 농업에 특화된 기구 및 묘종 등의 홍보로 지역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홍보 효과 가능성 제고 ○ 축제대표프로그램인 '밀양강 오딧세이'는 시민배우 1,500여명이 참여한 야간멀티미디어 쇼로 인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관광객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바 관광객 참여형 대표프로그램에 대한 발굴 노력이 필요함 ○ 축제 지속성확보를 위한 축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임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연예인 조정을 통한 예산소비등을 하지 않아 축제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 ○ 민족의 자산이자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아리랑' 축제를 디딤돌 삼아 밀양강 오딧세이나, 아리랑 주제관 등을 상설화 하는 것도 모색해 볼만함 ○ 대표 프로그램인 "밀양강 오딧세이"의 실행이 일회성 공연을 넘어 밀양시의 대표적인 상설 문화 상품화 할 수 있는 공연 콘텐츠 기획과 구성으로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할 것임

40

제주들불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8년 3월 1일(목) ~ 3월 4일(일) / 4일간
- 장 소 : 제주도 일원(주행사장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
- 주 최 : 제주시
- 주 관 :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 주요행사
 - 무대행사(10) : 세계문화교류 특별공연, 개·폐막식, 화심대행진, 희망달집 태우기, 주제 공연(화회대동), 제주농요공연, 오름불농기, 읍면동 음악잔치, 젊음의 축제, 마조제
 - 광장행사(7) : 전도풍물대행진, 풍물경연대회, 도민대통합 경연대회(줄다리기, 뚝돌들기, 집줄농기, 녀동베기), 달집만들기 경연, 새봄 새희망 묘목 나눠주기, 들불 방애재 판매관, 마상마예 공연
 - 체험행사(19) : 축제캐릭터 만들기, 들불 LED 쥐불놀이 체험, 축제사진 전국 콘테스트, 짚공예품 체험, 새별오름 향초만들기, 전통아궁이체험, 들불 스마트폰 사진전시회, 추억의 가족놀이 체험, 화심 만들기, 제주에 색을 입혀라, 대형부림깨기 체험, 승마체험 교실, 제주말총공예마을, 느린 우체국, 야생 불피우기 체험, 들불 SNS 릴레이 홍보, 소원길 운영, 연날리기 체험, 도민대통합 경연 체험(뚝돌들기, 집줄농기, 녀동베기)
 - 부대행사(13) : 농수축산물 그랜드 경매세일, 전문음식점, 향토음식점,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관, 축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힐링 쉼터 운영, 외국인 전용카페, 말테우리길 운영, 쓰레기 줄이기 홍보관(나눔장터 통합), 전통찻집 운영, 종합주제관(종합홍보관, 들불축제 역사관, 전통음식, 목축문화 역사관, 4·3 70주년 홍보관
 - 특별행사(3) : 들불불씨 채화제례, 서막행사, 들불불씨 봉송행사

(2) 총 평

- 잘된 점
 - 소재의 차별성과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구성
 - 타 축제와 차별화된 핵심콘텐츠 "불" 제주의 지리적 특성(오름)을 살린 제주만의 공간

활용과 불을 연계한 콘텐츠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높은 잠재적 가치가 있으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제주다움”에 잘 어울리는 콘셉트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특히 제주의 지역성을 담아낸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음원, 시각적 효과, 놀이)을 잘 구성함

○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행된 축제운영

- 축제 소재인 ‘불’의 특성상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관련 기관과의 협조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아울러 일반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잘 관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축제운영은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 지역사회의 높은 축제 참여와 지지

- 마을 단위로 축제기간 동안 몽골텐트에 상주하며 축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축제의 많은 부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었고, 축제장에서 제공되는 음식도 제주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음식으로 구성하는 등 축제의 기획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 소재로서 ‘불’의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불’을 축제의 소재로 활용함에 있어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단순한 행사로 운영하는 아쉬움이 있음. 예를 들면 축제 소재로서 불은 들불놓기 뿐만 아니라 채화 및 봉송, 유지 과정 모두 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의미부여가 부족하고 다양한 활용이 부족함
- 또한 삼성혈 채화프로그램의 의미와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계설명이 부족하고, 축제기간 동안 불씨의 관리 또한 중요한 불거리가 될 수 있음에 반해, 이를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데 미흡함. 따라서 단발성 축제가 아닌 제주만의 지속가능한 고유자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과 관련된 제주설화와 의미 있는 체험을 이끄는 스토리자원의 접목이 필요하고 들불축제가 가지고 있는 구복과 방애에 대한 요소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축제 프로그램 몰입도를 올리기 공간 재구성 필요

-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에 불을 놓는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함. 특히, 주무대 관람석 외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려있는 성화대 언덕에서 관람 시 시야를 방해하는 구조물(몽골텐트)이 있어 관람객의 몰입을 방해함.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또한 몽골텐트를 동별로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이 축제기간동안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게 유도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나 몽골텐트의 공간의 배치에 있어 현재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스트리트형 공간배치 보다는 원형 혹은 궁정형으로 하여, 원형의 안쪽마당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할 경우 또 다른 축제의 불거리가 될 것으로 보임

- 축제장 차량동선 관리 및 안내체계 미비
 - 축제 프로그램 종료 후 귀가차량들이 일시에 한 방향으로 몰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였고, 우회도로 안내 및 유도가 없어 불편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축제장 내의 종합안내소 운영 및 안내시스템이 다소 미흡하고 안내소 근무자의 대응이 미흡하여 상황에 따른 안내 매뉴얼 및 사전교육과 행사장 내의 안내표지판도 개선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불행사와 관련하여 말의 혼을 위로하는 제례인 “마조제”를 새롭게 기획하여 방문객들에게 들불축제가 갖는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있음. 방문객들은 들불행사와 함께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전통과 축제의 주제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화산섬인 제주도의 정체성을 재현해내는 스토리텔링을 제작하여 방문객들에게 들불축제가 제주도민의 화합과 염원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면서 제주도만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소개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음. 또한 개막식 행사로 진행된 자체 제작 공연은 축제의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생동감을 살리면서 강약조절과 적절한 시간 안배를 통해서 전혀 지루하지 않고,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축제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음 ○ 제주지역 특색 관광자원인 ‘오름’과 전통문화인 달집태우기 및 오름 불농기를 결합하여 제주 지역에서만 추진가능한 축제로, 지역대표축제로서 손색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들불축제와 관련한 스토리텔링(히스토리영상, 미디어파사드, 주제공연 등)은 축제의 역사, 의미 등을 강조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함 ○ 축제장에 놓인 새별오름을 단순히 방문객의 트래킹 코스로만 활용하면서 다양한 타겟 대상들을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방문객들에게 뜻 깊은 추억이나 장소적 가치를 제공해주면 더욱 의미 있고 생동감 넘치는 축제 공간이 될 수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을 이용한 축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안전관리에 매우 신경 쓴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인 새별오름 뿐만 아니라 능성이 이어진 인근 새별 공동묘지까지 소방인력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 ○ 들불이 실행되는 장소 주변에 방어막을 치고,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임 ○ 시내에서 행사장까지 근접거리가 아니지만, 주차장을 9개 운영하고, 셔틀버스를 기존 100에서 130대로 증원시킴으로써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달집 태우기 행사 전에 축제장에 매달아 놓은 각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의 소원을 담은 소원지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음 ○ 주차장 안내요원들의 일사분란함이 다소 부족하여 행사가 끝난 후에 매우 혼잡한 교통 상황이 발생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역에 배치된 안내요원들이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이고 친절한 태도보다는 다소 무뚝뚝한 면이 엿보임 ○ 다양한 노선의 셔틀버스가 운영되었으나, 새벽오름으로 가는 길이 1135번 도로뿐이라 셋째날(공식행사)에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관광객들은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승용차를 이용한 축제 관람객이 많았음. 승용차로 축제장 진입 시 주차료를 부과하는 등 승용차 대신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축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이 필요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에에서만 먹을 수 있는 몸국이나 빙떡과 같이 다양한 전통음식이 먹거리 장터에 배치되어 있어서 외지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은 우수함. ○ 제주도 43개 읍면동이 모두 참여하여 축제의 통합성과 단결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임. 또한 들불축제 봉송 퍼레이드를 평창올림픽과 연계시킴으로써 국민 대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제 추진 주체들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음 ○ 축제장 내 향토음식점이 모두 들불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인 제주시 애월읍 주민 참여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인상깊음. 본 축제는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 및 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특산품을 이용한 먹거리가 많았음.(브로콜리쭈전, 몸국, 흑돼지구이, 전복구이, 제주막걸리 등) ○ 들불축제에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였고, 그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고, 연신 “Wonderful”을 연발함. 그러나, 제주 들불축제를 알리는 현수막에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구체성이 결여된 채, 막연한 주제로 인상을 주고 있음. 예를 들어, 들불축제임에도 영어 현수막에는 통합적 개념으로 “fire festival”을 사용하고 있다. 불을 주제로 축제가 진행된다는 개념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좀 더 축제의 주제를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주최 측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주민, 경찰, 소방관들도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축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그리고 많은 변화와 다양한 콘텐츠를 재현 내고자 제작된 결과물들은 무엇보다 제주도의 들불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많은 노력과 의지가 깊이 느껴지는 축제라고 사료됨 ○ 축제장에서 축제 담당자들이 방문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으로 구체화시킨 콘텐츠에 맞는 복장이나 축제의 분위기에 맞는 복장을 갖추어서 방문객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축제의 대동성을 확보하면 더욱 멋진 축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5)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인 동원 등 과도한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음 ○ 홍보된 프로그램은 차질 없이 수행됨 ○ 새롭게 기획된 제레인 마조제는 매우 중요하고, 잘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듦. 그러나, 진행과정이 다소 지루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주고 있음. 향후 마조제에 다양한 요소와 재미를 가미하여 방문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함

2018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 설문조사결과 종합

김 재 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은 성 (인하공업전문대학 연구원)

◆ 2018년 상하반기 전문가 현장평가위원

강 준 수 (안양대 교수)	유 성 호 (문화지평 대표)
강 신 겸 (전남대 교수)	윤 성 진 (문화기획학교 상임이사)
구 문 모 (한라대 교수)	윤 주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구 효 진 (신라대 대학원장)	이 덕 순 (문화관광산업연구원)
권 상 구 (시간과 공간연구소 대표)	이 상 호 (부산대 교수)
김 세 준 (그린비전 대표)	이 수 범 (경희대 교수)
김 재 결 (한국관광학회 이사)	이 승 길 (남서울대 교수)
김 재 호 (인하공전 교수)	임 형택 (선문대 교수)
김 주 호 (배재대 교수)	이 병 민 (건국대 교수)
김 진 옥 (포시시랩 대표)	이 인 재 (가천대 교수)
김 태 영 (경남발전연구원)	이 종 원 (여행작가협회 회장)
남 문 희 (대전시의회 연구원)	이 진 교 (안동대 교수)
민 양 기 (충청대 교수)	임 동 혁 (대전문화재단 팀장)
박 상 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전 영 철 (상지영서대 교수)
박 용 재 (스토리산업연구소 소장)	정 연 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변 우 희 (경주대 교수)	정 철 (한양대 교수)
변 정 우 (경희대 교수)	조 성 연 (BK21 플러스 참여 연구원)
서 영 진 (여행작가)	지 진 호 (건양대 교수)
서 정 선 (더페스티벌 대표)	최 동 회 (광주대 교수)
심 원 섭 (목포대 교수)	최 영 기 (전주대 교수)
심 창 섭 (가천대 교수)	추 미 경 ((사)문화다움상임이사)
양 철 모 (문화기획자)	황 상 훈 (기분좋은 QX 대표)
오 순 환 (용인대 교수)	

발행연도 : 2019년

발 행 처 :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http://www.mcst.go.kr> 국내관광진흥과 [TEL. (044)203-2854]

ISBN : 979-11-6357-151-3 93330